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

[사도행전 묵상]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6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1-5)	8
예수님의 증인 (1:6-11)	15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12-26)	20
기도에 전혀 힘쓰십시오. (1:14)	25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2:1-13)	28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2:14-21)	35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2:22-36)	40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2:37)	47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2:37-41)	49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2:42-47)	54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3:1-10)	59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3:2)	65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 (3:11-16)	69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3:17-26)	7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4:1-12)	80
힐난할 말이 없게 하라! (4:3-22)	85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 (4:19-20)	91
일심으로 기도하십시오! (4:23-31)	97
합동작전, 합심기도, 합력형통 (4:23-32)	105
나눔의 삶 (4:32-37)	108
감추는 삶 (5:1-11)	113
믿는 사람 (5:12-16)	120
순종하는 사람들 (5:17-32)	124
존경을 받는 자 (5:33-42)	130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옵소서! (6:1-7)	136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6:1)	142
사탄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 (6:8-15)	149
아브라함의 하나님 (7:1-8)	155
요셉의 하나님 (7:9-16)	161
모세 (1) (7:17-29)	167
착각하지 마십시오. (7:25)	173
모세 (2) (7:30-35)	175
하나님의 임재 (7:30-35)	182
모세 (3) (7:36-38)	184
버려두시는 하나님 (7:39-43)	190
교회란? (7:44-50)	194
목이 끈은 그리스도인 (7:51-54)	199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7:55-60)	204
사울 vs. 빌립 (8:1-8)	209
무엇으로 인해 놀라십니까? (8:9-13)	215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8:14-25)	220
예수님의 제자는? (8:26-40)	225
“주여 뉘시오니이까?” (9:1-9)	232
“택한 나의 그릇” (9:10-19상)	238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9:19하-31)	244
성장하는 교회 (9:31)	250
교인 수만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이면 되는 것일까요? (9:31)	258
“일어나라!” (9:32-43)	261
고넬료 (10:1-8)	267
경건한 가정 (10:2)	272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 (10:9-16)	276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10:17-33)	281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 (10:34-48)	287
“내가 누구관대” (11:1-18)	293
안디옥 교회 (1) (11:19-30)	298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위로자 (11:23)	304
우리를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주님 (12:1-19)	307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12:20-25)	312
안디옥 교회 (2) (13:1-3)	316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13:4-12)	322
“이 구원의 말씀” (13:13-41)	327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13:25)	331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13:42-52)	334
은혜의 말씀 (14:1-7)	339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14:8-18)	343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 (14:19-28)	347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라! (15:1-11)	352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15:12-21)	357
위로의 편지 (15:22-35)	363
본질적인 짐을 지라! (15:28)	368
위로의 사역 (15:35-41)	371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1) (16:1-5)	376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2) (16:1-5)	380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 (16:6-10)	385
영적 민감함 (16:6-7)	390
기도의 능력 (16:11-40)	392
기도자의 만남 (16:16)	397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16:35-40)	400
예수님을 전염시키십시오. (17:1-9)	404
신사적인 사람들 (17:10-15)	410
새로운 것 (17:16-21)	414
믿을 만한 증거 (17:22-34)	418
두려워 말고 말하라! (18:1-11)	423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18:12-23)	427
성경에 능한 자 (18:24-28)	432
유익을 주는 아볼로 (18:27)	437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19:1-7)	440
말씀의 홍왕 (19:8-20)	444
우리의 경영 (19:21-41)	448

적지 않은 소동 (19:23)	454
사역자의 자세 (20:1-16)	459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 (20:17-27)	466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0:24)	469
모본을 보이는 장로 (20:28-38)	473
범사에 모범을 보여라! (20:35)	480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20:36-38)	485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21:1-14)	494
죽을 각오 (21:13)	499
“예루살렘이 이르니” (21:15-26)	501
오해 (21:20b-24)	508
사단의 전략 (21:27-36)	512
바울의 간증 (21:37-22:21)	519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22:22-29)	525
바른 신앙생활 (22:30-23:5)	529
담대하라! (23:6-35)	533
고소당하는 바울 (24:1-9)	538
바울의 변론 (24:10-23)	542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 (24:24-27)	546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25:1-22)	550
“살려 두지 못할 사람” (25:23-27)	553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증거하십시오. (26:1-23)	557
하나님께 원하는 것 (26:24-32)	561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27:1-26)	565
위기는 기회입니다! (27:23-25)	569
“구원을 위하는 것” (27:27-44)	573
피난처 (28:1-10)	579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관계 (28:11-15)	584
죽일 죄목이 없는 죄수 (28:16-22)	589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 (28:23-31)	593

결론

596

서론

안티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며 핍박하는 무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교회에서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교회당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행1:8).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족 친척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타민족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 전파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대적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역경과 고통과 박해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우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싶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엿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28장 23-31절을 묵상하다가 얻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산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탄의 전략 대로 움직여서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확산케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막을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의 확산 사역에 동참하게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8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5절]

어린아이가 동요의 한 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푹푹 약속해.” 어린아이가 약속을 할 때 즐겨 부르는 동요의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약속이라는 게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아는 모양인지 계속 약속을 다짐하는 방법과 절차가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새끼손가락을 걸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새끼손가락을 건 뒤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은 뒤 서로 손바닥을 맞대면서 ‘복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약속을 복사까지 해 놓았으니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 복사를 한 뒤 손바닥에 사인하는 절차를 추가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그들 나름의 삼중, 사중 잠금 장치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 서울 이 시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의 이 약속에 이러한 리플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이 시대 최고의 정치인 이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경합니다.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에 그래서 찬사를 보내고 좋아하는 거지요. 이 모 시장 파이팅!’(인터넷). 니체는 약속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다른 초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행적이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초대교회 때문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천상통치를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고 계심을 믿기에 사도행전을 목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2) 사도행전의 주제들인 기도, 성령, 교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말씀의 확장 등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귀한 주제들이라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목 상하고자 합니다.

(3) 이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내년 ‘전도와 선교/봉사’에 사도행전 책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목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서문인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약속을 주시는 자는 누구이신가?, (2)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3)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로, 약속을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개종한 이방인 초신 자였던 데오빌로(이름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각하”(눅1:3)(로마 식민지에 파송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로마인으로 추정)에게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도 써서 보내면서 이 사도행전 서문(1:1-5)에 자기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잠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핵심 요약은 바로 누가복음 1절 하반절과 2 절에 이렇게 적혀습니다: “...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 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즉,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의 핵심 요약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 전부에 관한 것입니다(유상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시작하심부터”, 즉 ‘시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저자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관한 기록의 “시작”에 불과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계속하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혹은 교회를 통하여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그의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십 일동안”(3절)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을 나타내셨는데(3절) 그 중에 하나가 사도와 같이 모이사(4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의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면서(눅24:42-43) 자신의 약속한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보이신 것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동사로만 표현한다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4절).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박윤선):

(1) 예루살렘이 역시 신약 운동 출발의 장소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보십시오: “...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 “신약 운동과 예루살렘과의 관련성은, 일반 역사의 원리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심 지대는 대중이 움직이는 곳이니,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그런 곳에서 시작될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진리가 전파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또한 명하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후 제자들에게 증거해 보이시면서 또 다른 약속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고 명하신 것은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뤄질 것을 확실히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약속의 주시는 자(The Giver of the Promise)이시자 또한 약속으로 주어진 자(The Promise Giver became the Given One) 이십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주님이 시기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민23:19)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둘째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 혹은 ‘제자들’

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2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4절).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부활부터 승천까지의 40일이란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셨습니다(2절).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과 승천사이의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고 명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유상섭):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신 사건과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 결국 예수님께서 40일간의 나타나심과 가르치신 목적은 그의 부활 증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메시지 선포 속에서 계속 강조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절대적 중요성을 예고합니다(유상섭).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의 고난(“해 받으신 후”)과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약속을 받은 제자들의 책임은 그 복음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면에서 ‘예수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의 내용은 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유상섭).

여기서 3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로서 (1)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명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행1:2).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2)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많아야 합니다(3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3)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가핀(Gaffin) 교수님은 성령세례는 한 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약칭 성령세례, 성령강림, 혹은 성령 선물 등으로 불리며, 또한 성령에 의한 세례라는 뜻이 있는 동시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큰 차이가 없으나 이 말의 요점은 신자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안영복 교수님은 오순절 날에 각 사람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가리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함이 타당하다고 했고 박영선 목사님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세례와 성령님께서 베푸실 성령세례를 구분했습니다. 또한 우희영 목사님은 성령세례란 성령 속에 잠기며 성령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름 붓듯, 혹은 물 붓듯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보증" 혹은 "성령의 인침"과 성령세례를 동일시했고 부루너 (Fredrick Bruner)는 세례 받는 것이 곧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며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개혁신학자 파디(Ren'e Pache)도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에서 동일한 견해를 표현하였습니다. 칼빈 또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일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 주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오순절과 웨슬레안 및 케직파의 견해와 개혁주의(칼빈주의)의 학설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중생 후에 받는 이 차적 경험으로서의 체험을 성령세례라 해석하며 후자는 중생 시에 받는 어떤 것으로서의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하여 성령세례라는 말이 7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을 살펴보면 성령세례는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서 나타난 오순절 사건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된 성령세례가 오순절 날에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죄인이 예수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결합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믿는 죄인을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머리 가 되신 그 신비 체에 들여놓거나 이끌어 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세례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의 체험이 중심이 아닌 역사적 구속사적인 사건이요 예수그리스도의 몸과의 결합이며 단회적 사건으로 성령 충만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은사는 마땅히 사모해야 하겠지만 성령세례를 사모할 이유는 없습니다(인터넷).

우리는 여기서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혼동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견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견해는 성령 충만을 성령세례와 동일시하여 오순절 때 제자들이 체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체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체험을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견해이고 성령 충만을 성령세례와 동일시하는 학자 중에는 토레이(R.A. Torrey)와 디기(D. Gee) 그리고 윌리엄스(E.S. Williams)등의 오순절 계통학자와 브루스(F.F. Bruce)와

옥켄가(H.Ockenga)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동일한 사역임을 주장하면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세례의 경우와 같이 불 같은 세례를 부으면서 충만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엡 5:8)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즉,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을 성령의 세례로 보았기에(행 1:4-5, 2:1-4)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과 동일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브루스는 ‘성령세례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며, 성령 충만은 그 후 여러 번 계속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성령세례를 성령 충만과 구별하면서 성령세례는 단회적 작용이지만 성령 충만을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성령세례와 동일시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은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과 정신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성령이 아닌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된 실례가 ‘심히 두려워하여’(눅 5:26)라는 문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데어는 그의 헬라어 사전에서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전체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점유는 그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 동사도 조격을 받고 있는데, 그 조격은 그 수단에 의해서 동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사의 행동은 신자에게 미치는 어떤 지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으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세례와 구분되어지는 성령의 인격적 지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와같은 견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성령세례가 오순절에 임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는 "성령의 충만은 성령세례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틀(J.S. Stott)는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세례의 결과이며, 세례는 독특하게 처음으로 얻는 경험이고 충만함은 영적생활을 계속하는 도중에 반복하여 받은 성령의 비상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성령의 영향아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보았습니다. 빌 브라이트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외에 R.팩슨, J.월 부어트, A.머레이 등이 성령의 충만을 인격적인 성령의 지배로 보고 있습니다(인터넷).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교리 요약입니다(인터넷):

(1) 성령세례:

- (a) 성령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즉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 (b) 성령세례는 물세례로 인표를 합니다,
- (c) 성령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d) 성령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며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2) 성령 충만:

- (a) 성령 충만은 성령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에게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입니다,
- (b)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 (c) 성령 충만은 게으름이나 죄로 인해 상실할 수 있습니다,
- (d)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e) 성령 충만은 비상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특별히 무장시키는 수단 일 때가 있습니다,
- (f) 성령 충만은 체험을 수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 (g)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항상 체험에서 찾는 것은 바르지 못하며 그것보다 오히려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약속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젠 약속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날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 하나는 그의 다시 오심입니다(재림).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느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특히 영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교회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마 16:18).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그 약속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신실하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임스 김 나눔(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증인

[사도행전 1장 6-11절]

쓰나 미나 카트 리나 허리케인과 리타 허리케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앞서 있어야 하는 말세지말의 징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the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란 문구를 읽으면서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누가복음 21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눅21:34).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경계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눅21:36).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함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6-11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witnesses)이란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리는 자들입니다(MacArthur).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그의 믿음을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불해야 할 값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순교”(martyrs)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이란 제목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은 어떠한 자인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주님의 권함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함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와 기한”(times or epochs)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6절).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5절)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를 주님께 여쭙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 회복은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 회복이었고 또한 경제적 회복과 사회적 회복이었습니다(김세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국가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유상섭). 이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 주시기보다 제자들의 질문 초점인 “때”에 대하여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너희의 알바 아니다’(7절)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함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에 한번 반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 회복을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 또한 이 미국 땅에 한국 동포들에게만 제한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작년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인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복음화해야겠다는 비전속에서 히스패닉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도행전 11장 19-20절 말씀을 통하여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시사 우리 교회 적용케 하시므로 히스패닉 사역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사 금년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사 히스패닉 사역을 시작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1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국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인종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 한국 민족에 게만 제한 되서는 아니 됩니다. 히스패닉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구원의 역사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뻗어 나아가는 것이지 한 민족에게만 제안 돼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는 우리 관점에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이니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인 1.5세나 2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을 복음화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함께 팀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곧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세우고 계심을 증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인 사도행전 11장 19-20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자세라 생각합니다. ‘왜 히스패닉 사역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사람도 공적으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느 면으로 보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그저 복종케 하셨기에 이렇게 히스패닉 사역을 시작케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authority)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라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6절, 유상섭)란 말에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첫 번째 답변은 7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 자체가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권능을 받지 못한 제자들의 생각이 잘 못되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말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부터 능력”, 즉 “권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파워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의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땅 끝 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주석).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임한 성령이 그로 하여금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능력으로 시작하게 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유상섭).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위로부터 능력”, “권능”은 복음 사역을 감당케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미 이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3:16).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읽으십시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승천)(9-10절). 이것을 유심히 주목하며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 두 가지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유상섭): 하나는, “너희 가운데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란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이란 사실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 방식이 곧 재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천사의 말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좀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 (1) 제자들의 질문에서 제기된 “때”(시기)에 관한 요소가 예수님의 답변에 전혀 등장하지 않듯이 천사들의 말에도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 (2) 승천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천사들의 예언이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식의 재림에 대한 천사들의 예언의 의미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청지기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로서의 사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의 양식으로 양육하는 것(눅12:35-48)으로 요약한다면 복음 전파와 말씀 양육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인 복음 전파와 말씀 양육 사역을 감당케 하시되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이어 나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가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 전파와 말씀 양육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이었던 “캐시 버넬”에 대한 “나에게 총을 겨눌지라도”란 글이 있습니다. 1999년4월20일 콜로라도 덴버의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의 총기 난사로 13명의 학생 과 교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저지른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 이런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학생들을 캠퍼스의 한군데에 모아 놓고, 한 사람씩 총구를 갖다 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음흉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 분위기 가운데서도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캐시 버넬입니다. 그는 죽음의 총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한다.’ 이 말을 들은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라”하며 총을 쏘았고, 결국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던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십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남아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는 신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미국 전역의 각 학교에서는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캐시 버넬의 순교적 결단을 기념하는 국기 게양대 앞 기도회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인터넷). 캐시 버넬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캐시 버넬과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길 기원하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장 12-26절]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직분은 직위(position)가 아니라 직능(function)입니다. 직분의 목적은 섬김이요, 희생이요, 종입니다.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고후4:4). 섬김과 희생이 없다면 직분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직분을 받았기에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자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때 직분자의 자격이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3장1-13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야 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하는데 근신이라 함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니 말과 행동, 생각 등을 삼가 조심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며, 구타하거나 다투지 말고, 모든 일에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며, 제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말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이 직분자의 기본적인 자격입니다(인터넷). 과연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 직분자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고전9:16-18). 교회의 직분은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조직 기능을 통하여 임직하므로 술선수범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움으로 해야 하며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 자를 모든 일에 본이 되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배도하므로 그 직분을 박탈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저는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26절 말씀 중심으로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란 제목 아래 직분에 관하여 한 3가지 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이란 “사도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십시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 한글 성경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적혀있는데 원어 헬라이어
본문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절의 뜻은 “이 직분, 곧 사도직의 지위”입니다(유상섭). 과연
사도의 직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가톨릭은 교황을 가리켜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전체교회의 머리고, 무오한(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교시를 성경보다 높게 생각합니다”(인터넷).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사도직의
계승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21-22절에 나오는 사도의
자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 사도직의 계승을 부인하는 이유는 사도직이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1세기 시대 때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직을 계승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직은 전체적으로
일회적이며 반복 불가능합니다. 직접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고 직접 주님의 사자로서의 임무를
받은 원시 교회의 일원일 그들을 후계자가 대신하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 직접 목격자이며
직접 파견 받은 자로서의 사도직은 반복과 계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 곧 “사도의 직분”이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비록 “사도직”이란 독특한 직분은 반복될
수 없지만 사도들의 교훈과 사도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인데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란
사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우리의 입을 열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용을 담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복음의 진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믿음의 진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신 주님의 이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책임입니다.

둘째로, 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 두 사도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사도 베드로는 유다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여야 한다고 “다락”(13절)에 모인 나머지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한 모인 수 약 120명의 무리들(15절)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가롯 유다의 배반(배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란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20절 상반절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결국 베드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안내한 죄”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를 범했는데 이 죄는 어둠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과 협력한 죄로서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유상섭). 그러므로 그는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세움으로서 2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109편 8절 하반절 말씀인 “...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를 성취해야 할 당위성을 오늘 본문 21-22절에서 역설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므로 동생 야곱에게 “식물을 위하여” 팔므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러한 영적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예서를 망령된 자, 곧 하나님을 욕되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은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직분은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큰 명예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직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의 우선순위를 교회 직분에 둡니다.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 그랬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체신부장관직을 제의받았을 때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장관직을 맡게 되면 아이들을 주일마다 가르칠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번은 기자들이 워너 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 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세상의 어떤 높은 직책 보다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인터넷).

셋째로, 어떻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비를 뽑으므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십시오: “제비 뽑아 맞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 하니라.” 가룟 유다의 배도로 말미암아 시편 109편 8절 하반절 말씀에 응하여야 했기에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인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다른 11사도들과 함께했었던 사람을 천거했는데 바사바라 하는 요셉(별명: 유스도)과 맞디아라는 두 사람이 후보자로 천거되었습니다(행1:21-23). 이 두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을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직분을 맡기기 위하여 선택함에 있어서 약 120문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4-2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우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러한 약 120문도의 기도는 사도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범(눅6:13)을 본받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예수께서 두 후보 중에 이미 택한 자 한 사람을 보여 달라는 기도입니다(유상섭). 그리고 그들은 기도 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맞디아를 뽑혀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행1:26). 그 당시에 제비뽑기 방식은 아마도 구약의 제비뽑기 관습에 따라 각각의 돌에 두 후보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릇에 넣어 흔들어 먼저 나온 돌에 이름이 적힌 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레16:8; 수18:6-8:10; 대상24:5, 31, 26:13-16; 느 10:34, 11:1; 시 22:18; 겔21:21)(유상섭).

과연 제비뽑기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방법입니까? 예장합동총회는 새 천년의 원년인 2000년에 개최한 제85회 총회(장소: 진주 교회당. 총회장: 김동권 목사)에서 총대전원 만장일치로 총회임원 선거규칙과 제도를 성경대로 제비 뽑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기득권자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서 무산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21세기의 원년에 열린 제86회 총회(장소: 충현교회. 총회장: 예종탁 목사)에 재 상정하여 총회는 성경적, 신학적인 토론과 논쟁을 거친 후 절대 다수 총대들의 지지를 받으며 재결의 하였다고 합니다(유상섭). 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선거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상섭 교수님에 의하면 제비뽑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제비 뽑힌 분들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여기시고 합당히 여기셔서 제비 뽑아 주셨으면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과 존경과 신임을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제비 뽑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사울같이 교만하여 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주장대로 자행자지 하다가 버림을 받는 불행한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유상섭).

어느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개척 때부터 십 수 년간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해 오신 분이랍니다. 그 집사님이 뒤늦게 직장을 다니게 되어 믿음생활을 예전만큼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른 성도님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 믿음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여 신년 초에 그 집사님의 직분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의 딸이 말하기를 도대체 엄마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기에 가지고 있던 집사님 직분에서 잘렸느냐며 창피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또한 그 집사님 남편도 슬슬 눈치를 보면서 당신 괜찮은 거야? 정말 괜찮은 거야? 하며 걱정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맡은 집사직분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집사직분에서 자른 겁니까?하며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이OO성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불성실 할 경우 직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OO성도가 집사직분을 박탈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해보건데 직장을 다닌 이후부터 교회생활 및 믿음생활을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집사직분 박탈당한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교회생활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는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한번 맡은 집사직분을 박탈할 수가 있느냐. 이걸 좀 심한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개의치 않다고 하며 묵묵히 믿음생활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내가 이OO 성도의 집사직분을 박탈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OO성도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기에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집사직분을 박탈했던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OO 성도의 경우를 보고 믿음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고전 4:2)(인터넷).

직분 받은 자로서 충성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겸손, 섬김, 중)

기도에 전혀 힘쓰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사도행전 1장 14절).

저희 교회 2008년도의 표어는 “기도에 전혀 힘쓰라”입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아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유숙하고 있던 다락방에 약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배경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십시오”라는 제목을 걸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 기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약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관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보십시오.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루에 한끼 저녁 식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긴급함(sense of urgency)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합심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에베소서 4장4-6절에 나와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한 약속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를 붙잡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4 가지를 기대합니다:

(1)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약 120 문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그리할 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세움 받기를 기대합니다.

- (3) 그 다음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입니다(행2:47).

결코 인위적으로 교회 성장을 꿈꾸기보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 (4)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과 4장 32-35절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세워지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 묵묵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온전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리오?”

[사도행전 2장 1-13절]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만일 놀라고 있다면 왜 놀라는 것입니까? 일반 어느 날 일본 과학자들이 땅속으로 50m를 파고 들어가 작은 구리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리조각을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일본은 고대 일본인들이 이미 2,500년 전에 전국적인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정부가 발근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과학자들에게 그보다 더 깊이 파볼 것을 종용했습니다. 100m 깊이에서 중국 과학자들은 조그만 유리조각을 발견했고, 곧 고대 중국인들은 3,500년 전에 이미 전국적인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에 한국 과학자들은 격노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200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갔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과학자들은 고대 한국인들이 5,500년 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인터넷).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는 이유는 마치 이 예화처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마치 한국 과학자들이 5,500년 전에 한국에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경악시키는 시대도 이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악행을 통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놀람이 아닌 긍정적인 놀람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찜 일이나 하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찜 일이나”란 말은 New Korean Standard Version에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리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오늘 본문에서 약 120문도에게 일어난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기에 주위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5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라고 서로 말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놀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선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진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몇 가지 생각나는 이유를 적어 봅니다:

(1) 바쁘(분주함)입니다.

가정을 보아도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자녀들이 각자 일에 바쁘다 보니 부모님의 입장에서선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다들 각자 일에 바쁘다 보니 다 한 곳에 모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2) 바쁘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보니 이러 저리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이러 저리 쫓기다 보니 우선순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세상에 살면서 삶 터전에서의 일에 시달리다보니 분주함 속에서 이러 저리 쫓겨 다니다가 결국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결국, 교회 중심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은 더욱더 심해질 것인데 우리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 약 120문도가 다 한 곳에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목상한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후 약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1:14). 이 “기도”는 사도행전에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기도에 대한 언급은 1장 14절에 처음 등장하여 28장 8절까지 무려 32회나 등장합니다(유상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1세기 시대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 교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유상섭). 이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1:14).

하나님의 은혜는 합심한 곳에 더욱 많아지는 법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서로 다투는 곳에서는 진정한 기도의 분위기를 이루지 못합니다(박윤선). 야고보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합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합심 기도를 드리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최고의 동역입니다.

(2)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행1:14).

이것은 끝까지 참으며 힘쓰는 의미입니다(박윤선).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나우웬).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생활화되지 못할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합심 기도의 능력과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1:13)에서 약 120문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구약 3대 축제 중 하나인 오순절에 이 120문도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2:1)(유상섭). 그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120문도들이 앓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2:2). 여기서 하늘로부터 홀연히 급하게 분
 “강한 바람”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루아흐”란 단어가 “바람”이란 말인데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 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삼상22:16; 욥37:10;
 겔13:13)(유상섭).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저자 누가는 120문도들이 앓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문구가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저자
 누가는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실(4절)을 2절에서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성령으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생명의 새 바람 성령이 120명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심으로 이 새 언약 백성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유상섭).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결국 이 120문도들은 사도행전 1장4절과 8절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므로 약속의 성취인 성령으로 세례를 경험하면서 더불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을 말합니다. 생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요 7:37-39). 성령 충만은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행 2:4; 4:31; 6:3, 5; 9:17).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머레이).
 기도하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시1:2).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전인격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인터넷):

(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성령 충만은 방해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의 결핍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소홀히 하고
 그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2) 우리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잠 16:18).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사단의 죄입니다(사 14:12-14).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벧전 5:5).

(3)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기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비기독교인 사회의 행위와 표준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벧전 2:9) 복음을 부끄러워 말아야 합니다.

(4)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선을 끊어버립니다(시 66:18). 그리스도인의 심중에 아직도 곱개하지 않은 육체적, 인격적, 정신적, 영적인 죄악이 한 가지라도 도사리고 있다면 결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5) 우리는 세속적 쾌락에 물든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속 사회의 풍습에 젖어서 살려는 욕망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 비 걸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마 6:24-33).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했으므로 죄인이 회개 안하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욱 크다”(인터넷).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큼을 알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보므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십시오: “...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오순절 날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3절).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120문도들은 방언들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방언들은 “그 때에”(5절) 모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였습니다(6, 8절). 여기서 “천하 각국”이란 말은 15개국 혹은 15지방들을 가리키는데 그 때까지 알려진 세 대륙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지방들이었습니다(박윤선).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5절에 예루살렘, 9절에는 유대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로마가 각각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한 방언들은 그 당시에 천하만국을 대표하는 15개 지방(지역)들로서(유상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바울의 관점에서는 “로마”) 이르러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들의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상기 시킵니다. 인간의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시고자 언어를 다양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13절에서는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하였을 때 각각 제자들이 천하만국을 대표하는 지역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11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the mighty deeds of God)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 주석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잠잠한 편인데 몇몇 주석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praising Go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The Bible Exposition, The Bible Knowledge). 바빙(H. Bavinck)에 의하면, 천지 창조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였고(욥38:7),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고(눅2:13-14), 오순절 성령 강림이 큰일인 고로(2:11) 역시 찬송의 목적으로 기적적인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박윤선). 결국 오순절의 사건은 바벨 사건의 반전(reversal)인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자기 자신들을 찬양한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강림은 120문도들로 하여금 천하만국을 대표하는 방언들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바로는 사도 시대 때 방언은 단절(cessation)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언은 없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서 좀 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시대 때의 방언은 단절되었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까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방언이 우리 시대에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된 방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는가 하면 또한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랑삼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한다는말이 성경에는 없건만 방언을 하면 웬지 다른 교인들보다 내가 더 성숙함 것처럼 착각하는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사도 시대 때의 방언에 대하여 한두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첫째 원리는, 방언이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언한다는 말씀이라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과 말씀을 우리는 떼어 놓고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둘째 원리는, 방언이란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교회에 덕이 돼야 하며(26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28절)해야 합니다. 한 2주전에 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21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 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찬양하던 영어로 하던, Espanol로 하던, 각 나라와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므로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기원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4-21절]

21세기에 들어와 대규모로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환경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황폐하게 만든 탓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이 세상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 주의적 전통에선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과 역사 섭리 안에서 서로 연결점을 가지면서 자연 재앙 속에서 우리 인류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세 가지입니다(인터넷):

(1) 개인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 개인들이 자연에 대한 바른 삶, 이웃을 향한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2) 사회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은 윤리적 범죄였으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보내심으로써 도시를 소멸하셨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불법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의 재앙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모두 쓰러가셨습니다.

(3) 종말에 대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 때의 징조는 자연의 재앙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 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세상 종말의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같이 답 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24:3하-8).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그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3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함을받은 120문도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강림할 때 모인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5절)과 큰 무리들(6절) 앞에서 일어서서 설교를 하면서 120 문도들이 술 취하지 않았냐고 말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120 문도를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13절)고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제 삼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이기에 “120 문도들이 당시 문화적인 관습상 그렇게 이른 시간에,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닌 오순절 축제일에 술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함” 베드로는 증거하였습니다(유상섭).

인터넷 뉴스를 보니 “美동포, 작년 1인당 소주 12병 마셔”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팔린 소주(진로와 두산의 소주 판매량)는 총 273만 병으로, 전해 228만 병에 비해 무려 20%가 증가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진로와 두산의 양대 브랜드인 참 이슬과 산 소주의 판매량을 집계한 것으로서 소주 판매량을 연방 센서스의 캘리포니아 주 동포 인구자료(전체 24만1천923 명)를 토대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12병을 마신 셈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교회에서 술 애 기 나오면 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적혀 있는가?’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저는 “소주를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목상하면서 글을 써서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짧게 요약을 한다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한국에 있을 때에 많은 젊은이들 가정 냉장고에 참 이슬 소주 한 병씩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떤 형제 집에는 양주가 있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 좀 더 살면서 한국 회식 문화를 좀 듣고 보면서 술자리를 피하기가 참 힘들고 술 한 잔 권면에 ‘No’ 하기가 쉽지 않는 문화라는 것을 피부로 조금 더

느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세상 젊은이들과 같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용화되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의 염려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술 취함이 방탕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술을 가까이함에 있어서 단호히 "No"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물론 술 취함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으니 술 한두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지 술과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술은 성령 충만함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엡5:15). 세상적 지혜는 술을 마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시되 취할 정도로 마셔서 방탕하여 세월을 허송세월하라고 말할 것입니다(16절).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1:15).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21:34).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술 취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세상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생활의 염려 등등으로 술을 퍼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은 방탕함으로 세월을 허송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회사일과 사업상 할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단호히 술은 "아니오"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여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더욱더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1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120문도들이 술 취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요엘 2장28-32절) 말씀인 성령을 부어주시마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가 설교에 이 요엘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큰 무리가 목격하는 120문도들의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행2:11)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17절), 곧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사회적인 모든 계층"이 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또한 '꿈을 꾸리라'입니다. 이것은 곧 구약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순절 날 성령의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즉 예 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해 증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유상섭).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란 책에서 저자 고 옥한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혹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떤 죄를 계속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지겹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듣기가 힘들습니까? ...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 전도가 힘들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드림과 함께 충만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한 소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판단하시고 제하시도록 하는 원함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끈과 악한 제도로부터 주님께로 분리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 삶속에서 효력을 보기 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은 참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과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과 그것을 받는 것이 필요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충만히 채워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 지배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기도와 말씀의 풍성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뒤따르지 않는 원함은 지식적이고 피상적 사모함입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스탓트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잃어진 때에는 회개와 기도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령은 죄 때문에 슬퍼하시며(엡 4:30) 죄인에게 채워 주시기를 그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채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레만 스트라우스는 생활 주위에 있는 모든 시기, 위선, 거짓, 더러운 것을 버리고 진실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상냥하지 않으며,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죄를 회개하며 성결의 옷을 입고 사는 신자는 성령에 민감한 자이므로 성령 충만한 신자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이 내재하는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그 죄를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성령님은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3)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그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하는가 않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래서 그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간구하도록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덤 라레이도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나는 모든 죄와 부족한 점을 모두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순절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4)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죄책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죄의 세력에서 거룩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영의 더욱 충만한 내주는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를 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심이 사실이나 우리가 그의 내적 임재를 믿음으로 구하면 구 할수록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 충만히 오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네 빠쉬(Rene Pache)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첫 단계는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a)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그를 믿고 모든 일에 그를 바라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b)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어야 하며 (c)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거나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조건으로 보다는 이 조건에 의하여 성령 충만의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토레이(Torrey) 목사님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7단 계중 4번째 단계에서 순종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순종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의 순종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순종의 중심은 의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맡기는 일이야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 성령의 지배받음을 의미하는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의 실재를 체험케 되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과 의지의 순종 없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인격은 상대 인격을 인정하는데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 순종만이 성령 충만을 가능하게 합니다. 레만 스트라우스는 '빈 마음이 성령 충만의 첫 조건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완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최후 분부하심을 순종한 무리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점으로 보아서도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대한 순종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셋째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9-20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중 요엘 선지자의 말씀인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는데 “피와 불과 연기”는 많은 전쟁을 가리키며 해의 변함과 달의 변함”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 표현으로 환란들이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많은 전쟁과 환란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박윤선).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2004년 5월 전 세계 동시개봉)를 아십니까?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반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이는 대재앙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로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녹아내린 빙하가 대서양 난류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기상이변이 발생해 미국을 포함한 북반구 대부분이 인간이 살 수 없는 동토가되는 비극적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멕시코로 대거이동 하며 멕시코의 국경봉쇄로 비참한 궁지에 몰린다는 내용이 담긴 영화입니다. 2004년 5월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극 기후를 연구하는 북극 인근 8개국 과학자들의

모임인 ‘북극 기후영향평가 협회(ACIA)’는 "북극의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고, 북극의 빙하 지 대의 기온 상승 폭이 지구 평균치보다 2~3배나 높아 대재앙이 우려 된다"는 1천 8백 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북극 빙하가 모두 사라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지구 온난화. 미국 남부를 쓸대밭으로 만든 카트리나 등 허리케인의 규모가 커지고 발생이 잦아진 것도 지구 온난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증거는 북극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인터넷).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더불어 주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21절).

하나님의 경고와 유예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었던 홍수심판도 하나님의 사전 경고와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창6:12). 이처럼 경고-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노아에게는 홍수에 대비한 구원의 기회이며 당시의 인류에게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히11:7). 그러나 당시 패역한 인류는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 받았습시다(벧전3:20)(인터넷).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슬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슬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슬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길 기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사도행전 2장 22-36절]

가락국 건국 신화에 나오는 삼입가요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나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옴두꺼비”라고 불리는 독을 가진 두꺼비가 있는데 이 두꺼비는 알을 품으면, 전에는 뱀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두꺼비가, 일부러 독사를 찾아가서 독을 뱉어내며, 있는 힘을 다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독사에게 잡아 먹히게 되지만, 독사에게 잡아 먹히면서 남겨둔 독을 독사 뱃속에서 쏘아 독사도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두꺼비 뱃속의 알들은, 엄마 옴두꺼비와 독사를 먹이로 하여 건강한 새끼 옴두꺼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나오”에서 헌집은 바로 자식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어머니를 말하고, 새집은 자식을 뜻한다고 합니다(인터넷). 이 예화에서 얻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헌집”은 어느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집”인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배반하여도 “주 널 위해 비네 늘 빌으시네”(찬송가412장)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2-36절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14절)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는 첫 번째 부분(2:14-21)에서 120 문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 및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 말씀의 성취로 강조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20절)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21절). 그런 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14절)이보고 듣는 성령님을 120문도들에게 부어주셨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33절). 그의 이 설교 내용 중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란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하여 한 4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요?

첫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은 “내어준 바”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 여기서 “내어준 바” 되신 예수님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내어준 바 되셨습니까? 이것은 곧 영원 전부터(딤후1:9)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atoning death)을 이미 예정하셨고 또한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MacArthur).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1)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죽으신 것은 하나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박윤선).

누가복음 22장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 (2)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불법 자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9장 10-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불법 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바울은 이 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롬4:25).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 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8:32). 우리에게 최고이신 예수님을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 주시지 아니 하시겠습니까?

둘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즉,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부활). 이 사실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 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자기가 목격한 것 외에 또 다른 증거로 구약에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30-31절).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 말씀 인용의 핵심인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맹세(“맹세로 맹세하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실 것을 예언한 맹세로서(삼하7:12) 다윗이 “알고”(행2:30) 또한 ‘미리 본 것’(31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의 왕위에 즉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메시아를 다윗의 왕위에 즉위시키기 위해 메시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신 것이다”(유상섭).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체로 하여금 희망에 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31절)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육체는 희망(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육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셋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여기서 “생명의 길”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육이 아울러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27절, 박윤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편 16편 8-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행 2:23)과 부활하심(24절)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육의 구원이 있음(21절)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걷기보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면서 멸망의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서 죽음 후에 삶을 부이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죽음이 최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에게는 죽음이 최후가 아닙니다(박윤선). 오히려 죽음이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편 16편 10절 (행2:27)에서 고백을 한 것은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임을 사도 베드로를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면서 다윗이 그 미리 내다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 가지 청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마지막 넷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은 높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를 높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가 시사 그의 오른편(손)에 앉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보좌 우편에서 다윗의 왕위에 즉위하셨습니다(유상섭). 이 하나님 우편에 즉위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천상보좌에 천상 통치자로서 최초로 행한 통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순절 날에 120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33절).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 오순절 사건은 예수께서 통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합법적으로 개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대사건이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하게 알기를 촉구했던 것이다(행2:36). 이제 예수께서 천상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의 부어주심 사건이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찬송가 144장 2절을 보면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부를 때 자주 ‘저 무지한 제임스 메시아 죽였네’라고 바꿔서 부르곤 합니다. 그 근거는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욱을 보임이라.” 물론 여기서 “배교”를 말씀하고 있지만 찬송가 412장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므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욱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사도행전 2장 37절]

지난 주 우리 교회 부흥집회로 오실 김 목사님의 한국 복음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담당자가 김 목사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흥집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김 목사님의 대답은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흥집회를 앞두고 제 마음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기도회 때 다가오는 부흥집회를 더욱더 준비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찢림이 있길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려는 노력조차 기피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우리는 다윗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였습니다(삼하24:10). 다시 말하면, 양심에 찢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 그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과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십시오: “...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행26:20),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3:8).

진정한 회개(Repentance)가 우리 가운데 있을 화목(Reconciliation)과 회복(Restoration)과 개혁(Reformation)과 부흥(Revival)이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회개를 통한 화목과 회복과 개혁과 부흥을 꿈꾸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7-41절]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이란 책에서 “내적 변화 없이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헛수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교회가 교회의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문화연구소 홈페이지(2002.7.11): “’관’이 바뀌었다”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 10가지로 이의용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변화입니다. 피아노를 하드웨어라면 악보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크고 성능이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 악보 같은 것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품을 만드는 데는 넓은 사무실이나 재료가 그다지 들지않습니다. 컴퓨터 몇 대와 훌륭한 두뇌가 일할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 소프트웨어의 종교이지, 하드웨어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회는 하드웨어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실내장식, 부동산 같은 것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가르침과 거기에 담긴 보이지 않는 기독교적 문화요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독교적 문화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어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적변화로부터 오는 행동의 변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적변화가 결핍된 행동의변화의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이러한 열매조차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달라스 윌라드는 “내적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드럽고도 엄한 내적 변화의 과정은 우리 영혼과 주변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임재를 통해 시작되고

지속된다”(윌라드). 과연 우리는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적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임재를 통해 내적변화를 경험하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꺾어진 세대(perverse generation)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9:41; 행 2:40). “꺾어진”(perverse)란 말은 “곧은/똑바른/일직선의”(straight)의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굽은, 만곡한, 뒤틀린”(crooked)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뒤틀린 시대란 말입니다. 뒤틀린 마음과 뒤틀린 생각, 뒤틀린 행동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뒤틀린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뒤틀린 말과 행동들이 자행 자해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금요일에 들은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실(윤리)보다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잣대 혹은 기준이 뒤틀려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기의 또는 국가의 유익이란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개별성을 강조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은 상대론주의(relativism)에 빠져서 각자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꺾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행2:40).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꺾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무반응 해야 하는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영적 반응/무반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화기계의 면역 무반응에 관여하는 세포 규명”(서울대 강창울 교수)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우리 몸에 “면역 반응”(immune response)과 “면역 무반응”(immunological tolerance)이라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면역 반응(immune response)이란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은 크게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면역 세포가 공격을 가하는 상태를 말하고 면역 무반응(immunological tolerance)이란 무해한 물질에 대해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면역 무반응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나 자신의 몸으로부터 유래한 항원(자가 항원)에 대해 면역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안에 ‘영적 면역 반응’이 작동되어 세상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사상들과 유혹들, 죄악된 것들을 면역 세포인 우리의 신앙이 공격을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면역 무반응” 상태에 있지 아니한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야 하며 무엇에 무반응 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구분해서 실천해 옮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을 한 3,00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리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므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돌밭에 뿌리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뿌리어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해야 합니다(마13:19-22).

(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찢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히4:1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찢림(conscience-stricken)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농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단단한 부분들을 부서트려야 합니다. 팽이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단단한 부분들이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3)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므로 마음에 찢림이 있었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41절) 마음에 찔림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38절). 이들은 된 말 씀을 통하여 마음(양심)에 찔림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만 말씀에 양심이 찔리고 설교만 끝나면 그냥 그 전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까? 과연 요즘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후 그 목사님에게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삶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변화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적극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하며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 마음과 양심에 찔림을 사모할지언정 거부하며 피하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찔림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며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답에 순종하므로 삶에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 성령 충만함 속에서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린바 되었던 심령들이 다 함께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죄 사함을 얻으라”고 대답하였습니다(38절). 여기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38절). 여기서 “회개”란 “마음의 변화”(박윤선)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36절)를 회개하므로 더 이상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이심(36절)을 부인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를 자신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지,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를 일으킬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어도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회개는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고, 대신에 하나님의 편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계속해서 우리 옛 행위를 고집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의

부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가 참된 회개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또 한 가지,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소속돼 있는 교단 헌법(PCA The Book of Church Order 56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는 은혜의 언약에 인을 치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며, 죄 용서, 중생, 양자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인을 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 물로 뿌리거나 씻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를 씻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능으로 죄를 억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 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미 죄를 회개한 후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의 변화, 감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마음의 혁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변화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과 꾸준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 내면은 그리스도를 닮는 쪽으로 점점 변화된다. 외면생활, 특히 행동의 변화는 자연히 따라온다”(윌라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꾸준한 행동”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하며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양심이 찢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찢림 속에서 마음의 변화부터 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꾸준한 행동”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들춰지는 죄들을 회개하므로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지성, 감성, 의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찢림이 있는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하므로 죄 사함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47절]

릭 위렌 목사님(새들백 교회 담임)은 이러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다.” 교회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교회는 친교를 통해 더욱 따스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고, (2) 제자직을 통해 더욱 깊어지며, (3) 예배를 통해 더욱 강건해지며, (4) 사역을 통해 더욱 넓어지며, 그리고 (5) 전도를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보다는, 사역과 선교를 위해 동원되는 교인들의 퍼센티지가 그 교회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보다 정확한 척도입니다(인터넷).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더욱 강건해지며, 교육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사역을 통해 더욱 넓어지며, 교제를 통해 더욱 따스하게 성장하며, 전도를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4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도 좋지만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주님이 더하시는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과연 주님이 더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는 첫째로 4가지 일에 전혀 힘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후 한 4가지 일에 전혀(지속적으로) 힘을 쓴 것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전혀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었기에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혀 힘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예수님의 발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그린바 있습니다(2:46; 8:35; 10:39)(유상섭).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총신 신학교 한 교수님의 시험 질문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말씀. 성도님들 개개인 마다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 서로 교제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 서로 교제하며...”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인 “교제”(fellowship)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있는 교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함께 나눈다는 의미이고(공유) 둘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분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단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둬나기 이전에도 해왔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나눔 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중보기도 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러므로 단순한 사교적 활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재미있는 대화나 나눔과는 다른 근본적인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유상섭).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약 3000명 새로운 성도들이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헌신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와 단결을 이룬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과 핵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습니다(유상섭).

(3) 성찬에 전혀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 떡을 떼며 ...” 학자들은 주로 이 말씀은 “성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들은 성찬에 전혀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성찬을 4번에서 6번으로 늘여서 두 달엔 한번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음을 가리킵니다. 또 한가지 사실은 “기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고 저자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120문도의 기도 (1:14)를 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가 3천 명으로 확장되었을 때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교인들의 수적인 성장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기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임을 확인시켜줍니다(유상섭).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심으로 헌신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한 마디로 결과를 말한다면 교회가 불신자들 사회에서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박윤선). 요즘 교회의 영적 권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사회에서 얼마나 추락되어 있습니까? 교회란 공동체가 전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에 헌신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과 분열로 말미암아 불신자들 가운데서 교회는 영적 권위를 너무나 많이 잃은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를 향한 두려움, 경외심없이 보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초대 교회 “기사와 표적”과 같은 하나님의 특수한 역사가 교회에 없기에 교회가 우습게 여김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힘써야 할 것에 힘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참된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우리는 전혀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로서 영적 권 위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매 주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고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4-47절에 근거하여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나누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재물 공유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모두 각자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후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동 분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재산 공유가 각 성도들의 사유 재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내의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부동산(재산)이나 동산(소유)을 팔아 처분하여 이러한 필요를 해결했음을 보여줍니다(유상섭). 예루살렘 교회 내에 모든 사람이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는 자들 중에서 모두가 다 기증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궁핍의 문제를 다른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2)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말로 한다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에서나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전이나 집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a) 그들은 집 집 돌아가면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과

더불어 교인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유상섭). 그리고 이 식탁 교제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역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중심된 식탁 교제를 나누므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공 동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b)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중심된 식탁 교제를 나누는 후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그룹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4가지 일에 전혀 힘쓰며 성도의 교통이 있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47절).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였는데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혀 힘쓰며 또한 성도의 교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온 집”이 이전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호감을 갖고 보면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47절).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성도의 교통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섬기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사도행전 3장 1-10절]

진정한 복음 전도[날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크리스티그린]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서나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 전도 방식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개혁 운동인가? 단기 혹은 장기 선교인가? 전도지를 돌리는 것인가? 삶을 통한 전도인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전도인가? 하나님은 물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해 오셨고, 때로는 상당히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런 방법들 중 그 어느 것도 강조하지 않고 있다”(인터넷). 어느 시대에서나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 전도 방식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만큼 파워퍼(powerful)한 전도 방식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리스티 그린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 연합을 언급하고 있는 전도 훈련 책자와 강의는 별로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참된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므로 그런 연합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한 모임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그런 모임이 마치 자석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사실이다. 다투는 교회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성적인 다툼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다. 성도들의 순수한 연합은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도구다”(인터넷).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 42-47절에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47절)를 목상했습니다. 그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임을 배웠습니다(47절). 다시 말한다면 그 초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을 끌었던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용우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외롭고 뭔가 뿔뿔러버린 가슴을 가지고 들판을 방황하는 하이에나와 같은 심령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쾌락과 물질과 외형적 편리함만을 쫓아 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생명과 괴요, 정신병이요, 패역함뿐입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이 마음에 진실로 진실로 원하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정'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함, 정, 부드러움, 아름다움, 행복, 사랑입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정이 있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곳에 저절로 찾아옵니다. 안 가면 미치겠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자신들의 심령 상태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이니, 현대인들이 교회에 매력을 느끼겠어요?”(인터넷).

우리 교인들은 매력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힘을 써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사도행전 첫 이적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0절 말씀 중심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란 제목 아래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갈급한 심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급한 심령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2절)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2절). 그러던 중 하루는 “제 구시 기도 시간”(1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3절). 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며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하였을 때에(4절) 나면서 앓은뱅이 된자는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때에 이 앓은뱅이 된 자가 갈급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순간적인 대답은 ‘금이나 은’(돈)일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대답이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이 앓은뱅이 된 자가 앉아서 구걸했던 “미문”(2절)(Beautiful)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앓은뱅이 된 자가 앉아서 구걸했던 “미문”(Beautiful)은 그 10개 문중에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진 열 번째 문으로 흔히 니카노르 문(Nicanor Gate)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유상섭). 지금 앓은뱅이 된 자는 여기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기에 돈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Win & Charles Arn 박사들이 쓴 책 “The Master’s Plan for Making Disciples”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흥미로운 도표가 나오는데 그 도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확대가족(Extended Family) 식구들이 언제 복음에 매우 수용력이 높은가를 알려주는 도표입니다. 그 도표에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몇 가지 목록을 말하자면 배우자의 죽음, 이혼, 별거, 가까운 가족 식구 멤버의 죽음, 개인 부상이나 병, 직장에서 쫓렸을 때, 은퇴 … 이 두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periods of transition”(과도기: a span of time in which a person’s or family’s normal, everyday behavior patterns are disrupted by some event that puts them into an unfamiliar situation) 있는데 그 과도기를 제공하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최근이면 최근일수록 그리스도나 교회와 같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해야 할 우리 확대가족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별 문제도 없고 이례적인 방해가 없다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나 교회가 같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와 ‘과도기’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시” 그러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한 앓은뱅이 된 자처럼 매 주일 마다 교회에 그냥 갈급하여 (무엇인가 필요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중보기도 대상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중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에 갈급한 심령을 파악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것은 “집중적인 주시에 의한 인격과 인격의 접촉을 가리킵니다. 인격과 인격의 참된 접촉은 서로의 시선을 맞추어 직시하는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박윤선).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집중적인 주시에 의한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게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 베드로는 자기와 요한에게 없는 것을 앓은뱅이 된 자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구걸하던 앓은뱅이 된 자에게 실망되는 말입니까?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던 앓은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의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충분히 낙심시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는 앓은뱅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앓은뱅이 된 자가 요구하는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척한다면 그것은 더 상 대방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요구에 없는 것은 없다고 명백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com 시사 디지털 스토리 인터넷 기사 “이것만은 버리고 가자.../뿌리 깊은 허세病’(이환경 방송작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장점에 의해 감춰지고 보완되는 것일 뿐 조금씩 그 분수를 벗어나는 결함을 지닌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분수에 어긋남 중에 무엇으로도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른바 ‘척’이 그것이다. ‘척’은 ‘체’라고도 한다. 모르면서 아는 척, 못한 것이 잘난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이 ‘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과시욕을 그 근거로 한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병에 속한다. 왜냐하면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여 내세우고 거짓으로 진실을 위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척’이란 것은 그 실체를 파헤쳐보면 허세 허식 허영과 다름없으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과장 사치 낭비 거짓 탐욕까지도 이 ‘척’에 속한다. 이 병의 원인은 그만큼 자신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데 있다”(인터넷). 우리 없는 것을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우리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내게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을 요구하면서 구걸하고 있는 앓은뱅이 된 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 총신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한 강도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 가지 들은 이야기는 총신 신학교 한 교수님의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는 시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험 질문은 ‘성도님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개개인 마다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다 다들 수 있겠지만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앓은뱅이 된 자의 입장에서 금과 은이 제일 필요로 하여 그것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앓은뱅이 된 자가 제일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앓은뱅이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 했습니다(6절).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이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어떠한 마술 공식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권위와 영향력을 대표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은 성령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행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앓은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믿는 수가 날로 더하여졌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잡혀 와서 법정에서 서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본문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저를 잠간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역시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에는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행하시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앓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여러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인터넷).

송정미 사모님의 “예수”라는 복음서가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 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 먼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인터넷). 우리는 아름답고 영원한 “예수” 그 이름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주목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 생명을 얻는 역사를 더욱더 보길 기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사도행전 3장 2절).

여태껏 성경을 읽다가 무심코 지나친 부분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읽으면서 스쳐 지나간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현대인의 성경)]. 여태껏 저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6절)고 명하여 그를 걷게 한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얼마 전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행3:2)이란 성경구절이 저로 하여금 이미 묵상한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두 성경 이야기의 연관성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란 제목 아래 묵상하다가 과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요9:3)이 무엇인지 3가지로 교훈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더하시고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2) 주님께서서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했던 유대인들과바리새인들의 불신의 죄를 들춰내시고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 주님께서서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3가지 받은 교훈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왜 주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3장 2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걷게 하셨는지 (6-8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처럼(요9:8) 사람들에게 “구걸”(행3:2)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두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금 된 사람은 “길”(요9:1)에 “앉아서 구걸”(8절)하였고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은 아예 걷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두면 그는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행3:2). 날마다 구걸하되 아마도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은 “사십여세”나 된 것을 보면(4:22) 그는 꽤 긴 세월을 “예루살렘”(16절)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걷게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3:8) “예루살렘에 사는”(4:16) “모든 백성”(3:9)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했습니다(10절). 이렇게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란 불리는 행각에 모”인(11절)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였습니다(12-26절).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요한을 주목하는데서(12절) 그들이 거부하고(14절) 그들이 죽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15절)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19절). 이렇게 그가 설교를 하였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수만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4:4).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는데(2:41)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는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3:9)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11절)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 온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4:1, 현대인의 성경)이 와서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개”한 것입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마22:23, 행23:8)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도들의 가르침과 점함을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싫어하여”(행4:2)].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3절). 그리고 이튿날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5절) 그 중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여하였습니다(6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 지를 물었습니다(7절). 그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도 설교를 하였습니다(8-12절).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공회 앞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다’라고 말하였습니다(10절). 그런 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11-12절)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13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및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놀랐습니다(13절). 그 이유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 것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담대히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은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15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그들 또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16절).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려고(17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18절).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보면 “대제 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17-18절)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한 것입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31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자 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33절,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도 사탄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 모의했고(요12:11)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습니다(행

5:33). 그 이유는 그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요12:11).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악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행4:13). 복음 전함을 싫어하여(2절) 자신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는(17, 18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및 여러 사람들 앞에서(1, 6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19-20절). 또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5:17) 자신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18절) 또한 심문하는(27절)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17절) 앞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29절). 그 결과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함을 당하고 놓임을 받았습니다(40절). 그러나 놓임을 받은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41절).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했습니다(42절).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여태껏 읽고 스쳐 지나갔던 성경구절의 한 부분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란 말씀(행3:2)에 관심을 갖고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과 연관해서 묵상하던 중 ‘과연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였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유익한 고민을 가지고 사도행전 3-4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그 계기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사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악한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며 또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구결”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같이 담대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

[사도행전 3장 11-16절]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무엘 리더퍼드(Samuel Rutherford)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람을 안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 옆에,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세워놓으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바람이 불지 않는 산허리의 양지바른 곳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또한 역시 바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이 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풍력에 저항하면서 진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토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산허리의 양지 바른 곳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람이 싫고, 산허리의 양지 바른 곳이 좋다’라는 확신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당장은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가짜 신앙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영원한 평안을 주는 진짜 신앙 편에 서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토저). 저와 여러분은 매일 어떠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가짜 신앙 편에 아니면 영원한 평안을 주는 진짜 신앙 편에 서고 계십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의 소유자는 “산허리의 양지 바른 곳이 좋다”고 그 곳만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처럼 바람을 앗고 세상 풍력에 저항하면서 그리스도를 좇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1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또는 잘못된 착각 속의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미 목상한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후 앓은뱅이 된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가 뒤에 서서 걸은 이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백성”(9절)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습니다(11절). 이 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12절).

만일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앓은뱅이 된 자를 일으켜서 소문이 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환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참 그거 기이하다’고 말하면서 모이지 않겠습니까?(10, 11절) 예를 들어 몇 몇 잘 알려진 부흥사 목사님들이 치유 집회를 연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목사님은 요즘 말로 하자면 뜨는 것이여 유명해져서 그 교회를 요즘 말하는 교회 성장이 확 실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문제는 그 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유명해지고 아주 잘 알려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이히 여기며 놀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12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고백이요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오히려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자기 개인의 권능이 없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인간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건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비취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사람들 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던 장로님이던 안수 집사님이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자 하기보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는 본능에 이끌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나기 보다 자기의 영광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자기가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능과 경건 같은 것을 자랑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욕에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인기 연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서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슈퍼스타(superstar)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스러움에 굴복하여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밝혀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어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동행할 뿐 아니라, 모든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인터넷).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앓은뱅이 된 자의 치유 이적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주목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1)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선포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1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앓은뱅이 된 자가 걷게 된 것은 그들이 잘 아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결안한 것을 너희가 ‘부인하고’(2x)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고자 오신 주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13-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므로 모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자기의 권능과 경건이 아무 것도 아님을 고백함(12절)]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 된 자가 낫게 되었음을 선포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가 행한 이적에 놀라서 그를 높이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하여 경계하였습니다(박윤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이적은, 그것을 행한 인간을 중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증거함입니다(박윤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기원하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7-26절]

역대상 4장 9-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부르스 월킨스 목사님은 그의 책 “야베스의 기도”(The Prayer of Jabez)에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삶의 최고 가치로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목적’이라는 강물 속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밖의 다른 모든 필요들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에 밀려 부차적인 것이 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과연 정말 부르스 월킨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밖의 다른 모든 필요들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에 밀려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모든 필요들을 최고의 복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7-26절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2)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복은 “죄 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 없이함”란 문구의 “없이함”은 죄악의 기록을 도말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blotted out”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의문” 즉 ‘서류/공문서’(document) 표면에 적혀 있는 잉크(ink)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용서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허물의 사람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32:1). 사도행전 3장 19절의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죄를 가리워 준다는 것보다 더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이 진리를 체험하였으니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부인한 후 통곡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일 경찰에서 저와 여러분의 범죄를 다 기록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범죄 기록이 증거가 되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의 결과를 맞아야 합니까? 근데 만일 경찰청장이 우리의 범죄 기록부를 다 없애라고 명해서 다 없어져서 이제 아예 죄 없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유쾌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의 번역은 “일·고통·의무 따위의) 일시적 중단[휴지], 소강 상태”를 가리키는 영어 “respite”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예: 출 8:15)(Bruce). 그 예로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심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란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 중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란 이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 중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된 영적 구원의 기회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 말은 회개하는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 평안을 얻음을 말합니다(박윤선).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 평안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20:19, 26).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에 대해서 논한다면 저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만유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유를 회복”하신다 함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복된 신천 신지의 시대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주님의 재림 때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영화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라”(롬8:21). 여기서 “피조물”이란 인간을 제외한 세계의 만물들을 가리킵니다(Hodge). 이 피조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쇠하며 부패해졌지만(20절)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피조물 또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회복 때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사11:9-10). 이사야 35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 무엇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행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행한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4-15절). 즉,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입니다. 베드로는 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딤후1:13).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에는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선포하였습니다: “…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의 예를 보십시오: “…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살전1:9). 진정한 회개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를 예배하며 섬긴다는 것은 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첫 번째 복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44:22).

(2)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일찍이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바(신18:15) “너희 형제 가운데서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선지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2:5)(박윤선). 그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모세는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신18:22).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하면 그의 예언이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세가 예언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 또한 믿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18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47절을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23 절).

(3)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들, 죄 없이함과 유쾌하게 되는 날과 만유 회복, 이 세 가지 복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미 죄 없이함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을 입을 때에 완전한 죄 없이함을 받을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또한 물론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결국 완전한 누림은 주님의 재림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만유 회복, 즉 신천 신지의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칼빈의 5대강령에서 다섯 번째인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생활은, 천국을 완전히 누리기 전에 벌써 천국의 첫 맛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렇게 천국의 첫 맛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몸의 구속”,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지난 주 CNN Top News를 보니까 이스라엘 총리 Sharon의 건강과 West Virginia 탄광에서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West Virginia 탄광 폭발 사고에 관심을 갖고 TV나 CNN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13명 중 12명이 죽고 26살 결혼한지 얼마 안된 남자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죽은 12명 중 32년 동안 탄광에서 일을 한 51살인 Martin Toler Jr.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쪽지에다가 쓴 짧은 글이 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Tell all I see them on the other side JR. It wasn't bad. I just went to sleep. I love you”[모두에게 내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해라 JR (싸인 입).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잠들은 것이다. 사랑한다)]. 이 형제의 조카인 Randy Toler은 말하기를 자기의 삼촌이 주일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대했던 말씀은 “save your affection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당신의 사랑을 땅에 것이 아닌 위에 것을 위하여 저장해 놓으라)였다고 합니다. 아마 골로새서 3장2절 말씀 같습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또 다른 죽은 삼대 째 탄광부였던 Jerry Groves(56)의 brother-in-law Bill Rogers이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Our only comfort would be that there was no suffering, that they would go to sleep, andthere it is”(우리의 오직 위로는 그들이 고통이 없이 다들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12절]

이슬람 성지 순례 때 “마귀 돌기둥”이란 곳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340여명 숨지고 1000여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귀 돌기둥”이란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든 무슬림들이 이슬람 최고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순례하는 연례 종교행사(하 지)가 8일 본격 시작됐었는데 이 메카 순례는 알라가 유일신임을 밝히는 신앙 증언과 하루 5차례의 예배, 종교세납부, 라마단(이슬람력 9월) 금식과 더불어 건강과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무슬림이 실천해야 할 의무로 꼽힙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마호메트)가 태어나고 알라의 집으로 불리는 하람 사원이 있는 메카에 몰려든 순례자들은 며칠 전부터 메카 인근의 미나 평원 텐트촌에 모여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순례를 준비합니다. 순례자들은 10일 메카로 돌아오는 길에 49개의 돌맹이를 미나 계곡의 돌산에 세워진 3개의 마귀 돌기둥을 향해 한 번에 7개씩 “악마여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던지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 의식은 돌기둥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례자들의 몸싸움을 유발해 집단 압사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메카 순례 행사 중 가장 위험한 의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이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251명이 죽었고, 90년에는 무려 1천426 명이 같은 사고로 숨졌습니다(인터넷). 알라가 유일신임을 밝히는 신앙 증언을 하는 자가 이 메카 순례를 할 수 있는데… 이 무슬림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슬람 국가는 UN 회원국 191개국 중 57개국이며 인구 60억 중 11억 명에 달합니다(인터넷). 12억의 무슬림, 세계 인구의 20%가 무슬림, 무슬림 100만 명에 2.7명의 선교사, 매일 4만 명의 무슬림 이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12절 말씀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만난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후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습니다(유상섭). “예수 안에서”란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부활과 승귀로 영화롭게 된 예수님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현재적인 실체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4:1) 와서 베드로와 요한 등이 백성을 가르침과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2-3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인 유대인들이었다고 말하면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회중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유일하게 가진 자들 이었고,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의 수비대장으로서 성전과 성전 주위의 질서와 치안 유지를 총책임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눅 20:27).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이들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자극했던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유상섭): (1)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권세가 전혀 없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친 것과(vs.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2)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vs. “사두개인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부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10절)으로 앓은뱅이 된 자가 건강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신’(raised)란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3장 7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베드로는 앓은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한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므로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삼 일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를 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본문 10절에서 베드로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란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뉘 이름”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10절)고 답한 것입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이것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 하게 서 있느니라”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음을 산헤드린 법정에서 선언한 것입니다(유상섭).

사도행전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20가까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건이 6번이나 나옵니다.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이름에는 “예수”가 많았습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지도층 유대인들만 해도 5명의 “예수”가 나옵니다. 서기관 예수도 있고 예루살렘 출신의 예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중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민족의 구원을 소망하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그 자녀들에게 “구원”을 뜻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인터넷).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치유를 주는 이름입니까? 육신의 치유입니다. 앓은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걷고 뛰었던 사도행전 3장 역사를 가리킵니다(3:8).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눅9:6).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의 긴밀한 연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앓은뱅이 된 자를 고친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께 서 주신 것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복음 선포에 힘을 쓰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처럼 치유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 즉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한글 개역성경의 이 번역의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어떤 다른 사람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결코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이다”입니다(유상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선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란 진리를 가리켜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찬 독설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유상섭).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던 모하마드를 믿던 석가모니를 믿던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괜찮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절대 적이고 배타적인 구원의 진리를 상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21세기의 기독교는 구원 진리의 배타성을 포기하도록 계속적으로 사회의 모든 방향에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만 포기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를 굳게 붙잡으면 온갖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박해 가운데서 더욱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도전함을 싫어하였지만(2절) 결국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사도 행전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의 수가 3천명이라고 하였는데(41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는 약 5천명이나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열매는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했을 때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는 육신의 치유만 받아 걷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인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8절을 보면 그는 뛰어 서서 걷기도 하고 뛰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 더 자세한 증거 구절은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순교한 목사님은 바로 영국사람 토마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목사가정에서 태어난 토마스는 아시아 선교에 불타 24살 때 중국으로왔고 거기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처음 듣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준비했습니다. 때마침 제너럴 웨만 호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그 배에 탔습니다. 배가 대동강에 도착하자 그는 그가 가지고 쪽 복음을 뿌리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한국말을 몰랐던 그는 다만 "예수"이름만 부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배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한국군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주 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배는 불탔고 사람들은 다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인중에 박춘근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백정 출신으로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외국인이 대동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그가 뛰어가자 토마스는 그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낮선 동방의 나라 무지한 백성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쪽복음을 꺼내어 군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춘근은 그것을 받는 등 마는 등 하고 칼을 빼서 힘차게 토마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토마스의 머리는 대동강변에 뒹굴었고 24살의 젊은 선교사는 사랑하는 부모가 기다리는 웨일즈를 등진채 낮선 이국 땅에서 순교의 피를 뿌려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박춘근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외국 사람이 죽어가면서 "예수, 예수"하던 소리가 자꾸 귀에 쟁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 소리가 왔습니다.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못살게 하는가? 그때부터 박춘근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60-70년대 한국교회 가장 최초의 집사들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가운데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인터넷).

나의 소망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힐난할 말이 없게 하라!

[사도행전 4장 3-22절]

“세상을 향해 던지는 금자씨 왈, ‘너나 잘하세요!’[송용덕 칼럼]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씨는 더 막강한 말로 세상의 입을 다물게 했다. 13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출소한 금자씨, 그 앞에 교회 목사님은 두부를 들고 나타난다. 교회 봉사자 밴드의 연주 속에 미소를 머금은 목사님은 아마 이런 말이 금자씨의 입에서 나오기 기대했을 것이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13년간 지옥 같은 교도소 안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앞으로 깊은 신앙생활과 함께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는 ‘주옥같은 말’을 말이다. 하지만 금자씨는 ‘낮은 목소리로 임하소서’처럼 차분한 톤으로 이렇게 짧은 말을 목사님께, 아니 세상에게 던졌다.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인용하여 썬진 글이 “크리스찬 투데이” (2006.1.12.) “시사칼럼”에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들이나 잘하세요”. 물론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인 “너나 잘하세요!”를 생각하면서 썬진 글이지만 왠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칼럼을 쓴 시민교회 안찬수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맛을 내는 것, 즉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인데 이것은 온 힘을 모아 기량을 보이며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른 소금의 기능인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패방지의 에너지인 정직과 성실한 모습에 있어서는 미약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나(당신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다시 말하면,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힐난할 말이 없게 하라!”는 제목아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힐난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나으면서 앓은뱅이 된 자가 걷게 된 일로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5절)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 질문했었을 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10절)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이 때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박윤선):

(1)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13절).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학교도 다닌 것도 아니고 랍비 교육도 못 받았기에 연설을 잘 할 줄 예상을 못했기에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베드로의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2)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13절).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도 아래 있었던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변론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3)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14절).

이적의 확실한 증거인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으므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적이 이모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유명한 표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만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美 13년전 사형수 DNA검사 결과 `유죄'란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3년전 처형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사형수인 로저 콜맨의 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된 DNA검사 결과, 당시 유죄판결은 옳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콜맨은 1981년 처제인 완다 맥코이(당시 19세)가 탄광마을인 그룬디의 자신의 집에서 강간당한 뒤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범인으로 지목돼 1982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92년 5월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DNA검사를 명령했던 미국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주지사 대변인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증거물의 DNA가 범인의 것과 일치했으며 “무작위로 뽑힌 다른 사람의 DNA가 증거물과 일치할 확률은 1천900만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981년 당시 19세의 처제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콜맨의 무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가라앉게 됐다고 합니다. 만일 이번 검사에서 콜맨의 무죄가 입증됐을 경우, 형이 집행된 사형수가 무죄로 판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돼 미국 내 사형폐지 여론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돼왔다고 합니다. DNA Test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려면: DNA 테스트 결과는 99.99 %의 정확도로 법정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DNA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힐난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적 DNA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힐난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120문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술 취하면 불신자들에게 힐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7-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힐난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가 치유를 받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에(16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17절) 가르치지도 말라(18절)고 하였습니다. 그 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19-20절). 만일 이러한 위협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꾀박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외부의 위협으로 그 진리를 숨긴다면 양심에 가책은 충분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숨기며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리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저항할 수 없는 마음과 열정(compelling spirit)이 결핍돼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리를 위협으로 막아보려는 행동은 가장 어리석다. 진리를 위협을 받을수록 더욱 전파된다. ... 진리와 사실대로 움직인 양심은 제재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양심이 진리대로 움직임을 제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관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자살과 같은 무서운 악이며, 그 결과는 멸망이다”(박윤선).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목격한 그들로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위협에 저항할 수 없는 복음 열정이 있었습니까?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in the sight of God)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에 사람의 위협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2)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속히 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훈련이 요구되는 신앙의 삶입니다.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음성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찬양으로 고백해야 하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3) 그들은 바른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바른 판단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므로 그 판단력 속에서 옳은 결정을 내립니다.

(4) 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는 진정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막는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살면서 진리와 함께 죽을 각오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우리는 증인 혹은 목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훈택 총신대학교 교수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지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의 활동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예수의 실제 제자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은 목격자들 혹은 증인이란 이름으로 구별되었다”(인터넷). 실제로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말씀의 목격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지금 말씀의 목격자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진술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은 법정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신의 진술의 신뢰성을 위해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을 최고의 검증으로 활용했습니다(인터넷). 바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혹은 목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힐난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힐난할 말이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말씀의 목격자가 아닌데 목격자인 것처럼 언행을 일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힐난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1절을 보십시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 40년간(22절) 앓은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표적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으므로(16절) 그 백성들이 목격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위협한 후 놓아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서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이 사건을 은폐해 버리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목격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힐난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대중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 외에 더 이상 어쩔수 없었었는데 결국 이들은 백성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힐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에 대한 백성들의 올바른 반응인 하나님께 영광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취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두움의 일이 들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힐난할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을 비취는 삶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들어내면 살아간다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행하신 주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 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2:12).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세움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

[사도행전 4장 19-20절]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4장 공부를 통하여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본문에선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패턴(pattern)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패턴과 현 시대 우리 교회들이 세워짐의 패턴이 정반대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의 패턴을 한 다섯 가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패턴의 명칭을 저는 “위에서 아래로 방법”(Top to Bottom Method)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1) 기도(31절, 참고: 1:14-15), (2) 성령 충만(8, 31절), (3) 복음전파(8-12절), (4) 믿는 자가 많아짐(4절, 참고: 2:47), (5) 사랑 공동체(32-37절).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이와 정반대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방법”(Bottom to Top Method)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1) 교회: 주님의 방법의 우선순위에서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지만 세상 방법은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 마음과 여러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교인 숫자: 세상적인 두 번째 방법은 교회 숫자 증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양 도둑”이란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평이동이요 양 도둑질로 말미암아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의 이름을 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 전도/선교: 세번째 방법은 마지못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4) 성령 충만: 네 번째 방법에 가서야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에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도 과연 성경적인지

감정적인지 신비스러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기도: 이 기도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상황과 느낌과 우리 생각에 치우쳐 부르짖을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23-24절) 기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기도를 보면서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십시오: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대주재”란 단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박해자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환경조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5-26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이로소이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시편 2편 1-2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7-28절에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3)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9-30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기록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란 말은, 이제라도 핍박 자들의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나 또한 표적과 기사 등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전파,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4:12).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a)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 “모인 곳이 진동”한 것은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표입니다(눅21:26; 행16:26; 히 12:26, 27; 시114:7; 사6:4; 등등 참조)(박윤선).

(b) 모인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

(c)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박해하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대적자들이 현실에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과 8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31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8절).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과 교회에게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1절), 관원, 장로, 서기관들(5절), 대체사장들 (6절)]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 [열방, 족속들(25절),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26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적인 박해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방해하며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선 내부적인 대적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므로(2절) 사도들을 불러 세워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고 물었습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8절).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야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만이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사도행전 4장1-20절에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성령 충만한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그와 다른 사도들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courageously)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13절)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성령 충만한 삶은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3)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복음전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10절, 비교: 7, 12, 17, 18절)으로 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12절)고 그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언함으로써 오순절 설교와 지체 장애인의 치료 후에 백성들에게 한말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복하였습니다(2:36; 3:15).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18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한 것은 마치 복음사가 “예수 그 이름”에서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고 말한 것처럼 사도들을 박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과 사랑을 모르기에 싫어하여 사도들로 하여금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17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넷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믿는 자가 많아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은 남자들의 숫자가 5천명이란 사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1) 5천명이 등장한다는 것(눅 9:14, 행 4:4), (2) 무리들이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눅 9:11과 행 4:4), (3) 사건 전에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눅 9:11과 행 3:1-10). 오병이어 사건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할 복음의 양식으로 제시한 저자가 사도들에게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구원받은 사람 5천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핵심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사’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바 됨으로 주어진 영생(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의 복음전파를 통하여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4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전파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습니다. 사람이교인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만 더하신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35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재물 공유 생활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그려진 재물 공유의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모습이었음을 인식시킵니다. 2장이 오순절 날 믿고 구원을 받은 3천명의 신자들의 생활상을 묘사한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믿게 된 5천명의 생활을 그려줍니다(4:4).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가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32절). 즉, 그들은 “한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5천명의 무리가 마치 한 사람인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마치 한 사람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구체적인 증거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재물 공유의 생활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재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사유 재산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재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공평한 성도들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계속 있었음).

한 마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top - bottom (위에서 밑으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시작(initiate)하시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은 정 반대가 아닌가 자아 반성해봐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방법은 bottom - top(밑에서 위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 4장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마 16:18)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일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23-31절]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95장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흥! 그것 다 왕 내숭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요, 이 시어미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여쭙어 보았습니다. ‘무슨 노래였는데요?’ ‘거~ 뭐라드라.... 너 시어미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어미 이겨 새 힘을 얻고~’”(인터넷). 이 한 예화는 핍박을 받은 한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오해한 시어머니의 말을 통하여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의 후렴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눈물을 흘리면 기도하는 핍박받는 며느리, 그녀는 웬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합니다. 아기를 못나므로 자기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로 부터 핍박을 받는 한나(6, 7절)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10절).

저는 요즘 한나처럼 마음의 괴로움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2)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닮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교회를 향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120문도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통곡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을 얻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도 일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심으로 “예수님을 거스리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힐난할 말도 없고(14절)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였는고로 그저 그들을 위협한 후 놓아주었습니다(21절).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동류”(companions)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경고와 위협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23절)(유상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동류”들은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그 “동류”가 사도들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소그룹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합니다(유상섭). 박윤선 박사님은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셨고 유상섭 교수님은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백성”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류”들은 한 마디로 기도의 동 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의 초대 교회 성도들인 기도의 헌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풀려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의 동류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pattern)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하며 교통함으로 힘을 얻으며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된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귀한 일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류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 자기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였더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24절)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합심기도 내용 중 한 3가지는 이러합니다:

(1)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여기서 "대주재"란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동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Who is my God?)를 알고 오직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2) 그들의 기도 내용은 오늘 본문 25-26절을 보면 구약 시편 2편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편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이로소이다." 여기서 "열방"과 "족속"은 각각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고 또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26절)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이 관점에서 시편 2편 1-2절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3) 시편 2편1-2절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동지들은 다들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 여기서 "저희"는 헤롯과 빌라도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인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유상섭). 이미 "위협"이란 단어는 17절과 21절에서 공회가 사도들에게 가한 협박에 사용한 것을 여기 오늘 본문 29절에서 다시금 사용하므로 서 어떻게 시편 2편 1-2절 예언의 말씀이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일심으로 기도하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 중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점은 바로 27절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동지들은 일심으로 대주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편 2편 1-2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한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반면에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합동하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심하여 대 주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합동하여 분노 가운데 허사를 경영하는 예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스른 자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거스른 무리들의 합동 대적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합동 대적 → 합심 기도 → 협력 형통.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을 거스른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교회를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거스르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거스르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거스르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일심으로 ‘대주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베드로와 요한의 공동지들은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기를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위협적인 세력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하감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합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스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즉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유상섭).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헤롯과 빌라도를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셨듯이 산헤드린의 반대와 위협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으로 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성경에 비추어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된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의 기도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성경의 성취에 대한 이해와 간절한 기도가 함께 만나고 있음을 본다”(유상섭).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일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성경에 비추어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연 성경의 성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을

성경에 비추어 이해하므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치 예수님을 합동하여 거슬렀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종에 가는 길에 또한 선교지에 가서 어떠한 거스른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는 합심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 제목은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동지들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말씀 사역을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캄벨 물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그들은 원수들의 박해가 그치기를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 핍박에서 벗어날 것을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도리어 원수들의 적개심을 일으켰던 그들의 전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원한 것이다.”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현실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역경에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울면서 보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든 자녀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부모님에게 보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깊어지고 자기의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통과 핍박을 들은 그들의 기도 동지들은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 현실을 탓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 전하지 말라는 위협 속에서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일심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믿음이란 고통과 고난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통과 고난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악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므로 교회가 얻는 유익을 한 세 가지 말하였습니다: 첫째, 참된 성도가 밝히 드러나고, 둘째, 참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셋째, 참된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더욱 정미로워 짐이다”(박윤선). 이때(교회가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선한 측에서 끝까지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분노나 원망이나 교만으로 기도하지 말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핍박을 없애주시도록 기도하지 말고 복음의 승리만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 동지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함(29절)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길 일심으로 간구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강림 후 베드로는 2장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리고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탄없이” 즉 담대하게 말함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결코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집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꺾박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되어서 그 복음을 박해 중에 담대히 선포하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앉은뱅이가 걷게 된 기적을 보고 모여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심령들은 일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일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박해 중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담대함이나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 장 4-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담대함)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 “손을 내밀어”에서 “손” 즉 “당신의 손”이란 말은 이미 28절에서 한국 성경으로 “하나님의 권능”, ‘당신의 손’이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동지들은 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치유와 같은 이적을 통하여 나타나길 간구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치유, 이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파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기에 이적을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적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함인데, 이적 그 자체를 목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막16:17, 20; 요4:48, 20:30-31; 히2:4).

요한복음 4장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믿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좇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38-39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렘5:1). 먼저 진리(요17:17 하나님의 말씀=성경)를 구하고 진리를 좇아 살려고 노력하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요14:12, 막16:20). 하나님의 말씀(진리=성경)은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멀리하며, 표적과 이적과 기사만 구하는 신앙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진리(성경)는 구하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나 좇아다니며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구한다면, 그런 교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의롭지 못한 교인이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이적 중에 이적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8-9절을 보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기도 동지들이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유상섭 교수님은 네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성도들이 모였던 장소가 진동했습니다.

“그 장소의 일시적인 진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간섭을 확인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이 모인 장소의 진동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2) 모인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인 장소를 진동시킨 목적은 그들을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3)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 베드로 사도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과 이에 따른 담대함이 모인 모든 성 도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4)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사도들에 게만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5:12-16), 심지어 스테반과 빌립 집사 같은 평신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6:8; 8:4-7). 본장의 합심 기도가 있기 전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기적들이 이 기도 후에 일반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합심 기도에도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유상섭).

이적 중의 이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합동작전, 합심기도, 협력형통

[사도행전 4장 23-32절]

사도행전 4장 23-32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입니다.

첫째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합동작전"을 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을 합동으로 거슬렀던 예수님의 대적자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하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탄과 그의 자녀들은 우리를 합동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읍처럼 물질도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미련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내 몸도 병이 들고 물론 우리는 읍처럼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한꺼번에 접하지 않을 찌라도 웬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합동작전은 지금 현재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연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돌려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모스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뭄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하므로 우리는 사탄의 합동작전에 대항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날카롭게 갈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합동작전에 휘말려 이런 저런 입술과 행동과 마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의 합동작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바른 반응은 "합심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동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시작은 결코 불평과 불만, 또는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시작 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2절을 보면 다윗도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바른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지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과 입술로 선포하여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동지들이 합심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일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사탄의 합동작전을 합심기도를 반응해야 할 때에 "협력행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예수님이나 그의 사도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이 접한 모든 고난과 핍박 등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사탄의 합동작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 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롬8:28).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에게 형통을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맞본 성도는 사탄의 합동작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심 기도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협력 행통을 경험하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알아가며 체험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합심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나눔의 삶

[사도행전 4장 32-37절]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 어찌 이 세 종류로 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눔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울까요?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인터넷). 예수님의 나눔에 대한 목상을 하면서 이해인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쁘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 주고도 한 끝의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인터넷). “나눔은 소유의 많음에 있기보다 존재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의 충만을 누리는 자만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물질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나눔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항상 나눌 것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고도 줄 것이 남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더 주지 못해 안타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눔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눔은 희생으로 시작되지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그 슬픔이 절감이 됩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37절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일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32절)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나눔의 삶”이라고 잡고 나눔의 삶에 대해서 한 3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받아 실천해 옮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눔의 삶에는 나눔의 삶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동지들이(23절) 일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24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31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재물 공유의 생활을 하였습니다(32절). 이것은 사유 재산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재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유상섭). 이 본문 4장에서의 재물 공유의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2 장42-47절 말씀을 상기킵니다. 아주 유사한 상황이 초대교회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재물 공유 생활이 결코 일시적으로 한번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3천명의 성도들의 재물 공유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약 남자만 오천 명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여기 32절에서 “믿는 무리”란 말은 과거 시제로 사용한 것입니다(유상섭).

이것은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만 약 5천명이나 되는 숫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3천명 그리고 4장에서는 남자만 약 5천명, 합치면 약 8천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재물 공유 생활을 했다는 것, 이것 우리가 볼 때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약 8천명이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을 에베소서 4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때 교회가하나 된 이유는, “그들이 다 함께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는 한 가지 소원만 가졌던 까닭이고, 다 함께 성령의 위로를 체험한 까닭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엡4:1).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엡4:4). 그 “한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찬송가 539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한 소망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피와 의로

말미 암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한 우리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찾아봅니다(참고: 빌2:2):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다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이 돼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18절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의 나눔의 삶에는 한 마음 한 뜻이 있습니다. 그 한 마음과 한 뜻은 오직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나눔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두 마음을 품고 내 뜻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려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눔의 삶에는 필 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으니...” 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필 절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서로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35절). 약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재물 공유의 삶을 살았습니다(34-35절). 그런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재물 공유를 했는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4-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 중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여 사 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34-35절). 이 말은 교인들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그들 가운데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궁핍한 성도들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계속 있었음을 보여줍니다(유상섭).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2 가지 제안을 말씀에 비추어 하고자 합니다:

- (1)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필요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어져 우리 자신의 필요성만을 보게 되는 본능이 있습니다(영어로 “self-absorbed”, 즉,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본능을 뛰어 넘어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필요한 것을 봅니다.

(2) 우리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합니다.

여기서 나눠줌에 있어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는 한에서 나눠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저가면서까지 형제의 필요를 도와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빛을 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한 형제에게 나눠줌에 있어서 함께 나눠주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저 한 사람을 돕기보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뭉쳐서서로 물질을 기증해서 모아서 함께 필요한 형제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눠줌에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즉, 약 5천명의 남자들이 서로 재물을 공유할 때에 나눠줌에 있어서 물질이 있는 자들이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35절) 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함께 구제헌금 같은 것을 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 형제를 돕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필 절한 성도가 없을 정도로 나눌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찾아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큰 권능”과 “큰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큰 능력으로 증거한 결과 큰 은혜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 나눠주므로 필 절한 성도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부족한 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면 큰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은 나누는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것이며 또한 실행으로 옮겨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눔의 삶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선포하므로 “무리가 큰 은혜를” 얻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기증한 가운데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구호금을 교회에 바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체적인 예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저자 누가는 들고 있습니다. 그는 37절을 보면 “받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 우리에게 바나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권위자”(Son of Encouragement)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눔의 공동체 안에는 바나바처럼 위로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위로 받기보다 오히려 남을 더 위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진정한 나눔의 삶이 있습니다. 나눔의 삶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필 절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위로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인생은 때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덜기 위하여 고민하지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위로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고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당신의 시간들이 더욱 풍족해지고, 생활의 풍족한 만족이 은은한 향기처럼 당신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인터넷).

“나누는 것이 돌보는 것입니다”를 배워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마음으로 필 절한 사람을 위로하길 기원하면서)

감추는 삶

[사도행전 5장 1-11절]

왜 스트레스 받는 여자는 말을 하려 할까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남자의 두 뇌기능 중 공간지능과 논리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반면 여자는 언어 기능이 활발해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는 열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면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 한없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상대로 몇 시간에 걸쳐 문제점을 말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낱알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게 아니라 말하는 과정 그 자체가 여자에게는 위안이요 격려입니다. 왜 여자는 할 말을 다해야 직성이 풀릴까요? 남자의 두뇌는 고도로 구획 화되어 있어서 정보를 분리, 저장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하루일과가 끝나갈 무렵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두뇌는 그것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머릿속을 계속 휘젓기만 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어떠한 문제를 머릿속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마음속의 모든 말을 쏟아내면서 그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자 들은 감정을 숨기는 것입니까? 현대의 남자들은 씩씩해야 하고 또 허약함을 내비쳐서는 안 된다는 유전자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의심이 많고, 경쟁적이며 절제적이다. 또한 수비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하며 자기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혼자서 일 처리하기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감정을 내보이는 것이 허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인터넷).

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까? 한 4가지만 나눈다면 (1) 결코 거짓말하지 말 것이고, (2) 진실을 숨기는 행위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도덕적인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3) 진실을 숨기는 결정은 개인적인 필요에 토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 호감, 혹은 도전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4) 진실을 숨기는 결정은 상대방 입장에 서서 내려야 됩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11절 말씀 중심으로 “**감추는 삶**”이라는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묵상한 “나눔의 삶”이란 말씀과 대조적으로 오늘은 “감추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추는 삶은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관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로다.”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하고 살까요?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람은 하루에 8분에 한 번 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약속시간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였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한 후 다들 성령 충만하여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행4:32-37). 그 중에 바나바와 같은 모범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36-37절). 그는 자기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37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대조적인 부부를 저자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5:1). 이 부부는 바나바와 달리 그들의 소유를 다판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팔았고(1절) 또한 그 관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2절). 근데 놀라운 것은 다들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한 뜻으로 나눔의 삶을 살았는데 이들과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추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합니다.

(1) 그들이 범한 죄는 ‘횡령죄’(sin of dispossession)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절에 이 부부가 소유를 관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추다’라는 단어는 “착복하다 혹은 횡령하다”라는 동사로서 오늘 본문 2-3절에 두 번 나오고 디도서 2장10절(“떼어 먹지 말고”)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칠십 인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수7:1)(유상섭).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횡령죄는 신약의 새 아간의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횡령죄는 큰 죄입니다. 한 예를 들면 2006년 1월10일 인터넷 연합뉴스를 보니까 “‘황교수 수사’ 사기·횡령죄 적용 할 듯”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황 교수팀이 1998년부터 작년까지 과학기술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순수 연구비 113억 5천 600만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10억원 등 모두 623억 원이다. 황 교수팀은 이중 ‘고능력 젓소 복제생산’에 19억 4천만원, ‘장기이식용 복제돼지 연구’에 21억9천800만원 등 84억 3천 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56조에 규정된 업무 상횡령 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구비 추가 횡령사실 드러나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경우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인터넷).

(2) 아니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범한 죄는 공모죄(sin of conspiracy)였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5장 2절은 남편 아니니아가 소유를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삽비라는 “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NASB를 보면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아니니아가 횡령죄를 범할 때에 그의 아내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었습니다. 지난 78년부터 美해군정보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로버트 김은 지난 96년 9월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한 북한잠수정에 대한 기록을 한국정보장교에게 알려주었다가 FBI에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방 기밀 취득 공모죄(간첩죄의 일종)’으로 미국형법 제793 조를 적용해서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9년 및 보호감찰 3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로버트 김씨 후원회는 23일 국가 기밀 누설죄로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석방된 로버트 김의 인생역정을 담은 로버트 김 자서전 ‘집으로 돌아오다’(한길사 刊)를 펴냈다고합니다. 그 책을 보면 로버트 김씨는 당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미운 적이었던 한국 정부의 태도는 나를 우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나는 공모자 없는 공모 죄로 외롭게 싸워야 했다"고 솔직한 감정을 털어냈다고 합니다(인터넷).

(3) 아니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범한 죄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sin of not keeping one’s own heart)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아니니야는 사단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릇 지키기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탄이 자기의 마음을 성령에게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착복할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32-37절에 나오는 바나바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다한 마음 한 뜻으로 재산 공유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도록 무방비 상태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마음도 사탄에게 다 팔았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나니아는 성령과 교회 공동체의 생각에 반대되는 불순한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유상섭).

(4)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외식한 죄’(sin of hypocrisy)입니다.

이 둘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자기들의 영적인 것을 날조(가장)한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믿는 무리” (32절) 안에 있었고 성령님과 연루되어 있었지만(3절) 그러나 위선자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MacArthur).

(5)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sin of lying to God)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지적은 아나니아가 사람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서(흠쳐서) 결국은 진리의 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둘째로, 감추는 삶은 성령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 여기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시험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시험하다’는 말씀은 그가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도망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시험한다는 말씀은 그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가 그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실지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의 한계까지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Bible Knowledge). 그 예로 구약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핍 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의심하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의 소유를 판 것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중도에 사탄의 유혹적인 인도를 택하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부 일심 동체라서 그런지 부인인 삽비라도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함께 찢히어”라는 말씀은 그들이 악을 행하되 한 영으로 하듯이 서로 단합하여서 행함을 가리키는데(박윤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일심으로 속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도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일부를 착복하기로 함께 찢히어 한 것을 모르실리라 없으실 텐데 그들은 성령님을 시험하였고 또한 속였습니다(3절). 주님의 영을 시험한다고 함은, 그들이 성령의 무소부지(알지 못하심이 없으심)하신 성품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중에서 성령의 뜻을 거슬러 잘못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우리가 은밀한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감추려고 할 때에 우리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소부지하신 성령님의 성품을 의심하면서 그의 뜻을 거슬러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실리라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1-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 세상 불행의 반은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데서 출발합니다(맥도날드).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 게다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이 거하실 때만 가능한 신앙의 행위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거스른 행동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 없이 이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속이며 그를 시험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감추는 삶에는 하나님의 벌(징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5, 10-11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5절), “곧 베드로의 발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10-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받은 벌은 죽음 이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사도 베드로의 책망(3-4절)을 듣고 즉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한 것이었다. 그 권능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다. 이 사실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라는 말씀이 증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할자들에게는 사망을 준다(사11:4; 고후2:16).”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그를 천으로 싸서 들고 나가 매장했는데 왜 이렇게 급히 장례를 치렀는가 하면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죽은지 24시간 내에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자살한 사람, 국가 반역자, 출교된 자, 배도자, 범법자와 같은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신을 지체 없이 매장했다고 합니다(유상섭). 결국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매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의 사건이 있은 후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의 부인인 삽비라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은지도 몰랐습니다(7절). 그녀 또한 남편과 함께 꾀하여 성령님을 시험한고로 삽비라도 결국 아나니아처럼 즉시 쓰러져 죽었습니다(10절).

결국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초대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5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11절).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 세 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참으로 큰 두려움을 가져다줄만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 사건을 목격한 온 교회는 교회가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공동체에서 사도들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과 같음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사도들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어느 누구도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었다.” 박윤선 박사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깨달을 것 몇 가지를 말하셨습니다: (1) 남들을 속여서 인기와 명예를 얻음보다는 인기 없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 (2) 급한 벌을 받는 자의 죄악은 아주 극도에 달한 죄악이었다는 것, (3)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누구든지 그 교회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4)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교회의 옳은 일을 실행하여 나가는 지도자를 무시함은 위험하다는 것, (5) 성령은 신자들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압적으로 인도함은 성령의 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유를 바치는 여부는 자유로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5:4).

감추는 삶은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감추는 삶은 성령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감추는 삶에는 하나님의 벌(징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추는 삶이 아닌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거짓을 미워하면서)

믿는 사람

[사도행전 5장 12-16절]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1761-1834)를 아십니까? ‘제화공이었던 윌리엄 케리는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을 공부한 후 영국 침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 인도로 갔습니다. 그는 인도어를 공부하여 영인사전을 편찬하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한 후 출판하기 위해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조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케리가 지방 순회전도를 나간사이 불이 나서 인쇄기와 원고가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케리는 낙망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1801년 벵골어 성경을 시작으로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의 위대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인터넷).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란 제목 아래 과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 4가지로 목상하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그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낮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4장의 기도가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응답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응답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감히 합류하지 못했습니다(13절).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자 중에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과 감히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을 때 감히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성이 칭송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가 쇠약해 가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이 흠어짐으로 시작됩니다(박윤선). 성도들의 마음이 흠어질 때 교회가 쇠약해 간다는 말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흠어집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의심 속에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약1:6-8). 결국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6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믿음도 하나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의심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교회가 요동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흠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 6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나와 네 열조의 알지 못하던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흠으실 때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위해 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돈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심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므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고 백성들에게 칭찬까지 받은 결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목상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다 마음을 같이한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아니면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흩어지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가고 싶은 교회, 매력 있는 교회란?” 제목 아래 글이 있어 나눕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며,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 또한 교회본질이다. 우리는 바울이 자주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다 교회 그것은 ‘또 하나의 가족’인 셈이다. ...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자, 주인과 노예, 때론 서로 다른 인종들...,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 데 모여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 물론 이 서로 간의 간격, 그 다름의 간격을 이어주는 인력은 사랑이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의 형제의식이다. 교회의 매력은 여기에 기인한다. 한 번 오면 떠날 수 없는 매력, 그것은 마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진한 하나됨을 맛보기 때문이다. 공동체성, 그것은 다양성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 됨의 힘이다”(인터넷).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력으로는 아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구원받는 자가 매 주일마다 더해지는 교회, 주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셋째로, 믿는 사람은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 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마을들로부터 교회가 모이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들을 거리로 운반해 와서 들것과 간이 침상과 요 위에 누웠습니다(15절).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다 그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미치면 치료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40년 동안 앓은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을 목격하였고 또한 들었기에 그들은 혹시나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료 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사람들은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 시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막6:53-56). 또한 바울도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을 때에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행19:11-12).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사람은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롬4:18). 찬송가 539장 3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져도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내 소망 더욱 커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믿는 사람은 나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말씀의 원어 뜻은 “(질병의) 어떤 종류든지 모두 다 고침이 되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질병이든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못 고쳐지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박윤선). 크로슈아데(Grosheide)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못 고칠 병이 없이 모두 다 고치는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이며,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대로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명백하다”(박윤선).

찬송가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1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바랍니다. 즉 믿는 사람은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나음을 얻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5장 17-32절]

“순종”(obedience)란 말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순종(obedience)"이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는 "듣는다(hear)"라는 뜻입니다. 그런가하면 영어의 "고집불통(absurd)"이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는 "귀머거리(deaf)"입니다.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이요, 고집 불통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먹은 삶이라는 뜻이 됩니다(인터넷). 디트리히 본회퍼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Only those who obey can believe, and only those who believe can obey)."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말 만하고 행동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인터넷). 순종은 믿음의 표시입니다(Obedience is the expression of faith).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또한 속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절대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리처드 포스터는 “심플 라이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철저한 순종은 불가능하게 된다’(인터넷). “오늘날은 부(富)의 우상숭배가 판을 친다. 안식일에 쉬라고 명한 제4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시대다. 좀더 일하면 모든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 짐을 내려놓는 자유보다 더 긴요한 것은 없다. 탐심의 금령은 제10계명으로 죄의 한복판에는 내면의 소유욕이 있다. 소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과도한 욕심, 내면의 강박, 무절제한 욕망은 죄다.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우리도 일단 병(病)이 우리를 삼키면 그 병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인터넷). 구약에서 얻은 단순성의 통찰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보다 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긴급대책을 세우거나 조건이나 구실을 달지도 않았습니니다.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은 한 가지 진리를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순종’이야말로 단순한 삶이 흐르는 도관(導管)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저는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제목 아래 과연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 3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듣고 행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9-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가운데(12절) “허다한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귀신들린 자들도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16절)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5:14). 이 때에 성령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대조적으로 사탄의 역사는 오늘 본문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에 가득한 시기로 인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18절).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로부터 심문을 받은 것을 우리는 목상했었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목상한 바로는 이 종교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이들의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자극했던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유상섭): (1)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권세가 전혀 없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친 것과 (vs.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2)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임 (vs. “사두개인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두번째 심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 모든 사도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한 마음의 동기를 “시기”(jealousy)라고 저자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 혹은 질투에 대한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이동원):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럼 너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기 바라느냐?’고 했더니 이 여자는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 결국, 자신의 눈 한쪽을 잃게해서라도 질투하는 친구의 두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질투해 보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치에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말씀대로 (1) “질투란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시켜 버리는 죄악”이며 (2) 또한 “질투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버리는 죄악”입니다.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는 대상 외에는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질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변질되어가는 가운데 쇠락해가며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 혹은 “시기”는 무서운 죄악의 열매를 맺게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질투/시기라는 것을 그저 단순한 심리적 감정으로 봐야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 즉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동원). 그러므로 질투/시기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의 시기의 대상인 성령충만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심문과 달리 제2차 심문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20절). 이 명령의 사도들의 반응은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였습니다(21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풀어내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사도들은 그 다음 날 “새벽”에 집으로도 향하지 않고 곧장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의 이적 역사로 자유의 몸이 된 사도들,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주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므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 사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생명의 말씀에 메인바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메인바 되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속히 듣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메인바 되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메여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미루다가 불순종합니까?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6절을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러라.” 주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된 사도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취체하려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옥으로 보냈습니다(21절). 그런데 관속들이 옥에 들어가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도 문에 서있었으나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22-23절). 이 보고를 들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24절,

“의혹하여”는 진정한 번역 (박윤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들에게 고한 소식은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였습니다(25절). 그 소식을 들은 성전 맡은 자는 관속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지만 강제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26절).

이 얼마나 흥미로운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하므로 성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들을 강제로 잡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예루살렘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왔던 반면에 시기로 충만했던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하고자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21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2편 1-2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지도자들과 세상의 군왕들, 그들의 경영, 즉 합동작전은 헛된 것이었습니다(행4:25-27).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대적하는 종교지도자들의 경영 또한 결국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상섭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합심 기도대로 이들의 위협을 돌아보신 결과이다(4:29)” (유상섭).

지혜자는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들에게서 안전을 찾으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이 도우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노라고 시인한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된다(잠29:25)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레 입증하고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자기 활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울무가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해방이다! 커다란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도우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합니다. 주님의 사자의 부르심(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였을까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 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즉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사도들은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느냐(28절)라는 질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답변하는 것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 답변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사도행전 4장19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지도자들의 1차 심문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을 시기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2)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3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인 모든 종교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인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선포하였음. 그런 후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목적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증거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증인의 삶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예수님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네비게이트 총재를 지낸 귀한 리로이 아임스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인내하라.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다시 시도하라. 포기하기에는 항상 너무 빠른 법이다. (2) 친절히 대하라. 귀찮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어야 합니다. (3)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당신 자신을 내드리라. (4)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분명한 말을 사용하라. (5)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됨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인터넷).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헨리 & 리처드 블랙커비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란 책에서 “순종은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아이였고, 조부 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심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 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斷腸)의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주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존경을 받는 자

[사도행전 5장 33-42절]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 러시모어 산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18m의 거대한 암벽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등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러시모어 산에 새로 새긴다면 누구의 얼굴을 새로 새기고 싶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이 뽑은 인물 가운데 1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의 1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수님 다음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할리우드 스타나 인기 가수가 아닌 흑인 인권 운동가를 존경하는 인물로 뽑았습니다." 왜 그를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은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인터넷).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위 때문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종 노릇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어떤 자리에 있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권위 있고 존경받는 큰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적 믿음에, 불교적인 사고방식에, 유교적인 습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 ...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임에 틀림 이 없다. ... 이 세 부분이 혼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한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전통적인 문화에서 누리고 있는 최대의 축복이 있다. 그것은 교인들로부터 최대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의 됬됨이랑 상관없이 없다. 때론 인격과도 상관없이 없다. 즉 목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존경심과 더 나아가 경외심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존경심이라 생각한다”(인터넷). 그런데 이제 목회자를 향한 존경심은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사람 됬됨이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인격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간에 갈등들, 전임 목사님 편에 서있는 성도들과 후임 목사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 간의 갈등들, 이러한 갈등들에 한 복판에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 과연 성도들로부터 특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또한 41-42절에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3-42절 말씀 중심으로 3가지로 생각해 보며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존경받는 자는 조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5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30절)라고까지 말씀하였을 때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17절)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21절)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자”(33절) 하였습니다. 여기서 “크게 노하여”란 말은 “마음에 찢기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박윤선). 흥미로운 대조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자들은 “마음에 찢려” 회개하였던 반면에,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도리어 ‘마음에 찢기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박윤선). 그 때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명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34-35절). 여기서 가말리엘은 유대의 유전 작성으로 저명한 힐렐(Hillel)의 손자요, 바울의 스승입니다(22:3). 그는 “교법사”, 즉 율법 해석자로서 그가 별세했을 때에(예루살렘 성전 멸망 18년 전) 사람들이 탄식하기를,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고 애석하였습니다(박윤선). “그는 바리새인들 중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후손으로 장로 가말리엘 1세로 후대에 알려졌습니다(유상섭).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뜻 아닌 운동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역사상 실례로 두 가지 메시아 운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운동을 일으킨 두 장본인은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였습니다(36-37절). 하나님의 운동이 아니었던 드다 운동은 드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지만(36절) 결국

하나님께서로부터 기인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명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갈릴리 유다란 인물을 들었는데 이 사람 또한 백성을 피어 쫓게 하다가 망하여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후 가말리엘은 공의회원들에게 사도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고 권면하였습니다(38절). 그 이유는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지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8-39절).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존경받는 받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조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목상한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빙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하여 예수님을 거슬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무리를 지어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기에 가득 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대적하였습니다(33절).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 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30절)라는 말씀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양심(마음)을 찌르는 일이기때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까지 했던 것입니다 (33절).

(3)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 라(32절)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사실 종교지도자들은 시기가 가득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존경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할까봐 조심하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는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존경받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이며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사도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0절에서 “저희가 옳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NIV 영어성경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가말리엘의 연설에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과연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크게 노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였습니까?

(1) 그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말리엘은 크게 노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에게 같은 감정을 통하여 설득시킨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드다와 유다의 사건의 예를 들어 설득을 시켰습니다.

(2) 가말리엘은 성경적 논리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38-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성경적 논리를 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서 난 ‘부흥 운동’이라면 식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진정한 ‘부흥 운동’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3) 가말리엘은 그의 인격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득 방법들은 설득을 하려고 하는 자의 인격에 결함이 있던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으면 그 만큼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인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블레인 리의 “지도력의 원칙”(THE Power Principle)을 보면 “존경받아야 영향력 얻는다”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인터넷): “블레인 리는 미래형 리더십의 조건으로 존경심을 든다. 그는 '진정한 지도력이란 계략과 술책, 협상과 위협이 아니라 존경심에 바탕을 둔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21세기형 리더십, 미래의 부 등 요즘 서구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를, 경영학과 조직학의 관점에 의거 분석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말리엘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경 받기는커녕 우리는

비난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디도서 2장 7-8절 말을 들어야 합니다: “범사에 네 자 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행의 본을 보이며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의 삶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삶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삶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절에도 ‘설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던 세상 사람들이던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설득을 충분히 당해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롬 4:18) 우리 또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설득을 당하여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 만큼 다른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날 전도자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전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인터넷).

마지막 셋째로, 존경받는 자는 삶에 모범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1-4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설득을 당한 후 사도들을 공회로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때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 후 여전히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존경받는 자는 삶에 모범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사도들은 어떠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야 할 모범 된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1)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면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기뻐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모범 된 삶에는 고난이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모범 된 삶은 날마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쉬고 세상일에 쉼이 없이 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에 쉬고 무슨 일에 쉬지 말아야 하는지를 혼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납니다. 그의 삶과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들어내는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 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중 “헨리 나우웬”이란 신부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의 글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글들과 더불어 섬김의 삶을 책으로나마 조금 보게 되면서 제 삶(영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의 삶의 뒷모습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마음 품고 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집 세 자녀들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조심하는 아버지, 삶의 모범으로 설득력을 가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나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존경심을 얻는 모범 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6장 1-7절]

교육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20세기에 한국교회의 화두가 ‘교회성장’이었다면 21세기에는 ‘교회성숙’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모습이 겸비된 가운데서만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인터넷). 과연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 성장은 말씀 성장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6:7, 12:24, 19:20) 오늘 본문 7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힘입는 성장을 말씀합니다. 즉, 사도들이 택한 목회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왕성할 수 있는지 한 세 가지로 목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십시오: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책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성경책을 잘 읽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 혹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학생들은 “재미가 없어서”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인터넷). 성경을 읽지 않는 아마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바빠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일 저일에 바쁘다 보면 성경 읽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읽기를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두 사도들은 분쟁 속에 휩쓸릴 뻔했습니다(1-2절). 여기서 분쟁이란 헬라 과 유대인들과 히브리과 유대인들 간에 물욕으로 인한 불평이 생겨난 것입니다(1절, 박윤선). 여기서 “헬라과 유대인”들이란 이방에서 출생한 유대인들로서 헬라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히브리과” 유대인들, 즉 아람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을 원망하였습니다(1절). 그 이유는 구제 사업에 있어서 헬라과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과 유대인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헬라과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과 유대인들에 비하면 소수였기 때문에 이들이 매일 시행되는 구제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구제란 하루의 끼니도 감당하기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교회가 매일 나누어 주는 음식이나 금전상의 지원을 말합니다(유상섭).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공책을 일삼는 것”란 문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구의 헬라어 뜻은 “식탁에서 섬긴다”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 있는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2:46-47, 5:42). 이러한 모임이 있을 때에 교회는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 끼니를 위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기아선상에 있는 자들을 위한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실직하여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날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 빈민들에게 음식과 의류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J. Jeremias, 유상섭). 이 구제 사업에 헬라 과 과부들이 빠지므로 헬라 과 유대인들이 히브리과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구제 사업에 헬라과 과부들이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원인은 유대교 안에 두 개의 적대적인 파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물간). 언어의 차이점도 있고 문화의 차이점도 있는 이 두 그룹은 결국 분파적 대립(schism) 가운데서 구제 사업에서 사역한 사람들이 헬라과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분파적 대립의 원인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favoritism), 즉 편애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편애는 결국 분열을 낳게 합니다. 예를 들어 원로 목사님은 따르는 성도들과 후임자 목사님들을 따르는 성도들, 결국 한 교회 안에 나뉘진 두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열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금 찢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로 담임 목사님이 당회원인 장로님들 중에 어느 장로님을 더 편애한다면 당회가 질투, 시기, 분쟁 가운데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롬2:11). 그러기에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외에도 교회 안에 편애로 말미암은 분열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사도들은 어떻게 처리했 습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온 교회를 소집하여 더 이상 교회의 구제 프로그램에 관여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함을 지적했습니다(6:2).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모든 제자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2절). 박윤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올바른 행정이었다(롬12:8).사도직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신령한 직분인데(마28:19-20), 사도들이 구제 사업을 맡아서 하다보니 그 본래의 사명 실행에 지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박윤선).

목회자가 교회 안에 다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망합니다. 목회자도 망하고 양 떼들도 망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호세아 4장 6-9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제사장들)는 번성할수록내게 죄를 범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 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러기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뒤야 합니다. 구제 사업이나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뒤야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이런 저런 일에 휩쓸려 바빠 살면 아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교회를 소집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구제 사업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함을 공포한 후에 그 구제 사업 일을 대신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그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안수집사 일곱을 택하여 그들에게 위임하고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위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목회자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위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 안에 이일 저일 다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꾸만 간섭해서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일을 잘 못하도록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목회자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위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나눈다면 첫째

이유는 권위주의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살아 있는 한 교계에 전문가를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는 어렵습니다(인터넷). 우리 목회자의 권위가 남용되어 권위주의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될 수 있는 데로 위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평신도 사역자를 믿지 못하기에 위임하지 못하고 자기가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목회자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구제 사업을 일곱 집사에게 위임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온 교회 앞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사역은 마치 구제 사역에 있어서 과부들에게 음식을 먹이듯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과 더불어 불신자들에게 복음전파(전도) 또한 가리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2절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지 않겠다고 공포하면서 말씀에 헌신할 것을 이미 예고했었지만 여기 4절에 와서는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겠다는 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란 말보다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 앞에 나왔는데, 이것은 전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박윤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지 않는 가운데서 목회자나 섬기는 자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나와서도 아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는 결단과 선언은 저자 누가의 기록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목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그가 말씀의 사역 앞에 기도의 사역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눅5:15-16)(유상섭).

과연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도들의 목회철학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행정상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목회자들의 기도 생활과 말씀 사역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임 부교역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교회의 많은 잡무(일)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연구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상섭 교수님의 권면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목회 철학을 회복하려면 평신도 사역자 들에게 맡겨야 할 것은 과감하게 맡기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복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유상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무 하겠다고 공포했을 때에 온 교회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5절). 그래서 사도들은 일곱 집사들을 선택하라고 온 회중에게 말하였습니다. 일곱 집사 선택 기준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한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즉, “영적 지혜가 충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Grosheide).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은 단순히 육체를 돌아보는 세속적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제 사업은 그리스도 중심한 영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박윤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는 지혜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2)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칭찬 듣는 사람”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덕망과 신임성의 소유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의 자격 중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즉, 안수 집사 후보자의 자격(은사)이 교회 대중의 인정을 받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선택받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일곱 명의 이름을 보면 모두 다 헬라 이름들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그 당시 교회의 구제 사업의 불공평에 대하여 헬라과 사람들 측에서 원망했는데, 그 헬라 과 사람들 중에서 집사를 등용한 것은 매우 공평하고 너그러운 처사였습니다(박윤선). 이 일곱 헬라과 집사들의 이름은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입니다(행 6:5). 우리가 알다시피 스테반과 빌립이란 인물은 사도행전 6-8장에서 나옵니다. 이들 일곱 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5절). 이들에게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다 위임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 12명과 일곱 집사들이 함께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한 말씀을 방관하면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교리 강좌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밤낮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배불리 먹고 완전히 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 속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씀대로 반응해야 한다”(인터넷).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 되살아난 교회와 죽은 교회를 가르는 시금석은 교회 구성원들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이다. 죽은 교회는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단지 진리의 껍질만을 붙든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교회는 즉시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복을 받는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일에 바빠서는 아니 됩니다. (2)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왕성하게 하옵소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 충만, 성령충만!)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현대인의 성경) “이 때에는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사도행전 6장 1절).

어젯밤 오늘 새벽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려고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6장을 펴서 1절부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시선은 1절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 말씀은 바로 “그 때에”라는 단어였습니다(6:1). “아니 ‘그 때’가 어느 때 이길래 제자(신자들)가 더 많아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장인 사도행전 5장을 살펴다가 17절부터 나오는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받은 능욕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18절) 또한 공회 앞에 세워(27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28절). 심지어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33절).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40절). 그 때에 놓임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났으면 그 후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41-42절). “그 때에”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6:1). 결국 “그

때”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때요 동시에 “그 때”는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였었던 때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때’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자들의 수가 자꾸만 줄어든다는 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취볼 때 저는 그 원인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국 교회에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 때에”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교회에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2:47).

둘째로, 제가 생각하게 된 말씀은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을 때 초대 교회 안에 원망(불평)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6:1).

헬라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과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6:1).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신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 및 불평도 많아질 확률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호세아 4장 7절 때문입니다: “너희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많이 죄를 범하니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지금 이 때에 적용해 볼 때 목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처럼 목사님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시115:1)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에 착각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목사님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목사님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신자들도 신자들 나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빌1:27)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 질수록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허영심) 서로 다투다면(2:3, 4:2)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쁜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별의 별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여 교인 수를 많아지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범죄할 텐데 말입니다(호4:7).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견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구제 사역도 협력해서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지역 사회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중에 교회 외부적인 구제 사역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회 내부적인 구제 사역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랑으로 지혜롭게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감당하되 구제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마6:1).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 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하심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힘써 지키고자 했던 율법 중 하나가 바로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구 제함에 있어서 외식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보이게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리 구제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밀한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의를 얻고자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의를 얻고자 구제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구제함에 있어서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식으로 구제 사역을 겸손히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때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행2:47, 현대인의 성경).

마지막 셋째로, 제가 생각하게 된 말씀은 교회 안에 원망(불평)이 있었을 때 열 두 사도들이 안수 집사 일곱 명을 세우고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는 것입니다(6:3-4).

주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들이 왜 불평하는지, 그들의 불만족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만족케 할 수 있을지 등등 고민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행전 6장 1-4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파 사람들을 원망(불평)했을 때(1절) 열 두 사도들은 그들의 불만족을 어떻게 만족시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 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현대인의 성경)](2절)라고 말한 후 그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3절). 왜 열 두 사도들은 그리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열 두 사도들은 그 일곱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6절)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3절)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4절). 그 말을 들은 “모든 신자들은” 열 두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여겼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5-6절).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6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현대인의 성경)]. 1절에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가운데서 초대 교회는 외부적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회 조직을 질서 있게 정돈하여 사도들이 할 일과 안수 집사들이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데 헌신하므로 신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일꾼이 적습니다(마9:37). 왜 교회 안에 일꾼이 적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생활, 더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생하며희생하고자 하는 헌신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길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38절).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주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꾼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일꾼들, 추수하는 즐거움을 알고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일꾼들(사9:3) 그리고 충성된 자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잠25:13)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격이 너무나 미달되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꺼야’, ‘비록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성품도 부족한 것을알면서도) 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믿음도 자라나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꺼야’ 등등.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믿음도 자라나고 성품도 변화되면서 열심히 봉사 잘 하나요? 혹시 직분 자를 잘못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함부로 세워서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일꾼이 부족하고, 아무리 일꾼이 절실히 필요해도 상황에 이끌려 자격 미달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 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이 점점 드는 이유는 여기 저기 교회에서 창립 기념일이던지 특별한 날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기독교 신문 광고들을 보면서 요즘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들 같은데 왜 이렇게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고 왜 이렇게 신자답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밖에서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유가 이렇게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슬픈 현실은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투고 싸우라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참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열 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일곱을 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지만 적어도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야 하지 않나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감독” 또는 장로(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현대인의 성경)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술을 좋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안수 집사”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은 안수 집사님과 될 사람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10절)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기보다 책망을 받는 사람을 교회가 안수 집사로 섬기게 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떨겠습니까? 성경은 안수 집사들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요즘은 안수 집사님들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장로로 만들고자 교회 안에서 로비인지 선거인지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이란 바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들과 치리하는 장로님들인 장로님들입니다. 장로교회 안에서만 자라난 저로서는 장로교회에 문제는 장로님들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 조직에 있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왜 이리 말이 많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것입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의 갈등뿐만 아니라 왜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까(3절). “감독”(목사, 장로)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3절) 왜 돈의욕심에 스스로 노예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목사, 장로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5절, 현대인의 성경)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 제일 큼니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의 책임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책임이 제일 큼니다. 제대로 지도(lead)하지 못해서입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할 줄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할 줄 아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앞드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열 두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우리 목사님들은 현실과 상황 탓 속에서 이런 저런 사역에 너무나 바빠 기도와 말씀 사역을 힘쓰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우리 목사님들은 열 두 사도들처럼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 심지어 위기를 통해서라도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바람직하지 않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행6:2). 그런 후 우리는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 심지어 위기를 통해서라도(그런 것이 없다면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서라도)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 두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4절). 그러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3절)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위임할 일들은 위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믿은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찬 것입니다(시126:2상). “그 때에”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2절하, 현대인의 성경).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때에 오는 교회의 어려움과 심지어 위기를 통해서라도 더욱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혀 힘을 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직분자로서 우선순위를 바로하며 각자의 책임과 위임받는 일들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기를 사모하면서)

사탄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

[사도행전 6장 8-15절]

여러분,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Treacher Collins Syndrome)을 아십니까? 2005년 3월 1일 저녁 TV 시청자들은 ‘얼굴 없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 살배기 이 여아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오렌지 파크에 살고 있다. 이름은 줄리아네. 아이는 위턱과 뺨, 눈구멍, 콧바퀴 등을 구성하는 뼈가 30%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처럼 뼈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얼굴 없는 상태'가 된 증상을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Treacher Collins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의료진은 “줄리아네의 상태가 지금까지 사례 중 최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이는 14번의 외과수술을 받았다. 앞으로도 최소한 30번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군에 근무하고 있는 부부는 “사랑스러운 이 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감사한다. 아빠인 톰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 딸이 모든 이에게 보여줄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얼굴이 없어도 ‘선물’이라며 감사하는데 선물을 ‘가치 없는 상품’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인터넷). 이 트리처 콜린스 신드롬에 걸린 줄리아네에 대한 한 인터넷 기사에 반응들 중 최고의 발언은 “우리 나라였다면 아이가 버려졌거나, 아이가 부모님 손에 자라더라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안 받아줄 듯” 그 다음 발언은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 자고 내일 눈뿔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저런 (편견없는 동심의) 나라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 왠지 씁쓸해지고 부끄러워지는 ... 딸아이와의 대화 ... 반성되네 ...” 그 다음 발언은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장애인이거나, 어려운 사람들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손발 멀쩡하고, 몸 멀쩡한 거만해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해야한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인터넷).

우리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얼굴 없는 아이’처럼 ‘얼굴 없는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링컨의 그 유명한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나이 사십이 넘어서면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모든 찌꺼가 가라앉은 구정물통은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막대기로 속을 한 번 뒤집어 놓으면 콩나물 대가리, 밥풀, 무 조각 등 가라앉은 것이 모두 떠오르고 맙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 속을 뒤집어 보아야 압니다. 평안하고 은혜 받았을 때야 모두 천사의 얼굴입니다. 속상할 때 보아야 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의속을 뒤집어 놓았을 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맑은 그 모습은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15절 말씀 중심으로 천사의 얼굴과 사탄의 얼굴은 어떠한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이 되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얼굴이 되면 안 되는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외모는 온전한 아름다움입니다(겔28:12-13).

찰스 스탠리는 그의 책 “마음 전쟁”(When the enemy strike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얼굴을 감추고 ‘남의 탈’을 쓰고 읍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합니다(인터넷).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이름을 보십시오: 사탄, 악마 (비방하는 자), 루시퍼(아침의 아들), 바알세불(파리의 왕- 마 12:24), 그리고 벨리알(불법자- 고후 6:15) 마귀(요일 5:19) 유혹하는 자(살전 3:5) 세상의 임금 (요12:31) 이 시대의 신(고후 4:4),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2:2) 형제를 참소하는 자(계 12:10) 그리고 빛의 천사(나쁜 빛-고후 11:14) 뱀(계12:9) 그리고 용(계 12:3). 사탄의 속성을 보십시오: 사탄은 창조된 천사적 존재입니다. 그는 천사의 영역의 부분으로 창조 되었었습니다(엡6:11-12, 겔 24:18). 그리고 그들 모두의 순위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다(겔 28:12-14). 사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악을 키워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행동은 사탄은 세상(이곳에서 사탄은 극히 자유로움과 힘을 갖고 있으며(요12:31; 요일 5:19)과 육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육신과 악은 기독교인의 세 가지 분리된 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육적 본성을(롬 7:18; 갈 5:19-21)이용하도록 악한 세상의(요일 2:13-15) 체계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은 사탄은 묘사, 유혹, 공격, 소유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동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의 역사는 (1) 사탄은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자만하도록- 연대기상21:1-8; 세속적으로- 요2:15; 야고보 5:1-7; 비도덕적으로- 고전 7:5; 거짓말하도록 -행 5:3; 실망하도록-베전 5:6-10; 용서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고후 2:10-11), (2) 사탄은 믿는 자의 사역을 방해한다(살전 2:18; 계 2:10), (3) 사탄은 믿는 자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을 촉진시킨다(요일 4:1-4), (4) 사탄은 분노,

슬픔, 분을 촉진시킨다(엡 4:26-27; 고후 2:5-11)(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15절에 나오는 사탄의 종 노릇하여 스테반과 더불어 변론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리버디노”(the Freedmen) (9절), 즉, “자유인들의 회당” 사람들로서 전에는 포로였다가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로서 각각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의 흠어진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9절, 유상섭). 과연 사탄의 종 노릇하던 이들은 어떻게 스테반을 공격하였습니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11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하고.” 여기서 “가르쳐 말시키다”(secretly persuaded)라는 말쭝은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된 헬라어로 그 뜻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유상섭). 스테반을 대적하는 자유인들의 회당 사람들은 사람들을 내세워 자기들을 거짓 증거로대변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짓 선전토록 만들었습니다. 그 거짓 증거 또는 거짓 선전은 무엇이었습니다? “이 사람(스테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였습니다(1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수하여 세운 자들은 스테반이 하는 말을 전혀 들은 바도 없는데 그들이 마치 스테반이 한 말의 목격자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유상섭). 스테반을 공격하는 사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꾸며서 스테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스테반이 하는 말을 전혀 들은 바도 없는 자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케 한 것입니다. 결국 매수된 자들이 공공장소로 나가서 스테반이 성전과 모세를 거스르는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혹은 “충동시켜”(stirred up)(12절)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하나가 되어 스테반에게 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도 합동작전, 사도들을 대적하던 자들도 합동작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 안수 집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자유인들의 회당 사람들과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스테반을 없애고자 거짓 증언을 하는 것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탄의 종들은 매수한 사람들을 법정에서 거짓 증인 역할까지 시켰습니다(13절). 그들이 거짓 증인으로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한 말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는 것이었습니다(유상섭).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 증거를 하는 이 사탄의 종들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모세 율법을 빙자하여 진정으로 거룩한 스테반 집사를 공격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거짓 증인의 삶을 살면서 거짓 증거를 일삼습니다(11절). 이들은 거짓 증인들처럼 듣지도 못한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속히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음성을 속히 듣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듣지도 안 했으면서 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므로 오히려 서로를 모함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10절을 보면 “이도드레베”(Diotrephes)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사도들을 망령되이 폄하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그는 목회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크게 잘못된 영혼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헐뜯고 비판하는 것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영혼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간에 절대로 중상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행위입니다. 서로가 중상모략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려는 마귀의 책략입니다. 교회 내에서 주의 형제들을 헐뜯고 모함하고, 그리하여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못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입니다(인터넷). 주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10절).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요,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쓴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인터넷).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를 모함하고 장로를 모함하고 성도를 모함하므로 교인들을 충동시키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선도라면, 문서나 언동으로 순진한 대중을 그릇된 사상으로 은근히 부채질하여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신념에 대하여 의혹이나 불신 또는 분노를 하도록 짓는 일이 선동입니다. 교회에서는 선도자가 많으면 평안하지만, 집요한 선동자가 있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 분열과 힘 빼기 술수에 말려들어 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천적은 때버리 선동자들입니다. 선동하는 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그럴듯한 말로 남의 옳은 귀를 농락하는 자들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양처럼 순하게 보일지라도 늑대처럼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함하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얼굴이 사단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며 광명한 천사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천사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했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스테반이 이미 부활의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을 닮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유상섭). 이것은 스테반이 평강, 사랑,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말함입니다(박윤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소하고 당시의 권력자들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주눅이 들고 겁에 질려 사색이 될 법도 하였으나 어떻게 스테반의 모습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원인은 스테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8절)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의 대적 자들이 능히 당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스테반 집사는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였기에 헐박받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진정한 천사의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광채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모세를 상기시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 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고 이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가렸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 즉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그 명령을 받아 순종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인터넷). “광채는 히브리어로 '카란'(karan)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채 나는 얼굴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채나는 얼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수준에 이른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나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미국 크리스천의 두 얼굴”란 제목 아래 쓰진 인터넷 기사를 보면 미국 어느 목회자(Anthony B. Robinson)의 설교 내용 중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오늘날엔 ‘나, 나 자신, 내 것’이라는 현대적인 삼위일체로 바뀌어졌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면책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얼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얼굴은 이기주의에 빠져 점점 나 밖에 모르는 ‘나의 얼굴’이 더욱더 뚜렷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테반처럼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광채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며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얼굴에서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 지인들을 초청했다. 드디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예수의 손에 들린 저 광채 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붓을 들어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다.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해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말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는 유리잔이 예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 완성시켰다.

현대인들은 종종 예수의 손에 들린 광채 나는 유리잔에 환호하는 우를 범한다. 신앙은 삶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 신앙은 유리잔에 가려진 예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다”(인터넷).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지니길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두 얼굴 가진 사람이 아니길 기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도행전 7장 1-8절]

약속은 약속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의 어머니와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에서 온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육군 대령은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링컨 대통령에게 한 모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대령,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는다고요.’ 잠시 후에 대령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링컨에게 권했습니다. ‘아니오. 고맙소, 대령.’ 그리고는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술과 담배를 안 하는지 이 유를 말하지요. 내가 아홉 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를 침대 곁으로 부르 셧다고요. 어머니께서는 몸이 매우 편찮으셨소, ‘에이브야,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단다.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다오.’ 나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소. 그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약속을 지켜 왔다고요. 당신은 내가 그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오?’ 대령은 링컨의 팔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저도 각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여태까지 하신 약속 중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어머니께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각하처럼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 왔다면 지금쯤 천 달러 정도 저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인터넷). 약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약속은 신성한 것입니다. 약속의 의미는 가치의 비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에 있습니다(인터넷). 과연 우리에게 약속의 의미를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8절을 보면 스테반의 연설 중에 첫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스테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걸고 한 3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신실한 삶의 책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십시오: “스테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 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탄의 종노릇하는 “리버니노” 즉, 자유인들의 회당 원들이(6:9)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테반을 신성모독 죄를 범했다고 모함했을 때에(6:12-14) 산헤드린 법정 의장 대제사장은 스테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나?”라고 물었습니다(7:1). 이 질문에 대한 스테반의 긴 연설이 사도행전 7장 2-53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연설 중 오늘 본문 중 사도행전 7장 2-8절에서는 스테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지금 자신에 대하여 변호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지금 그를 고소하고 있는 현시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유상섭). 특히 그는 2절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말하면서 스테반 자신도 여전히 그들 중 하나임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유상섭).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스테반의 “천사의 얼굴”과(6:15)오늘 본문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과의 연결성(연관성)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광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란'(karan)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광채 나는 얼굴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는 것은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스테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반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스테반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연설하는 스테반은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스테반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반면에 그를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들입니까? 만일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하여 반영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빛나는 얼굴, 즉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그 명령을 받아 순종했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와 생각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하여 반영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들려주신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명령)은 무엇이였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 가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 누가 안정된 생활과 정든 고향을 영영 떠나 이역에서 나그네로 유리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실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도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벌써 다 해결한 듯이 생각하고 유쾌하게 그 길을 떠났습니다(박윤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며(창12:4), 그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라 믿으며, 그 행동의 결과로 모든 복된 열매를 얻을 줄 믿음입니다(히11:8 참조)(박윤선).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내야 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3절).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일 땅”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바로 가나안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 스테반과 또한 그를 고소하는 자유인들의 회당원들과 포함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시사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4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복음(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의 길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인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모든 우상들을 옮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는 물론 복주시기를 원하셔서인데 그 복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란 땅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하란은 아람인의 도시로서 달의 신인 “Sin-and-Nikkal”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Baker’s Encyclopedia of the Bible). 하나님께서 우상도시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옮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욥기 22장 23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며 또한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의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이미 옮긴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과 같은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긴바 된 천국 백성 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이 땅을 상속할 씨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00여년 후에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6-7절, 창15:13-16)(유상섭, 박윤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7절) 하나님을 섬기리라(경배하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특성을 박윤선 박사님을 한두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약 400년 후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현실적 근거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상대하고 미래의 큰 계획의 실현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으나 장차 그의 자손이 많을 것과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소유된 것을 언약하셨습니다(창15:5, 16).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이런 방법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후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전능을 알도록 하시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박윤선).

과연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 성취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6-7절을 보면 약 400년 후에나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한 225년 후에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못 보고 죽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세대에 이뤄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가운데서 흔들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의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히11:13). 이것이 바로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것, 약속의 내 세대에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멀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할례의 언약을 받으므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십시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 두 조상을 낳으니.” 여기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도록(창17:10-14)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이 할례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행하였고 계대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행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 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이 언약의 표인 할례를 계대적으로 실행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인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과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창12:1-3, 18:18, 22:17-18)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 언약의 표인 할례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우리들은 어떠한 할례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11절을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처럼 이면적에 한 것이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한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더 나아가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롬4:20).

“불가능을 넘어서는 약속”이란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굳게 만난 사람은 명칭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자신의 무력함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음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계산 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남은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맡겨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위대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 위대해진 것입니다. 약속과 만나는 사람은 ‘불가능’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가능’을 봅니다”(인터넷).

보이시고, 옮기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불성실한 죄인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하나님

[사도행전 7장 9-16절]

“빵대신 벽돌”란 글을 보면 유명한 뉴스 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린클리의 명언이 나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고난이라는 벽돌은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 성경에 고난이라는 벽돌을 인생에 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욥이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16절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 또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벽돌을 견어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고난의 벽돌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저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렸고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질고를 아는 자(familiar with suffering)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사43:3). 그리할 때 참된 우리는 고난의 통로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상처가 하나님이 직접 겪는 고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 그러므로 치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 한 부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진정한 치유의 과정은 나의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상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 상처만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남들의 상처에 비교해 볼 때에도 내 상처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상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아래 내 자신의 연민에만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을 바라볼수가 있으면 특히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를 직시하며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고통과 큰 상처 안에 내 작은 고통과 작은 상처가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참된 예수님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테반의 연설 두 번째 부분인 사도행전 7장 9-16절 말씀 중심으로 “요셉의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요셉의 하나님을 2가지로 묵상하면서 그를 우리 삶 속에서 만나 뵙길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 사단의 종 노릇하는 자유인들의 회당에 소속된 자들의 선동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도록 만들어 스테반을 신성모독 죄로 산헤드린 법정에서 하였습니다. 그 때 산헤드린 법정 의장인 대제사장의 “이것이 사실이나”(1절)라는 질문에 스테반은 답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7장 2-8절에서 묵상한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오늘 본문 9-16절에서 스테반은 “요셉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여러 조상”, 즉 지금 스테반을 고소한 거짓 증거하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인 요셉의 10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았다고 연 설하고 있습니다(9절). 스테반은 연설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자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거한 후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처럼 지금 자기를 고소한 거짓 증거하는 유대인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창39:2, 3, 23).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요셉의 삶 속에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말씀 10절 중심으로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 여기서 “그 모든 환난”이란 무엇입니까?(박윤선) 요셉이 그 형제들의 양치는 곳에 찾아갔을 때 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창37:18-20). 요셉이 어린 몸으로서 외국으로 팔려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창37:25-28, 39:1).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인하여 옥에 갇혔습니다(창39:10-20). 죄 없는 몸으로 수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창 39:21-40:23). 그러나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는 길은 환란에서 환란으로 옮겨지곤 하였습니다(박운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의 오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에 환란에서 환란으로 옮겨지는 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요셉처럼 환란에서 환란으로 옮기시는 것이라는 박운선 박사님의 말씀을...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환란에서 환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구원하신다)고 생각할 때에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 환란이 없는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구원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이 박운선 박사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결국은 환란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5편 18-19절을 보십시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2)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환란에서 또 다른 환란으로 옮기실지라도 그는 그 환란을 이겨 나아가도록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요셉처럼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환란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게도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란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주시되 환란에서 또 다른 환란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그 모든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족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창41:51)는 의미로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므나셋라고 첫째 아들을 이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창41:52)는 의미로 ‘두배로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에의 환란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모든 환란과 고난의 기억들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결국 그 환란을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줍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명령을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반처럼 그를 모함하면서 거짓 증거하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자들에게 도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요셉의 하나님은 궁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 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궁핍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15장 11-32절을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기 분깃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서 궁핍”해졌습니다(14절).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거하고 있었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탕자를 궁핍케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품안으로 돌아왔습니다(17-20절).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사는 애굽과 또한 그의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젓과 꿀이 흐른다는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풍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궁핍케 하신다면 가나안 땅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도 흉년이 들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보내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야곱의 그의 온 친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얻으러 온 그의 10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47:7-8). 흉년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 즉 지금 스테반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양식이 없으므로 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11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요셉도 환난을 겪었고 요셉의 형들도 환난을 겪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요셉의 환난(“모든 환 난”)은 그를 시기한 형들로 말미암아 겪게 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과 애굽 왕 바로의 집의 치리자로 세우신 반면에 요셉의 형들의 환난(“큰 환난”)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그들과 온 가족 식구들을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2-16절을 보면 양식이 없을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열 아들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므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을 만나게 되고 바로에게도 들어나고 결국은 요셉이 “그의 부친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 사람을”(14절)을 애굽으로 초청하므로 말미암아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므로 야곱의 그의 아들들 온 친족들을 다 애굽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그의 온 친족들을 이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셔서 큰 구원을 이루신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흉년든 것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다(창41:25). 이 사실들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중심하고 이루어질 구원을 지향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윤선). 이 말씀은 흉년조차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중심하고 이루어질 구원을 지향하고 움직인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다 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애굽 상인에게 팔므로 말미암아 이런 저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약 13년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환난을 선으로 바꾸시사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요케 해주신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의 벽들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그 벽들을 걷어차기 바쁘니까? 아니면 그 벽들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의 벽들들로 하여금 우리를 궁핍케도 하시고 또한 풍부케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4대째 후손인 요셉의 시대에 오셔서는 그와 함께하시므로 고난 가운데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사 결국은 궁핍하였던 그의 형들인 이스라엘 조상들과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벽들이 우리 앞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벽들을 발로 차려고 하기보다 그 벽들을 주춧돌로 삼아 우리 교회를 잘 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궁핍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모세 (1)

[사도행전 7장 17-29절]

2004년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교갱협) 제9차 영성수련회 때 교갱협 대표 회장이신 고 옥한흠 목사님의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1910-193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해서 불과 몇 천 명 밖에 되지 않던 교인이 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당시 부흥의 화두는 ‘회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며, 변화되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불과 30만 명 밖에 안되던 교인이 갑자기 1천만 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교회는 또 한 번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부흥의 화두는 복이었습니다. 형통이었다 라면서 ‘하지만 형통과 복에 매력이 있어서 천 만이 부흥을 했습니다’라는 결국은 교회를 더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오늘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지적하였다”(인터넷). 옥한흠 목사님은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를 바로 사용하면 전무후무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고 넘어간다면 한국교회의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고 말하며 목회자 자신부터 갱신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인터넷).

저는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고 옥 목사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때입니다. 특히 자격 있는 교회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존 스토틀 박사는 오늘날 세계 곳곳을 다녀보아도 바울처럼 자기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 너무 강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교회가 ‘나는 부자라’고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7-29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도전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53절에 나오는 스테반의 연설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이주 전에 그의 연설의 첫 번째 부분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후 지난 주일에는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7-29절에서는 모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스테반을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때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땅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심에 있어서 그 때가 가까워지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였으면 또한 동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18절) 올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좌절시키려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되 태어나는 남자 어린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19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애굽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번성”과 더 붙어 동시에 오는 것은 극심한 ‘괴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성취의 때가 가까이 오매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75명밖에 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동시에 사탄의 역사가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해지니까 두려워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 편에 들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원수 편에 서서 애굽과 대적할까봐

두려워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출1:11). 그러나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장 12-13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 학대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할수록 애굽 왕 바로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패턴을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 성취 --> 이스라엘 백성 꺾박 --> 더욱더 번성 --> 더욱더 괴롭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가 애굽에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은 산파를 통하여 남자 유아를 은밀하게 살인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공공연히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유아를 나일 강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유상섭). 난세는 영웅을 낳고 영웅은 난세를 이끌어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난제 가운데 인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난제가 임했을 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난제 가운데 태어난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아기 모세를 가리켜 “준수”(beautiful)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수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의미함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스테반이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하고 말한 것은, 모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음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박윤선). 모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모세, 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짧은 간증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답게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1997년 4월26일 결혼기념일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성경공부 다 마치고 Los Angeles 어린이 병원(L.A. Children Hospital)에 갔었을 때 아기는 파랗게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아내는 아기가 누운 곳에서부터 한 6피트 정도 떨어져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와 함께 해주시고 계심을 보았기에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의 아름다움을 말입니다.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1절을 보십시오: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때가 가까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가 났는데 그의 부모님은 그를 집에서 석 달을 길러워졌습니다(20절).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을) 식별하였으며, 믿음으로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출2:1-2; 히11:23)(박윤선). 3개월간 은밀하게 양육되었다가 결국 아기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아기 모세가 갈상자(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 넣어져 나일 강에 띄워졌는데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에게 발각되어 미리암을 통해 유모(모친)에게서 키움을 받다가 자라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출2:3-10). 그러나 스테반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모세가 버려졌을 때에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입양하여 친아들로 양육했다고 그저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행7:21). 그리고 스테반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진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웠다는 스테반의 주장은 그가 얼마나 모세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스테반이 모세를 대항했다는 고소자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유상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버려진 아기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었기에 모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10절을 보십시오: “...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버려진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버려지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모세, 결국 그는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버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사실 제목은 “국제결혼과 혼혈아 새로운 인식”입니다: “국제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총 4만3121건으로 전년 비 21.6%나 늘었다.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로 100쌍 가운데 14쌍이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어촌 남성은 지난해 10명 중 4명이 외국 여성을 아내로 맞았다. 국제결혼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03년 8.4%, 2005년 13.6%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인터넷). 이러한 국제결혼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아는 부모님에게도 버려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에서도 버려집니다. 특히 단일민족인 한국 사회에서는 잘 용납되지 못하고 왕따 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영웅의 귀향... 혼혈아 관심 촉발”란 기사도 보았습니다(인터넷): “미국 프로 풋볼리그(NFL) 결승전 슈퍼볼의 최우수선수(MVP)인 하인스 워드가 한국에서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외신들이 소개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은 3일 워드의 인천공항 도착 장면이 한국 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으며, ‘영웅의 귀향’으로 소개됐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또 그가 ‘한국인의 자랑’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어느 면으로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많은 혼혈아들에게 하인스 워드라는 한국계 혼혈아 미국 프로 풋볼 선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혼혈아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버려짐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 그는 아기 때 버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기 때 난제 가운데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는 버려짐 가운데 바로의 딸 양자가 되었고 애굽에서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음에 죄악된 것들 또한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버려야 할 단어들 그리스도인이 꼭 버려야 할 단어 2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중독, 이기심, 염려, 편견, 탐욕, 게으름·안주, 침체·우울, 비난, 불평·원망, 조급, 교만, 외식·위선, 다툼·갈등, 포기, 방탕.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없애 버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에 버림받는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악들을 버리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세는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십시오: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일 강에 버린바 된 아기 모세,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모세는 한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나면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던 모세는 나이 사십이 되어서는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었습니다(23절).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가리킵니다(시 89:31-32; 렘9:9, 25, 11:22)(박윤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사십이 되어서 모세는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간섭하게 되었습니다(행7:24). 즉,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의분을 발해 그를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원수 갚는다는 생각으로 쳐 죽였습니다(박윤선). 모세는 정의감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그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박윤선). 인간의 혈기로 정의감에 불타올라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 말입니다. 흥미로운것은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십시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자라고 생각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삶 속에 간섭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모세가 자기의 인간의 방법인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는 다릅니다. 이 살인사건이 있는 후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모세가” 그들을 화목 시키려 하여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라고 말했을 때(26절) “그 동무를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27-28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말로 인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여 거기서 나그네 되어 아들 둘까지 낳았습니다(29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서 바로의 낮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출2:15).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를 봅니다.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도피 사건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배척한 사건에 돌림으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인정하지 못한데 있음을 강조한다.” 아름다운 모세, 버림받은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그 원인은 아직 모세가 준비되지 못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세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아직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40년 광야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에 우리 또한 간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 때 종려나무 잎사귀를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요 12 :13). ‘수난주간’으로 알려진 십자가의 주간은 종려 주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에 끝났는데, 이 기간이 구세 주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린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날의 "호산나" 소리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의 입성하셨던 예수님 ...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독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버림을 받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 시고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며 간섭하시되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사 그의 이 땅에서의 결국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도록 버리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사도행전 7장 25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말한 한 마디는 '제임스, 착각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광야 교회"(행7:38)에 다니기 전인 애굽에서의 40년 삶 가운데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23절)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애굽 인을 쳐 죽인 후(24절)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행정을 잘해서, 대인관계를 잘해서, 등등 이유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혈기와 모세 자신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보다 인간의 인간됨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혈기로 원수 애굽 인을 죽이므로 나타납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쉽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주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뭐 드릴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며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도 하나도 없으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며 건짐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분이 주님 밖에

없습니다.

착각은 자유라 말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착각에서도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거할 지라도 주님께서 그 착각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므로,

제임스 목사 나눔

(착각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모세 (2)

[사도행전 7장 30-35절]

작년에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중 1위는 빌 게이츠도,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 토크 진행자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어림잡아 평균 1000만이 넘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인들은 감동을 받는다. 그녀가 "가난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10초만 얘기하면 다음날 그 고아원에 수십억의 기부금이 도착합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 한마디 하면 그 책은 다음날 미국 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의 이런 영향력을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녀의 자서전책, "이것이 사명이다"에 나오는 네 가지 인생철학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2)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3)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4)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나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고,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 속 모세를 통해 오늘의 자신을 일구었노라고 간증합니다(인터넷).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4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인터넷):

(1) 삶의 최우선순위가 사명 완수이기에 외골수로 한 길을 팝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빌3:14). 앞에 있는 한 가지 목표에만 전심전력을 쏟아 붓기 때문에 남이 무엇 하는지 결눈질할 틈도,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힐 틈도, 현재의 어려움을 불평할 틈도 없습니다. 어떠한 주위의 난관도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돌파해갈 대상이지 두려움이나 불평할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2) 사명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사명완수에 대한 적극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4:13). 이러한 적극적,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상급을 받으려고 달리는 100미터 경 주자처럼 외골수로 전력 질주함으로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3) 사명감이 있는 자는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행 20:24).

(4) 사명감이 있는 자는 결과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명을 받는 모세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들어 일으켜 사용하셨는지 한두 가지로 목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켜 사용하시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믿음이 살아나 힘차게 운동합니다. 특히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히 자라게 되며, 우리의 생활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섬기게 되고, 더욱 찬양하게 되고, 더욱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욱 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놀랍고 큰 유익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보면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된 모세가 나옵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 생활 후 미디안 땅에서 “사십 년이 차매”(30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30절).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나그네로 40 년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 떨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불꽃”은 그 백성 그 때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상징합니다(박운선). 불이 가시나무에 붙어도 그것이 사위지 않음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인들도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도 아주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였고 그 후 8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31절)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32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 못했습니다(32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33-34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4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였습니다(30절). 흥미로운 점은 “시내 산”이란 말의 뜻이 “가시의 산”입니다. 즉, 가시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시”란 의미나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무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고난당함을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 “가시”하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7절에서 말한 “육체의 가시”가 생각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한 마디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자였습니다. 그 때에 그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8절). 그 때에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 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였습니다(9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런 저런 모양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을 통하여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의 가시’입니다.

(2)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 광야에서 가시나무떨기 불꽃을 보고 기이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었을 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행7:31).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겠지만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마음의 길”이란 책에서 4세기와 5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살았던 사막의 교부들의 사막의 영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단순히 고독이 분주한 일에서의 도피이고, 침묵이 시끄러운 환경으로부터의 도피라 한다면 고독과 침묵은 쉽게 매우 자기 중심적인 금욕주의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독과 침묵은 기도를 위한 것이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고독을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고독과 침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기도생활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기도생활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의 지성(머리)이 하나님께 대한 관념으로 차 있다는데 있습니다(나우웬). 우리는 찬송가 500장 1절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3)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였습니다(33절). 근동 지방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할 때에는 신을 벗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신’은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하니만큼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박윤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더러운 죄를 기록하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들춰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 별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4)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34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고 듣는 것을 우리 또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즉,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봐야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고난의 신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세처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란 인터넷 글을 참고합니다(인터넷):

(1)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순결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어떤 행동이나 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살기 어렵고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럴 때에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연기하지 말고 회개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2)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잠잠한 믿음과 겸손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3)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켜 사용하시는 모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4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스테반은 그의 연설을 통하여 40년 기준으로 하여 모세에 관한 언급을 세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1) 첫째 기간은, 애굽에서 40년(23-29절), 둘째 기간은, 미디안에서 40년(30-35절), 그리고 (3) 마지막 기간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40년(36절). 오늘 본문 30-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이 차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임재 가운데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우리는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즉 88%의 세일즈맨 이 한 통 내지 세 통의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수의 몇 사람이 전체 교회의 전도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단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흥미로운 점은 애굽에서 나이 사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척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절하던 그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 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35절). 보냄을 받기 40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 받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또 다른 40년 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시사 그를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약 40전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속량하는 자”라는 말은 모세에게 적합해 보이지 않는 듯 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을 속량한다는 것은,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나 모세에게도 이런

칭호를 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적지 않은 고생을 친히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더 큰 의미는 모세가 속량하는 자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이 애굽과 같은 죄악 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사 치르신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진정한 속량하는 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존 파이퍼)이란 제목 아래의 글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는 그곳에서 다섯 살짜리 아들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았다. 그는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후에 첫 회심자를 만들어 냈으며, 수년 동안 애써 번역한 것을 화재로 잃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40년 동안 꾸준히 사역했다. ... 미국의 제1호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은 1814년에 미얀마로 갔다. 그는 여섯 살 된 아들을 잃었고, 1년 반 동안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그의 아내는 열병으로 죽었다. 그는 정신적인 쇠약으로 고생했고, 첫 회심자를 만나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으로 파송된 첫 개신교 선교사였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첫 회심자를 위해 7년 동안 수고했다. 하지만 그는 중단 없이 사역에 임했다. 이들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인터넷).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사도행전 7장30-35절]

1.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의 산인 시내 산 가시나무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렇게“가시”란 의미나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때에 무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고난당함을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므로 우리를 구원해(건져주)시려고 내려오시는(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보고 기이여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었을 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겠지만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33절)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더러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고 듣는 것을 우리 또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므로 결국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냄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보냄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기원하면서)

모세 (3)

[사도행전 7장 36-38절]

해오름 교회 최낙중 목사님의 지도자 정의가 흥미롭습니다: “지도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조화시켜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일색으로서 하나가 아니다. 다양성의 조화를 이룬 하나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다.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인터넷). 우리 교회에게 적합한 지도자 정의라 생각합니다.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그리고 히스패닉 사역 형제, 자매들을 조화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고 옥한흠 목사님의 책 “소명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을 보면 해리 투르만 대통령의 멋진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게하고,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좋아하고,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리더십이란 일반 회중들이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일을 먼 안목을 가지고 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하기 싫어하던 일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맛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옥한흠). 리더십은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지도력은 영향력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6-38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한 3가지로 목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인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3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인도자,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한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 혹은 지도해야 합니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지도하는 것이 최고의 지도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 하는가 생각해볼 때 헨리 나우웬의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지도자 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민수기 12장3절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마11:29). 즉,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인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지도력에 있어서 인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력이나 능력보다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 즉 없어서는 아니 되는 요소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격 중에 예수님과 모세처럼 “겸손”은 지도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도력에 있어서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약 4:6).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행7:36).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은 무엇 이였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신 것(출14:1-31), 르비딴에서 하수를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에 물이 난 것(출17:1-7),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멸망(민16:1-40)입니다(MacArthur).

여기서 우리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도자는 먼저 인격자가 돼 야지 실력자가 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도자는 먼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우리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실력,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나 그전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인도하였는데 요즘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골방이 우선이 아니라 도서관, 세미나 실, 컴퓨터 방 등등 너무나 실력 위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이 뒤받쳐 주지 않는 실력은 쫓는 자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코 설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능력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바울이 말한 진리를 마음 심비에 더욱더 깊이 적어야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10).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27). 시편 77편 10절 말씀 “...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라는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인격자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 스테반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예언에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씀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스테반은 이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22절)께서 “선지자”이심(30절)을 유대인들을 듣고 알고 있었기에 스테반의 본문 설교에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청중 유대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유상섭).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란 모세나 예수님 두 분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다른 점은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은혜의 중보자”입니다(박운선). 모세의 선지자적 말씀 선포는 율법을 순종하므로 구원 이었지만 예수님의 선지자적 말씀 선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신실한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선지자적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책임은 복음 선포는 입술로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선포가 돼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자가 되지 못한 자가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우리 때문에 상대방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란 글을 써 보았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을 여기에 옮겨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은 너무나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바울, 즉 사울의 모습처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 보기에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실 되지 못한 인격과 삶, 위선이 가득한 마음과 삶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앞에서 들춰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복음 전도,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은 사랑을 외치질 모르지만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울리는 썩과리 밖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받은 전도 훈련 등등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증인의 삶으로 하려고 하기 전에 증거로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면서 열심히 증거를 하려고 하니 결국 교회로 인도는 할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삶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 다시는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영혼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제임스).

(2) 두 번째 책임은 복음 선포 후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설교를 보면 35절에 “거절하던 모세”, 그리고 39절을 보면 “거절하여”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거절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좇은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의 복음을 삶과 입술로 전파하면서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피스러운 것은 이단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면전박대를 당해도 더욱더 열심히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거절을 당하면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결핍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전파의 선지자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세는 광야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십시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과연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한국 장로교 정치제도에 대한 일반성도 의식조사 보고서”(1997년 6월 27일 교갱협 기획실)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한국의 장로 교인들이 바라는 오늘의 목회자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는 영성 있는 설교자여야 합니다. 장로교단에서 목사의 역할 중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과반수를 훨씬 넘긴 67.3%가 '설교'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12.1% 정도의 응답자들이 '기도'라고 응답했습니다. “성경 연구”(8.1%), “심 방, 상담”(4%), “전도, 선교” (3.1%), “교육”(2.3%), 기타 (3.1%). 교인들은 전적으로 헌신된 목회자를 요구합니다. 설문 응답자들에게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에 어떤 유형의 목회자가 요청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유형'으로서 32.3%였고, 그 뒤를 이어 요청되는 유형은 24.2%가 응답한 '교인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유형'이었습니다. 이외에 각 10% 정도의 응답을 받은 목회자 유형은 '탁월한 영성으로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12.1%), '책임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유형'(11.7%),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방임하는 유형'(10.3%)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교인이나 장로에게 일임하는 유형'에 대한 응답은 고작 3.6%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목회자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교인들의 기초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 시대에 요청되는 목회자는 영적 공동체가 도달해야 할 목적과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되 먼저 헌신하는 자세를 가진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단적 군림이나 극단적인 방임의 자세를 가진 목회자는 더 이상 현실 속에서 교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성도님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인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므로 양 떼들을 인도해야 합니다(37 절). 이 두 구절을 통하여 목회자의 책임을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테반은 모세는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8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선 먼저

생명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웬, “마음의 길: 사막의 영성과 현대의 사목직”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선 우리 주님과 만나고 그 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고독에서 우리의 첫째 과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생각과 마음을 다해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은총의 상황 안에서만 우리의 죄에 직면할 수 있고, 치유의 장소에서만 우리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주의에서만 우리의 고착된 두려움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대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강제들을 서서히 녹여 없앨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체험하게 된다”(나우웬). 고독한 광야에서 목회자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은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들춰지고 그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을 대면해야 합니다(나우웬).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사죄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예수님이 나의 참된 자기)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될 때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목회자는 모세처럼 광야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2005. 5. 17) - 창간 9주년 특별 인터뷰(조정철 목사님) 내용 중 인터뷰하는 사람의 질문에 조 목사님의 대답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50년의 목회 경험을 통해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면?”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교회 이미지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자꾸만 퇴화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다. 나도 목사이지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 한인교회는 하나님이 임재 한 것 같은 모습이 회복될 때 참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 목사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 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한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크리스찬 투데이).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므로 맡겨주신 양 떼들을 인도하길 기원하면서)

버려두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7장 39-43절]

위암은 한국인에 발생하는 암의 1/4 정도로, 가장 흔한 암의 하나로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2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위암은 사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암의 초기증상으로는 상복부 불쾌감, 상복부 동통 등이 있고, 식사 후 소화불량, 식후 팽만감,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흔히 볼 수 있는 급. 만성 위염이나 십이지장, 위궤양의 증세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는 대수롭지 않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고 소화제나 제산제를 장기 복용하면서 대증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시기를 놓치게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 진행 암의 단계에서 발견하고도 방치하면 보통 1~2년 만에 사망하며, 젊을수록 그 속도가 빠릅니다. ... 위암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식생활의 개선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짠 김치, 저린 음식, 뜨거운 음식, 불에 그슬린 음식 등이 많은데 이러한 음식의 섭취를 가급적 줄이고, 아울러 위암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인삼, 우유 등을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신선한 황록색 야채 및 과일을 많이 먹어 비타민의 섭취를 늘려야 하겠습니다”(인터넷). 위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식생활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보다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암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암이 걸리고 나서 발견된 후 그대로 내어 버려두면 결국 보통 1-2년 만에 사망한다는 이 글을 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 버려두시면 우리는 마침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암 세포 같은 최악 된 본능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 방치해 놓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암을 고치려고 이모저모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에 결국은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9-43절 말씀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셨는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버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도를 받아 자기들에게 주던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선지자요 지도자로 여긴다고 하는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왜 생명의 도를 거절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39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 때 애굽 생활이 지금보다야 좋았었는데…’라는 식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위에 것을 생각하기보다 자꾸만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고 명하고 있지만(골3:2) 우리는 위에 것과 땅에 것 사이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것”이란 또 다른 말로하면 “옛 사람”의 일들을 말합니다(엡4:22). 예를 들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엡4:22), 거짓말하는 것(25절), 죄를 짓도록 분을 품고 또한 내는 것(26절), 도적질하는 것(28절), 악한 일 (28절), 더러운 말 하는 것(29절), 떠드는 것(31절), 훼방하는 것(31 절), 용서하지 않는 것(32절) 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옛 사람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살후2:11).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면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므로 거짓을 믿느냐.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코 진리의 말씀을 거절(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아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빼앗기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0절을 보십시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왜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교제하고 있었을 때 그의 형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 것을 부탁했었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란 지도자의 공백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과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란 지도자의 공백이 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아론은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론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므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었다기 보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끌려 다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끌림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끌림을 받는 지도자는 오히려 쫓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도왔습니다. 결국 아론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하여(running out of control)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들었는지 좀 더 정확한 대답은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인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던 이유는(행7:41) 그들의 생각이 허망 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졌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았기 때문입니다(롬1:21). 하나님께서 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도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것입니다(25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했기 때 문입니다(22절). 결국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들어내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같은 우상을 만들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출32:6).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해서는 아니 됩니다(행7:41).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사십 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기보다 원망하면서 결국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우상인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하나님께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암5:25-27).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2 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사십 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습니다(42절).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망한 생각과 어두워진 미련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신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깊은 우상 숭배 죄에 버려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결국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뒤에도 우상 숭배를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인 앗수르의 우상 숭배(별들 숭배)를 하였습니다(렘8:2, 19:13).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배은망덕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죄를 범하였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죄, 우상 숭배의 죄, 배은망덕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하나님께 범한 배은망덕한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교회란?

[사도행전 7장 44-50절]

미주복음신문(2006.6.11.): “2천만 넘어선 대체교회, 가정교회: 목사 없이 자유롭게 선택한 날 예배, 증가 추세”란 기사를 보면 21세기 세계 교회들은 한 7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초)대형 교회(Mega-Church): 초대형 교회는 대략 주일 예배 참가 성도 수가 2000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부대사업. 상점 운영은 물론 유료 세미나 개최, 놀이시설 운영도 주요 수입원이다. 다양한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경영대학원(MBA) 출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기본이다”(인터넷). (2) 변화를 추구하는 메타교회(Meta-Church): 여기서 “meta’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메타교회란 전환기의 교회(church in transition) 돌아서는 교회(church in turning) 등을 뜻한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칼 조지는 미래교회를 메타교회(meta church)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결국 차세대 교회는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메타교회의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의 구조적 갱신을 알아야 한다. 메타교회는 변화를 모색하는 교회이고 영적기능을 토대로 한 교회이면서 그 질을 유지하는 교회인 것이다”(인터넷). (3)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및 인터넷 교회: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TV나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4)월마트 교회(Wal-Mart), (5) 전통적인 교회, (6) 차별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회(New Church), (7) 가정교회(House Church).

미국 성인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지난 25년간 조사해온 바나 리서치(Barna Research)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가정교회, 직장선교회, 컴퓨터를 통한 예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대안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이유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기 원하기 때문이며, 꼭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 보다 자유롭게 스케줄을 잡을 수 있다는데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이러한 움 직임에 대해 기사를 쓴 분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의 사고와 판단과 편리함을 따라 자유로이

선택한 날에 목사 없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를 우선
분별해야 한다.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가정교회는 기존 교회들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터넷).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4-50절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 말씀에 입각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란 증거의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왜 스테반은 그의 연설 가운데서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결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없어서 “물록의 장막”에서 “레판의 별”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43절). 그럼 증거의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 장소로서 언약궤를 놓아두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장막은 종종 계시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임재의 보이는 곳이 바로 증거의 장막 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은 것(44절)으로서 이 장막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때에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 왕 때까지 이르렀습니다(45절). 그러므로 이 장막, 텐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란 사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 (1) 증거의 장막이 예배의 핵심 장소라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우선순위로워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할 것을
교훈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2) 증거의 장막이 계시의 장소라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6-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17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깨닫게) 해주시므로 바른 고백을 하는 신앙입니다.

(3) 우리 교회가 증거의 장막이 된다는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가는 신앙 속에서 바른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스테반은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46절).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을 위한 것이란 지적은,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장소이지,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놓고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스테반은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종속시키고 그곳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그릇된 사상을 배격하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유상섭).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미련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지은 것입니다(출 25:8). 출애굽기 25장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마음껏 또한 겸손히 표현해야 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성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하기보다 성전 건물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마치 교인들보다 교회당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 교회들처럼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없으면 교회답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 (1)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불신자들조차도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 (2) 우리는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달리 말한다면,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3) 우리는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있느냐.”

마지막 셋째로, 교회란 안식할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스테반은 그의 변호를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성전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태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는 태도를 스테반은 공격하였습니다.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스테반은 성전 자체를 배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한

성전의 남용과 이상화를 배척한 것이다. 문제는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성전의 이상화)에 있는 것이다”(유상섭). 과연 사람이 만든 성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24절을 보면 그 질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와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었고 (왕상8:27)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사66:1-2).

교회가 안식할 처소란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을 시편 132편 7-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쉼과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회칠지어다.”

(1)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Right Worship)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안식할 처소에 임하십니다.

(2)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Right Life)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의의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의 처소에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7장 51-54절]

“고집”이란 무엇입니까? 고집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며 굽히지 않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지가 남에게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여 관찰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고집은 남에게 자기 생각을 능동적으로 제시하여 관찰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수동적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하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고집 가운데에서 가장 썩 고집으로 옹고집과 황소 고집을 듭니다. 옹고집은 확 막혀 결코 꺾을 수 없는 고집이고, 황소 고집은 황소처럼 우직하여 좀처럼 꺾기 어려운 고집을 가리킵니다. 고집도 부리고, 세우고, 피우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출 32:10).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은 거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인터넷). 목이 곧다는 것을 목이 뻗뻗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멩에를 매는 소와 관련이 있다. 소가 멩에를 지우려고 하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해야 하는데 멩에를 매기 싫어서 고개를 쳐들고, 목을 뻗뻗하게 하고 발두등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54절 말씀 중심으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을 걸고 과연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 세 가지로 목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스테반을 재판하는 목이 곧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현재형 의미입니다. 이것은 스테반이 자기의 연설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역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와 그 이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할 때 목이 곧은 그들은 성령을 거역했고 그들의 후손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거스리다’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스리다’(resisting)란 단어는 ‘대립/충돌하다, 반대하다, 거슬리다, 적대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거스리다’란 말의 의미는 성령님의 메신저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거절함/반대함/적대시함을 의미합니다(MacArthur).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거스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영적 순종함을 외적 예배로 바꾸었습니다(Furneaux). 이 말은 성령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기보다 외적(겉) 모양으로 드러지는 예배로 대신하였다는 말입니다. 대리만족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메시지는 거절하면서 자기 종교적 만족을 누리고자 껌테기 예배에 헌신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거스렀습니까? 왜 그들은 성령님을 거역하고 거절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그 심령으로는 그렇지 못하여 실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기업을 참여하지 못한 자들로서 율법이나 성전의 외형에는 치중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육체적 종교가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영적 순종의 삶보다 육체적 종교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거슬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 도들이 돼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29절을 보십시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 우리는 “마귀를 대적”(Resist the devil)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님을 대적하면 아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둘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을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스테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와 더불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적나라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케 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인 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테반이 지금 자기의 연설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성과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케 들춰내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여기서 유대 민족의 근본 죄악의 정곡을 찔렀습니다(박윤선). 그 근본 죄악의 정곡은 바로 메시아를 죽인 죄였습니다.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적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성령님의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거절한 채 자기 종교적 만족을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추구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교회를 세속화하면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 자기의 의를 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사 말씀을 전파케 하신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므로 살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다 살인하는 자니 ….” 우리는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마음으로 미워하므로 살인죄를 범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테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죄악의 정곡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인한 “너희”들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자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경유하여 주셨는데(갈3:19; 히2:2) 그 율법을 받고서도 그 율법이 예언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으니 과연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귀하에 여겨서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도 목상하면서도 그 율법의 핵심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을 보십시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있습니까? 찬송가 379장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들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던지 아니면 모래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3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듣고서 준행함을 말합니다.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자들은 비가 오며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1절).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서 비가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 크게 무너집니다(2절). 과연 우리는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이번 주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참으로 사탄이 우리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 그 갈등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입는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의 밭과 같은 마음(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여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말씀의 흡수력이 부족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받아들인 말씀들을 즉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은 묵상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2)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루는 습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루다보면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실천으로 옮기자는 결심 속에서 순종하다보면 말씀 즉시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은 스테반의 연설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찢려 심히 분개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자기들의 조상들까지 들먹이면서까지 자기들에 죄까지도 적나라케 드러내는 스테반의 연설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찢려 심히 분개하는 가운데 이까지 갈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순간 얼마나 스테반을 죽이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국은 스테반을 죽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찢림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첫 번째로 마음의 찢림의 긍정적인 반응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찢려 결국 회개하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마음에 찢림의 부정적인 반응은 사도행전 5장 33절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찢려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분개하여 이를 가는 것입니다(5:33). 여기서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blessing)이 되는지를 가리켜 주고 있고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curse)가 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가 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찢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찢림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회개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양심에 찢림이 있다면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분노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을 핍박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찢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참된 회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7장 55-60절]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인터넷).

(1) 성령 충만이란 첫째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요 16:13-14).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며 그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려움을 당하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모습을 강조하 시지 않고 그분이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에 성령님은 "숨어계시는 하나님"이라도 했습니다.

(2)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뜻합니다.

주께서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18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 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성령 충만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한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영원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술 취함으로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해 버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되 그분의 말씀 다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상한 말씀은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님을 거스려서 분개 가운데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5-60절 말씀 중심으로 목이 곧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성령 충만하였던 스테반을 생각하면서 과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보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5-56절을 보십시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테반이 보고 말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인자 예수님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약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유상섭).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까? 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순교자 스테반이 죽은 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영접하고자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셨다는 해석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 그의 종인 스테반의 메시지와 사역을 증언하시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Wiersbe).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은 그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인정하는 스테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가 신실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유상섭).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 이러한 천상 비전을 허락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북돋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여전히 그의 신실한 증인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법정 대리인과 증보자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롬

8:34; 히7:24 참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고”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질문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12장 44-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성경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들은 후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사귀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 예수님을 보고 그를 향하여 심히 분개하여 이를 깔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그를 고소하는 자유인들의 회당 소속의 지도자들이 그가 본 것을 말하였을때(56절)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57-58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고소하는 자유인들의 회당 소속 지도자들은 스테반이 말한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51절)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지금까지 사도들이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한 증거가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이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살인자들로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스테반이 말할 때 두 손으로 귀를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거스렸고 또한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거스렸고 또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55절)(유상섭).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일심으로 분개함 가운데서 스테반에게 달려들어(57절)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기시작하였습니다(58절). 그 때에 스테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모습을 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 길에서 스테반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 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스테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생사의 문턱 가운데서도 우리는 스테반처럼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리셨던 기도와 유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이 용서의 기도에는 자기를 죽이는 이 일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울을 위한 용서 기도도 됩니다(유상섭). 그런데 이 스테반의 용서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배후 조종 인물인 사울은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은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전권을 휘둘렀던 것입니다(유상섭). 그러나 결국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울은 개종하여 스테반을 이어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고난 받는 증인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용서의 기도는 강력한(powerful)한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의 “용서하는 마음”이란 글을 보십시오: 그는 “주위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인재들을 수없이 많이 두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옆에 둘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카네기는 그 비결중에 하나로 '용서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카네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였을 때, 그는 일하던 회사의 공금을 가방에 넣어서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엄청난 거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기차를 탄 그는 열차 난간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 깨어보니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졸다가 열차 밖으로 가방을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에 카네기는 사색이 된 채 기관사에게로 뛰어가 사정을 설명하고 열차를 후진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턱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비교적 순박했던때라, 딱하게 여긴 이 기관사는 몇 킬로미터 정도 열차를 후진시켜 주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도록 밖을 주시하고 있던 카네기의 눈에 문득 개울가에 떨어진 낫익은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카네기는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차에서 뛰어내려 가방을 열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열차에서 계속 보물단지처럼 그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찔했던 기억을 발단으로 해서, 카네기는 평생 실천에 옮길 중요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젊은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해도, 그가 사기성을 가지고 일부러 한 일이 아닌 이상 용서하고 품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돌연히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법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인터넷).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테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5절)이었으며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8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와 더불어 변론하는 자들이 능히 당치 못했었습니다(10절). 결국 그 변론 자들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12절) 스테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테반을 모함하였습니다. 그 때에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주목하며) 신앙생활 하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입니다(은혜 충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므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믿음 충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용서의 기도를 드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권능 충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면서)

사울 vs. 빌립

[사도행전 8장 1-8절]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세상과 충돌하라” 제1장인 “세상과 타협하며 미지근하게 살지 않는다”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함께 나란히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서로를 가로지르며 상대를 잘라버린다. 이 과정에서 마찰과 적대와 갈등과 심지어 핍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복되신 성령님은 세상의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 성령님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기독교에게 ‘이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 과연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언제나 거룩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분은 깨끗한 성소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처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면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불경스럽고 더러운 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토저).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대조하여 목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죽이는데 허락한 혹은 지시한 사울이란 인물과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성령님을 거슬러 살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 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한 평신도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울이란 인물과 빌립 집사를 목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울은 큰 핍박을 몰고 온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목상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는 목이 곧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돌로 치던 유대인들이 당시의 사법적인 관례에 따라 죽임당한 스테반의 옷을 벗겨 사울의 발에 갖다 놓음으로 그의 죽음이 정당했음을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테반의 옷 대신 자기들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벗어 놓은 것은 그들이 스테반을 죽인 행위가 사울의 허락 혹은 지시에 따라 되어진 것임을 상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유상섭).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 와서 보면 저자 누가는 “사울이 그(스테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더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죽임당 함” 이 라는 명사는 “죽여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명사형으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문에만 등장합니다(유상섭). 이 단어의 동사형은 신약에서 23번 등장하는데 그중 21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유상섭). 저자 누가가 이 동사를 주로 부당한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스테반의 죽음은 부당한 죽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박해자 사울이 보기에 는 마땅히 여겼습니다. 왜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그 만큼 스테반이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 하면, 유대교 사상에 입각하여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었는지 도무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에 그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 되는 것을 막고자 스테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초대 교회 핍박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 습니다(3절). 여기서 “잔해하다”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여기 단 한번 써졌는데 이 단어는 ‘사나운 들짐승이 몸을 물어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하는데 써졌습니다. 사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잔해하였습니다. 여자까지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잔인성이 극단 이였음을 보여줍니다(박윤선).

이러한 사울이 몰고 온 초대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큰 핍박의 결과는 무엇이였습니까?

(1) 경건한 성도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신자들은 당시

공개적으로 처형된 사람을 위해 공개적으로 애곡하는 것이 금하는 관례가 있었는데(유상섭) 이 관례를 어기고 스테반을 장하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큰 퓌박’은 ‘큰 울음/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2) 기독교 신자들이 옥에 감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나운 짐승처럼 기독교인들을 찾아 나선 사울은 각 집(가정교회?)을 수색하여 남녀 신자들을 억지로 질질 끌어내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유상섭).

(3) 사도들 외에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퓌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과 기독교 박해자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들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멀리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흩어졌습니다(행 11:19)(유상섭).

현대 교회 안에서 사울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은 ‘율법 주의적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빼놓아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빼놓아진 신앙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불붙듯한 교인입니다. 이들은 사울처럼 성경 지식도 있고 열정도 뜨겁지만 올바른 성경지식도 아니요 또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정이기에 참으로 위험한 교인입니다. 이 율법 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엄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경우 자신이 선한 존재라고 자부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점은 그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점입니다(인터넷). 씨맨즈(David A. Seamands)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중 가장 어렵고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씨맨즈).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고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경건에 어느 정도 근거하는 조건부 사랑의 형태로 바꾸어 버리고는 그 사랑을 사기 위해 무엇인가 공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며 경건의 노력을 기울입니다(박영돈). 하나님의 은혜에만 계속 신세지며 사는 것은 자기 의를

송배하는 인간의 교만한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합니다. 은혜만을 의존하는 오직 믿음의 원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쉬운 성화의 길로 보이기에 우리 안의 일종의 직관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심슨(A. B. Simpson)은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행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려 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인터넷).

과연 우리 안에 이러한 율법 주의적 태도(혹은 경향)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처럼 교회에 큰 핍박은 아닐지라도 큰 어려움을 몰고 오지는 않은지 자아성찰 해봐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빌립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울과 기독교 박해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1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4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 날에”(1절), 즉 스테반이 순교한 날에 큰 핍박(1절)으로 말미암아 큰 애곡(2절)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은 주님께서서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좀 흩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교회가 모이려고만 하면서 개교회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힘을 쓴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 말할수 없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 혹은 교제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흩어지는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고 동시에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진 뒤에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전진입니다”(인터넷).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5절부터 빌립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6장5절에서 목상했던 것처럼 빌립은 구제품의 원만한 배포를 맡기 위해 선택된 7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헬라 파 소속의 일반 평신도 중에서 스테반과 같이 매우 적극적인 복음 선포 활동을 한 인물이었습니다(유상섭).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지역에 감히 갈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빌립 집사는 그 시대의 생각을 초월하여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유상섭). 그 때 빌립 집사의 복음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1) “무리”가 일심으로 빌립의 말하는 것을 좇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여기서 초점은 빌립이 행하였던 “표적”이 아니라 빌립이 전파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빌립 집사를 일심으로 좇았던 이유는 표적보다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2)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오니.” 빌립 집사는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들도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었고 또한 중풍 병자들과 앉은뱅이들도 치유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서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13절).

(3)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울과 기독교 박해자들로 말미암아 “큰 핍박”(1절)이 있으므로 ‘큰 슬픔’(2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서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큰 능력”(13절)을 나타내시사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과 62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61:10).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큰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사62:5).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시30:11). 비록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과 같은 자들의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이 임했지만 결국은 그 큰 슬픔을 돌이켜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큰 슬픔을 돌이켜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을 맛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이다”입니다(시43:4).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슬픔을 돌이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으로 인해 놀라십니까?

[사도행전 8장 9-13절]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미혹입니까? 성령의 현상과 미혹의 영의 현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구별되는 점들을 한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 (1)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으로 구별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으로부터 행방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에 의한 영적 현상은 체험한 자로 하여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그러한 굴레에 빠져들어 가도록 합니다.

- (2) 성령의 역사는 그가 사로잡은 자를 해방과 생명과 존엄으로 이끄나 사단의 역사는 그가 사로잡은 자를 억눌림과 저주와 파멸로 이끍니다.

- (3) 성령의 역사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권세를 깨뜨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단의 권세와 능력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깨뜨려집니다.

- (4) 진리와 정결 그리고 허위와 더러운 것으로 구별됩니다.

- (5)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여 열등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외형적인 유사성 때문에 신자들은 잘못 미혹의 영의 현상을 성령의 현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를 구별하고 표적인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장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인터넷):

(1) 영의 사역을 하는 자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전통 교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나 사단은 속이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고후4:4) 계시된 신구약 66권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전통적 교회의 가르침과는 벗어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2)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하나 사단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나 사단의 역사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4) 성령의 능력과 마술의 차이는 그것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지만 마술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5) 성령의 능력은 새사람이 되게 하나 사단의 능력은 불법의 종으로 만듭니다.

(6) 도덕적 영적 열매를 보고 그 영적 출처를 압니다.

성령은 선한 열매를 맺고 미혹의 영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7)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갖지만 사단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9-13절 말씀 중심으로 시몬의 마술과 빌립 집사를 통한 이적을 생각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놀라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혹시 우리는 “자칭 큰 자로 인하여”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9절을 보십시오: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의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1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는데(4절)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5절).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표적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앉은뱅이도 나왔습니다(7절). 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과 표적을 말하였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서두에서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시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으로 그는 마술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이었습니다. 즉,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하여 자기주장인 ‘나는 큰 자 혹은 위대한 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란 인물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 혹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간주되었습니다(유상섭). 결국 사마리아인들 중 시몬의 마술의 속아 넘어간 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 력이라 하더라”(10절). 자칭 “큰 자”인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나 TV에서 거짓 목사들이 행하는 “이적”은 완전히 성도들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또한 지금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1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이적”을 행한다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한다고 말하고 보이는 이적들로 인하여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자칭 큰 자라는 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 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들어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마술적 행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이는 이적이라는 것들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혹시 우리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으로 인하여”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은 마술사 시몬을 청종하던 많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12절)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까? 마술사 시몬을 청종하며 좃던 자들이 이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칭 큰 자인 마술사 시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이 속임수인 마술로 놀라게 하였던 시몬이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진정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멋진 주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잡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한국 성경에서는 “빌립이 …”라고 써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But)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칭 큰 자로 여겨지는 참으로 인기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빌립은 마술사 시몬과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지난주일 본문인 8장 1-8절에서는 큰 핍박을 몰고 온 사울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온 빌립을 대조하는 면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9-13절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과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 집사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시몬처럼 속임수를 써가면서 사람들 앞에 자칭 큰 자가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그리스도인과 대조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인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표적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표적의 역사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를 확증하는 각종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유상섭). 다시 말하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보이게 표적인 그의 속임수 마술을 통하여 자기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칭함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하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그의 진정한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확증이었습니다. 즉, 표적의 초점은 그 표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행한 표적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빌립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주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6절)(유상섭).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좃더라”는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2:42)(유상섭). 그리고

무리들이 표적보다는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빌립의 사역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유상섭). 이러한 말씀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오직 말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25절]

☞성령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에인드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한 마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면서도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 당신의 양심이 성경말씀에서 배워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그것에 역행하지 말라. 성경의 교훈에 따르라. ... 우리가 성령님이 쓰신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뜻에 계속적으로 저항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토저). 내제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하시고 또한 그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심비에 적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양심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찢림도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도 하십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4-25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에 대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세례를 받아 교회의 멤버들이 다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리라.” 문제는 무엇이었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매 성령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17절)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를 하였을 때 받은 은혜로서 성령의 특수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디모테전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테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여기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테에게 장로의 회(지금 말로하면 노회)에서 안수 기도에 의하여 받은 은사를 등한히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봉사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테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았다는 의미는 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1) 그에게 직분을 맡기고, (2) 그를 하나님께 봉헌함이고, (3)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안수 기도하므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특수한 은사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17절). 이제 사마리아 성도들의 책임은 그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지체로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성도의 책임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케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성도들은 프리랜스(free-lance) 전도자인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받았지만 안수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받으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멤버로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Bruce).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안수받으므로 성령의 특수한 은사를 받아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였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체 관점으로 볼 때에 그들은 사도들의 안수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공동체) 멤버가 된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안수함은 사마리아 성도들의 성령을 소유한 공동체(사회)의 멤버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 사마리아 성도들을 안수함으로 성령님의 특수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빌립의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아 거듭났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본문이기는 하지만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미 빌립의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갈4:15).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님의 특수한 은사를 받았다는 해석이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엡4:7).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외면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은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말(6절), 빌립의 전도함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12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서는 아니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돈 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에 마술사였던 시몬이란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18절) 자기도 “이 권능”을 달라고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19절). 그 때에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20절).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시몬의 죄는 무엇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3가지로 말하였습니다:

(1) 하나님의 능력을 돈의 가치와 같은 것으로 평가한 죄입니다.

그것은 돈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 황금만능주의로서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함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우리가 팔 잘랐고 못났고 조건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믿는다고 했지만(13절) 아직도 그의 속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세속주의자는 종교를 자아 봉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안수의 행위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줄 잘못 안 것이니, 그것은 아직도 요술 관념으로 천국의 일도 취급하려는 망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박운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자들 중에는 어떤 은혜로운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며, 그의 안수를 받아야만 은혜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은 생각이다. 그것은 도리어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지장을 준다.” 결국 시몬의 죄의 결과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입니다(20절).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술보다더 좋은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돈 욕심 속에서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노여움 가운데서 질책한 것입니다(유상섭).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21절). 즉, 시몬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능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더 벌려는 탐심을 베드로는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22절). 곧 마음의 품은 악이 큰 문제이니 그것부터 회개하므로 해결할 것을 말할 권면하였지만 시몬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기보다 그의 관심은 자기에게 선포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당부했습니다(유상섭).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은사)를 주셨나니”(엡4:7). 이 말씀은 우리 각자 모두가 은사를 받았고 또한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는 것(receiving)이지 얻는 것(earning)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보상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안수하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한 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행8:25). 곧, 그들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두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사마리아 여기 저기 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25절). 이 두 사도의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전과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도들처럼 복음전과에 힘을 쓰므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성취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행전 8장 26-40절]

오늘의 미국 목회자들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목회, 신앙 관련 사회조사 기관인 바나 그룹(The Barna Group)이 미국 전역에서 목회자 627명을 뽑아 '목회자 자기 인식'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미국 평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와 대인관계 등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하여 한 7개 항목으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 2번째 항목이 좀 오늘 본문만 연관이 있어서 나눕니다: 교육자로서, 제자훈련지도자로서, 그리고 지도력에 있어서는 높은 자기 확신을 보였습니다. “나는 유능한 성경 교사 다”에 98%의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10명의 9명은 '나는 유능한 지도자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10명의 8명이 '나는 유능한 제자훈련지도자다'라고 응답했다.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참여하고 있다'에도 10명의 7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과연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설문조사에서 미국 목회자들이 말한 것처럼 “유능한 성경 교사”요,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유능한 제자훈련 지도자”입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미국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아인식대로 저나 우리 한국 이민 교회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유능한 성경 교사요, 지도자요 그리고 제자훈련 지도자라면 과연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리 목회자의 자아인식이 착각이던지 (2) 아니면 성도님들이 성경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기 거부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던지. 이번 조사의 디렉터를 맡은 데이비드 킨너먼이란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은 했지만, 자기 교회의 당면 비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다. 또한 지역교회에 긴밀하게 참여한다고하는 목회자들도, 그들의 교회를 보면 교회 담장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중심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유능한 제자훈련 지도자라고 응답한 목회자가 다수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하고있는 교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인터넷).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역자들의 자아인식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유능한 교역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유능한 제자 훈련 지도자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교인들은 어떠한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4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는?”란 제목 아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집사를 통하여 과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취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빌립 집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26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29절).

(2)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떠나서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27절을 보면 빌립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함에 있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좋지 않으면 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었습니다:

(a) 첫째 문제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명하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길은 광야의 길이였습니다.

즉, 그 길은 위험한 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때에 내시가 가던 길은 황막한 사막 길이었으니, 위험하기도 하였습니다.

(b) 둘째 문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신체적인 불구로 간주되는 환관, 즉 고자된관리였습니다(박윤선).

이러한 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유상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님에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빌립 집사는 선입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3)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 소리를 청중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명하셨을 때(행8:26) 빌립 집사는 ‘일어나 갔 습니다’(27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령님께서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하셨을 때에(29절)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던 병거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30절).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민첩하고 즉각적 이였습니다(박윤선).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민첩하고 즉각적입니까?

‘나쁜 습관을 버려야 성공합니다’: “흔히 세일즈에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Perfection, procrastination, Paralysis”를 지적하며 이를 3P”라고 합니다(인터넷):

(1) “Perfection”(완전, 완벽):

무슨 일에도 실패를 두려워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 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남에게 허점을 보여서도 안 되고 남에게 욕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틀림없는 일만 해야 하고 칭찬만 들어야 하고 절대로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도전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합니다.

(2) “Procrastination”(지연, 연기, 꾸물거림):

무슨 일이든 닥치면 곧 바로 하는 법이 없이 그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겹 많은 친구가 도둑이 담을 넘어 오는걸 보고는 '이 놈의 도둑, 마당에만 들어와 봐라' 마당에 들어오니 '이 놈의 도둑, 마루에만 올라와 봐라' '방에만 들어와 봐라' 하다가 방에까지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나니 '이 놈의 도둑 다시 오기만 해봐라'했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는 사람은 이렇게 버리기만 하다가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3) “Paralysis”(무기력):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내 주제에, 내 팔자에'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쁜 습관들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나쁜 습관은 바로 “procrastination”, 즉, 지연하는 것, 연기하는 것, 꾸물거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빌립 집사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순종하기를 꾸물거리며 미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엘리야 시대 때에 꾸물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 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 거리는 것, 침묵하는 것, 다 순종함에 있어서 즉각적이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빌립처럼 성령님께 민첩하게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대화(dialogue)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 전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배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 (1)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어나 가라”는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가는 것이 내기치 않는다고 그저 앉아서 계속 안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금년도 표어대로 “사람을 얻는 자”(잠11:30)가 돼야 할 텐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사람)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 (2) 성령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적도 베푸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며 또한 신체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셨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전도자 빌립 집사를 성령으로 지시하여 이방인 한 사람에게 인도하신 사실을 보고 이렇게 한 3가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열심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2) 다만 한 사람에게 전도하시기 위하여서도 얼마나 큰 성의를 기울이심을 알 수 있고, (3) 그 내시가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로 인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가 깨어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를 더욱 각근히 권고하신다는 증표입니다(박윤선).

- (3) 성령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던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태신 자들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룹 세팅에서는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영혼에게 다가감에 있어서는 무대포로 그냥 다가가기보다 상대 방에게 가까이 나아가 머물러 있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국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던 병거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병거로 초청하는(“청하여”) 모습을 보게 됩니다(31절).

- (4) 상대방 상황(입장)에서부터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상황에서 대화한다는 말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던 병거로 가까이 나아갔었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은 것을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말씀이 28절과 30절에 두번이나 언급한 것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 중 특히 이사야 53장 7-8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유상섭). 그러기에 빌립 집사의 첫 대화 질문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사야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좀 상대방에게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민도 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그저 내 말하기에 바쁘면 아니됩니다. 잠언 18장 2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 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잠언 20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 으니라 그럴찌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5)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다가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을 때(30절)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깨 닫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31절) 빌립을 병거로 청한 후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7-8절에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빌립에게 물었습니다(34절). 그 질문에 빌립 집사는 입을 열어 이사야 53장 7-8절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사 야서 53장의 내용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같이 고난 받은 여호와의 종, 곧 고난 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한 학자들은 전무했다. 당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선지자 이사야 자신의 고난으로 보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고난으로 보았다. 더욱이 메시아의 고난이란 개념은 그들의 사고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사 람들은 이사야서에 언급된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유상섭). 그러므로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53장 7-8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이노 타인을 가리킴이노”(행8:34)라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 때에 빌립 집사는 이사야 53장 7-8절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파하였습니다.

(6) 세례를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면 길 다가가 물 있는 곳을 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36절)라고 말한 후 병거를 머물러 내려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빌립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 교회로 인도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세례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떠나서 청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인,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주여 뉘시오니이까?”

[사도행전 9장 1-9절]

과연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입니다. 신앙은 변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교회는 변화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옥한흠)(인터넷).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에 대해 “거지인가 왕자인가” 라는 책의 저자 로버트 멩어(Robert Boyd Munger)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연약함과 실패와 미약함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으며, 무능력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의 갈망은 바로 이러하다. 즉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한다. 저자의 말처럼, ‘변화된 삶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과거에 대한 용서나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이상’이다. 이 선물은 바로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릴 것인가? 저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자리바꿈”이란 말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바꿈은 항상 두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사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직도 삶의 어떤 부분을 나 자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자리바꿈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리바꿈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 양도, 또는 헌신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단계를 신뢰, 혹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라고 부른다”(인터넷).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사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위협과 살기등등한 사울을 보십시오(예수님을 믿기 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개종하던 때가 바로 그의 발악의 최절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그는 우리가 이미 목상했다시피 스테반이 순교한 후에도 “...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곤 했었습니다(8:3). 그런데 그는 “여전히”(still)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9:1). 여기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는 말씀은 사울은 숨을 내쉬듯이 주님의 제자들을 대항하여 위협과 살인을 여전히 뿜어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뿜어내고 있었던 숨은 주님의 제자를 해하는 위협과 살인의 숨이었습니다(유상섭). 그러므로 사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하였습니다(2절).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팔레스틴 밖에 있는 유대인 관할권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맡겼고 사울이 만났던 대제사장이 바로 그 산헤드린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시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인도 송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사울은 그 대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박윤선). 왜 사울은 이 대제사장을 만났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위협적이고 살인적인 숨을 내쉬면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도” 즉, 기독교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메섹은 수리아(시리아)에 있는 약대상들의 무역 교차로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로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한 6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그가 변화를 받은 후 빌립보서 3장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빌3:6). 왜 사울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훈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원인은 불신앙과 무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지체하지 않은 것은 철두철미한 유대교 신앙 때문입니다(유상섭). 그의 철두철미한 유대교 사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은 결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처형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사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의무’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처럼 ‘불신앙과 무지’ 가운데서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사울처럼 잘못된 혹은 빼놓여진 신앙관과 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혹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랄만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불신앙과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호4:6). 이러한 무지의 결과는 불신앙이며 불신앙의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듣고 우리 또한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 (빌3:8).

둘째로, 땅에 엎드려진 사울을 보십시오(예수님을 만난 순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3절). 그 때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사울을 둘러 비춘 빛은 승귀하신 예수님에게서 반사된 빛이었습니다(유상섭).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라고 말한 것을보면 알 수 있습니다(17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므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홀연히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던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서 들렸던 승귀하신 주님의 음성은 "사울 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에는 사울이 기독교 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진리는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즉,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는 바울을 볼 때에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연합된 관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주여 뉘시 오니까"라고 질문합니다(5절). 여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존칭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적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 존재가 꼭 예수님이라고 사울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유상섭).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울의 질문인 "주여 뉘시오니이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모든 신학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유상섭). 이 순간이 바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선포 자가 되는 대전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에 의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지고 갈 자로 부름받았습니다(유상섭).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중생(Conversion)과 부르심(사명)(Commission)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대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의 부르심(사명)을 받은 그 대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지함 가운데서 사울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감에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깁니다. 위대한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언제나 위대한 전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분수령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변화를 묻는 질문을 접할 때마다 다메섹 가던 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인생 전환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잘못된 목적에 사로잡혀서 살던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였습니다”(인터넷).

마지막 셋째로,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울(예수님을 만난 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승귀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울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예수님을 질문을 하였습니다(22:10).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9:6). 그 이유는 성으로 들어가면 사울에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를 주님께서 준 비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그 때에 사울과 같이 가던 일행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7절). 여기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승귀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유상섭).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 가서 보면 사울과 함께한 자들이 “말하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9장은 동행하는 자들이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22장은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 곧 말의 내용을 알아듣지(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유상섭). 후에 사울에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일행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9:8). 그리고 사울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9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무기력해진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까지 가서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었습니다(9:1-2). 그러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오히려 같은 일행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9:8). 기독교인들을 다메섹에서 끌로 예루살렘으로 가야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무기력해진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사흘 동안 식음도 전폐한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철저히 무기력해진 사울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좀 철저히 무기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에스겔 29장 15-16절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미약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9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29장 15절을 보십시오: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 스스로 교만해질 위험이 너무 많은 우리들은 무기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29장 15절을 보십시오: “...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내가 내자신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악 된 본능이 나를 다스리도록 놓아둘 위험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3)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자입니다. 에스겔 29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말씀 묵상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게 된 당시와 믿은 후에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도를 좇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므로 그는 중생하였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을 믿은 후의 바울의 삶은 눈이 보이지 않아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나므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의 태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 알길 기원하면서)

“택한 나의 그릇”

[사도행전 9장 10-19절 상반절]

18세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영적 부흥 운동을 아십니까? 이른바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를 비롯하여, 우수한 대학들도 이 운동의 영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운동의 선두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서 있었습니다.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시대의 목회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일 다섯 가지 결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한 순간의 시간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인터넷).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0-19절 상반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미 “주여 뉘시오니까”라는 제목 아래 사울의 간증을

묵상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Before Christ),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On Christ),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후(After Christ)의 사울의 모습을 묵상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9절).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다메섹에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8-9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들려주신 말씀의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합니다(6절). 결국, 주님은 그의 택한 그릇인 사울(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주시고(중생) 또한 그에게사명(commission)을 주신 후 다메섹으로 들어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므로말미암아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십시오: “...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두 가지 목적은 바로 바울의 눈을 다시금 보게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목적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서는 모든 유대 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22:12) 교회를 광적으로 핍박하며 살인한 사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유상섭). 아무도 사울의 개종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할 텐데 주님께서서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통하여(22:12) 사울의 개종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의 제자들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므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므로 사울을 믿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유상섭). 주님께서서는 환상 중에 그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9:11).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10절). 이러한 반응은 어린 사무엘도 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세 번이나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삼상3:9).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10절). 이사야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의 반응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였습니다(사6:8).

(2) 주님은 어떠한 자에게 그의 제자를 보내시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1-12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주님은 그의 제자를 기도하는 자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 아나니아를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던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하여금 기도하러 기도처에 모인 루디아와 그의 일행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b) 주님은 그의 제자를 비전을 본 자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십시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하는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미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비전을 통하여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확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만이 부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등, ‘부정적 자질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80세의 늙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고, 요셉은 노예였으며,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을 부르실 때는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많은 예들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은 소명을 낳습니다. 역사상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소명을 위해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사명의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에 화재의 불길로부터 구조되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급격히 세속화되어 가는 영국 교회에 ‘개혁’이라는 소명을 위해 주께서 자기를 살리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인간이 진정으로 소명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질 때,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오직 신앙만이 잠재력에 불을 붙일 수 있으며 삶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마지막 둘째로, “가라”고 다시 명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 이미 비전을

본 사울에게 가라고 명하셨을 때에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 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13-14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주님의 명령이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함에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중 한명으로서 사울의 표적(target)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모르고 있기에 그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님의 이 명령이 어렵고 또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칼빈은 이때의 아나니아의 의문은 하나의 공포심으로 나타난 불신앙인 듯하다 라고 말하였고 슬라텔(A. Schlatter)이란 학자는 여기 아나니아의 말이 공포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시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그 말은 어떻게 사울과 같이 무서운 핍박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표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의아해하면서 주저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아나니아에게 “가라”(15절)고 명하시면서 그 “가라”는 이유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 “가라”는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택한 나의 그릇”이란 표현은 도구 혹은 물건을 담는 용기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활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하고 죽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운반하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선택받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유상섭).

(2) “가라”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사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다시 가라고 명하셨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이유는 사울의 사명이 복음 증거요 고난 받음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즉시

직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 방문하여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17절).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17절). 놀랍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가리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핍박자 사울, 그러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 받은 사울을 주님을 믿는 동일한 형제로 여겼습니다(유상섭).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사울에게 보내셨다고 말한 후 그 이유가 두 가지, 즉 다시 시력을찾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습니다(18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 찾으라’(11절)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주여 이 사람”(13절)은 ...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릴 때 참 많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시 “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한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운반하는 수레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사명)에 어떻게 반응하 시겠습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습니다”(인터넷).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 4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 둘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3) 셋째는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4) 넷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독자적인 경영과 이노베이션(미야타 와하키로 저)"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탁월한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익의 질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데는 비용이나 경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이익은 높은 생산성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질 좋은 이익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독자성 있는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전략과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전략을 통해 이익을 남기고 관리를 통해 낭비를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원점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일평생 살면서 사명에서 벗어나지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성공한 인생을 서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인터넷).

주님께 택함을 받아 주님의 일군이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더 이끄림을 받길 기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31절]

회심한 사람은, 즉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더욱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변혁(transformation)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변혁의 삶을 더욱더 진전시키는 것 입니까?

(1)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믿음은 자기 충족, 자기 의존, 자기 몰두를 모두 버리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며하나 되어 교제하게 합니다. 소망은 확신을 유지해주며, 냉담함과 절망을 모두 쫓아냅니다.

(2) 회개와 순종 가운데 사는 것은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회개는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다가 이제 옳은 일을 행하려는 겸손한 정직함입니다. 순종은 우리 편의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양심 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3) 의존과 기대 가운데 사는 것은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4) 굴복과 꾸준함 가운데 사는 것은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5) 찬송과 헌신 가운데 사는 것은 변혁을 진전시킵니다.

교제와 봉사의 삶을 사는 것 역시 변혁을 진전시킵니다(인터넷).

사울은 회심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더욱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삶을 사도행전 9장 15-16절에 근거하여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름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과 고난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9-31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목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한 세 가지로 목상하며 삶 속에 적용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힘을 더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의 명령(6절)에 순종하여(8절)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그의 안수를 받고(17절) 다시금 볼 수가 있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고 또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18절). 그런 후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19절) 그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20절). 그 때에 그의 전파함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그 예수님을 믿어 변하여 복음을 전하니 어찌 다 이 기적 같은 일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사울은 그러나 오히려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였습니다(22절). 과연 사울이 더 얻었던 힘은 무엇이였을까요? 음식을 더 먹어서 육신적으로 힘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19절). 이것은 “영력”(spiritual power)을 말하고 있습니다(박운선). 결국 사울은 그의 영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이 구약에 근거하여 명백함을 지적하므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혼란시켰습니다(22절)(유상섭). 여기서 사울이 얻었던 “영력”이란 무엇입니까?

영력이란 영적 힘(spiritual power)을 의미하는데 그 힘을 한 네 가지로 저는 저희 교회에 모든 심령들에게 적용하길 기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 ‘성령의 힘’, ‘말씀의 힘’ 그리고 ‘사랑의 힘’입니다. 영력은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고를 닮는 것입니다(인터넷). 즉, 영성이란 영적 성품이나 영적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훌륭하다는 것은 영적 성품이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영성은 은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은사적인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마음이 쉬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11:28-30). 멍에를 메고도 쉬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참다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의 무게에 눌려서 정신도 못 차리는 그 상태를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십자가의 무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해서 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영력이라야 영성이 밀바탕 된 영력입니다(인터넷). 이러한 영력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에 십자가를 지면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영성이 밀바탕 된 영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능력을 간구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둘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 즉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유상섭) 사울의 예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들은 다메섹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23절). 그래서 이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다메섹 도성의 모든 성문까지 지켰습니다(24절). 이 계교를 알게 된 사울은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25절)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사울 죽이기를’에서 ‘죽이다’라는 단어는 ‘제거하다’는 의미로서 이미 우리가 목상한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스테반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메시아(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을 때 다메섹 유대인들에게 제거를 당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스테반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데 유대인들에게 제거당하는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왜 사울은 이러한 위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사울이 주님께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과 고난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9:15-16)(유상섭). 이미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 때 시편 2편 1-2절 말씀의 예언처럼 “세상의 군왕들”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왕들이 합동으로 자기를 대적하신 것을 경험하시사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유대인들의 합동으로 공모하여 죽이려고 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고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과 고난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사명에 대해서 한 두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원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가운데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때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후 많은 날이 지난 후에 고난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던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크신능력 가운데 복음 증거를 감당할 때에 큰 핍박과 고난도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러 날”, 즉 “많은 날이 지난 후”에란 말씀은 사울의 아라비아 생활의 3년 기간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사명에 대해서 얻는 교훈은 광야의 생활 후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영성훈련을 쌓은 후 사울처럼 영력을 더 한 후에 유혹과 핍박,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행9:16)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 공모를 하므로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 도성을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26절). 그가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교제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여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만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바나바와의 만남 이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는 바깥으로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 그리고 안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신(사울의 개종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립되어 고독한 가운데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울의 개종 사건과 그가 개종 후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 증거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다메섹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29절). 그 때에 헬라 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사울은 또 다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다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두려움과 불신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 받고 사명을 받은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여 사울의 제자 됨을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을 고립시켰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하여 불신을 낳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고 품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귄,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울도 바나바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계속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긍정적인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바나바와의 만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세 만남이 본문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 첫째 제일 중요한 만남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2) 둘째 만남은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3) 그런 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제일 근본적인 만남이 돼야 하며 그 후에 만남 속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선배나 위로자, 즉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3) 우리는 바나바처럼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리고”란 헬라어 동사는 신약에 18번 등장하는 단어로서 “꼭 잡다” 혹은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유상섭). 이 단어는 흔히 “강제로 붙잡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눅20:20, 23:26; 행16:19, 17:19, 18:17, 21:30, 33, 23:19). 이는 바나바의 행동이 사울의 부탁과 당부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강요하여 사울을 사도 들에게 끌고 갔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는데 바나바는 오히려 그에게 접근하여 그를 꼭 잡고 사도들에게 인도한 것입니다(유상섭).

변화된 사울로 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결과를 도래했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서운 핍박자 사울이 개종하고 보니 교회는 외적으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때에 교회는 두 가지, 곧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전진하였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 더하여지는 동시에 영적 평안도 더해졌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때의 교회는 신자들의 숫자도 증가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내적 생명이 풍성해진 데 따르는 결과입니다. 영력이 빈약한 교회는 신자들의 수적 증가를 확보하지 못합니다(박윤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선포하길 기원하면서)

성장하는 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성장연구소”에 나와 있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변화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가지를 제안합니다(인터넷):

(1) 변화를 위한 지도력을 확보하십시오.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변화는 그 지도자와 함께 시작된다. 개혁을 위한 리더십 팀을 만드십시오.

(2) 건강한 교회의 표적을 구하십시오.

변화의 목적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교회는 진단, 처방, 노력, 능력의 합산의 결과입니다. 건강진단과 처방은 필수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적은 믿음, 리더십, 탁월성, 헌신, 창조성, 순종 등입니다.

(3) 창조적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감이 없는 것입니다. 건전한 위기감(sense of urgency)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개혁은 즐거운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4)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앞을 보지 않고 백미러만 보는 자는 반드시 실 패합니다. 과거형 목회도 현재형 목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형 목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형식보다는 의미를, 보존보다는 창조를 추구하십시오.

(5) 예산과 재정을 재평가하십시오.

앞으로는 경제문제가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성관리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과 재정 상태를 보면 그 교회의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6) 비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행동, 관계, 능력, 영성 면에서 구별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비전은 소유보다 전달과 성취가 더 중요합니다. 비전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7) 성도들을 힘 있게 하십시오.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성도를 돕는 한 명의 목회자보다는 목사를 돕는 다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일이야말로 목회자의 최대 사명입니다.

(8)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할 줄 알아야 큰 성공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존재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9) 변화의 재생산을 추구하십시오.

변화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한 조직의 성공은 다른 조직의 성공으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소유모델이 아니라 분배모델로서 존재합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해주어도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10) 변화의 문화를 정착시키십시오.

변화는 단 두 사건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생활양식입니다. 변화가 교회의 문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가 바뀌면 모든것이 바뀝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지 한 4가지로 목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 초대 교회에 평안함이 있었던 환경은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는 내적인 평안함이었습니다(유상섭). 이러한 내적인 평안함은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여 모여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20:19, 21).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은 어떠한가? 과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평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있고 교회들은 어떠한가? 이런 저런 문제로 교회의 평안함이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성경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다 평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세 지역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8-9장에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여기 저기 전파되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도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기보다 교회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흩어지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 저기 교회에 가서 평안함을 전하기보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평안함을 깨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도 있겠지만 화평을 깨는 자(Peace-breakers)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빌4:6-7). 피스메이커 사역의 설립자이며 대표인 켄 산데 목사님이 1982년부터 성서적인 원리를 사용하여 교회 분열과 사업, 고용, 가정상의 논쟁을 포함한 수백 개의 갈등사례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피스 메이커”- 개인적인 갈등해결의 성서적 지침서(The Peacemaker: A Biblical Guide to Resolving Personal Conflict)를 비롯하여 갈등 해결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먼저 성경을 통해 갈등 해결의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스 메이커의 완벽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원리들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운다면 갈등에 대한 회피 및 공격 반응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갈등이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차이는 자연스럽고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동의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기뻐하고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롬 15:7,14:1~13). 기독교인이라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약 4:1~2, 마 18:15)”(인터넷).

둘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 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 여기서 든든히 서 가로’란 말은 세워 올라감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부적 사업 면을 말함이 아니고 내부적인 경건 면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초대 교회 여러 지역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크게 건설되기보다 내부적으로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영적으로 크게 건설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크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란 말씀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든든히 서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박윤선). 그렇다면 성장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는 교훈은 즉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나 이민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크게 교회 건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사랑의 요소보다 분열되었던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3)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보고 말하 고, 행동도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덕을 쌓아 나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 출석을 막는 것을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혀(말)를 조심해야 합니다.우리의 혀로 죄를 범치 말도록 힘써야 합니다.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의 덕이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생활을 이끌어 가는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내 주장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하는 믿음생활이라면 덕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주장만 옳다고 내 세우면 그것이 아무리 틀린 것이 아니라 해 도덕있는 행위는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만 하면 그것이 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지는 것이 덕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양보가 덕입니다(인터넷).

셋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 여기서 “주를 경외함”이란 말은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행하면서 그의 뜻을 순종하려고 전심함”입니다(Maclaren, 박윤선).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므로 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의식 가운데서 경외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 중에 하나가 아모스 5장 14절에 적혀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그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도 우리 안에 넘칩니다(고전 1:5).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고후1:4). 이러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환난 중에도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박윤선).

교회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사 충분한 위로를 주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십니다(롬 15:4). 이러한 위로를 받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성장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교회가 외부적으로 장성함이니,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됨을 이릅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은혜는 없이 숫자만 많아지면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같은 내부적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양적으로도 장성하고 또 영적 평안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박윤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4장 4절에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남자의 수만 약 오천이나 되었고 6장 1절에는 “제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꽃 향린 교회 김경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병폐가 성장주의라고 봅니다. 성장주의 병은 큰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도 걸려 있지요. 교인 수 배가 운동하고, 끊임없이 숫자의 성장만을 제시하지요. 숫자의 증가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실은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과 거리가 먼 거죠. 성장 병을 고쳐야겠다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겁니다. 사실 목사가 성장 병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거기서부터 선을 긋자고 스스로 다짐을 했고, 자립할 만한 규모가 되면 분가를 해서 자립한 공동체 교회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의 방법이라 생각했어요”(인터넷). 여러분들의 김경호 목사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양적 성장)하는 것이 무조건 비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질적 성장만을 주장하면서 양적 성장을 비판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교회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여 양도독질을 하는 것도 교회의 큰 문제이지만 질적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양적 성장이 없다는 사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윌리엄 채드윅 목사님은 그의 책 “양도독질”(Sheep Stealing)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도독질했던 성장제일주의 목사”라고 말하면서 양심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는 왜곡된 교회성장의 이면 가운데 하나인 '수평이동성장' 문제를 이 책에서 들춰낸 것입니다. 그는 교인을 양(sheep)에 비유하고, 이웃 교회의 교인을 내 교회로 옮겨오게끔 만드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저자는 대담하게 양도독질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90년대 들어 수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동안의 교회성장이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 전도에 의한 새 신자 증가)이 아니라 '수평이동성장'(transfer growth, 교인들의 수평이동에 의한 외형적 성장)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통계상으로만 성장했을 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스스로 수평이동성장을 추구한 목회자였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수평이동성장이 아니라 회심 성장이어야 함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즉, 저자가 이웃 교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인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교회를 살찌운 이른바 양도독질의 내력을 구체적으로 고백한다”(인터넷).

우리 교회는 평안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길 기원하면서)

교인 수만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이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어제 저녁 8시, 영어사역 성경공부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첫째로 예상하지 못한 일은 저는 많이 오면 두 명이 올 줄로 예상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지난주일 영어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영어사역 두 명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금요 성경공부 모임을 금년 말까지 쉬자고 제안한 후 몇 주 동안 모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이라도 금요일 성경공부에 참석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말씀 묵상을 통하여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한명만 올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지도자 한 명 대학생 형제도 어찌면 오겠다고 생각했었는데 7명이나 온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은 그 7명 지체들중에 한 형제와 성경공부 후 주님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그 형제를 더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성경공부 후에도 다른 지체들이 찬양 연습을 할 때에 저는 그 형제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 형제가 지금 겪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그 형제가 자신의 마음에 평안(peace)이 있다고 말하니 감사했습니다. 일곱 자매, 형제들과 성경공부 후 그 중에 한 형제하고 이렇게 귀한 대화를 한 후 저는 두 학생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와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날 밥 잠들기 전에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읽을 사도행전 9장부터 말씀을 읽다가 제 시선이 31절에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절에도 어제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처럼 초대 교회에 신자들의 “수가 더 많이 자니라”[“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하고 사도행전 9장 1-30 절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대 교회의 신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현대인의 성경). 제가 사도행전 9장 1-30절을 읽고 읽다가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신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신 방법을 19-20절과 29절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19-20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28-29절).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초대 교회에 신자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던(4-5절)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게(conversion)하시고 사명(commission)을 주시사 그 “택한 나(주님)의 그릇”(15절)인 사울로 하여금 “각 회당”과(20절)과 “예루살렘에 출입하며”(28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29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20절) “담대히”(29절) “전파”(20절)케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하시므로(22절) 신자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말을 듣고 당혹하게 되었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22절)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고(23절)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29절).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29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22절) 담대히(27, 29절) 증언(말)하므로(22, 29절) 말미암아 초대교회에는 신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과연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언하므로 초대 교회에는 신자의 수만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과연 신자의 수만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의 근거를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 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주님께서 한 세 가지 역사를 이루시사 초대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초대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 교회가 평안하여 ...” 좀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어떻게 초대 교회는 평안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는 줄로 초대 교회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성도들은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기에 (엡4:3) 그 교회는 평안했던 것입니다.

(2) 초대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 든든히 서가고 ...” 어떻게 초대 교회 신자들은 든든히 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행20:32,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자신들의 모든 길을 든든히 했던 것입니다(잠4:26).

(3)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핍박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초대 교회에는 신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난 것입니다(31절하). 결국 초대 교회는 교인 수만 더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교회였습니다(31절).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신자,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승리공동체로 세움 받는 교회가 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교인다운 교인과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일어나라!”

[사도행전 9장 32-43절]

“교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10가지를 제안 중 세 번째 요소”를 보면 “창조적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감이 없는 것입니다. 건전한 위기감(sense of urgency)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개혁은 즐거운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행동으로 가능합니다”(인터넷).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2006. 10.11)의 실린 마크 부로갑 목사님의 글을 보면 극한 상황에 처할 때를 가리켜 “위기는 배움의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움의 기회입니까? (1) 우리는 위기를 겸손해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품는 편을 택할때 우리의 위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2) 우리는 위기를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3) 우리는 위기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위기를 모험 속에 기쁨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크리스찬 투데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43절을 보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한 마디로 말하면 “누워있는 심령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워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의 능력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목상하면서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워있는 심령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4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 부분은 32-35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에니아를 치유한 사건’과 둘째 부분은 36-43절에 나오는 ‘도르가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 두 치유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3절과 37절에 두 치유 사건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단어 ‘눕다’라는 단어입니다[(33 절) “... 누운지 ...”, (37절) “... 눕우니라”]. (1) 첫 번째 부분(32-35절)에 나오는 에니아(Aeneas)라는 사람은 룻다에 사는 사람으로서(32절)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던 병자였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자는 신경이 마비되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으로서 애니아는 8년 동안이나 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 누워있었습니다. (2) 두 번째 부분(36-43절)에 나오는 다비다(Tabitha) 또는 도르가(Dorcas)라는 주님의 여제자는(36절) 욥바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병들어 이미 죽어서 장례 준비하고 자 다락에 나온바 되어 있었습니다(37절). 이 두 사람 생각해 볼 때에 한 사람은 질병으로 신경이 마비된 상태로 8년이나 있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죽어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조차도 사라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1989년 2월 5일 로고스교회를 개척한 정확히 4개월이 지나서 혹독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 열 가지로 나누셨습니다(인터넷):

(1) 믿음을 상실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수 없다는 역설적인 확신이 찾아왔다. 하나님도, 의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가장 귀히 여기는 어머니의 손길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엄습해 왔다. 영적 믿음은 뒤로하고 자연적인 믿음마저도 상실했던 것이다.

(2) 의욕을 상실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마친 후에 무엇인가를 성취해 보고 싶었던 열망이 사라졌다. 그토록 좋아하던 책들을 모두 덤프트럭에 담아 버리고 싶었다. 식욕, 성욕, 성취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음의 소원이 사라진 것이다. 소원과 함께 소망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3)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현실이긴 했지만 죽고 싶었다.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자살하고 싶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엑셀레터를 밟고 싶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 찾아왔던 것이다.

(4) 무력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찾아왔다.

기력이 쇠진한 것을 느꼈다.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다. 자신감은 능력에서 온다. 그런데 무력감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다.

(5) 정체성의 혼돈이 찾아왔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심각하게 시작한 것이다. 영적 침체로 쓰러져서 개척한 교회를 그만 둔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목사라는 신분으로 지탱해 왔고, 공부하고 있다는 학생의 신분으로 지탱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놓아 버린다면 나는 누구냐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개척한 교회를 내려놓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가슴에 품었던 큰 꿈도 내려놓는다면 나는 누구냐는 질문이 엄습해 온 것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가장 혹독한 시험은 정체성의 시험이었다. 마귀는 세 번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의혹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세 번 중에 두 번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6)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 각을 상실했다. 목회에 관한 긍정적인 안목을 상실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힘들게만 보였다. 땀의식, 실패의식, 절망의식, 불가능의식, 피해의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염려와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찾아왔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교회 개척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문제였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창이 막지 못함으로 모든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의 내면은 어두웠고, 나의 내면의 대화는 너무나 부정적이었다.

(7) 생각의 초점이 흐려졌다.

스트레스란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데서 생긴다.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스트레스다. 만약에 생각이 분명하고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스트레스는 쉽게 극복된다. 영적 침체는 생각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욱 나의 목회의 짐이 무겁게 느껴졌다.

(8) 몸이 연약해지면서 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영적 침체를 통과할 때 받은 염려라는 괴물 때문이었다. 염려가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일어났다. 염려가 찾아오면서 믿음이 약해졌다. 염려가 찾아오면서 심장이 뛰고,

손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났다. 생각에 따라 육체가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9)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다.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의식이 생겼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개척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의식이 생겼다. 내게 일어난 영적 침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느끼는 것보다 사람들을 탓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가장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 때에 오직 홀로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더 괴로웠던 것은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이다. 영적 침체를 통과하기 전에는 홀로 있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영적 침체중에 있을 때 홀로 있음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홀로 있는 동안에 어두운 생각들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10) 가장 무서운 시련은 사명감을 상실한 것이었다.

목회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사명감이 투철할 때 모든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사명감은 우리를 고고하게 만든다.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고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만든다.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행 20:24). 그런데 나는 영적 침체로 사명감을 상실하면서 로렘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 거두기를 구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침체의 현상 중 한 두개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3-4장에서 목상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는 선천적으로 앓은뱅이로 태어나 40년간을 비참하게 산 걸인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으로 8년 누워있었던 애니아의 치유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유상섭).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이미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앓은뱅이를 치유했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3:6)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3:7) 뛰어 서서

결었습니다(3:8).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애니아를 치유함에 있어서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니아는 “곧”(immediately)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 갔습니다(3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적인 다비다라는 여 제자를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자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36-43절). 먼저 “다비다”라는 아람어로 된 이름의 뜻은 “은혜롭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노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박윤선). 그녀의 아름다움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36절). 그 한 예로 베드로가 읍바로 청함을 받아와서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곳 이르렀을 때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도르가)가 그들과 있었을 때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 어 보였습니다(39절). 이 속옷과 겹옷들은 다비다가 선행과 주제하려고 지은 옷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여 제자 다비다라는 자매는 신앙이 참으로 독실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의 사망을 심히 가석히 여겨(38절)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박윤선).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하였습니다(40 절). 이 베드로의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달리다 쿨”(막5:41)]고 외친 것을 생각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결과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행9:40). 베드로가 손을 내 밀어 그녀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녀의 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41절). 그 결과 온 읍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42절).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오: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룻다에 사는 누은 지 팔년이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또한 병들어 이미 죽은 읍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29절 후반절에서 30절에 나와있습니다: “... 또 중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낮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8년 된 중풍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미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또한 효과적으로) 선포되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8년 된 중풍 병자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치료하셨을 때 결과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습니다(35절). 또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읍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42절).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이러한

치유와 그로 인한 대대적인 전도는 사도들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오늘 날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문제는 치유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 하는 데 있다. 이 점만 조심한다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유상섭).

잊지 못하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난 엘리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탈진하여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누워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마치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던 병자 에니아를 치료하시사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들어 이미 죽어서 장례 준비하고자 다락에 나온바 되어 주님의 여 제자 다비다(도르가)를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복음성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안에서 오뚝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8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내 우상이며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여인은 피터 제닝스, 덴 래더스, 톰 브로코우 등 쟁쟁한 방송인들을 제치고 수십 년간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 중 연봉 순위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바로 바바라 월터스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그녀를 이처럼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일까요? 누구든 그녀 앞에서는 모든 것을 술술 털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월터스는 미국에서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뉴스 진행자입니다. 그녀의 탁월성의 요체는 바로 신뢰에 있다고 존 맥스웰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월터스와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잘 모르지만 바바라 월터스란 뉴스 진행자를 보면 피테의 이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라. 그러면 그는 지금보다 더욱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해 주라. 그러면 그는 잠재력을 100퍼센트 발휘하여 정말 훌륭해질 것이다”(인터넷). 그러므로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라. ...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 그들의 ‘최고의 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인터넷).

상대방의 ‘최고의 순간’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8절에서 고넬료란 인물의 ‘최고의 순간’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전도의 시초석이 된 고넬료의 최고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의 최고의 순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행복한 가정보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목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경건한 고넬료”에 다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1)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 집안에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우리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우리 남자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또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갈6:9)

(2) 경건한 사람은 많이 구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양전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두 가지가 함께 동전 앞뒤처럼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동전의 뒷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면은 구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진정한 경건입니다(약1:27).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웃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사실이 소문이 나서 유대 온 족속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행 10:22).

(3)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 따라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은 하루에 두 번(오전 9시, 오후 3시) 혹은 세 번(오전 9시, 정오12시, 오후 3시)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 하면,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연결은 기도가 선행을 바탕으로 할 때 바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유상섭).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고넬료가 하루는 제 구 시쯤, 지금 시간으로는 한 오후 3시에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따라 기도하고 있었을 때 환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3절). 그 때에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라고 여쭙었을 때에(4절) 천사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고 대답하였습니다(4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경건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는 그의 선행(구제)으로 병행되어야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경건의 삶을 보시고 그의 기도의 삶과 병행된 구제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고넬료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지금 사람들을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5-6절).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가까이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경건한 고넬료처럼 기도의 삶과 선행(구제)의 삶이 잘 병행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사 임재 하셔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기도의 행실이 결핍된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는 행함이 결핍된 기도이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처럼 살아있는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 혹은 행실로 옮기는 기도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기도와 행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중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11, 12 절). 그 기도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그의 공생애 때 보호하셨습니다. 그 예로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므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고넬료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했습니다(행10:4).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엄위를 생각할 때 그래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성경)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합당하게 대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어두워져서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때가 대부분이다”(박윤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살전2:13).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7-8절을 보십시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읍바로 보내니라.” 경건한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천사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는 그의 하인 둘과 그의 군인들 중에 경건한 자 한 사람을 불러서 천사와의 만남에 있었던 일을 다 고한 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읍바로 보냅니다. 과연 이러한 순종의 행동이 고넬료에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천사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기에 고넬료는 충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고넬료는 문화적인 편견과 같은 것을 다 뛰어 넘어서서 천사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 하인과 경건한 군사 한 명을 읍바로 보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22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순종하는 지도자는 순종하는 쫓는 자를 생산한다는 제자 원리입니다. 백부장 이었던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있고 읍바로 보냄을 받는 그의 경건한 군사는 고넬료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의 자녀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경건의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구약에서 얻은 단순성의 통찰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보다 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긴급대책을 세우거나 조건이나 구실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은 한 가지 진리를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순종’이야말로 단순한 삶이 흐르는 도관입니다. 철저한 순종은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둘 때만 가능합니다. 십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한 세 마디 짙막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충성의 대상이 모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안 된다고 외칩니다(인터넷)

우리는 오늘 “고넬료”의 최고의 순간을 목상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선행을 병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돼야 합니다.

경건치 못하고, 기도와 선행을 병행하지 못하며 또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하면서)

경건한 가정

[사도행전 10장 2절]

H. L. 멘켄 박사는 행복한 가정의 열 가지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결혼 생활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는 결혼을 한 후에라도 어떤 가정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2)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결혼 후에는 가족의 허물을 못 본척해야 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도 바로 비판을 받는다”(마 7“1).

(3) 남과 비교를 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낳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과 비교합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처참해집니다. 비밀은 반드시 담을 쌓습니다.

(4)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풀라”는 바울의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5) 마주 보지 말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서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쪽의 주장에만 끌려가면 끌려가는 쪽은 한이 맺힙니다.

(6) 돈을 사용하는 데 하나가 되십시오.

잔돈을 제외하고 합의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7)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됩니다.

좋지 않은 말은 큰 상처를 줍니다. 말은 반드시 좋은 말이어야 합니다.

(8)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창 2:25). 에덴동산의 첫 번째 부부의 모습입니다.

(9)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묘약입니다. 격려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별로 없습니다.

(10)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인생을 아는 사람의 충고입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행복은 없지만 이 비밀을 이해하고 잘 지켜 가면 거의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 열 가지 방법들 중 한 세 가지가 특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결혼에 있어서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과 하루를 기도로 열고 닫는 것 그리고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중심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 집안에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우리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우리 남자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꾀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그리고 꾀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또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전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경건한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악을 미워하는 가정이고 선을 행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힘써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경건한 가정은 많이 구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양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두 가지가 함께 동진 앞뒤처럼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진의 앞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동진의 뒷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면은 구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진정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웃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사실이 소문이 나서 유대 온 족속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행10:22).

우리 교회도 구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구제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종교요 경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 따라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은 하루에 두 번 (오전 9시, 오후 3시) 혹은 세 번(오전 9시, 정오12시, 오후 3시)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 하면,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의 연결은 기도가 선행을 바탕으로 할 때 바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유상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아래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므로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선행을 수반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이웃 사랑하며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데 헌신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

[사도행전 10장 9-16절]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가 탄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더러운 갱안의 통로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까?”라고 그 목사는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탄가루를 그 꽃에게 부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말대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탄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가루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 꽃은 전대로 있었습니다. 꽃잎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가 꽃잎에 붙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바꾸어도 꽃이 깨끗하게 피어나듯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인간이 다방면에서 죄를 접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깨끗하게 지켜주시며,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보호해줍니다. 죄악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은, 마치 하얗고 아름다운 꽃이 갱 안에서 피는 것과 같습니다. 청결의 비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의 비결,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의 비결은 곧 마음의 청결에서 온다. 마음의 깨끗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환경에 처하 여도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로 하여금 부패케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탄의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언급된 “이미 목욕한 자”로써 온 몸이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영적인 목욕인 결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샤워나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목욕한 결과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목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역사를 가리킵니다(유상섭). 이렇게 영적인 목욕을 한 자는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이 깨끗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과연 이러한 사랑을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9-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이란 제목 아래 두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우리는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후 읍바에서 이미 죽었던 주님의 여 제자 다비다 혹은 도르가를 다시 살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후 베드로는 읍바에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 즉 피혁 영업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유하셨습니다(43절). 그가 그 피장 집에 유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 사람들을 읍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5절)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읍바로 보냅니다(7-8절).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읍바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머물고 있었던 시몬 집 지붕에 올라가 “제 육시”, 뜨거운 정도 때(박윤선)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9절). 그 환상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11-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서 들었던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13절)였습니다. 이 때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 나이다”였습니다(14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 이었습니다(15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갔습니다(16절). 여기서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서 땅의 동서남북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인종 차별 없이 그 어디서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박윤선). 이것은

베드로가 믿고 있었던 구약 시대의 유대교 사상과 어긋난(다른)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의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불결하다는 조건으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규를 받아들여 그 불결한 동물들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환상에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불결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베드로가 구약 시대처럼 그 법규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베드로는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나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학연, 지연, 혈연, 빈부의 차이 등 참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차별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이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영적인 성숙과 헌신과 영적인 정결함으로 바라보기보다 물질과 세상의 지위로 판단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회가 회개하여야 할 일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괘시한다면, 부자가 높임을 받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고개를 숙여야하고 무시를 받는다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교제하는 그룹들이 나뉘진다면 결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먼저 말투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쓰는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말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과연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단어가 아닌가, 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누구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만약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내 동기가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마음속을 살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베드로는 비록 그가 구약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대로 불결한 동물들을 먹지 않았지만 그 규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제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자 하지 말라”란 말씀에서 “깨끗케 하신”이란 말은 단순한 과거 동사로서 역사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의식적 법규들이 해제된 것입니다(골2:14-15). 그러므로

어떤 동물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깨끗하다, 혹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던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안식교의 음식 문제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채식을 하라는 교리입니다. 안식교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하는 음식을 금하는 것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부정하고 가증하다는 음식은 지금도 부정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안식교의 교리가 성경적입니까? 레위기 11장의 부정과 가증의 규례는 구약의 규례이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 모든 규례가 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거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폄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2:16-17)(인터넷). 로마서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 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지요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딤후전 4:3-5).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9-16절에서 말씀하는 요점은 음식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그 음식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훈이란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말 것을 베드로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여겼던 부정한 짐승들과 같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케 하셨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여 그들과 교제하라는 말씀이었습니(유상섭).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부종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정결 법을 준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유상섭).

요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즉 왕따 당하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용납하고 품고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 있”(눅5:31-32)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자, 죄로 병든 자들을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해야

합니다(32절).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 함을 멸시하느뇨.” 교회는 세상에서 속되다고 여기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용납하며 길이 참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은 깨끗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광스러운 그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사도행전 10장 17-33절]

“예배시간엔 반드시 휴대폰을 꺼주세요.” 어떤 목사님께서서는, 예배 때 마다 핸드폰 소리 때문에 항상 잔소리를 해 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한창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삐리리~~~" 하고 핸드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리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은 바로 목사님 주머니 속에서 울리고 있다는걸 뒤늦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다음 멘트에 신자들은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핸드폰 폴더를 열고, 목사님 왈... "아~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예배중이거든요..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하늘로 전화 드리겠습니다..."(인터넷). 이 한 예화에 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예화가 예배시간에 휴대폰을 반드시 꺼달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7-33절 말씀과 연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 소리는 잘 들으면 서 내 자신의 핸드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듯이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면서 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은 저 형제, 자매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 즉,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7-33절 말씀 중심으로 한 두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 목상의 훈련단계는 무엇입니까? 깊은 목상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솔직히 내어놓는 정직함과 일상 전반에 걸친 범사에 하나님을 초대함으로써 죄 지은 상태로 인한 임재의식의 단절을 피하고 일상사를 모두 하나님께 아뢰고(기도) 하나님과 연관 지어 생각하면서(묵상) 신앙행위 중의 강렬한 임재의식을 생활 일반으로 서서히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1) 목상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문제와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로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의존해야 합니다.

(2) 목상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는 노력에 기초합니다.

성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인터넷).

이 기독교 목상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QT(Quiet Tim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QT란 무엇입니까? QT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청종) 나의 말도 하는(기도) 대화입니다. QT의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시간 - 조용한 시간, 약속된 시간,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2) 장소 -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 약속된 장소, 일정하고 규칙적인 장소, (3) 성경말씀, (4) 기도. QT를 시작하기 전의 몇 가지 준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7, 1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17절),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19절). 피장 시몬에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본 후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깊이 고민하였습니다(18절상). “속으로 의심하다”는 동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모든 4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어난 일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문맥에 모두 등장하였습니다(눅9:7; 행2:12, 5:24, 10:17)(유상섭). 그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피장인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17절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18절)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얼마나 골똘히 생각을 했는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19절). 19절에 나오는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철두철미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유상섭). 그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19절). 여기서 한국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 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그의 하인 둘과 경건한 군인을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를 부르러 온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유상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20절) 성령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누구이며[(22절상)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가 받은 천사의 지시를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안으로 환영하여 함께 그 날 밤 피장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23절상).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환상에서 들려주신 부정한 동물 등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부정한 이방인들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환영하고 집에서 함께 유숙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였던 고넬료가 보낸 로마 군인까지 집에 들어 들여서 함께 유숙했다는 것입니다. 유상섭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패러다임은 결정적으로 바뀌어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유대인이 교체할 수 없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그에게 있어서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시한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방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는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령의 주도적인 선교 역사에 민감한 사람만이 옛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는 선구자가 된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한다”(유상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1)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옆에 해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당연히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지 말고 본문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대해 남이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닌 나의 씨름을 통한 나의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해석된 내용을 보면 내 생각이 고정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두 번째 단계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르는 구절에 대해서 해설된 것(예: 주석서/참고서)을 보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 용어 사전, 성서 주석, 성서 지도 등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3) 세 번째 단계는, 주어진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인터넷).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세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시몬의 집에서 기숙한 후 바로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한 6 명 형제(11:12)와 함께 떠났습니다(10:23). 한 이튿날 걸려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아 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24절).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베드로는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이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28절). 베드로가 한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에 상반된 하나님의 지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이 비유대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하는 것(방문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룩있는 상식일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도 친히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별되게 지키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며, 그들의 의식을 모방하거나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유상섭).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통하여 (환상 속에서) 지시하셨습니다: “아무나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28절). 베드로는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한 후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29절) 라고 물었을 때 고넬료 또한 기도 가운데 본 환상을 오늘 본문 30-32절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후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33절). 그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이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기꺼이 들겠다고 분명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유상섭). 고넬료와 친지들과 친구들,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기꺼이 말씀해 달라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 자세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던 고넬료는 자기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은혜를 받기를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윤선의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받고자 하며 겸하여 남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불타는 간절성이다.”

제이 아담스의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잘 듣기 위한 준비”란 장을 보면 “듣는 사람의 준비는 설교자의 준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면서 몇 가지 소박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1) 충분히 잠을 자십시오.

주일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 일찍 잠에 들어서 충분히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청중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 시간에 교회 가십시오.

허둥대며 허겁지겁 교회에 간다면 설교를 들을 마음 자세가 갖추어질 리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차를 몰아 예배 직전에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다면 가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음은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3) 충분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주일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면 펜스레 짜증과 조바심만 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해야지 하면서 조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예습하십시오.

주일 설교를 들으러 오기 전에 설교한 본문을 미리 예 습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5) 기도하십시오.

설교자, 회중,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6) 규칙성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출석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새 찬송가 446장)]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

[사도행전 10장 34-48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사람들을 환영하십니까? 고 헨리 나우웬이란 신부님은 그의 삶 속에 환영한 사람을 한 사람 말하라고 한다면 아담 아네트(Adam Arnett)라는 한 중증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우웬은 70년에는 예일대에서 신학적 심리학을 가르쳤던, 80년대에는 하버드에서의 파트타임 강의와 남미 선교를 병행하였다가, 90년에 들어서서 그의 마지막 인생 한 10년간은 캐나다의 라르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 들어 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면 살았는데 그 장애인들 중에 아담이란 장애인을 나우웬의 그의 삶과 마음에 특별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담이 1996년 2월에 34 년의 생을 마감한 후, 헨리 나우웬도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라는 책을 쓰고 난 직후인 같은 해 9월, 마치 자신도 할 일을 다 하였다는 듯 아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헨리 나우웬을 아끼던 많은 친구들은 나우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헨리, 자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데가 여기인가?”, “아담에게 자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던 대학을 떠났단 말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움, 더 체계적인 인도함, 더 큰 섬김의 기회들을 마다하고 이런 곳에 와 있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웬은 아담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책에서 아담의 시간을 본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관에 누워있는 아담의 시신을 본 순간부터, 그의 삶과 죽음의 신비에 사로 잡혔다. 그때 섬광처럼 내 가슴에 와닿은 사실은, 바로 이 장애인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독특한 사명을 띄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었다...”. 헨리 나우웬은 아담이란 장애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로, 곧 철저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자로 환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나우웬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특별하고, 경이롭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약속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의 경이로운 존재 자체와 믿어지지 않는 가치는 우리에게, 우리도 것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며 사랑받는 자녀임 ...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이다...”(인터넷).

이 얼마나 놀라운 영성입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며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4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아래 과연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 할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십시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34절),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인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35절). 참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경건함은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의 심부름으로 율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보냄을 받은 고넬료의 두 종들과 경건한 군인은 베드로를 만나 자기들의 주인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22절).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2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경외심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더 구체적인 사랑 표현은 이웃을 향하여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성경 시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 7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은 이렇습니다:

(1)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시편 33편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2)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십시오: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3)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103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4)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시편111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하시리로다.”

(5)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115편13절을 보십시오: “대소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6)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시편145편 19절을 보십시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7)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도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4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 그는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36-43절). 그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36절). 이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이란 뜻입니다(박윤선). 그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37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39-40절). 그의 설교 내용 중 나사렛 예수님께서 베푸신 선행과 치유는 사람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때문에 가능했습니다(38절)(유상섭).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갈릴리 지역을 포함한)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셨고 이 일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증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39절).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39-41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42절). 그리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43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십니다. 그러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1)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화평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케 된다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시키실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우리의 입을 열어 전파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화평의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적 삶이란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고후5:18). 이 직책이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 첫째로는 이미 목상한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케 하는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킵니다. (b) 둘째로는 이웃과 이웃 간의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 두 번째 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6절을 보십시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44절). 그 때에 베드로나 그와 함께 옹바에서 온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45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보고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유대인 신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부어 주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즉 “방언”과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46절). 여기서 고넬료와 함께 모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타나난 현상과 유사합니다(유상섭):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강림하심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여 결국은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이방인 모두 다 세례를 받아 이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도 믿은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하게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유상섭).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즉,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어로 찬양하던 영어로 하던 스페인어로 하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찬양하므로 그를 높일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합니다. 또한 그들은 화평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환영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내가 누구관대”

[사도행전 11장 1-18절]

여러분들은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비판을 진주로”라는 피영민 목사님(강남중앙침례교회)의 글입니다: “바다 밑 모래 바닥에서 조개가 숨을 쉴 때, 잘못하여 모래알이 조개의 몸속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살 속에 거칠고 딱딱한 모래알이 박히면 그 조개는 살을 가르는 통증을 없애려고 자기 몸의 진액을 짜내어 끊임없이 모래알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이기고 나면 그 조개 속의 모래는 영롱한 색채를 내는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그러나 조개의 몸 속에 들어온 모든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모래알 때문에 생긴 모진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는 조개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판받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아무 것도 아닌 인물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통해 성숙해지고 비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체험하며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 자들(2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관대”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18절에 등장한 할례 자들과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힐난하는 할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나님께서 환영하신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 베드로가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사건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힐난하였습니다. 그 힐난한 내용은 왜 베드로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냐는 비평이었습니다. 여기서 “할례 자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힐난하였다고 ‘힐난하였다’는 말씀은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다뤘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켜 유대인으로 귀하한 뒤에야 비로서 그리스도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박윤선). 그랬기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베드로와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를 힐난할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무할례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율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유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나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할례 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한 것을 비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유대인 베드로의 사역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충격적인 사건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대하였을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 때문에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교제가 의미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구원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여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원망하며 비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관점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민족인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제한돼 있었다고 확고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였습니다(행1:8).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5:31-32).

둘째로, 설명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기를 힐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할례 자들에게 베드로는 고넬료를 방문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을 때에(14절)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신 사실(15절)을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4절). 그 설명은 베드로가 욕바에 시몬이라는 피장 집에 유하고 있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일로 시작하여(5-10절),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일(11절), 그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신 일(12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로부터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하는 것(13-14절)과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말하였습니다(15-16절). 그 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17절). 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전인 간섭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통로가 돼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전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가 원하시는 곳 그 땅만 밟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후렴)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18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 할례 자들은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기에 잠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던 할례 자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란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확신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던 할례 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돼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을뿐만 아니라 어느 면으로 어머니 교회(the mother church)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베드로를 힐난하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명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역사 전략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나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받은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 선교 전략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사도들 중에 한명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힐난을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인정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누구관데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일인데 우리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아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관데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 없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비관과 비탄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 받는 주님의 일군들로
우리 모두가 세움 받길 기원하면서)

안디옥 교회 (1)

[사도행전 11장 19-30절]

유명한 성경 교사이며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섬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 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이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가다.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 주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 세상이 의혹에 찬 눈길로 교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말로 크리스천이 마땅히 시도해야 할 도전이며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인터넷).

세상이 의혹에 찬 눈길로 우리 교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돼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마땅히 시도해야 할 도전이며 피할 수 없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2007년도 표어를 “섬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섬기되 겸손하게, 즐겁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30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1)”라는 제목 아래 과연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었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던 “이 사람들의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19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는데(20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실을 가리킵니다(21절). 이러한 사실을 소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22절).

이 사도행전 11장 19-21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몇 년 전 저희 교회 지도자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히스패닉 사역을 시작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방의 여러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교회를 이 히스패닉 지역에서 옮기지 않게 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뜻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히스패닉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믿고 히스패닉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에 주님께서는 지금 히스패닉 사역을 섬기시는 고메즈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히스패닉 사역케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소문이 나길 바라고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중앙일보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종교란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 사역인 한국어사역, 영어 사역, 그리고 히스패닉 사역이 한 교회 지붕 아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다’, ‘어떻게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진 세 사역이 어찌면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있는지 참 놀랍다’, ‘저 교회는 참으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야’ 등등 ... 교회 안에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영어 사역 및 히스패닉 사역이 한 공동체로서 연합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디옥 교회처럼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싶은데 몇 년 사역 가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히스패닉 사역을 통하여 우리 바로 교회 옆 아파트 이웃 가정들 중 세 가정(주로 엄마들과 자녀들)이 히스패닉 사역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나오는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이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메즈 목사님 부부와 우리 한국어 사역 여성도님들이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내려가고 있는 멕시코 티화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날 11월 감사주일 연합 예배

때도 고메즈 목사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곳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간증할 때에 여러 히스패닉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또한 구세주로 영접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번 12월 셋째 주 토요일에 내려갔을 때도 4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고메즈 목사님과 티화나 팀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므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우리 교회보다 왜 티화나 그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고메즈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그 곳에 세우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새해 1월에 장로님과 함께 우리 당회원들이 고메즈 목사님과 함께 티화나에 내려가서 보려고 합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것처럼, 우리는 고메즈 목사님 부부와 한국어 사역자들을 그 곳에 매달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 한국어 사역자들에게는 문화나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티화나 그 곳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우리 교회 지역 사회를 더욱더 겸손히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의 선교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진 지도자 중 하나인 바나바라고 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24절)을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23절).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신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기뻐했습니다. 진실로 수다한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실(21절)을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기쁨 속에서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23절). 이 권면의 말씀은 즉, ‘마음에 목적을 세워 가지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입니다(박윤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결과는 큰 무리가 주님께더하게 되었습니다(24절).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전도자들 중 몇몇을 통하여 안디옥에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에게 돌아온 후에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더 큰 성장이 이뤄졌습니다(21절). 그러므로 바나바는 혼자서는 안디옥 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공동 목회를 하고자 몸소 다소로 가서 사울(바울)을 찾아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25절).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26절, 유상섭).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질적으로 놀라운 성숙에 도달하므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비기독교인 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좇았으면 주위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추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을 모두 ‘크리스천 사업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 사업하는데 그 사업의 원리 속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만으로만 장사한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결코 ‘크리스천 사업가’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 사업가’는 사업의 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직장 생활의 원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정작 일터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인터넷).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 목회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선지자들 중(27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 내용은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로마 총독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실현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로마, 그리스, 애굽은 물론 유대 지역에까지 연속적인 흉작과 이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유상섭). 이 큰 기근으로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유대에 사는 교회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는 유대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29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30절).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함에 있어서 사용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름 아닌 “각각 그 힘대로”(each according to his ability)입니다(29절). 이 말은 각각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구제금을 지원하였음을 의미합니다(유상섭).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구제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목상한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 활동을 생각해 만듭니다. 결국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한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하는 삶을 기록하였던 사도행전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이방인 한 사람이 아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모습 ...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으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빛을 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게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적으로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주님 중심된 교제가 더욱더 견고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개개인인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교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의 교제가 더욱더 견고하게되는 모습 ...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주님 안에서 다 한 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이던 이방인 교회이던...

구제하는 교회는 풍족해집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합니까? 구제 방법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규칙적으로 구제헌금을 드려 구제를 생활화하십시오.

적은 액수일지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자주 구제헌금을 보내면 구제가 생활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의 대상을 잘 살피십시오.

막연하게 구제하면 구제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결심했다면, 주님께서 그 대상을 밝혀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원하는 마음을 은밀히 구제를 실천하십시오.

구제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는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십니다.

(4) 구제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기가 드린 구제 헌금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혼자 기뻐하지 말고, 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과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같이 주님께서 세우주시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위로자

[사도행전 11장 23절]

'과연 나는 내 삶에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나는 내 가정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보고 또한 보길 원하고 있는가?'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보길 원하는 '유흥'도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고 질적 성장인 믿음의 진보를 간절히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적으로는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1) 기도의 능력 --> (2) 성령 충만 --> (3) 담대히 복음전파 --> (4)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심 --> (5) 사랑의 공동체를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제 평생 기도제목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이 성취되길 간절히 보길 원하며 또한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음을 제 자신과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신과 가정과 특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나내시는 영적운동(spiritual revival)을 볼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던 위로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21절)는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어떠한 위로자였는지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위로자는 굳은 마음으로 권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굳은 마음"이란 말은 '마음에 목적을 세워가지고'(with purpose of hear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스테반의 순교와 관련하여 일어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19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으신 목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극소수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였습니다(20절). 그 결과 놀라운 개종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보다 헬라인들 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주님의 목적을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던 극소수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21절).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이들의 이방인들 복음 전파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새로 믿는 초신자들을 굳은 마음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의 권면 내용은 '주님께 붙어있으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그들에게 주님께 지속적으로 충성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방인 초신자들은 다시 옛 본능대로 안디옥의 삶인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시 타락할 위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이들에게 우상숭배 유희가운데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왕국에 3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은 놀라운 건물들(magnificent buildings)들과 발달된 길, 또한 바쁜 항구 및 부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헬라 신들, 로마 신들 그리고 시리안 신들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방인 초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바나바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어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적용 구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위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되 주님께 붙어있으라고 마음에 이 목적을 세워가지고 권면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위로자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 24절 처음에 나오는 접속사 "for"(영어성경 NASB에 나와 있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음)는 23절을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즉, 24절은 23절의 설명 구절입니다. 바나바가 굳은 마음으로 이방인 초신자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람 혹은 신앙인의 됬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존재(being)에서 행함(doing)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소유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며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바나바처럼 그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24절).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위로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님께서 더하시므로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목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까지 가서 사울, 즉 바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26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는 바나바처럼 목회자들끼리 경쟁의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팀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일 년간 가르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Christians)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26절).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들도 바나바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1년간 열심히 가르친 결과, 안디옥 교회의 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매우 닮은 추종자들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보길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 봅시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원하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과 가정 식구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마음에 목적을 세워가지고 권면하길 원하며, 나의 됬됨, 가정의 사람 됬됨,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사람 혹은 신앙인 됬됨이 바나바처럼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잘 가르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더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간절히 고백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주님

[사도행전 12장 1-19절]

우리는 살아 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구원의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2장 9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니다 …”(Salvation is from the Lord). 아무리 우리가 요나처럼 깊이깊이 인생의 늪이 내려가서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against all hope, he hoped)입니다(롬4:18).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금년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 역경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우리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1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 아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십시오: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 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아그립바

I세인 헤롯 왕은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자기 조부 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한 왕으로써 교회를 핍박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세배대의 아들 중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1-2절). 그 때에 불신자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헤롯 왕이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어 군사 넷 씩인 네 패에게 맡겨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3-4절). 여기서 “네 패에게 맡겼다”함을 한 패씩 교대로 계속 지키도록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박윤선). 왜 이렇게 헤롯 왕은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도록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헤롯 왕은 베드로가 일찍이 대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시기로 인하여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놓인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행5:19)(박윤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잡아들인 때를 “무교절”이라고 밝힌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다름 아닌 그 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헤롯 왕이 그런 때에 베드로를 잡음으로 인기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박윤선).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베드로를 끌어 내고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월절 중에 베드로 죽이기를 피한 것은 그 절기를 더럽혔다는 백성의 비방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렇게 헤롯처럼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감옥은 바로 마음에 감옥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마음에 감옥에 가두는가 하면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므로,’ ‘죄책감 속에 가두므로’ 등등 우리를 마음에 감옥에 가두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이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옥, 근심의 감옥, 분노의 감옥, 열등감의 감옥, 낙심의 감옥 ... 그들은 그곳에서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옥은 실제의 감옥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감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결국 헤롯 왕의 교회 핍박이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철벽 같이 가두는 폭력 행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강력하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는 폭력과 기도의 투쟁을 보여줍니다(박윤선). 이때에 두 세력이 서로 싸웠습니다. 한 편에서는 베드로를 가두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Morgan). 그러면 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만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사건이 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므로 인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시길 원했던 것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므로 교회에 유익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과연 믿음으로 기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내신 후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 때 거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12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테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와(13절) 베드로의 음성인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교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15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로테라는 계집아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사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음을 믿었지만 그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1) 교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기도”란 명사와 “간절하게”란 부사가 예수님의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유상섭).

(2) 교회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베드로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때 시작하여 베드로가 그들의 장소에 올 때까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12절)(유상섭).

(3) 교회의 기도처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처음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의 숫자가 기도의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들”로 교정돼야 합니다(유상 섭).

(4)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결국은 베드로가 구 원을 받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기도하던 성도들은 그가 베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누가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베드로를 죽이려던 전 날 밤에 이뤄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박윤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 인간의 난관이 절정에 이르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듯이 보이고, 일은 다 틀렸다고 할 즈음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진리를 가르친다”(박윤선).

(2)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두 군사 사이에 끼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밤만 지나면 사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의 재물이 될 텐데 그렇게 쉽게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유상섭). 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님의 손에 위탁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유 상섭).

(3)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철통같이 감시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할 때에 인간의 완벽한 감시도 전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감시는 한시도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두 군사는 베드로 좌우에서 감시했으며, 그가 있는 감옥 문 밖에서는 나머지 군사들이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유상섭). 어두운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므로 빛이 비쳤고 천사는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하고 깨웠습니다(7절). 그러자 그의 손에서는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졌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촉구했습니다(8절). 베드로는 이 천사의 지시 따라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1, 2차 관문을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한 후 성문에 오니까 문이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10절). 이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하였습니다(9절). 결국 베드로의 구출 후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났고(18절) 헤롯은 베드로를 찾고자 하였는지 못 찾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19절).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사도행전 12장 20-25절]

우리는 “팽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무 팽이는 채찍으로 맞아야만 살아납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잘 돌아가고, 더욱 생기와 활력이 넘쳐납니다. 나무 팽이의 특징은 아픔을 겪을수록 더욱 좋은 팽이, 더 강한 팽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팽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이없이 쓰러지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은,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이 나무 팽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민족이었습니다.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 변성하고 창대케 되는 민족이었습니다(인터넷).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지는 팽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헤롯 왕의 핍박 속에서 오히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와 초대 교회 성도들도 팽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팽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가 그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리도 담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출14:8)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원망을 하면서 옛 노예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10-12절). 그러나 모세는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도전하였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과연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0-25절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층이 먹어 죽으니라.”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사건 이후 헤롯 왕은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19절) 그 곳에서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 그를 크게 노엽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왕으로부터 식량 공급을 받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의 백성들이 헤롯 왕을 크게 분노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분노를 샀는지 성경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황의 다급함을 인식한 두로와 시돈 주민은 왕의 신변 경비를 맡고 있었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왕과 화해하려는 마음을 간절하게 표시했습니다(20절). 그래서 헤롯 왕은 이들의 간절한 화해의 마음을 수용하여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그들과 만났습니다(21절). 그 때 그는 제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그에게 찾아온 두로와 시돈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21절). 그 때에 연설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들에게 크게 분노했던 헤롯 왕과 화해하려고 큰 아침을 말을 외쳐댔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유상섭). 왕이 입은 왕복은 완벽하게 은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왕이 이 옷을 입고 해가 떠오를 무렵에 극장에 들어오면 태양 빛이 왕복에 비치면서 그 옷이 찬란하고 경이롭게 빛났습니다. 이때 극장의 각기 다른 방향에 앉아 있던 아침꾼들은 왕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숭앙했지만, 이제부터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외쳐댔습니다. 이러한 찬사를 들은 왕은 외치는 자들을 책망하지도, 그 아침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다(요세푸스).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은 욕보다 위험합니다(박윤선). 칭찬을 듣는 자는 아무 문제없이 그것을 다 받으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분한 칭찬을 받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죄를 범함이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좋아할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잠언 27장 21절을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우리는 칭찬으로 시련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 시키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교회에 닥친 심각한 문제나 핍박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을 세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 기록은 구제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많은 개종자들이 생겼다는 기록이며(6:7), 두 번째 기록은 위험천만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된 결과,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왕성했다는 기록입니다(9:31).

교회에 임한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박해는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합니다(유상섭). 어떻게 더욱 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4:12).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즉, 죄인의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 회개시키는 능력,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용기가 있습니다(인터넷).

마지막 셋째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 오니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목상한 사도행전 11장 27-30절 말씀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총독 때 유대에 기근이 들었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부조금을 보냈습니다. 그 미션을 완성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명완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끝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 4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열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인터넷). 몰랑 퀴볼러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생이 너무 짧다”(인터넷).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인터넷).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겸손해야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 시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Sola de Gloria!

겸손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말씀의 흥황을 사모하면서)

안디옥 교회 (2)

[사도행전 13장 1-3절]

한국교회 쇠퇴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여러 해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만하면서 배가 부르고, 땅도 가지고 있고, 자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으니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또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괜찮다고 하는 자기만족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무관심과 자기만족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악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인터넷).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1장 19-30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1)란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목상한 적이 있습니다: (1)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22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21절). (2)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습니다(26절).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3)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29절).

크리스천 헤럴드(2007년2월8일) 신문 목회자 칼럼(제목: “영성 커가는 교회”)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세계적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의 최근에 발간한 책 “부의 미래”란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토플러는 미래사회는 보이는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크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사회는 보이는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크고 가치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플러는 “부의 무형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미래는 화폐, 증권, 토지 이런 것만이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재산으로서 부의 축적을 이룰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글을 쓴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은 무엇일까요?”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크리스천 헬러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막의 영성”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 도전의 근거는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광야교회”란 말씀입니다. 사막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웬의 그의 책 “마음의 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독,” “침묵,” 그리고 “기도” 즉, “떠나라,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자기(자아?)(분노와 탐욕 같은 것)를 발견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입니다. 우리는 고독의 자리에게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침묵은 행동으로 옮기는 고독입니다. 왜 침묵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말을 안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나우웬). 나우웬은 고독과 침묵은 기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이고 침묵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마음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성을 추구할 때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행 11:26).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찬송가 518장의 1절 가사처럼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참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행 11:22).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므로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11:21). 그러한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웃사랑 함에 있어서 인종과 문화, 편견 등을 다 초월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11:29). 즉,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 구제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소문나길 원하는가하면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라고 나갈 기원합니다(행 13:1).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 사역을 통하여 다양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져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2)”라는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목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신과 교육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 목회를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인이요, 사울은 다소 출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요,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요, 마나엔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정치적이고 귀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말씀 사역자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유상섭).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종차별도 하지 않는 교회(흑인인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과 함께 사역), 빈부차이를 따지지 않는 교회(신분이 높은 귀족인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도 함께 사역),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 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가 대등함 가운데 각자의 능력대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다양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이상적 모습입니다(인터넷).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귀족 교회”로, 차별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귀족 교회로, 성공한 사람만 생존하는 교회로 예수님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런 차별이 상식화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인터넷). 교회 안에서 무시하면서 서로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성격, 빈부 차이, 학력 차이, 직장, 등등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여 주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의 통일성을 신실하게 지켜나아 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꾼들이 세움을 받아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이끌림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근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는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a)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개인적인 영적 교제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금식은 육적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박윤선). 안디옥 교회의 다섯 지도자들의 금식을 통한 섬김은 무슨 특별한 문제와 박해가 있어서라기보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찾고자 드린 금식 기도 같습니다(유상섭).

(b) ‘섬기다’라는 단어는 또한 단체적인 예배 행위로 가리킵니다.

성경을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에 1절에서 언급한 다섯 명의 다양한 일꾼들이 선지자와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언급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전도, 말씀 가르침을 통한 양육,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의 구제인 것을 보면(행11:23-26, 29-30) 안디옥 교회에서의 섬김은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유상섭).

(2)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다섯 지도자들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 즉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이 때에 성령의 음성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중에 누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셨던 일은 곧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2절). 여기서 유상섭 교수님에 의하면 두 가지 주목할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해 두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라는 말은 성령님께서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b) **성령님께서 지정한 두 사람은 5인 중에 첫 번째 인물인 바나바와 마지막 인물인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님께서 위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지만 나머지 세 사람 역시 선교 사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머지 세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현장에 보내어 그들의 사역을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요 주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 같은 바나바와 사울, 어느 면으로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한 두 지도자들을 안수한 후 보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내니라’하는 단어의 의미는 보냈다는 것이라기보다 ‘놓아주었다’(released)라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 아니 될 일꾼들인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면으로 보면 없어서는 아니 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놓은 것을 보면 그만큼 선교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중요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뜻인 선교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2) 선교사님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준비된 일꾼들을 파송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령님의 뜻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케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지에 파송받은 신앙의 초년생도 아니었고, 목회의 초보자도 아닌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잘 준비된 성숙한 일꾼을 세워 선교지로 파송해야 합니다. 유상섭교수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성령의 지시로 선교지로 나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국내 사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앞으로 교회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즉시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일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격과 신앙 그리고 신학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선교지에 보내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 하에 최고로 준비된 사람만을 선별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유상섭).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준비된 훌륭한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양한 일꾼이 있는 교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마16:18)을 붙잡으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사도행전 13장 4-12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셨고 그의 제자들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다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자신을 보낸 자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보낸 자는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덧 입혀 줍니다. 우리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는 따르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대변하므로써(요 8:42) 우리의 정체성과 권위가 확립되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사역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은 봉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 즉 봉사자입니다. (2) 소명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에게는 반듯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사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과, 영광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4) 또 하나의 사명은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로서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4-12절 말씀 중심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십시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 성령님께서 시키시므로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따로 세운 후(2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습니다(3절). 결국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해변에 있는 항구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4절) 구브로 동해안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5절).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습니다(5절).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우며 확신을 가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1) 주님께서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수종자(돕는 자)(helper)를 붙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수종자'라는 말 '휘페레테스(hupeeretees)'는 본래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로마 군함의 밑창 좌우편에는 노를 젓는 노예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겐 밖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밖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동쪽으로 가느냐, 혹은 서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그들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수가 복치는 속도에 맞추어 힘껏 노를 저을 뿐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수종자'였습니다. 다음 행선지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할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정할 것인가도 그의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하는 대로 쫓아가며,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책임만 다하면, 그것으로 최선에 이르는 것입니다”(인터넷). 주님께서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도록 요한, 즉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골4:10)을 붙여 주셨습니다. 마가 요한은 두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의 육신 생활에 필요한 수종도 하였겠지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도우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전도에 합심과 협력하였음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로의 다른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여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팀 사역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가정에서 남편은 사명을 받은 자이고 아내의 사명을 받은 남편을 돕는 자(helper)입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최고의 돕는 자(The Helper)를 보내주셨는데 그 분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

(2)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하면 생각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받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므로 말미암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이야기입니다(창22장). 그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 하였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곧 지혜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8장 15절을 보십시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성경은 총독 서기오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십니다.

(3) 주님께서서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해 놓으신 총독 서기오(7절), 그러나 사탄 역시 그 서기오 옆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였습니다(6절). 이 박수 바예수(엘루미)는 하나님의 종인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 박수 엘루미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영적전쟁 이야기”란 책(저자: 신성종)을 보면 “사탄의 열 가지 전술”이 나옵니다: (1) 교만, (2) 절망, (3) 비교의식, (4) 의심과 불신, (5) 거짓말, (6) 미움, (7) 불평과 원망, (8) 지연, (9) 불성실, (10) 외식(신성종).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 서기오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설득되어 믿음에 대하여 아주 개방적 이였습니다(8절)(유상섭). 그러나 이를 알아챈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총독을 믿음에서 돌이키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바른 길을 걷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를 미혹하여 빼돌어진 길을 걷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빼돌려 트리는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빼돌어진 생각 속에서 빼돌어진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대적 가운데서 그의 종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대적하는 거짓선지자 박수(바예수)을 책망케 하시며(10절) 심판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고 심판의 예언대로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는 눈이 보이지 않아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된 것입니다: “...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11절 하반절). 결국,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 총독 서기오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사탄 또한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돕는 자를 붙여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돕는 자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자들 또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예상해야 할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41절]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기도회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퇴보”(12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하라”. 하나님께 친근히 한다는 것은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크게 힘써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웬지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고 형통의 복을 원하지만 그 비결을 모르든지 알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크게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밋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와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고(13절) 바울과 일행은 버가로부터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14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15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16절)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그 구원의 말씀을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 보고 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물론 모세를 통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가리키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왕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바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권능”이란 헬라어 표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단어의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살려 말하면, “그의 높이 들린 팔로”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이 들린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유상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높이 들린 팔(“큰 권능”)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23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30, 34절). 예수님은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도록(29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하여(28절) 결국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29절).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30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34, 37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고(38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3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서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죄함 받도록 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박윤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회개의 세례를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23절) 영접하므로 사죄함 받도록 그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8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의심)하며 원망하였고 또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숭배 하는 배반하였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소행을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소행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여 배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주일마다 듣는 설교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41 절, 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비록 위대한 지도자라도 자기들에게 가까이 있으면 경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뿐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리하여 그들이 그 말씀의 참뜻을 깊이 참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박윤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27절). 그들은 죄도 없으신 예수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 달라고 하였습니다(28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다(unlimited)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딤후1:16). 또한 우리는 베드로후서3장15절 상반절 말씀에 귀 기울여야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9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사백 오십 년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 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자손에서 그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22절) 구주이신 예수님을 세우십니다(23절).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여기서 인용된 시편 둘째 편 말씀은 바로 시편 2편7절 말씀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것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삼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유상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취하시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34절, 사55:3인용)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바로 우리를 그의 자녀(양자)로 삼으시고(33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실시된 영생의 은사를 모든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정한 약속의 땅인 저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던 것처럼(35절)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나그네 된 세상을 거쳐 영원한 안식처인 진정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출애굽 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험(의심)하고 그를 원망하며 그를 배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과 관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소행을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진정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사도행전 13장 25절]

언젠가 한국에서는 "쓰레기 만두"로 말미암아 들썩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산 썩은 무로 만두를 만들어 파는지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한 분식점 주인이 양심선언을 한 뉴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썩은 무를 사용하여 만두를 만들어 판 이유는 재료비를 줄여서 돈을 많이 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 기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쉽게 돈을 벌려는 만두 업체와 일부 분식집의 그릇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는 만두 업체와 일부 분식집의 그릇된 생각처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 안목이 없이 순간순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고난(고생)과 헌신이 없이 믿음 급성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신앙의 경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저는 세례 요한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지켜 나아간 그의 삶을 한 2가지로 목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서 "회개"란 삶과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 변화가 없이는 외적 변화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교회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가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상의 패턴에 쫓아가고 있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 등등을 자아 성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저는 제 삶과 제 마음에 변화돼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말씀집회를 준비하면서 집회 때와 또한 그 후에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였습니다(25절). 제가 누가 아닌 줄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의 역할만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1) 광야에서 외치는 자, (2) 주의 길을 예비하는자, (3)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 (4)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부르심 혹은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만을 충실한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자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제가 누리려고 하는 교만함의 쓴 뿌리가 있지는 않는지 자아 반성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고백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삶의 진리와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고백은 제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 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다고 말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요3:30). '내가 쇠하여야 한다'는 자세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확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전에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gan)의 장례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삶의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처럼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변화를 추구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 고통과 아픔을 견뎌낸 미국인들에게 백악관을 떠나면서 마지막 연설에서 'Not bad, not bad'(별로 나쁘지 않다, 별로 나쁘지 않다)하면서 변화된 미국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Good bye! God bless America!"(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길)하면서 연설을 마치는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소유했던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붙잡고 끝까지 대통령 직무를 행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원리의 사람(man of principle)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원리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레이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말씀의 원리대로 다스렸던 대통령 같습니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님의 평가는 레이건 전 대통령은 깊은 신앙을 소유한 자였다는 말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죽음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 장례식을 통하여 평가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제가 되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변화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여 변화는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항상 마음에 소유하여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변화의 꿈을 요변 부흥집회를 통하여 꾸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행전 13장 42-52절]

루이 14세 시대 라 폰텐가 풍자한 우화가 있습니다(인터넷). '늑대와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이 말랐던 어린 양 한 마리가 골짜기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내가 마실 물을 감히 더럽히는 무례한 놈" 이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할 수없이 어린양은 스무 발짝쯤 아래서 물을 마시겠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늑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네 이놈, 지난해 나한테 욕을 했겠다?"였습니다. 어린양은 "지난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형이나 아비, 어쨌든 네 식구가 틀림없어" 라고 늑대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양을 숲 속으로 끌고 가 냉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은 "강한 자의 주장이 언제나 정의"라는 사고가 통용된 우화입니다.

어느 시대나 강자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도에 의해 종속되기도 하고 부에 의해, 권력에 의해 사람들은 종속되어 살았습니다. 교회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들은 자신도 모르게 힘의 원리에 지배받아 자기만족, 과신, 오만에 사로잡힙니다. 교회는 결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로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힘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에 의한 구속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인터넷).

사도행전 13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과

유사한 표현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등장하는 “주께 붙어 있으라”(머무르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나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유상섭).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행위로 마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그릇된 신앙의 병폐를 우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16절) “이 구원의 말씀”(26절)을 전파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나갈 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42 절).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44절). 아마도 그 전주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들은 구원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다시 모이되 전주보다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자 누가는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뭄의 현상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리적 조작(manipulation)을 통한 감정 유발이 주목을 받는 시대, 말씀의 행함보다 말 많은 시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45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의 귀에 바울의 말한 것이 거슬렸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전파한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내용이었기에(38-39절) 유대인들이 반박했을 것입니다(유상섭). 그 이유는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life's worries), 재리(riches) 그리고 일락(pleasures). 걱정, 근심하며 돈(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을 정도로 우상화하여 좇고 또한 섬기며 세상 쾌락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케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리켜 "가시떨기"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위에 3가지 중 무엇이 저로 하여금 저의 신앙 성숙을 막고 있는가 한 번 질문을 던져 봅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강론해 주기를 청한 후 수문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약 여섯 시간 정도(이동원)] 서서 그 율법 책을 에스라가 봉독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8:18).

둘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존 칼빈은 2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1) 바울의 말한 것 중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7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사49:6인용)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이방전도의 당연함의 이유로 첫째는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거절한 까닭이요(46절)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경적 근거로 보아서도 당연한 까닭이다(47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2) 바울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그 말씀의 교리(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갈3:1).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말씀 인격화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살전 2:13). 그리고 그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살전 1:6-7) 결국 그 말씀이 믿는 자속에서 역사하여(2:13)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1:6). 더 나아가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서 끝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고백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행 13:50)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인격화 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결과,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두루 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49절).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요6:29). 우리가 최고로 열심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52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작정된 비시디아 안디옥 신자들은(14절) 핍박 중에서도 오히려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믿음과 말씀과 찬송)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7절]

“로기스모이(Logismoi)”란 말은 회랍어로서 사막의 교부들이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죄를 짓게 만들고 절망에 빠트리는 거짓 생각과 욕망을 가리킵니다. 로기스모이는 성경에 어긋나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일, 그리고 타락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하게 만듭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생각들과 걱정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하는 이유다”(인터넷).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죄를 짓게 만들고 절망에 빠트리는 거짓 생각과 욕망(로기스모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3절 말씀을 보면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은혜의 말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13:50) 그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온 것입니다(51절).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기본 원칙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박윤선).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내 무리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4절). 저는 그 두 그룹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1)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 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인 은혜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13:48).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고니온 성내 무리가 나뉘어졌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을 가리켜 유대인을 좇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는”이란 말 이란 헬라이어 단어는 ‘설득을 당하기 싫은’ 혹은 ‘신앙을 억제하므로 순종하기를 억제하는것’이란 뜻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란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곧 불신앙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이란 말씀은 “복음을 믿지 않고 또한 반 역하기까지 하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박윤선). 이들의 반역적인 행동은 무엇 이 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성도 (신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2절).

(3)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믿지 않는 불신자 유대인들의 편에 선 일부 시민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습니다(박윤선). 이들은 공식으로 합작하고 주님의 종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습니다. 핍박하되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마치 불신자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들을 세 마디로 말하면 ‘불신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들은 복음과 예수님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또한 대적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은혜의 말씀을 좇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좇는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좇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죄를 거저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좇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두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를 좇는 자들이었습니다(4절). 이 은혜의 말씀을 좇는 자들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은혜의 말씀을 좇는 자들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13:48).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환영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13:41).

(2) 이 은혜의 말씀을 좇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좋은 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악심을 품게한 상황에서도(2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은혜를 말씀을 증거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역과 말씀의 담대한 선포를 충분한 기간 동안 행하였습니다(유상섭). 그 이유는 그곳에 머물음이 평안한 까닭이 아니고 핍박과 난관이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형제들이 곤란에 빠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의 돕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였습니다(박윤선). 그러한 가운데서 능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6-7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좇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명(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좇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담아두셨습니다.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곧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은혜의 샘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충만히 받아우리 내면에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은 보배입니다.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혜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인터넷).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의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8-18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타락한 영혼들은 절망 중에 있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구원해 줄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황폐해진 사회와 이웃을 향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하면 남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도할 때 상대가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셋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생활에 거리끼는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의 내용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툴게 말할지라도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뻐할 대상은 사탄뿐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악의 세력이 이기느냐 성령의 역사가 이기느냐 하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영혼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8-18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15절을 보면 두 사도는 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묵상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이유는 헛된 일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헛된 일”이란 신들을 인간으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이방 종교를 가리킵니다(유상섬).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여 ‘루스드라’라는 이고이오에서 한 30마일 서남 쪽에 있는 도시로 갔었는데(8절, 박윤선) 거기서 걸어 본적이 없는 앓은뱅이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뛰어 걷게 되었습니다(9-10절). 그 때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그 지방 사투리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라고 외쳤습니다(박윤선). 그러면서 이들은 바나바를 로마의 최고신인 쥬피터(Jupiter) 신을 가리키는 헬라이어 명칭인 “쓰스”(Zeus)라고 부르고 바울은 대변하는 신인 “허메”(Hermes)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스드라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급히 황소와 화관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무리들과 함께 두 선교사에게 제사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13절). 그 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라고 외쳤습니다(15절).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헛된 일, 즉 사람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헛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즉,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능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롬1:23).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롬1:25).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한 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1:27).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딤후 3:2-5)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자궁? 교만? 훼방?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감사치 아니하는 것? 기록하지 아니하는 것?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 참소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반하는 것? 조급한 것? 자고한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십시오: “...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헛된 일인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까지 루스드라 이방인들은 헬라 전설인 죽은 신들인 쯔스(Zeus)나 허메 (Hermes)를 섬길 것입니까? 그들은 전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죽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죽은 신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지나간 세대(과거)에 모든 족속들이 자기의 길, 즉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였을 때 목인하셨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16-17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그를 알게 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계에 나타나신 능력과 혜택입니다. 그 실례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음을 들었습니다(17절, 박운선). 이것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세계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유상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몰라서 경배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0-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했어도 목인하셨다는 말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정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끈질긴 인내로 참아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인내로 참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2:4).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방인 민족들을 향하여길이 참으신 것은 회개하고 우상 생활의 죄를 다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8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의 길들”(16절)인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겨우 말렸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1:9).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헛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일 속에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헛된 일들을 버리고 또 버리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

[사도행전 14장 19-28절]

“사명”이란 무슨 말입니까? 사명(使命)이란 말은 (1) 맡겨진 임무 (2) 사신(使臣)이 받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즉 88%의 세일즈맨이 한 통 내지 세 통의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수의 몇 사람이 전체 교회의 전도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단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완수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데 전심전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앓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바울은(8-10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온 유대인들은 결국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려 치는데 개입하지 못하게 한 후 바울을 돌려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밖으로 끌어냈습니다(19절). 그러나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돌에 난타를 받은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졸도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유상섭). 그 때에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성 밖에서 ‘바울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박윤선) 기적적으로 바울이 스스로 일어나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20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21절). 놀라운 사실은 설상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치료받은 일도 없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 여전히 전도 사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박윤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또한 복음 전파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인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2절)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 쳐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두 사람이 이를 알고 피신하는 바람에 실현하지 못해서(5-6절)(유상섭) 결국은 루스드라에까지 원정을 와서 결국은 바울을 돌려 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끈질긴 사탄의 역사입니까?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당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이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 바나바와 함께 더베 성으로 갔던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끈질기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더베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대계명(Great Commission)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는 말씀을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대계명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대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입니까?”란 책에서 교회 회원과 제자의 다른 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인터넷). 오늘날 교회의 회원자격은 거의 모든 지역 교회는 3가지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1)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2)

헌금을 내야 합니다. (3)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회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discipleship)는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이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디베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후 그 곳을 떠나서 사도행전 13-14장에 기록된 선교지 방문의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순으로 다시 재방문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신앙)을 굳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앓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재방문하는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마음을 굳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자들보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바나바와 바울,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죽을 뻔하기까지 하면서도 이들의 복음 사역과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목회는 중단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굳게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위험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들에게 권고한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이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권고했습니다.

믿음은 한번 시작되어 과정에서 중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은 환난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교훈은 가슴에 현실적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유상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두 권고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결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과정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작도 믿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수과목인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난의 통로를 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미꾸라지 신앙인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환난과 고난은 당연히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필수과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를 재방문하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교회를 다스리며 가르치게 하려고 장로들을 선택하여 각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이 장로들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지를 재방문하면서 각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지금 말로 하면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지금 말로 하면 ‘장로’)를 세운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게는 하셨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두 사도가 다 목회하면서 돌볼 수가 없었기에 두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움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중에 하나는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교회가 시급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 파송 받았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27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감당한 복음 전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26절).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여 제자를 삼고 또한 각 교회에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케 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께서 나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심에 감사하면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라!

[사도행전 15장 1-11절]

“멍에”란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수레 등을 끄는 짐승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동물들의 목에 올려놓았던 나무로 된 틀을 가리킵니다(인터넷). 추상적인 개념으로 무거운 짐을 뜻하기도 하며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종속과 노예상태를 상징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보통 율법과 죄악에 의해 억눌려 있는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사용된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그를 돕는 자를 가리켜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고 있는 멍에는 어떠한 멍에입니까? 종의 멍에입니까 아니면 자유의 멍에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예수님을 좇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라!”는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멍에”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율법의 짐”입니다(박윤선). 율법의 짐이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1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5절). 율법의 짐이란 율법 자체보다 율법의 멍에란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요구된 관습이나

규정들입니다(유상섭). 그 요구된 관습이나 규정 중 하나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짐이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멩에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10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까? 분명히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니 인간의 행위(공로)로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믿음 더하기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율법 준수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의 책 “은혜의 각성”(The Grace Awakening)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위험한 이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강조를 두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The one I consider the most dangerous heresy on earth is the emphasis on what we do for God, instead of what God does for us).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또는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시는지 잘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보다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둘째로, 누가 멩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였는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입니다(유상섭). 이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에서부터 약 50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내려와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사도행전 10-14장에서 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하실 때에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한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형제, 자매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1 절). 왜 이들은 할례를 그리 주장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참 유대인에 소속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유상섭).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결정적으로 확정짓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결정적으로 확정짓는 잣대입니다. 할례란 그저 유대인들의 관습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결정짓는 잣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식들에게도 할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가 구원을 얻는 방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1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2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3절). 하나님의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인데(4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부모님들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5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다(6절). 그 때 예수님의 책망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8절, 인용: 사29: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주의적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적 전통이나 관습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유전(전통)이나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서는 아니 됩니다.

셋째로, 제자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 신앙입니다. 결코 할례나 인간의 선행 및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논쟁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리새파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2절).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최종 결정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2절)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들의 개종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3절). 그 때 두 지역의 신자들의 반응은 다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3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의 일행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4절). 그 때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 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5절). 결국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결론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7-11절).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2가지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1) 참된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8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그가 선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박운선).

(2) 참된 제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아니 하셨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함을 받은 제자들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의 성화 역사 속에서 성결한 삶(생활)을 살아갑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지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30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은사적인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성이란 은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고를 닮는 것입니다. 즉, 영성이란 영적 성품이나 영적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훌륭하다는 것은 영적 성품이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마음이 쉬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도 쉬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참다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의 무게에 눌려서 정신도 못 차리는 그 상태를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마11:30).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십자가 무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해서 멘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영력이라야 영성이 밀바탕 된 영력입니다.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와중에 주님 안에서 쉬을 얻을 수 있는 영성,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인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가는 영성, 이러한 영성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나의 멍에를 대신 져 주시므로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멍에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 안에서 쉬을 얻는 영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사도행전 15장 12-21절]

얼마 전 미국의 “Christian Today”라는 잡지에 미국 교회의 성장 실태를 조사한 논문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성장하는 미국 교회 100개를 선택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그 교회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해 낸 것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주차장, 교회의 미래 비전, 창의적 프로그램, 새 신자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입니다(인터넷). 저는 이 특징들 중에 새 신자에 대한 열린 태도에 대해 좀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는 새 신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할 것은 다시금 제 자신부터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 신자를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되어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새 신자를 대해야 합니다. “새 신자 양육의 원리와 전략”(명성훈)이란 책을 보면 새 신자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4M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첫째 M은, Mind(마인드)입니다.

교회 전체가 새 신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삼고 모든 초점을 새 신자, 비신자 입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당회와 교회학교에 이르기까지 새 신자를 왕과 왕비로 모시는 이른바 세계관의 변화(worldview change)가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2) 둘째 M은, Men(사람들)입니다.

즉, 의식이 바뀌었으면 새 신자를 책임지는 사람들, 즉 양육자 혹은 도우미가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새 신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도우미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새 신자 목회의 관건입니다.

(3) 셋째 M은, Method(방법)입니다.

새 신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훈련된 후에 각 교회에 적합한 전략적 방법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좋다고 해서 그대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4) 마지막 M은, Management(관리체계)입니다.

새 신자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탁월해야 합니다. 새 신자 목회를 총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지도자를 도울 스태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선교 보고를 한 후 자기의 의견을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여기서 ‘괴롭게 말라’라는 말씀은 ‘짐 지우지 말라’는 뜻입니다(박윤선). 저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말라는 야고보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과연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더하기 율법준수, 특히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과의 많은 변론 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을 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12절). 그리고 이 무리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할 때에 잠잠히 들었습니다(12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곧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 신자들은 좀 가만히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나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베드로의 말을(11절) 가만히 있어 귀담아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란 책(저자: 이만재)이 있는데 그 77가지 이유 중 한 가지 대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섯 번째 “술 담배도 아예 못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모든 77가지 이유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교회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처럼 그들에게 멍에 또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담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적 태도로서 술 담배를 참된 교인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임성빈 교수님(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윤리학 교수)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술 담배”란 제목 아래 요사이 교회 주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견들도 들려온다고 쓰셨습니다: “술 담배에 대한 극단적이며 배타적인 태도가 한국교회의 선교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던지 아는가? 결국 영혼의 세계는 사모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해 교인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술 담배라는 하찮은 문화적 문제로 양심에 꺼림을 받게 함으로써 결국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인터넷). 어느 여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술과 담배를 아직 끊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도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며 괴로워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 지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죄 짓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지도와주세요.”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랍비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탈무드를 읽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학생이 스승 랍비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학생은 스승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탈무드를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습니까?” 스승은 “거룩한 탈무드를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갑 자기 탈무드가 읽고 싶어서 탈무드를 찾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스승은 “그것은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앙과 담배에 대하여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일부러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담배가 자신의 몸에 해롭고 모든 의사들도 금연을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던 불신자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교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귀하게 받아줘야 합니다. 기존신자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초신 자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게 영혼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가만히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자들에게 쓸모없는 명예를 메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 얻는데 있어서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이니 결코 술과 담배 등등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야모스 9장11-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베드로의 7-11절 연설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베드로의 연설의 핵심 내용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11절)는 말씀이 맞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도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본질적으로 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가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들 중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돼 있음을 선지자(들)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것이기에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어야 할 것 (11절)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 19절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야고보는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하지 말라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원 얻는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박윤선).

주님을 찾는 자는 사도행전 13장38-39절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39절을 보십시오: “... 이 사람(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주님을 찾는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찾는 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 2:4)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민족과 문화와 각 족속의 규례를 다 떠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믿기에 주님을 찾는 자는 헛된 명예를

제자들에게 지게 하여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삼갈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십시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야고보는 바리새파 계통의 유대인 신자들에게 베드로의 말(7-11절)을 해명 또는 지지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자기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 후 야고보는 일방적으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20-21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어 삼갈 것은 삼가게 하므로 말미암아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도 배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유대인 신자들의 말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추가로 율법 준수, 특히 할례를 행하라는 강조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삼가야 할 것은 삼가라고 편지를 써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어 지키게 하자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삼가라고 당부한 것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유상섭). 그것은 다름 아닌 (1) 더러운 것(들), (2) 음행, (3)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4) 피(20절)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들)이란 유대인 신자들의 관점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 음식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음식인 코셔(kosher) 음식 외에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신자들의 관점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더욱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의 관점을 배려해서 우상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삼가라고 편지를 써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만한 교제가 가능할 것이기에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삼가라고 권면한 음행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폭넓은 성적인 범죄이기보다 구약 성경에서 금지한 가까운 인척 사이의 근친결혼을 말합니다(유상섭). 그 이유는 유대인 신자들은 근친과의 결혼을 정죄해왔지만 이방인들은 그리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란 말은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어 죽이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죽이든 적절하게 피를 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는 야고보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삼가라고 당부한 것은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삼가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러한 4가지 항목을 삼가라고 당부하였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4가지 항목은 금기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원만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항목을

삼가줘야 할 것을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로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삼가야 할 것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문화나 언어 등 다른 세 사역이 함께 한 교회를 이뤄 나아가기에 특히 서로의 문화 등을 배려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되었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삼가야 할 것은 삼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 마디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고후9:22). 바울의 최종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 그 중에 예수님을 모르다가 전도 받아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는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만히 있을 필요도 있고 주님을 찾아야 하며 또한 삼갈 것은 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 신자를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위로의 편지

[사도행전 15장 22-35절]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어설픈 위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인터넷): 못생긴 감이 있었습니다. 이 감은 마음이 착했지만 얼굴의 피부가 거칠어서 친구인 고구마가 항상 감자라고 놀렸습니다. 감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감자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감은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감을 진찰하던 의사는 감에게 말했습니다. ‘감씨, 당신은 심각한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다른 이들이 당신을 감자라고 부르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당분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감은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친한 친구인 고구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감을 감자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감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을 불렀습니다. "감!" 그러나 감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감...감..!" 그러나 감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감... 자냐?" 그래서 결국 감은 죽고 말았습니다(인터넷). 저는 이 한 예화를 읽으면서 욥기 16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보면 욥은 자기를 위로하려 온 친구들을 가리켜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위로하려 한 것이지만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욥을 더욱더 번뇌케 하였습니다.

로버트 스트랜드의 “위로의 영성”이란 책을 보면 헨리 나우웬의 머리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우웬은 “위로”란 말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해서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30절 후반절에서 3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편지”란 단어와 “그 위로의 말”이란 단어를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는 ‘위로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로의 편지”라는 설교 제목 아래 이 편지에 대하여 한 4가지로 묵상해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실제로 위로의 편지를 써서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불타는 위로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발신자

이 위로의 편지를 발신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십시오: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4절) 또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인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5절)는 말도 다 들은 후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7절)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하기를 야고보의 제안처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19-20절)을 좋게 여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갈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편지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가결한 것입니다(22절).

저는 이 위로의 편지의 발신자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신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이 시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전달자

이 위로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은 바로 “유다와 실라”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이 “온 교회”의 보고되어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유상섭). 그런 후 온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그 결정 내용을 담은 공문서와 함께 파송한 인물을 선정했는데 그 인물은 형제들 가운데 인정받은 지도자로 바사바란 별명을 가진

유다와 실라였습니다(유상섭). 이들은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 결국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였습니다(30절). 그리고 그들은 “여러 말로 (이방)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한 후(32절)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인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돌아왔습니다(33절).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내용을 적은 편지를 안디옥 지역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달한 전달자 유다와 실라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와 실라는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보낸 편지의 발신자인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파송자이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유다와 실라의 책임은 예루살렘 온 교회가 결정한 내용이 적힌 공문서를 안디옥으로 잘 가지고 내려가서 그 편지를 말로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27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전달자 혹은 메신저들으로써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전달된 메시지

유다와 실라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전달된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4-29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 (1) 첫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사전 허락 없이 안디옥에 내려가 이방인 형제들을 어지럽혔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에게 공문서를 보내면서 자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내려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가르치므로 말미암아(1절)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 것은 자기들이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 (2) 둘째 내용은, 안디옥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을 선정하여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5-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란 우리가 이미 목상한 전달자 “유다와 실라”를 가리킵니다(23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2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두 사람이 할 역할은 그들의 구두 증언을 통하여 공문서에 포함된 중요한 결정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결하여 보내는 내용이 이 두 사람이 입으로 증거할 내용과 동일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들의 허락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문제를 일으킨 상황을 완전히 권위있게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유상섭).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사랑하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발신자와 수신자를 가리키는 말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23, 32절)임을 알려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존경을 그렇게 받았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셋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핵심 사항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핵심 사항은 다름 아닌 이방인 신자들이 삼갈 것들인데 그것은 네 가지로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은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촉하게 되는 유대인 신자들과의 원만한 교제와 친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유상섭). 이 네가지 항목을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는 내용은 헬라이어 문장의 뜻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너희가 바르게 처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유상섭).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핵심적인 결정 사항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28절 말씀처럼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 하에 내려진 결정임을 편지에 적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줄 알았노니.” 이것은 이미 19절에서 사도 야고보의 “의견”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보여 줍니까?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온 교회가 마음이 일치하여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을 “형제”(23,32절)로 받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수신자

위로의 편지의 수신자는 바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십시오: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유상섭 교수님에 의하면 수신자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로마 지방의 행정 단위로 볼 경우 한 지방에 해당되고, 안디옥은 이 지방의 수도”라고 합니다(Polhill, Bruce). 그렇다면 언급한 세 지명은 사실상 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지역을 가리켜 우리는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편지를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때 안디옥 지역 이방인 형제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0-3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의 편지의 수신자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공문의 내용인 권고 혹은 위로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물론 우리의 본능은 이해하기보다 이해를 받고 싶고, 사랑하기보다 사랑을 받고 싶고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기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해 주는 것처럼 “위로의 편지”를 쓰도록 힘을 쓰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편지를 받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

본질적인 짐을 지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사도행전 15장 28절).

"교회가 교회답게"란 제목 아래 쓰진 서정운 목사님(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의 글을 보면 교회의 본질은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시설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데로 말씀과 성령의 교훈과 인도를 따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배, 기도, 전도, 교육, 사귄(나눔)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건물과 시설 등등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또한 감당하고있는 듯해 보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교훈과 인도"를 따른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기에 "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종교적이며 습관적인 예배, 기도, 전도, 교육, 사귄(나눔)과 섬김이 아닌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서 목사님의 이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다웠던 교회들은 정치, 사회 및 종교적 이유로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박탈당하거나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 본질적인 요소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기타의 것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연연해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은 순교적 자세로 고수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교회답게 존재하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인터넷).

저는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 핍박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탄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길 바라기에 교회의 본질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악한 영들과 자식들은 교회를 박해 혹은 핍박하므로 교회의 본질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가 없는 종교적 자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교회의 본질을 공격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해가 없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려는 열정이 식어져 있기에

그냥 놓아두어도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줄 사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비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실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교회로 바꾸고 있지 않나 심히 염려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8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메지 못할 명에(10 절), 즉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10절)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구원 계획을 문제시하여 의심하는 죄입니다(박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은 은혜보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한 존재임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 가운데서 은혜보다 행위로 구원 받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비본질적인 짐들을 지면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율법의 짐들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짐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마11:28).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혹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짐들을 지고 사는 자의 삶을 가리켜 괴로운 삶(행15:19)이며 또한 영혼을 동요시키는 삶(24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메지 못할 명에인 율법의 짐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11절).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비본질적인 짐인 율법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저야 할 본질적인 짐들은 무엇이였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을 보면 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 교인들이 저야 할 본질적인 짐들입니다. The Bible Exposition 주석을 보면 이 4가지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 계명(Commands)와 (2) 양보(Concessions). 우상숭배와 음란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이 두가지 범죄 행위(고전8-10장)를 안디옥 교인들 에게 멀리하며 삼갈 것을 편지로 명하였습니다. 이 두 항목에 대하여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안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관한 피와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불결한(unclean) 것이었기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다른 점들(differences)이 나뉘기(division)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뉘지 않고 교회의 일치를 보여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이방인들 관점에 서는 새로운 먹는 습관을 받아들여서 우상 제물의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31절). 이것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1) 교회의 통일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율법 그룹과 은혜 그룹으로 둘로 나뉘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2) 양방의 양보적인 결정으로 교회는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한 증인의 공동체로 본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로 교회란 아직도 유대인들과 identified하였기에 유대인 전도에 있어서 유대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하나 됨을 나타내다는 것은 증인의 공동체의 파워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3) 양방의 결정은 많은 이방인 교인들에게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31절), 바울의 제2선교여행 때 이 편지를 여러 교회에 가서 나눔으로 교회의 믿음을 강화하므로 교회성장(16:5)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짐을 질 때에 우리가 잘되고 마음이 평안함을 맛볼 것입니다(29절).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비본질적인 명예와 같은 짐들을 다 벗어 버리고 본질적인 짐을 감사하므로 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 요소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사역

[사도행전 15장 35-41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등과 번뇌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살전5:14).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살전5:14). 과연 우리는 마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로버트 스트랜드의 “위로의 영성”이란 책 머리말에서 헨리 나우웬은 “위로”란 말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한다고 해서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5장 22-35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의 편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위로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위로의 편지를 쓰자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35-41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제2차 선교 사역을 묵상하면서 과연 위로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방문하는 것입니다(다시 가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위로의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32절)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거하면서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35절). 그런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바울은 바나바더러 제1차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36절). 왜 바울은 제1차 선교지를 바나바와 함께

다시 가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형제들이 어떠한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각 도시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1차 선교지를 재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재방문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지 재방문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형제들의 양육이었습니다(유상섭).

“양육”이란 무엇입니까? “양육이란 복음 전도에서 얻은 열매를 계속 보존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어린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시작하고 또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성경공부교재).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시작하고 또한 잘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잘 시작하기 위해선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의 기초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단지 감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신뢰할 만한 확신을 가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하던지 하면 죄책감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구원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셨고 약속해 주셨나 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심은 나무에 물을 주듯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이끌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사실)에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양육의 원리는 바로 “모범”(example)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양육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부지런히 본받으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로, 위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것입니다(다투지 말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9 절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제1차 선교 지를 다시 방문하자는 바울의 제안을 바나바는 받아들였지만 그 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마가라하는 요한”(37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을 달리하였었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인 마가라 하는 요한도 제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길 원하였던 반면에 바울은 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선교 사역을

돕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을 제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38절).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39절). 이들의 논쟁은 단지 말싸움이 아니라, 현격한 견해 차이에 근거한 심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유상섭).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구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의 견해입니까? 바울의 견해는 마가라 하는 요한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이기에 그를 제2차 선교 사역 보조자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었고 바나바의 견해는 자기의 사촌 동생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견해였습니다. 유상섭 교수님은 바나바의 견해보다 바울의 견해를 지지하는 쪽으로 본문을 주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맞다고 말하기보다 바울과 바나바의 견해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단지 지향이 그저 다를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일-지향적(task-oriented)인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지향적(people-oriented) 혹은 관계-지향적(relationship-oriented)였다고 생각합니다. 일 지향적인 사람들은 먼저 일을 끝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관련된 쟁점들(issues)를 처리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일을 끝내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꿈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지향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어쩔 때 그들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람-지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일함에 있어서 기분이 좋아야지 아주 질적인 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믿고 있습니다(인터넷).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다툰 후 갈라졌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열심을 잘 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열심이 통솔되지 못할 정도로 탈선되면 안된다”(칼빈, 박윤선). 참으로 공감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지나친 열심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지향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질과 은사가 다르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고 화목하여 함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한 견해 차이로 다투고 갈라서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선교지로 떠났고(40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리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갈라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결국 나중에는 바울은 바나바를 칭찬하였으면 또한 마가 요한도 좋게 여기게 하셨습니다(골4:10).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고후5:18).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이 다 돼야지 화평을 깨는 자들(peace-breakers)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가정에서 화평을 깨는 부모가 된다면 그 부부의 자녀들은 위로받기보다 상처를 받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깨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위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굳게 하는 것입니다(교회를 굳게 하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십시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국 바나바와 다톤 후 갈라서서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실라란 인물은 이미 우리가 목상하였듯이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유다란 인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공문서(위로의 편지)를 받아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편지를 읽은 후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31-32절)한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유상섭). 실라는 바울에게 적합한 동역자였습니다(백아더). 그 이유는 실라는 선지자로서(32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라는 유대인으로써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16:37) 바울처럼 동일한 유익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은 지도자로서 이방인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보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떠나 제1차 선교 사역 지였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교회 들을 굳게 하였습니다(41절). 교회들을 견고케 하는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한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실라도 바울처럼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위 형제자매들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란 마치 뿌리가 깊은 견고한 나무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신앙 생활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주위 형제자매들을 굳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을 쓰도록 권면하며 도와야 합니다(엡4:13).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14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성령의 위로”라는 말씀은 성령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테’입니다. 그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위로의 영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 내포된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납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나는 때는 고통과 시험의 시간에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시험과 위로는 정비례합니다. 즉 시험이 큰 만큼 위로도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고후 1:5).

성령님의 위로의 사역에 쓰임 받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는 사역과 견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길 기원하면서)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1)

[사도행전 16장 1-5절]

언젠가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시간 사도행전 4장을 공부하다가 얻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본문에선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패턴(pattern)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의 패턴을 한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패턴의 명칭: “위에서 아래로 방법”(Top to Bottom Method)]: (1) 기도(31절, 참고: 1:14-15), (2) 성령 충만(8, 31절), (3) 복음전파(8-12절), (4) 믿는 자가 많아짐(4절, 참고: 2:47), (5) 사랑 공동체(32-37절). 그런데 놀란 것은 그 패턴과 현 시대 우리 교회들이 세워짐의 패턴이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반대 세상의 방법을 “아래에서 위로 방법”(Bottom to Top Method)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교회: 주님의 방법의 우선순위에서의 첫번째는 기도지만 세상 방법은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 마음과 여러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교인 숫자: 세상적인 두 번째 방법은 교회 숫자 증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양 도둑”이란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평이동이요 양 도둑질로 말미암아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의 이름을 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전도/선교: 세 번째 방법은 마지못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4) 성령 충만: 네 번째 방법에 가서야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에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도 과연 성경적인지 감정적인지 신비스러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기도: 이 기도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상황과 느낌과 우리 생각에 치우쳐 부르짖을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16장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란 제목 아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선 후(15:39) 실라와 함께 제1차 선교지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한 후(41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1절에 와서는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루스드라 라는 지역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의 1차 선교사역 중에 날 때부터 전혀 견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오인하여 그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했던 대소동이 있었던 곳입니다(유상섭).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는 이교 중심의 도시로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사 그들의 제1차 선교 사역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 바울이 실라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을 때, 이 이방인 도시에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 중 바울이 만난 새로운 인물은 바로 디모테라는 제자였습니다(유상섭). 이 디모테란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지금 말로 하면 혼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었습니다. 디모테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Eunice)로서 디모테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인 로이스(Lois)처럼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sincere faith)이 있었는데 디모테도 그의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처럼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에게 어울립니다. 그의 이름 “디모테”는 “하나님의 보배”란 뜻입니다(박운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영어로 “sincere faith”입니다(NIV).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신실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가짜가 아닌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로마서 4장 18-2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18절).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 속에서도 약 2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의학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바랬던 믿음 이었습니다.

(2)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3)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 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4)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 “여러분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실 것입니다. 1860년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곡예사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매고 외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인 1859년부터 나이아가라에서 외줄타기를 시도한 블론딘은 그해 8월에는 그의 manager였던 Harry Colcord를 그의 등에 업고 외줄타기에 성공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블로딘의 줄타기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위로 50m 정도의 높이에 300m 정도의 밧줄을 매어 놓고 밧줄 타기를 시도하려는 그의 주위에, 신기에 가까운 그의 외줄타기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블론딘, 블론딘” 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로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폭포 위로 매어 놓은 줄을 타고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군중들은 “물론이지요!”라고 하면서 블론딘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그렇다면 제가 제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이 밧줄을 탈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자 역시 군중들은 “물론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군중을 향하여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저를 믿으신다면 아무라도 좋으니 이리로 나오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군중들은 블론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그들이 믿는 믿음은 결국은 위선이었고 가짜였다는 것입니다”(인터넷).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사모하면서)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2)

[사도행전 16장 1-5절]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2007년7월25일)에 미로슬로브 볼프(예일대학교 헨리 B. 라이트 석좌교수·신학) “특집/남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실려 있는 기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복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종이나 문화나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배타적이면 긴장관계를 자아내므로 그저 남남으로 살면서 갈등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서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는 한 4가지로 제 안하였습니다(크리스찬 투데이):

(1) “서로를 포용하려는 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을 나의 축소 요인으로 생각하기보다 나를 풍요롭게 해줄 잠재력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입장 바꿔 보기”

서로 포용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선 관점의 역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들을 볼 때 그들 자신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상호 개입.”

“상대가 어떻게 이해되기를 바라는지 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내가 이해하나서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서로 합의해야 할지, 그냥 불일치로 남아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여기가 바로 토의적 상호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4) “남을 포용하기”

기독교인들은 순수 혈통이나 국적, 문화, 종 족을 초월하여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저희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세 사역(한국어, 영어, 히스패닉)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사역 식구들이 서로 포용하려는 의지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다 완전히 우리가 일치할 수 없다는 전체 아래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상호 개입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젠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서로”라는 개념아래 서로를 포용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준비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16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딤후1:5), 즉, 신실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롬 4:18). (2)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19절). (3) 그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20절). (4)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21절).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은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즉, ‘기독교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그 두 지역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을 그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참된 제자도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주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목상하였지만 예수님 당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배우고 순종하며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했는데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신앙과 행위 속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서,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그러한 목적에 맞추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기독교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에게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디모데처럼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무리에게 칭찬을 받을 때엔 그 자신이 마귀가 되어가는 줄 알고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영광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박윤선).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잠27:21).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칭찬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11:26). 바나바는 사울(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철저히 시켰을 때(26절, 유상섭)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질적으로 놀라운 성숙에 도달하므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좇았으면 주위 비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것은 교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교회 회중들의 낮은 영적 수준의 이유가 된다”(인터넷). 우리는 결코 낮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면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 디모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리고 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3절). 그 이유는 디모테의 아버지가 이방인 이였기 때문에 디모테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유대인 선교 사역에 방해(문제)가 될 것으로 바울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3절)(유상섭). 이것은 결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율법주의 적이며 바리새과적인 믿는 유대인들의 주장인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주장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편으로 디모테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를 베푸는 이유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행한 것뿐입니다(유상섭).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그는사람들 구원코자 하였습니다(고전9:22).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사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19절). 유대인에게는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20절)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3절). 그는 디모테에게 할례를 베푸는 후 실라와 디모테와 함께 여러 성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내린 결정을 준수하도록 권면했습니다(4절). 그 결정은 이미 우리가 목상한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 규례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29절). 제1차 선교 지를 두루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테가 이 규례를 그 지역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 지키게 한 이유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화목 때문이었습니다 (박운선). 아마도 그 당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재방문하였던 1차 선교지 교회들 안에서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과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유상섭). 그러기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교회의 다수인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우리 다수의 한국어 사역 성도님들이 소수의 영어 사역 식구들과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배려하여 화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할 때에 서로의 화목을 위하여 삼가야 할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사역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 한국어 사역이 삼가야 할 것은 그들을 어린아이들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손자들이며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리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히스패닉 사역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어 사역이 그들을 다 “Mexican”(멕시칸)이라고 부르면서 혹여나 남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내어 버린 후 그들을 주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 세 사역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지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교회 세 사역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자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화목케 하는 자들'(peacemakers)이 되어 할뿐 아니라 또한 '화목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peacekeepers)이 되어 합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이며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섬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 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다.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인터넷).

주님께 칭찬받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이중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움 받길 기원하면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

[사도행전 16장 6-10절]

“한국 해외선교 방식 변화의 기로에”란 제목 아래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샘플 교회 봉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해외선교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시사주간 타임이 7월27일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 중 한국의 선교현황도 자세히 보도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150여개국에 선교사 1만 6000명을 파견, 미국에 이은 제2의 선교대국으로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는 중국에 가장 많이 파견돼 있고 러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순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견했으며 선교가 금지된 중국은 선교사들이 연구원, 사업가 등으로 가장해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기가 교회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타임은 지적했다. 외국에 가능하면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더 위험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심해지면 선교에 대한 성과주의가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봉사나 선교 자체보다는 해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업적위주의 선교가 퍼질 수 있다는 얘기다”(인터넷). 샘플 교회 봉사단의 아프가니스탄 선교 사역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말하기보다 참으로 귀한 선교 사역이요 그 사역자들은 참으로 보배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독교 신문에서 몇몇 목사님이 글에서 제안한 것처럼 지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8월달 구역성경공부(“세계 비전”)를 위하여 구역장 성경공부 때에도 구역장 분들과 함께 나누고 도전하였던 것은 우리의 기도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선교지요, 우리 친척도 선교지요, 우리 직장, 회사도 선교지요, 우리 이웃도 선교지요, 우리 고국이나 살고 있는 미국도 선교지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나라도

우리 선교지요, 등등 ... 우리는 이 선교 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10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 사역”이란 제목아래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 사역은 어떠한 것인지 2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은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에 중단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7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제 2차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 라는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1-3절)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걱정한 규례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므로(4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5절). 그런 후 오늘 본문 6절에 와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아시아로 향하려고 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동역 자들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다가(6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7절). 그러나 또 다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7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전하고자 애썼는데 성령님께서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성령님께서 막으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막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전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른 곳이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10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실 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지역의 우선순위가 그의 섭리 가운데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는 좋은 의도(motive)도 있지만 무엇이 먼저 있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자 고민하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로 마케도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몰랐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선교지를 찾아 열심히 나섰지만 아시아나 비두니아 모두 성령님께서 막으셨던(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막으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지케 하실 때 우리는 브레이크(Break)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성령님께서 “멈추라”하면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너무 깊게 밟아 속도를 너무 빨리 내느라 브레이크 페달을 갑자기 잘 밟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라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막을 실 때에 우리의 영적 브레이크 페달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앞을 보고 달리기에만 바빠서 멈춰야 할 때를 분별 못하고 무심코 달려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이 달리라 하면 달리지만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 민감함(spiritual sensitivity)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흐지부지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흑백이 분명하게(clearly) 하시며,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막으심(허락지 않으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mind)를 날카롭게(sharpened)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은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므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관문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8절). 거기서 거하고 있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그 환상에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상을 본 후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10절).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가고자 애썼던 문을 막으셨을 때에는 꼭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고자 애썼던 문은 바로 아시아(Asia)와 비두니아였지만 성령님께서 그 문을 막으셨지만 결국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마게도냐, 즉 유럽(Europe)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지금도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환상은 보이는 형상이 그 중점으로 생각되는 계시입니다(박윤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바울 시대와 달리 환상을 통하여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며 고민하는 부분은 “인정함 이러라”는 단어입니다(10절). 영어 NIV나 NASB 성경을 보면 “conclu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을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s라는 주석에 의하면 ‘인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가도록 만들다’, ‘하나로 되다’, ‘결합시키다’, ‘이것저것에 동의하므로 결론을 내리다’ 입니다(to make go together, to coalesce or knit together, to make this and that agree and so to conclude)(주석).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울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성(reason)을 사용하여 논한 결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함께 동의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의 뜻을 계시해 주셨음에 충분히 설득을 당했다(being fully persuaded)는 것입니다(칼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롬12:2). 그러므로 영적 민감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문과 열어주시는 문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한 쪽 문을 닫으시며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가는 이성을 사용하여 함께 동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주시는 마음에 평강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림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문과 열어주시는 문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결론이 내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럼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은 믿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애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새로운 선교 사역지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 사역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길 기원하면서)

영적 민감함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사도행전 16장 6-7절).

무딘 칼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전10:10). 이와 같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엡6:17)이 무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mind)가 날카롭게 돼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 사람(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 민감함이 둔해져서(spiritual insensitivity)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므로(lack of spiritual discernment) 혼동(confusion)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갈바를 알지 못해 이리 저리 헤맬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문은 닫으시고 어느 문은 열어주시는지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7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한 마디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 그 닫힌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8절).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을 때 밤중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9절). 바울은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청함을 받았습니다(9절). 이 청함을 환상에서 받은 바울은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10절). 즉,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영적 민감함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하여 의논한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concluding)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되지 않은 이성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된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러한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의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입니다(참고: 마26:39).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자만이 마음에 변화를 받아(롬12:2)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겸손한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영적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을 추구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의 능력

[사도행전 16장 11-40절]

레이 프리차드는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제목의 글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는 너무 작다!” ...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에게는 프레드릭 마이코니우스라는 좋은 친구이자 조수가 있었다. 1540년, 마이코니우스는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며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 다정한 작별 인사를 전했다. 루터는 그 글을 읽자마자 회신을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가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아직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주님은 절대로 그대가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듣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내 소원이니,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대답하고 막무가내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루터의 답장이 도착했을 때 말할 기운조차 없던 마이코니우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6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루터가 세상을 떠나고 두 달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라”(인터넷).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시편 6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지 한 네 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그 네 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을 찾는 자” 또는 “주님을 바라는 자” 혹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배웠습니다(시69:6). 시편 기자 다윗은 그를 미워하는 참으로 많고 강한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꾀박으로 인하여 그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1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특히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를 외면하는 외로움 속에서 궁핍이 여길 자와 위로할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므로 말미암아(20절)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40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 아래 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은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은 그녀와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행16:15).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10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11절) 거기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이르러 수일을 유하다가(12절) 안식일에 그들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회당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빌립보 성에는 공식적인 유대인 회당이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유대인 회당으로 향할 수가 없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 때에 만난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란 여자는 큰 재력가였습니다(유상섭).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에 있는 두아디라 성은 옷감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산업의 중심지로서 자주 옷감은 귀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루디아 외에 그 기도처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 문만 열어 주시사 바울의 말을 청중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속에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어느 이민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그 목사가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기도하는 루디아가 만났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다가온 말씀 이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루디아,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치 못하고 있었던 루디아, 그녀가 기도처에서 다른 여인들과 앉아 모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막으시고 결국 마케도냐로 향하게 하시사 결국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씀을 청중케 하시므로 빌립보 교회의 첫 회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을 회심시키시사 빌립보 교회의 시작 청신호를 알리셨고 결국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은 귀신들린 여종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도 첫 번째 사건인 루디아의 구원의 역사와 유사한 점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무당과 같은 자 (박옥선)]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입니다(16절). 다시 말하면 두 사건 모두 다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루디아 사건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이 두 번째 사건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의 다른 점은 루디아는 구원을 받은 반면 귀신들린 여종은 영적 구원이 아닌 육신적 건지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된 치유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유상섭). 흥미로운 것은 과연 이 무당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우리를 좇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 구절을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구원의 길”을 아는 듯해 보이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이 “구원의 길”이란 말씀 앞에 “그”라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오직 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의 길들 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 하나라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많은 날 동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뒤를 좇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쳐대므로 바울 일행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혔습니다(유상섭). 아마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지극히 높은 하나님”) 잘못된 구원의 길을 계속 바울과 그의 일행을 좇아다니면서 외쳤기에 괴로워하지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많은 날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루는 자기와 일행을 좇는 귀신들린 여인에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외쳤던 것입니다(18절). 그 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18절).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귀신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8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에게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앓은뱅이 된 자가 뛰어 서서 걸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사도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앓은뱅이가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40절에서도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기보다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유상섭).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은 간수와 그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과 연관돼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므로 말미암아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꺾인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market)로 관원들에게 끌어가서(19절) 결국 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였습니다(22-23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내일이면 처형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25절)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26절). 그 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27절). 그 때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막은 후(28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한 간수는(29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온 후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질문하였습니다(30절). 그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것 이였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하고”(31절). 그런 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32절). 그 결과 “...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34절). 그러므로 큰 기쁨이 그 가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은 바로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감옥에서 구출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였습니다(유상섭). 칠흑같이 어두운 한 밤중에 감옥에 갇혀 두 발이 착고에 매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을 달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줍니다(유상섭).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자세였습니다: “사도들은 그(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5:41).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큰 지진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까지 흔들리게 하여 옥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였습니다(26절). 그 결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다고보다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온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34절).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재의 연구와 교회 일에 열심히 매달리고 설교와 사람들과의 대화에 정성을 쏟지만 끊임없는 기도가 부족하다. 성령의 확실한 약속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통로인 기도가 없다. 강력한 영적 삶이 부족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는 죄다!”(인터넷).

기도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사모하면서)

기도자의 만남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 삶의 여정에 주어지는 만남들을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좋은 만남들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만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만남들이란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만남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남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여정의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만남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이지 우리의 만남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펼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는 세 만남들을 갖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14절). 두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바로 간수와의 만남입니다(27절ff). 이 세 만남들을 우리의 눈으로 평가할 때 첫 번째 만남인 루디아와의 만남과 세 번째 만남인 간수와의 만남은 좋은 만남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루디아나 간수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시사

루디아나 간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사 세례를 받게 하시므로 말미암아(15, 34절) 다들 크게 기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들은 우리가 볼 때 좋은 만남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점을 보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은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18절).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모함을 받고(20절) 결국에는 매를 많이 마친 후 깊은 옥에 갇히게되었기에(23절) 우리가 볼 때 이 만남은 좋지 않은 만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고 모함을 받고 핍박도 받아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힌다면 어느 누구 이러한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를 심히 괴롭히던 자를 도와준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결코 감옥에서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25절).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이르러서(12절) 기도처가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13, 16절) 그들의 기도처가 바로 깊은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에서 기도케 만드시지 않으시고 깊은 감옥과 같은 곳에서 기도케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므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그 기적은 바로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26절).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보기엔 좋지 않은 바울을 심히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결과는 세 번째 만남인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33-34 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자살하려는 한 간수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한 간수를 통하여 그의 온 집을 구원받은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루디아와 만나게 하시사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 식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를 깊은 옥에서 만나게 하시사 그와 그의 온 집도 구원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입니까? 이 귀한 두 만남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만남, 우리를 심히 괴롭게 하는 만남,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사 결국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기도처(“깊은 옥”)를 찾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처에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보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만남은 모두 다 좋은 만남입니다. 그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은 만남일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만남도 사용하시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롬 8:28) 그 만남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좋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자의 좋은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심비에 깊이 적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만남을 허락하시사 영광을 나타내실지 우리 모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승리!

모든 만남들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기도하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을 가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길 기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사도행전 16장 35-40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은 무서운 파멸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자아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보고 "이 못난 녀석아, 이 죄인아, 이 더러운 녀석아,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없어"라고 자학할 정도로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싸여 자존심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로 열등감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중국어로도 열등감은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고 알잡아 보는 마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열등이란 나 자신의 체격, 용모, 능력, 학벌 등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비하시키며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건전하지 못한 자아개념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 만사에 자신이 없어지며, 이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면만을 확대 해석하여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영문 학자며 철학자인 루이스(C. S. Lewis)는 사단이 현대인들의 인격과 의식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인데 이는 열등감의 배후세력이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단의무기에 공격을 당해 열등감을 가지고 소극적인 삶, 만사에 자신이 없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기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때때로 열등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서 오는 완벽 주의적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열등을 느끼는 부분을 덮고 위장하고자 아주 철저하게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부심이란 무엇입니까? 자부심이란 자기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J. 하드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넌 틀렸어. 이제 끝났어!"라고 자괴감을 줄 때 우리는 실제 가진 능력의 30%도 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니가 못해!"라고 자신감을 줄 때, 우리는 무려 능력의 500%까지 발휘할 수 있고 합니다(인터넷).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 밖에서 뭔가 자부심을 느낄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자부심과 무한한 존귀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목상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시피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행16:25)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남아있으므로 결국 간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34절). 그런 후 날이 새매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려고 상관들이 아전(법집행관)들을 보내었고 그들은 간수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말을 전했습니다(35-36절). 그 때 바울의 답변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37절). 이 얼마나 담대한 바울의 태도입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자기 자신과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밝힌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음을 보고(19절)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 (market)로 관원들에게 끌어가서 상관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하였을 때 (20-21절)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야 자기와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법대로 타당한 재판 절차를 받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유상섭) 그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라고 담대히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에서야 자기와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상관들에게 자기와 실라가 잡혀서 상관들앞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로마 사람임을 밝혔다면 그리 많이 매 맞고 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는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고 다 고통을 당한 후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는지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기에 결국 간수와 그의 온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34절). 만일 그들이 치유 받은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송사할 때 로마 사람이라고 밝혔다면 감옥에도 갇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간수하고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기에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성경 기록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34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도의 사람들인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이뤄진 것을 목상할 때 바울과 실라의 자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행5:41).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4-40절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에서 자기와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밝혔을 때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아전(법집행관)들이 상관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고했을 때 그 상관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 시민권 자들에 비하여 아주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가 없이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로 매라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으니(22-23절) 이러한 사실이 로마 당국에 보고되면 그 상관들(아미 치안 판사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친히 감옥으로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바울과 실라를 인솔하여 나 와서는 도시를 떠나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39절). 얼마나 당당하게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감옥을 떠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찾아 로마 사람의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들 할지 모르지만 오래 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였는가 생각됩니다. 시민권만은 못하더라도 일단 미국 영주권이라도 취득하게 되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보통 이민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19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나아갔었을 때 비자를 받고 나아가지 않아서 일본 후쿠오카 한국 대사관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부산에 살고 있었던 사촌 동생하고 갔었는데 일본 비행장에 내려서 입국하려고 했을 때인가 사촌 동생이란 저랑 다 무엇인가를 써서 냈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여서 그 일하는 사람이 직접 고쳐주고 들어가라고 한 반면에 제 사촌동생은 한국 시민권자이기에 저기 가서 고쳐 오라고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사촌동생은 기분이 매우 나빴었습니다. 그 때 미국 시민권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작은 제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예이지만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안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누리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어쩌면 자부심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가지고 자아 확대하며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계3:16) 물질적 부요함과 세속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속적 자부심은 결국 영적 궁핍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속적으로는 궁핍한 가운데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게 능력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4:13)는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존감이 낮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예수님을 전염시키십시오.

[사도행전 17:1-9]

“전염성 탐욕”(Infectious Greed)란 무엇입니까? “전염성 탐욕”이란 신조어는 기업 비리 때문에 곤두박질치는 주식시장을 두고 앨런 그린스펀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한 말입니다. 2002년 엔론뿐 아니라 월드컴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회계부정에 연루되면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자 그린스펀은 "스톡옵션이라는 인센티브가 경영자들의 분별력을 흐려놓았다"면서 ‘전염성 탐욕’이라는 신조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경제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염성 탐욕이 우리 경제계를 휘어잡은 것 같다. 인간의 욕망이 과거보다 더 커진 것은 아니다. 거리낌 없이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졌다"(인터넷). 성경에서 이러한 탐욕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전염성은 참으로 강하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바리새인이 가진 악한 성향, 헤롯이 가진 악한 성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형식주의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누룩”이란 빵을 만들 때 부풀도록 넣는 이스트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누룩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을 영적으로 부정한 것,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성향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집에서 매일 빵을 만듭니다. 보통 한 말이면 30여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누룩의 특성을 잘 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주님은 적은 것이 순식간에 퍼져 많게하는 누룩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종교적 형식주의나 세속주의가 순식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 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누룩”이란 단어를 예수님께서서는 부정적으로 쓰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누룩이 가루 속에서 부풀려 퍼지듯이 천국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합니다. 이 문구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 목사가 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란 책 제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 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전염되고 나서는 바울은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역병이라”(a real pest)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24:5). 왜 사도 바울은 역병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에 와서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란 곳에 와서는 세 안식일이나 걸쳐서 그의 규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롬 1:16)(박윤선). 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란 지역을 택하여 복음을 전했습니까? (1절) 그 이유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유상섭). 좀 더 설명하자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냐의 수도로 마케도냐의 모든 도시 중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한 그들은 이 도시에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곳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란 도시는 로마로 연결된 고속도로와 해상 무역로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었고 또한 여러 인종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널리 퍼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유상섭).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1) 바울은 강론하였습니다(Reasoning)(2절).

강론하였다는 말씀은 변론하였 다는 뜻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서로 문답하면서 변론한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2) 바울은 복음의 뜻을 풀어 증명하였습니다(Explaining and giving evidence)(3절).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임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성경에 근거하여 증명해 보였습니다.

(3)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Proclaiming)(3절).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 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4절).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란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을 가리키고 “귀부인”들이란 고위 지도층에 속하는 인물들의 아내들을 가리킵니다(유상섭).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 바울과 실라를 좇았습니다(4절).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시기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5절).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설득을 받아 그들을 좇는 자들인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좇아 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개종은 유대 교회당에게는 굉장한 손실이였기 때문입니다(유상섭). 그래서 이들은 시기심이 가득찬 가운데서 시장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무리들을 모았고(5절), 급기야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Jason)의 집을 습격했습니다(5절). 야손의 집을 돌발적으로 습격한 이 시기에 가득찬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시의회 앞에 세우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야손과 일부 믿는 형제들을 끌어내어 시의회와 도시 사법 당국자 앞에 세웠습니다(5-6절). 그리고 나서는 이들은 야손과 일부 믿는 형제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환영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6절). 고소를 한 자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혼란과 선동을 야기한다는 거짓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이 다른 왕이라고 계속 주장함으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고 고소하였습니다(7절). 그러나 그 당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시의회와 시 최고 통치자들은 이 고소를 듣고 몹시 당황을 했지만(8절) 결국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만일 이들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였다면 결코 야손과 믿는 형제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9절)(유상섭).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도 노하우 10가지”를 소개합니다(인터넷):

(1) “자신이 하려고 말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는 “저는 내성적이 라...” “성경을 잘 몰라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돼서...” 등 변명은 모두 ‘전도를 자신이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전도의 도구가 될 뿐 그 과정은 100%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이를 깨달으면 담대하게 나설 수 있다.

(2)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 발견하기.”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전도의 기본 중의 기본. ‘평생 1명 전도법’(규장)의 저자 류익태 목사는 아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전도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노방전도도 좋지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가까이서 ‘멘토’가 돼 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3) “보고 또 보고.”

전도에 있어 자주 대면하는 것만한 지름길은 없다. ‘전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끈질기다는 것. 출근시간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는 ‘고구마 전도 왕’ 김기동 집사, 다른 의사보다 회진을 몇 배 더 많이 돌면서까지 환자들을 자주 보고 복음을 전한 ‘의사 전도 왕’ 이병욱 교수 등이 그 예다. 얼굴을 익힐수록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진다.

(4) “칭찬으로 시작하라.”

“한결 젊어 보이십니다.” “이 식당 물맛이 끝내 줍니다.” 등 칭찬으로 대화를 열어야 한다. 김기동 집사는 “칭찬은 젓가락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흥을 보면서 겉으로만 칭찬하라는 뜻은 아니다. 칭찬 거리를 찾다보면 결국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진심으로 전도하려는 열의도 생긴다.

(5) “겸손은 유일한 밑천.”

“전도한다는 사람이 뭐 그렇게 거만해? 맨 날 자기 잘사는 얘기만 하고...” 전도를 하다보면 비난을 듣기가 다반사이지만 성경에서 이미 복음 전도의 길이 고난임을 배운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아줌마 전도 왕’ 김인아 전도사에 따르면 교만한 상대에게는 자세를 더 낮추는 것만이 방법이다. 한번은 아이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사람을 위해 “아이를 봐주겠다”고 나섰다가 돈 받고 부리는 부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김 전도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일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 이 모습이 결국 철용성 같은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자.

(6) “성격과 기질을 알자.”

막무가내씩 돌진이 예상외의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상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한결 효과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수많은 전도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믿을 때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파악한 김인아 전도사는 ‘뜨겁게 믿을 사람’을 헤서는 통성으로 기도해주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꼼꼼하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등 전략을 세운다.

(7) “교회와 상호 협력하라.”

전도자의 사명은 대상자를 좋은 교회에 자리잡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한다. 전도에 있어 교회의 역할이 50%는 되는 셈이다. 류익태 목사는 “전도자는 교회의 물결을 타야 힘이 난다”고 강조한다. 전도하는 교회 전체에서 성령이 느껴져야 전도자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변화도 빠르다는 것.

(8) “전도자가 곧 크리스천의 거울.”

크리스천이 모두 ‘성인’(聖人)이 될수는 없지만 전도자들은 상대방의 눈에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비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도하는 사람이 꾸밈을 늘어놓거나 다른 이의 흠만 본다면 복음이 전해질리가 없다. 시작부터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를 강조하라는 김기동 집사의 말처럼 자신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삶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9)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는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한 후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열정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도를 왜 하는지 모르고 신앙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도에 나서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 일뿐이다. 전도에 있어 어떤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 거듭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때는 삶 자체가 전도가 된다. 이 때문에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령이 담긴 그릇'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10)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류익태 목사는 “(전도 대상자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고 결심하라”고 강조한다. 전도하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남겨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나서면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고 실패도 없다. 수없이 되짜를 맞아도 또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복음 전도자들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천국)를 확장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란 전염병에 깊이 걸리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염시키길 기원하면서)

신사적인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0-15절]

저희 집 뒷뜰에 있는 잔디를 보면 왠지 잔디가 싱싱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저기 보면 좀 잔디가 누렇게나 할까요 죽어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잔디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 부부가 잔디에 물을 정규적으로 잘 주지 못해서 잔디가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잊어버려서 잔디에 물을 못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물이 아까워서 그냥 물주는 것을 넘어갈 때가 솔직히 제 자신 에게는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물 값은 자꾸만 많이 나아가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뒷마당 잔디를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등등 이유를 갖다 뉘니다. 저희 집 뒷마당 잔디와 달리 성경을 보면 “물댄 동산”(a well-watered garden)이란 말씀이 나옵니다(사58:11). 여기서 “물댄 동산”이란 ‘마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동산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동산에서는 무엇을 심어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에 무럭무럭 잘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시1:3). 바로 이러한 “물 댄 동산”같은 마음(심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3:23; 막4:20). 마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흩이 얇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해 떨어진 씨들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을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가 “좋은 땅”에 뿌리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가리킵니다(마13:23; 막4:20).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0-15절을 보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참으로 물댄 동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베뢰아 사람들입니다. 흥미롭게도 베뢰아란

도시 이름의 뜻이 ‘물댄’(well-watered) 혹은 “많은 물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염시켰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야손의 집에서 그의 일행과 함께 거하다가 피신하여 다행히 그들의 손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급히 피신하여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뢰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10절).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처럼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게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12절).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베뢰아에서도 일어난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뢰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뢰아란 도시까지(유상섭)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하여(13절)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베뢰아 형제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 아덴으로 바울을 피신 시켰습니다(14절).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사적”이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로 “신사적”이란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정직하게 예절을 지키며 대하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유상섭). 즉, 귀족 출신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사적”이란 말의 의미는 베뢰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러면 ‘고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는 말씀은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사적인 사람들은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11절).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은 “모든 열심으로”(박윤선) 혹은 “모든 자원함으로”(유상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유상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베뢰아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유상섭). 다시 말하면, 베뢰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참고: 8:14, 11:1)(유상섭).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빨아들이듯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력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짝 누른 후 물통에 넣으면 물을 빨아들이듯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수용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속속 귀에 그리고 마음에 잘 들어오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자신들이 확인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뢰아 사람들은 무턱대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날마다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수용력과 더불어 균형 있게 그 말씀을 잘 확인해서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수용력만 있다면 목사님들의 설교에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틀린 부분들까지도 다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수용력과 더불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금상천화라 생각합니다.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The American Patriot's Handbook)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링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어린 링컨이 친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것은 바로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펼치고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는 대신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성경은 링컨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링컨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낸시였으며,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이야기였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노예제도 문제로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때, 전국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아비규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전쟁 상황 중에도 전혀 흔들림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함: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전쟁은 연방군(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링컨의 승리로 끝나자 노예 신부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펴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링컨에게 의미 있는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기 원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580달러라는 거액의 돈을 드려 가족 성경에 금박을 입히고, 성경의 겉표지에 쇠사슬 매여 있는 흑인 노예들의 족쇄를 벗겨 주는 링컨의 모습을 새겨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링컨은 그들의 값진 선물에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게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참으로 링컨 대통령은 베뢰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크리스천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자기가 존경하는 링컨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 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인터넷).

저는 저부터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링컨 대통령처럼 또한 베뢰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careful examination)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는데 헌신하면서)

새로운 것

[사도행전 17장 16-21절]

요즘 여러분이 사신 물건들 중에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새로 구입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새 차도 구입하고 싶을 수도 있고 새 집도 마련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보편적으로 젊은이들이 새로 구입하였던지 혹은 구입하고 싶은 것은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은 무엇을 새로 구입하고 싶으십니까? “폴 스미스의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란 책을 보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타겟 고객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고객은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라 다섯 그룹으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터', '얼리어답터', '초기대중', '후기대중', '저항그룹'. 이노베이터는 '새로운 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소비자 그룹으로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얼리어답터는 이노베이터들이 새로운 것을 즐기는 것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로, 전체 고객의 13.5%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마케팅에서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이들은 신제품의 성공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노베이터와 얼리어답터가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을 끝내면 대중이 드디어 구매를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고객을 차지하는 이들은 각각 34% 정도를 차지하는 '초기대중'과 '후기대중'으로 나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것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저항그룹). 16%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새로운 핸드폰들과 컴퓨터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사고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더욱더 자극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며 “새것 집착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인터넷). 즉, 새것이 옛 것보다 (항상)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16-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뢰아에서 피신하여 간 아텐이란 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새로 되는 것”(something new)에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21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텐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새로운 신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아텐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새로운 신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지식에 대한 욕심(지식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텐이란 곳은 우상으로 온통 가득 찼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아텐의 중심에 위치한 광장에는 수 없이 많은 웅장한 신전들과 신들에게 받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유상섭). 로마 황제 숭배의 일환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신전, 황제의 가족들에게 바쳐진 신전, 만 신전, 여신 아테나 신전, 에메테르 신전, 제우스 신전, 아레스 신전, 아폴로 신전, 그리고 12 신들의 신전 등이 즐비하게 늘어있었고, 도시 각처에는 신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새겨진 제단뿐만 아니라, 또는 신에게 받치는 제단도 있었습니다(유상섭). 그래서 바울은 아텐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습니다(16절). 이 분노는 소위 말하는 의분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령으로 노여워하는 분노입니다(유상섭).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였고 도시의 광장(“저자”)에서는 모인 사람들과 날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17절). 아마도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도시의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논쟁은 매일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17절, 유상섭). 그 때 사도 바울이 논쟁을 벌인 사람들 중에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은 두 다른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에피쿠로스(Epicurean philosophers) 학파와 스토아(Stoic philosophers)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텐은 척할 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의 설교에 관심을 보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유상섭).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은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학파로서 쾌락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고통, 성가시게 하는 열정,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평온이리 삶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는 필수 조건은 신들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입니다(유상섭). 스토아학파가 쾌락과 고통은 인간의 행복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인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가르친 반면에 스토아학파는 신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두 학파 철학자들은 바울 도시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거할 때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가리켜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반응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라고 하였습니다(18절). 여기서 “말장이”(idle babbler)란 말은 “씨를 줍는 자”란 뜻으로 “새가 씨를 찍어 먹듯이 잡다한 정보를 모으는 자”를 가리킵니다(유상섭). 즉, 어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잡다한 정보로서 주목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서 이방 신들이란 새로운 혹은 익숙하지 않은 귀신들이란 의미입니다(유상섭). 즉, 이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고 가지고 그 당시 도시의 주요 사법

기구로서 종교와 교육에 있어서 큰 권한을가지고 있었던 “아레오바고”라는 시의 공식적인 의결 기구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교”(this new teaching)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19절).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텐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가리켜 “이상한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은 종교성과 새로운 것들에 무지 관심이 많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신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아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낯선 이 새로운 가르침을 그들을 더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때 놀라운 반응은 아텐의 모든 시민들과 그곳에 거하는 외국인들이 바울의 증거하는 새로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가르침)에 대해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달리 보내지 않았습니다(21절). 즉 도시 전체가 한동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는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 후에는 강의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유상섭). 아텐의 모든 시민들과 그곳에 거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증거하는 새로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외에 시간을 달리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자 그랬다기보다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지식욕 때문 이었습니다(박윤선).

우리의 삶 속에는 실로 다양한 차원의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권력욕, 애정욕, 명예욕, 지식욕, 창작욕 등의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인간의 욕망을 5단계로 구분합니다: (1) 생리적 욕망: 자기 생명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성욕, 수면욕 등, (2) 소유욕: 재물 욕, 지배욕, 권력욕 등, (3) 인정 욕: 애정 욕, 과시욕, 명예욕 등, (4) 자아실현 욕: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망의 단계, (5) 그 다음이 고차원적 욕망인 자기 초월욕으로 구분합니다. 지식욕은 바로 네 번째 단계인 “자아실현 욕”에 속해있습니다. 바로 아텐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지식욕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것을 알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텐 사람들은 자신의 저급한 욕망들인 재물 욕이나 권력욕 또는 명예욕 등을 뿌리쳐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 욕이나 권력욕이나 명예욕 등을 추구하면서 동 시에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텐 사람들처럼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신들 또한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위험이 많습니다. 다 그럴싸하게 보이고 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여러 종교들, 또한 그들의 가르침, 등등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견고히 서있지 못하면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 왕의 전도서 1장 16-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도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조차도 결국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고 또한 계속 추구도 해보았지만 결론은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욕을 절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저 이 종교 저 종교, 이 가르침 저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그 종교가 가르치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종교다원 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종교혼합주의에 빠져 순수한 기독교적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빌3:8).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호6:3).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엡4:13).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나 자신을 알아가길 기원하면서)

민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7장 22-34절]

O. J. 심슨이 60세가 됐던 해에 그는 라스베이거스의 팔라스스테이션 카지노의 호텔 방에서 체포돼 보석금 없이 수감돼왔습니다. 심슨이 사건 당시 호텔방에 있던 고가의 스포츠 기념품 중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갈취하려 했던 물건들은 야구공, 기념패, 사진, 휴대폰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검찰 측 말로는 이 물건들을 심슨과 그의 일행이 충기를 이용해 2명의 피해자들을 감금하려 했다고 합니다. 심슨은 1급 납치, 강도, 절도, 납치 및 강도 미수 혐의 등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급 납치 혐의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간에서 잊힌 이야기지만 90년대 중반을 온통 떠들썩하게 하였던 O. J. 심슨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이 사건은 전직 미식축구 스타선수 출신으로 당시 유명한 스포츠 중계 해설자였던 O.J. Simpson이 L.A.의 고급 주택가 부근에서 흥기로 살해된 전처와 그녀의 남자친구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는 1995년 10월 3일 Los Angeles Superior Court는 12명의 배심원 투표를 통해 이 두건의 살해사건(Double Murder)에 대해 Simpson의 무죄(Not Guilty)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 때 살해당한 Simpson의 전처 Nicole Brown Simpson과 그녀의 남자친구 이자 배우 지망생이었던 Ronald Lyle Goldman의 가족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동 법원에 민사소송(Civil Action)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에는 L.A.법원이 같은 사 건에 대하여 O. J. Simpson이 민사상 책임(Liability)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850만 달러의 피해배상금(Compensatory Damages)을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어떻게 동일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은 무죄, 민사상은 배상책임(Lia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s)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O. J. Simpson 살인사건을 둘러싼 이 수수께끼는 미국의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민/형사간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이해하게 되면 의외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두 테두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O. J. Simpson의 Double Murder Charge는 형사 소송이므로 법원은 “Beyond a Reasonable Doubt

Standard”를 적용하게 됩니다. “Beyond a Reasonable Doubt Standard”는 글자 그대로 12명의 배심원들이 더 이상의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연방 혹은 주 검찰이 용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만 용의자에게 유죄(Guilty)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적 판단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12명의 배심원이 모두 유죄 판단을 하여야 유죄가 성립(Conviction)됩니다. 반면에, 두 피해자의 가족들이 O. J. Simpson에 대하여 제기한 Wrongful Death Action은 민사소송(그 중에서도 Torts Case라고 합니다)이므로 형사 소송보다는 낮은 단계의 사법적 판단기준인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가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 소송 당사자 간에 어느 편이든지 다른 편보다 더 우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편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Simpson이 무죄라는 증거가 49%, 그리고 유죄라는 증거가 51%만 넘으면 피해자 가족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2명의 배심원 중 9명만 찬 성하면 유죄가 결정됩니다. “미국법이 형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는 열 사람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가두는 것이 더 나쁘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Simpson의 형사소송 사건에 있어서 주검찰에게 부과된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Simpson은 형사 소송에는 무죄를 풀려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검찰 입장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확실한 또는 믿을만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3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빈 무덤을 예수의 부활이 아닌 다른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5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인터넷):

- (1) 첫 번째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매장된 무덤은 아무에게도 알려 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1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의 최소한 2명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장된 무덤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 (2) 두 번째는 빈 무덤은 다른 무덤이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장되었다고 믿고 찾아간 무덤은 엉뚱한 무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의 한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매장했기 때문에 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들이 그 후에 찾아갔을 때 엉뚱한 무덤으로 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공동묘지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무덤중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뚜렷한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소유 무덤이었습니다. 쉽게 혼동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3)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설이었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역사학자 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랜 세월이 걸쳐 만들어진 인위적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200-300년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전설이나 성경문서의 변질이(corruption)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는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에 의하여(부활 당시의 인물들에 의하여) 구술되고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숫자의 (빈 무덤) 목격자들이 동일한 부활사건을 조작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네 번째는 영적 부활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 속에서 부패했으나 그의 영혼만이 부활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는 그의 제자들이 자기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들을 만져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영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신 것을 확인토록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5) 다섯 번째 이론은 환각설입니다.

이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환각을 경험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각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배경과 다른 성품을 가진 남녀를 망라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각은 대단히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두 사람이 똑같은 환각을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무려 5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분을

보았고 만났 습니다(고전 15.6).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서너 명의 제자들과 대화했고, 그들과 같이 식사했으며,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조사해보도록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환각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 George Beasley-Murray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들을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1) 빈 무덤, (2)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심, (3) 교회의 존재와 예수님에 대한 예배, (4)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간증, (5) 예수님의 예언, (6) 부활과 성경의 계시의 일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사실은 결국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유상섭):

(1) 천하 각국 모든 사람들의 회개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도시의 주요 사법 기구로서 종교와 교육에 있어서 큰 권한을가지고 있었던 “아레오바고”라는 시의 공식적인 의결 기구에서 모인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22절) 아텐 사람들에게 22절부터 설교를 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30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창조주며 주권적인 섭리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종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놓아두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결정적으로 도래한 구원의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심으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 하셨습니다(유상섭).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종교 성이 많은 아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an unknown god)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세워놓고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희에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23절)고 하면서 그들이 섬겨야 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시요 섭리 자이신 하나님(24-25절)과 그가 행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과(26절), 인류를 만드신 일차적인 목적은 온 땅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26절)과 인간이 온 땅에서 함께

어울리며 조화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기와 영토의 한계를 지정하심을 전파하였습니다(2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27절, 유상섭).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곳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살전2:13)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6-7).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아덴 도시에서도 일어났지만 극히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2-34절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복음을 듣고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32절). 그러나 감사하게도 “몇 사람이 그(바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미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34절).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온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31절).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회개하라”(30절)이고, 둘째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16:31)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길 기도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기원하면서)

두려워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1-11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정상적인 두려움과 이상적인 두려움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정상적인 ‘두려움’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1)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2) 대중의 비평에 대한 두려움, (3) 사물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 세 유형의 ‘두려움’은 모두 인간의 낯은 관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두려움은 훨씬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피를 두려워하며, 어떤 이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정말 각양각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두려움을 영어로 “Phobia”라고도 말합니다. 포비아란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특정대상’에 결부되어 행동을 저해하는 이상반응으로 주된 증상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에 따라 ‘포비아’를 100여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있으면 무서움을 느끼는 고소공포증(acrophobia), 밀폐된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폐쇄 공포증(claustrophobia), 이런 포비아를 가진 사람은 비행기, 전철,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둠이 무서워 모든 불을 환히 켜 놓고 자야만 하는 어둠공포증(nyctophobia), 많은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워 벌벌 떠는 대중 공포증(ochlophobia),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다리공포증(bridgephobia). 광장같이 확트인 장소에 있으면 너무나 불안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광장공포증(agoraphobia) 등. 여러분은 어떠한 포비아가 있으십니까? 고소공포증, 폐쇄 공포증 ... 혹시 대중 공포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 대하길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대중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표정이 굳어지며, 남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고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18장1-11절을 보면 아텐을 떠나 고린도에 이른(1절)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셨을 때(3, 5절)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훼방하였습니다. 그러한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9절).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도시의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던 바울은 어떻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한 4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역자들 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동역자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최근에 이탈리아(Italy)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2절)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온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아굴라 부부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3절).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동업을 하면서 평일에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논쟁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애썼습니다(4절).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준 또 다른 동역자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5절). 이들은 바울이 핍박을 받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 그리고 베뢰아에서 아텐,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와서는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또한 바울과 합류하고자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굴라 부부 외에도 이렇게 함께 동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내려와 자신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는 “디도 유스도”(Titius Justus)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신자였습니다(7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시라고 밝히 증거하므로(5절)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디도 유스도 집으로 피신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아굴라 부부집에서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에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움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까?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10절).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째 이유는,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도 유스도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얼마나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핍박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므로 맺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영원한 열매를 목격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열매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빌4:1).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열매인 영혼 구원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하고 평일 날에는 장막을 함께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논쟁하며 권면하였던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으므로 바울은 이전 전폭적으로 복음 증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목상하고 그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해 지고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그 말씀에 붙잡혀 어떠한 두렵고 떨 리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을 받고 있었던 바울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이제는 다시 폭력의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박해가 와도 바울을 실제로 해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박윤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바울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10절). 즉, 고린도 성에는 구원받아야 할 주님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 증거가 계속 지속될 것을 주님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잠잠하지 말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밤중에 환상에서 명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 시에서 1년 6개월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므로 복음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18:9).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최고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행전 18장 12-23절]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학교는 어떤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더 나아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등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여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던지 또는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들이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면서 알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있어서 실 수하는 것들 중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인터넷):

(1) 첫째 사례는 제비뽑기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문제에 봉착하여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뽑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이와 같은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결정한 예가 몇 차례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가나안 땅을 나누고, 아간을 가려내고, 사울을 왕위에 앉힐 때 등의 경우) 이 모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러한 특별한 방법은 존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비뽑기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한 다기 보다는 우연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또 다른 방법으로 자주 쓰이는 것이 이른바 '버질(virgil)의 책'이라 불리는 방법입니다.

로마인들이 자신의 진로나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될 때 '버질'이라는 책을 사용하였는데, 로마인들이 이 책을 임의로 아무 페이지를 열어 첫 번째 눈에 뜨이는 것을 자신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유래하여 '버질의 책'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책이 '버질'이 아니라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뜻을 무시하고 성경의 일부분만을 선택하고 또 그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에 갑자기 받은 인상에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성경 구절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히 꿈의 안내를 받아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장래 미래를 건다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이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할 때 성경의 원리, 교리, 약속, 교훈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과 비교하고 자신의 결정에 앞에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상고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이 일을 하려는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질문을 해 봅니다.

(2)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바를 순종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명령하신 바를 순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기도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4)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되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원리를 찾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특정한 단어들이나 증거가 될 만한 문장을 찾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5)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을 잘 아는 먼저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험도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뜻”에서 다섯 가지 원리를 점검해보고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바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원리는 이렇습니다(인터넷).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고, 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본원리가 다 이행되고 있다면 마지막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행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한 후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9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년 6개월동안 고린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11절). 이렇게 그는 1년6개월 동안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와서는 다시 어려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총독인 갈리오가 고린도에 부임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재판자리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고소하였습니다(13절).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로마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법 행위(유상섭), 즉 남을 해친 불의한 행동이나(“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괴악한 행동”)(14절, 박윤선)을 한 점이 바울에게 없고 또한 그들의 문제가 유대 법에 관한 것이었기에 유대교라는 한 집에 속한 가족끼리의 다툼에 관여하길 원치 않아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15절)고 말한 후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다 쫓아냈습니다(16절).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10절). 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므로 아무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8:10).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복음 전파자인 바울을 보호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그의 많은 백성들에게 “상당한날”(18절, “여러 날”) 더 유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의 동편 항구 겐그레야에서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아시아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하였습니다(18절, 유상섭).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사실 2차 선교 사역 기간 중에 이곳 에베소에 와서 사역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금 하셔서(16:6), 결국 빌립보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제2차 선교 사역을 마감함에 있어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와서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한 후 혼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18:19). 그 때에 바울의 변론자들은 유대인들 중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20절, 유상섭),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20절).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작별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한 후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21절)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22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즉, 제2차 선교 사역지인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다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였습니다(23절).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였는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하고 에베소 교회 형제들과 작별 인사한 후 떠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 다시 오게 허락하시므로 말미암아 바울의 제3차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 삼게 하셨습니다(행18:23-21:16). 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사 제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삼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울로 하여금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로마국의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헬라 종교 중심지로서 헬라 여신 아데미(로마식으로는 “다니아나”)를 숭배하므로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했으며 상인들은 막대한 관광수입을 벌고 있었던 이 에베소(행 19:25-27)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사 이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고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계2:2). 이 사실이 왜 흥미롭냐면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의 뜻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바울을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사 그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케 하시사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사역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우연히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유상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부활하신 바로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한 영혼을 사랑하시사 구원해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성경에 능한 자

[사도행전 18장 24-28절]

제가 한 인터넷에서 뽑은 성경 난센스 퀴즈 7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맞추시는 분에게는 어찌면 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인터넷): (1) 성경 인물 중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모세) (---뭘 세야 되는지 몰라요), (2) 성경 인물 중 시험만 치르면 모두 100점을 받는 사람은? (미리암) (미리 아니까), (3) 성경 인물 중 늘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 (4)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라), (5) 성경인물 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사가라), (6) 성경 인물 중 거지 근성이 제일 많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7) 성경 인물 중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이 사람 앞에선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들릴라). 보신탕을 아주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과 한 여자 청년이 한참 성경에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성경공부를 끝 내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인터넷):

자매: 목사님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세요.

목사: 나는 보신탕이 먹고 싶은데요.

자매: 저는 보신탕을 먹지 못하는데요.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좋다고 보신탕을 먹으라고 하던데요.

자매: 목사님 저는 성경을 10독을 했는데요. 보신이 좋다는 말은 처음인데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시니(보신) 좋아더라.^ ---- ^.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의 손 예화”이 있습니다. 이 손 예화에서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 손가락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 즉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을 보여 주며, 성경의 가르침들을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상은 엄지손가락에 해당됩니다.

(1)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듣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은 보통 설교자가 분당 약 125단어를 말할 수 있는 반면, 우리 머리는 분당 약 1,000단어 이상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할 정신적 에너지의 90%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듣기만 해서 안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2) 읽기: 효과적이고 즐거운 성경읽기를 위한 지침.

성경을 읽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세가 요구됩니다. 성경 읽기의 목표는 즐거움과 새로운 힘을 얻는데 있는 반면, 성경 공부는 확신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데 있습니다. 1년에 성경 전체 한권을 다 읽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3) 공부: 스스로의 탐구

효과적인 성경공부의 열쇠. 성경공부를 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 주어진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구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는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인가, 셋째는 이 구절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이 세 질문은 관찰, 해석, 적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 암송: 성경 암송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중 하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5) 묵상: 성서적인 묵상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

말씀을 섭취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방법인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이 있지만, 이 방법들이 묵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분석하며, 단어들을 생각으로, 생각을 행동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선 기도한 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섭취한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4-28절을 보면 성경에 능한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21절)하고 에베소 성도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 후로 이집트의 대표적인 학문의 도시이며 유대인 인구가 상당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24절). 어느면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저자 의사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여기서 “학문이 많고”란 헬라어 “로기오스”를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말을 잘하는” 그리고 둘째는 “학식이 있는”이란 뜻입니다(유상섭). 아볼로는 지식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유창한 웅변가였습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바울보다 말을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이 형편없다고 비난했지만(고후10:10)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4-28절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그러한 비판이 없는 것을 보면 아볼로는 언변에 아주 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3장 4절을 보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언변에 능했는지 어느정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유상섭). 이 학문이 많았던 아볼로는 또한 오늘 본문 24절에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의 학문적인 활동에 대해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유상섭):

첫째로, 아볼로는 주님의 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 이 말씀의 뜻은 아볼로는 주님의 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의 도”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가리킵니다(눅24:19, 27, 44; 행13:29).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아볼로는 꾸준한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 여기서 “열심으로”란 단어를 헬라어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영으로 타오르다”입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열정이 성령으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칠 때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셋째로, 아블로의 정확한 가르침은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탁월한 성경 지식은 요한의 세례가지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다고 아블로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아블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블로는 복음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블로의 부족한 가르침을 아굴라 부부가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아블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아굴라 부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사역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보충함을 얻은 아블로는 이제 아무 한계나 결점 없이 복음을 증거하 다가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아마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갔었을 것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27절). 그는 오늘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28절). 그는 구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벽하게 해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유상섭).

과연 우리가 아블로처럼 성경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아블로처럼 성경을 계속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대충 성경을 공부해서는 성경에 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좀 학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읽고 각 권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책 외에도 성경 교리에 대한 책들도 사서 읽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리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인 교리 연구가 우리 교회 교육에서도 결핍됨을 인정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아블로처럼 언변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길 위해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해박한 지식이 있는 학자/교수님들을 보면 그 해박한 지식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 능력(communication skill)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블로처럼 언변의 능력을 주심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향한 꾸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치 군대 가서 총 쏘는 훈련을 열심히 받고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사용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총을 잘 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실전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블로처럼 성경에 능한 자들이 다 되길 기원합니다.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길 기원하면서)

유익을 주는 아βολ로

[사도행전 18장 27절]

미주 복음신문을 보니까 이광복 목사님이란 분이 “목자와 성도”란 제목 아래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셔서 나눕니다: “동물학자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쥐는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도망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살짝만 비켜 나오면 살 수 있는데도 고양이 소리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천적 관계입니다. ...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만 나타나면 도망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리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못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미주복음신문). 모든 동물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있는데 유일하게 양은 그런 공격적인 능력도 없고 방어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은 느리기에 도망가 봐야 이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양”은 성도인데 “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양은 누군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은 목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에 제 자신을 비취볼 때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유익을 주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중심으로 “유익을 주는 아βολ로”란 제목 아래 과연 유익을 주는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 5가지로 목상하면서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할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며 듣는 여러분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아볼로처럼 교회 성도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에베소에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교육과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어느 학자 말로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자라는 칠십만의 책들이 있는 대학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24절). 여기서 “학문이 많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학식이 있는” 사람. 또한 그는 “성경에 능한 자”였는데 그 말은 성경을 잘 알뿐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비결을 잘 활용하여 사단의 꾀계를 능히 막기까지 함을 말합니다(칼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둘째로, 아볼로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주님의 도에 대해 체계적인 가르침을 이미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에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끊는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란 부사는 헬라어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영으로 타오르다”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아볼로) 가르치기 위하여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열정이 없는 교리는 정신이상자의 손에 있는 검 같든지, 쓰이지 않고 아직도 차갑던지 혹은 헛되게 쓰이던지 악한 자람에 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이들을 더 심하게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것은 다툼과 언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없는 교리는 매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셋째로, 아볼로는 담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 아볼로는 에베소 회당에서 주님의 도를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아볼로의 이 담대함은 구약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볼로가 성경에 능하지 못하고 열정만 있었다면 그의 담대함은 감정적인 것으로써 식어질 확률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함과 더불어 열정까지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넷째로, 아블로는 배우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에 아블로의 부족한 가르침을 듣고 교정해 주고자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아블로의 겸손한 마음, 즉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는 탁월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부부의 초대를 받아 그들의 집에서 자기 메시지를 보충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평신도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익을 주는 성도는 배우는 자세가 돼 있는 겸손한 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learnable)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입니다(잠언 1:5).

다섯째로, 아블로는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십시오: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그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블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난 후에는(26절) 지식보다도 은혜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 생각납니다: “...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유익한 목회자는 성경에 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열심과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저는 이러한 유익한 목회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는 목사가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성경에 능한 자로 세움 받길 기원하면서)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얼마 전 총회에 있는 한 한국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희 노회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는 첨부파일로 보내셨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A Shocking ‘Confession’ from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놀라운 자백)이었습니다. 그 교회 실무 집행 목사인 Cally Parkinson과 Greg Hawkins이란 목사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그들의 쓴 새로운 책 “Reveal: Where Are You?”(계시: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에 기록하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Bill Hybels 목사님조차 그 연구 결과에 “earth shaking”(지구가 흔들리는), “ground breaking”(땅이 갈라지는), 그리고 “mind blowing”(너무나 충격적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생산하고자 수년 동안 해왔고 또한 수백만 되는 많은 사람들(목회자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증가시켰지만 제자들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인 Bill Hybels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 먹일 수 있는(self-feeders) 자들이 되도록 책임을 지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주중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자기들 스스로 영적 생활(실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그렇게 크고 유명하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스스로 자체 연구하여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숫자는 증가시켰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고백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별세신앙”으로 잘 알려진 고 이종표 목사님은 “교회 성장 신학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거품 교인은 거품 신앙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한 거품 신앙은 결국 거품교인을 양산하였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었다. 이것이 교회성장을 정체시키는 가장 결정적이며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물질적 축복과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별세의 인격)시키기보다는 복 받기를 바라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 것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삶에 인격적으로 동화(별세)되지 못하고 그의 삶과 신앙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복음 전파와 교회성장은 원천적으로 벽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인터넷).

과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삶에 인격적으로 동화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란 누구입니까?

(1) 제자란 배우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에서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불리는데, 이 마테테스란 단어는 본래 만다노 즉 '배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제자란 단어가 '배운다'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제자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배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입학은 있되 졸업은 없는 것입니다.

(2)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다(막1.17; 2.14). 예수님 당대의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아무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곧 그 사람의 제자 됨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가족; 막1.20)과 재산(막1.18, 20)을 포함하여 모든 것(눅5.11; 막10.28)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의 요건으로 누가복음 14장 25-35절에서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또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란 단어를 238회 사용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마 16:24),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눅 14:33),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눅 14:26),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요 8:31), 서로 사랑하는 자(요13:34,35), 열매 맺는 자(요15:7,8)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인터넷). 과연 참된 제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 제자들은(1, 7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였습니다(박윤선). 이 12제자들은 “아마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정도의 신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박윤선). 우리가 이미 목상한 “성경에 능한 자” 아볼로(행18:24-28)는 일찍 주님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18:25). 아마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만난 12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때의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18:25)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4절). 그는 “요한의 세례”(3절)만 알고 있었던 이 12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나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핍박이 있을찌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갑니다.

둘째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제자들은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 12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했습니다(3절). F. F. Bruce란 학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주시는 사실을 몰랐었기에 결국 그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이 12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보다 성령님에 대해 더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12제자들에게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라고 증거하였음을 가르쳐 주면서(4절) 그들은 바울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니다(5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의 사랑과 더불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179장 후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셋째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한 후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였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고전14:4, 12, 26).

한 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란 “그리스도인”(Christian)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비하하는 명칭으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하였기에 그러한 명칭으로 불렸겠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합니다.

헨리 나우웬의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The Living Reminder)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나우웬은 “사역”을 “기억”으로, 그리고 사역자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돼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주위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깎이고 빗어지길 기원하면서)

말씀의 흥왕

[사도행전19장 8-20절]

21세기 선지자로 불려졌던 A. 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That Incredible Christian)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유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들로 즐겁게 해주어야만 교회에 나온다. ... 그러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기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힘 빠진 손으로 겨우 붙들고 있다.” 과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일즈맨이 그의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단점을 숨기듯이, 균형을 상실한 복음전도자는 부정적인 면을 숨기고 오직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천성의 길을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광야가 없이 약속의 땅을 강조하는 것, 마치 죽음이 없는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짜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짜 진리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되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흥왕”이란 제목 아래 어떻게 말씀의 흥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8장 19-21절을 보면 바울이 그의 2차 선교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방문했던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주기를 요청한 일이 나옵니다. 그 때 바울은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바울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19:1).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9절). 이들은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 불능의 완고한 불신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10절). 서방 사본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한 시간을 제5시부터 제10시(오전11시-오후4시)였다고 밝힙니다(Metzger).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적인 관습을 잘 반영하는데 그 때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실상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유상섭).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10절). “아시아”란 에베소 외에 북쪽 비두니아, 동쪽 갈라디아, 남쪽은 루기아를 경계로 한 아나톨리아(Anatolia) 반도의 서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J.A. Harrill). 당시 에베소의 인구만도 25 만 정도에 육박했는데 그 인근 지역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숫자는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시사합니다(유상섭).

여기서 “말씀의 흥왕”이이란 지역적으로 말씀이 퍼져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한다면, growing words (말씀의 성장)은 growing numbers of believers and growing faith(믿는 사람들의 숫자의 성장)이요 또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이 흥왕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말씀에 순종치 않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비방하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말씀을 들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본문 배경인 사도행전 19 장 11-17절까지는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말씀과 능력의 사역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시아인들이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사탄과 귀신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크게 망신당한 사건입니다(13-16절). 어떤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자들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입니다(스게와는 본문에서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었음). 이들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을 축출하려고 했지만(13절) 악령(악귀)은 그들에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15절)고 물었습니다. 악귀는 진실히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귀는 참 신자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귀의 조롱거리, 또는 침략거리가 안 되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진실해야 됩니다(박윤선). 그런후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겨(16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일을 알게 된 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존경을 자아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흥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악귀들도 알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바울(13-16절)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악귀들이 바울도 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의 신앙이 참된 것인 만큼 악귀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15절). 특히 참된 신앙자인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악귀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8절을 보십시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많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18-19절).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와서 자백하며 행한 일을 고했습니다(18절). 여기서 “행한 일”이란 그들이 바울의 말씀 사역 결과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행해 왔던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유상섭). 마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사주보고 관상보고 또한 점을 보고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삶은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유상섭). 19절에 등장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은 전문 주술인 들에게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많은 자들이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술과 관련된 책들에 포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거짓된 것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때 불살라 없어진 책들의 값을 모두 계산하면 은화 5만 개에相当했습니다. 한 은화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드라마크와 같은 가치고 학자들이볼 때에 그 때 불살라 버린 책들의 값어치는 50,0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홍왕”이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을 자백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홍왕이란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므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홍왕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홍왕 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죄악 된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 믿지 않던 주술인 들이 주술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세력과 싸워 승리하길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Sola Scriptura!)

우리의 경영

[사도행전 19장 21-41절]

‘1만 명 먹이는 하나님의 경영’이란 책의 저자 김종춘 목사님은 서울대 불문과, 한세대 신대원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한국무역협회를 11년간 근무한 현 중인 교회 담임목사님이십니다. 그에게 오늘날 세속 주의적 신앙에 편승하여 타협적 신앙을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신앙 경영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크리스천 CEO 정신에 대해서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경영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경영, 국가 경영, 교회경영, 가정경영, 자기 경영, 미래경영, 지식경영 등 다 경영입니다. 다만 크리스천 경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전제되기 때문에 그 독특성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영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곧 경영이다. 삶의 전 영역에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한 좋은 성경적인 예 또는 모델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경영함으로써 당대의 이집트는 물론 주변국들까지 위기에서 건져낸, 탁월한 경영자입니다. 그가 세계경영의 원조인 셈입니다. 크리스천 경영의 3가지 포인트는 열심, 지혜와 지식, 은혜입니다. 열심은 경영의 기본입니다(잠28:19-20). 열심에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24:5). 지혜와 지식이 열심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지혜가 제일(4:7)이라는 잠언의 외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21:30-22:1).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 입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 마디 그리고 기도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 죽음 이후의 관점, 죽음을 바로 앞둔 관점에서 내세와 당대와 후대를 아우르는 자기경영의 틀을 부단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꾸준하면서도 민첩한 자기경영이 요구됩니다(인터넷).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김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영’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4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경영”이라는 제목 아래 과연 우리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경영하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다 마친 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유상섭). 왜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계획하였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땅 끝까지 나가는 전초 기지로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유상섭).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계획을 짜되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 있다가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이 …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 헬라어를 좀 더 가깝게 잘 번역한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Paul purposed in the spirit to go Jerusale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가기를 영으로 결정하였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목적과 계획은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이 나타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든지 또한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면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일을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가운데 무조건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다가 길이 막히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일행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이것이 주님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인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 NIV나 NASB 성경을 보면 “conclu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을 “인정” 또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의 뜻은 ‘인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가도록 만들다’, ‘하나로 되다’, ‘결합시키다’, ‘이것저것에 동의하므로 결론을 내리다’입니다(to make go together, to coalesce or knit together, to make this and that agree and so to conclude)(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s).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울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성(reason)을 사용하여 논한 결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함께 동의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의 뜻을 계시해 주셨음에 충분히 설득을 당했던 것(being fully persuaded)입니다(칼빈).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영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경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롬12:2). 그러므로 영적 민감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문과 열어주시는 문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한 쪽 문을 닫으시며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는 이성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경영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김에 있어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22절).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후 자기는 얼마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에 좀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과송해서 그 교회를 심방하여 붙들어 주도록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은 그의 제자들 중 디모데와 에라스란 돕는 자들을 마게도냐로 과송한 것입니다(22절). 우리는 주로 바울하면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보면서 우리는 그의 조력자들, 다시 말하면 그를 돕는 자들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편지들의 끝 부분에 가서 종종 그의 동역자들, 조력자들, 돕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오는 문구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두기고 - “신실한 일꾼”(7절), 오네시모 -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9 절)]. 즉, 바울의 조력자들, 돕는 자들은 참으로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은 신뢰할 만한 돕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예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 해병대 모토를 아시죠? 그것은 바로 “A few good men” 입니다. 해석하자면 ‘소수정예’입니다. 이들이 받는 훈련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은 해병은 '많은 인원'일 수 없는 소수정예 부대인 것은 배수진과 진배없는 상륙전을 감행해야 하는 군인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예수님의 군사들이 돕는 자들로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께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하며 신뢰할 만한 소수의 훈련된 일꾼들 ... 이러한 돕는 자들이 바울 주위에 있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큰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주위에 신뢰할 만한 신실한 돕는 자들이 있습니까? 과연 있으시면 몇이나 있으십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돕는 자들입니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7가지법칙” 중 여섯 번째 법칙을 보면 “언행일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일은 실제로 실행하는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어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우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믿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리더가 어떻게 살아가는 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여러분에게 맡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인터넷). 우리 모두가 우리가 경영하는 일에 신뢰할 만한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경영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많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23절부터 마지막 절인 41절까지는 바울이 그의 신실한 두 돕는 자들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다음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있었을 때 일종의 노조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메트리오의 선동으로 촉발된 대소동을 진술하고 있습니다(유상섭). 왜 이러한 대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크게 수치와 망신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변화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유상섭). 어떻게 관련이 되 있는가 하면 이미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해 왔던 미신적인 관습을 고백하고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18절) 전혀 주님을 믿지 않던 많은 주술인들이 대대적으로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불살라 폐기 처분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19절). 결국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베소인들 가운데 우상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로서 결국 신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인들은 각종 우상과 주술과 관련된 물품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상에 관한 제품들을 폐기하고 더 이상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유상섭). 유상섭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 산업을 주도하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던 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앉아서 망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단체를 결성하여 대소요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 대소요를 일으켰던 주동자였던 데메트리오라하는 은장색 또한 우상인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24절), 즉 “유족한 생활”(25절)을 하고 있었는데 돈벌이 줄어들자 그는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소동을 일으켰습니다(25절).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주장했던 것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27절). 그 때 군중들의 반응은 28-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동행자들인(골4:10) 더베 사람 “가이오”(행 20:4)와 테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20:4; 27:2)와 같이 고난을 겪으려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19:29-30)(박윤선). 결국은 에베소의 서기장이란 관리가 나서서 에베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대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안돈시키므로 말미암아 대소동을 막았습니다(35-41절). 한 마디로 이 대소동의 원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도”, 즉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자들, 우상과 관련하여 돈을 벌며 유족한 생활을 하던 데메트리오와 같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여 대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적지 않는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대적자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인 오히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빌1:28). 그 이유는 복음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징거(a sign of destruction)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구원의 징거(a sign of salvation)이기 때문입니다(28절).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합니다(요16:33).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영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영함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돕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영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예상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길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믿음으로 나와 우리의 경영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적지 않은 소동

[사도행전 19장 23절]

동아일보를 보니까 유럽이 폭탄테러 장난전화에 떨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5일 독일 루프트한자 소속 여객기 한 대가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중 항공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객기에 폭탄이 있다는 전화였다. 루프트한자측은 장난전화로 여기고 비행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2대를 출동시켜 해당 여객기를 키프로스에 비상 착륙하도록 유도했다. 여객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키프로스 정부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사전 허가 없이 자국의 비행 통제 구역으로 여객기를 유도한 데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엄중 항의했다. 이날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큰 혼란과 손실이 뒤따른 ‘사건’이었다. 최근 열흘간 유럽에선 비슷한 ‘사건’이 6건이나 일어나 유럽 항공사들이 장난 전화 딜레마에 빠졌다”(인터넷). 이러한 소동들의 원인은 바로 장난 전화였습니다. 즉, 진 실이 아닌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동의 원인

성경 사도행전 19장 23-27절에 일어난 소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원인은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 때쯤 되어이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흥미로운 점은 언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때쯤 되어”(About that time)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어느 때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때는 다름 아닌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쯤을 가리킵니다. 그 때에 이러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20절). 이 사실은 복음의 두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1)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바울의 손으로 이루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므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미신적인 관습을 고백하고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혀 주님을 믿지 않던 많은 주술인 들이 대대적으로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불살라 폐기 처분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19:8-20). (2) 두 번째 반응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23ff).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가?” 입니다. 그 이유는 25-28절을 보면 한 2가지로 소동의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소동의 원인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25절을 보십시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테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대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서 아테미라는 여신의 은감실을 만들어 엄청나게 돈을 번 은장색이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소동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산업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파산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데메드리오와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의 은감실 제조 산업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26 절). 이 이야기는 마게도냐의 성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축출하여 그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던 주인들로부터 고소당한 일과 유사합니다(16:19-22). 또한 이 이야기는 앞부분에 언급된, 많은 주술인들이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주술 관련 서적[“은 오만”, (19절)]을 불사르고 대대적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건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

(2) 두 번째 원인은 27절에 나와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의 변명은 위대한 여신 아테미의 신전이 무시되고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질 위기해 처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신 아테미(goddess Artemis)의 이름인 “아테미”의 뜻은 “건강하다” 또는 “기도를 응답하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녀에게 붙여진 명칭 중에는 다양한 명사를 사용한 “여 주인”, “구원자”, 하늘의 여신”, “우주의 여왕” 등이 있고 단지 형용사를 사용한

“가장 위대 하다”, “가장 거룩하다”, “가장 분명하다”는 명칭 등이 있다고 합니다(유상섭). 그중 본문 문맥에서는 아데미의 위대함을 언급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27-28, 34-35).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딸이며 아폴로 신과 쌍둥이 남매입니다. 에베소의 영광이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성문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에베소와 아시아의 경제 구조의 중심 이었습니다. 에베소와 아시아인, 심지어는 외국인의 돈도 이 신전에 예치했을 뿐 아니라, 아데미 신전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업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아시아에서 최고의 은행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유상섭). 그러나 큰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신 아데미 신전의 보호와 명성 유지에 두고 있는 듯하지만 실지로 종교의 보존이라는 명분하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손상이 될 때에는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말씀에 복종하되 경제적 손상도 마다하지 않던지(19절) (2) 아니면 데메드리오처럼 말씀을 대적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던지(24절).

소동의 확대

사도행전 19장 28-34절을 보면 우리는 소동의 확대를 볼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들었던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선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설은 동료들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취지의 말을 듣고는 분노로 가득 차 “크다(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하고 외쳤습니다(28절). 결국 이들의 외침은 온 성의 사람들에게도 종교 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은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삽시간에 온 도시가 큰 소란에 빠졌습니다. 은장색들과 지지하는 시민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끌고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극장은 시의회가 정규적인 모임을 갖는 곳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회집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에베소의 원형 극장은 약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이었습니다(McRay). 또한 극장 안에서 아데미의 동상이나 형상을 세우는 장소가 무려 아홉 군데나 있었습니다. 극장에 모인 군중들은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외쳤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시 동안이나 하더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두 가지 지적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내용으로 외쳤다. 물론 그것은 군중의 갑작스런 모임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2) 시민들의 절대 다수는 그곳에 모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적을 통해 에베소 시민들이 데메드리오와 동료 은장색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유상섭). 은장색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므로 말미암아 (성난) 폭도(mob)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전 도시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29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고전14:33).

교회 안에서도 소동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이익의 손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통하여 선동하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조차 알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모여서 더욱더 교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동의 결과

사도행전 19장 35-41을 보면 소동의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4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결국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소동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서기장”(the town clerk)이었습니다(35절). “서기장” 혹은 시 서기관 직함은 에베소에서 최고위 지방 관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서기장은 도시의 치안을 맡은 행정 장관을 도와 도시의 치안과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제출된 주요 문서들의 초안을 짜거나 주요 법령에 동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Trebilco). 따라서 극장에서 도시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기장이 즉각적으로 개입한 것은 그의 직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입니다(유상섭).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연설이 35-4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유상섭 교수님은 한 4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유상섭):

- (1) 그는 시위의 주동자들과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외친 아데미의 위대성을 인정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서기장이 강조한 것은, 에베소 성이 위대한 아데미 신전의 수호 도시임을 알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2) 서기장은 위협을 받은 신자들 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훼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즉 아무 잘못이 없는 바울의 친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 경솔히 성급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3) 그는 소요를 주도한 데메드리오와 동료 은장색들에게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다면서 서기장은 은장색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4) 서기장은 문제의 심각성이 극장에 끌려온 사람들처럼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서기장은 만일 이 불법 집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에베소를 다스리는 총독과 자기 같은 관리들이 로마 황제의 심한 질책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서기장의 이러한 주장은 극장에 모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소요를 계속해야 할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소동을 누가 잠잠케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동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서기장 이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도 일어났었지만 대적자들로 일어났습니다. 대적자들은 소동을 일으켰고 또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기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소동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동을 잠잠케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 소동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길 기원하면서)

사역자의 자세

[사도행전 20장 1-16절]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요즘 TV나 신문 등을 보면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참 뜨겁게 열기를 다루고 있는데 공화당은 존 메케인 후보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민주당 쪽은 오바마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버리고 있습니다. 미 성공회와 조그비 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인터넷): 이번 조사는 미전역서의 인종과 연령 분포에 따른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25%가 중생한 신자였는데 미국 유권자들 대부분은 성경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진실성’과 ‘성실함’을 꼽았으며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하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가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다시 한번 지도자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진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다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회원 자격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영적 자세들(spiritual attitudes)”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영적 자세들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보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The kind of person you are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kind of work you do).” 사역 가운데 우리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들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적합한 영적 자세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순종, 겸손, 신실함, 일관성, 충성, 팀 스피릿(team spirit) (사역)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20장1-1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할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역자들로써 합당한 자세를 지니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사역자의 자세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2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대소요가 그치매 한 3년 동안 정들었던 아시아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유상섭)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 인사하고(1절, 박윤선) 마케도냐로 가서 제2차 선교 사역 중 교회를 세운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권면하였습니다(2절, 유상섭). 그가 과연 에베소에서나 마케도냐에서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권면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의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차원에서 권면의 사역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유상섭). 특히 에베소의 제자들의 권면 경우는 앞으로 그들이 사회적인 압박과 위협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며 성실하게 신앙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 3년간 바울이 힘써 강조했던 교훈을 상기시키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유상섭).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로아에서 밤중까지 강론할 때에(7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층 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9절)을 살리므로 말미암아 그 산 유두고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적지 않게 받게 되었습니다(12절). 이렇게 그는 가는 곳마다 신자(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박윤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자세가 되어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위로와 권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까? 디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권면의 말씀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행동으로 바로 옮겨져야 그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권면은 교훈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유익을 따라 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터넷). 그러면 권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권면의 목적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바울의 권면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 자세는 위로 받기보다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사역자의 자세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십시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작정하였다’(determined)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작정하였다’는 단어는 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권면한 후 작별인사를 한 후 마게도냐에서 석 달을 있으면서(3절)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에게 권면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정하였다’는 단어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경영 가운데 치밀하게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그 여행 계획이 오늘 본문 중 특별히 13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시간을 아끼고자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먼저 가고자 하는 그의 경영 가운데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자기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는 계획을 바꿔서라도 그의 목적지에 가고자 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결심의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 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결심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신 다니엘과 그의 세친구의 얼굴이(단1:12)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의 얼굴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15절).

우리의 결심은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경영이 되어 복음 전파로 인하여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결심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49장 3절을 좋아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이 찬송가 가사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강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역자의 자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 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구절에는 일곱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바더는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 베뢰아 교회(17:11-12), 아리스다고와 세 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17:4), 가이오와 디모데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16:1-2), 두 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교회를,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유상섭). 이들은 이방 교회 대표자들로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한 금액을 맡아 가지고 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롬15:25-26; 고후8:1-2, 9:1-2)(박윤선). 이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5절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행자보다 먼저 두로아에 가서 그들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였는데 결국 바울과 그의 동행자도 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은 바울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가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목상했듯이 바울에게는 신뢰할 만한 신실한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신실한 돕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협력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선교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김희창 목사님은 그의 “협력선교의 필요성과 과제”란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배경이나 소속 혹은 사역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고 불화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건진하고 효율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개별주의적 선교자세를 지양하고 협력선교를 해야 한다. ...

(1)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선교지 자체상황이 협력선교를 요청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야 할 이 세상은 철저히 분열되어 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분열이 있고, 종족과 종족 간에 분열이 있고, 계층과 계층 간에 분열이 있고, 부자와 빈자 간에 분열이 있고, 지역과 지역 간에 분열이 있다. 심지어 같은 집단 내에서 혹은 한 가족 구성원 내에도 분열이 도사리고 있다. 모든 인간은 고독과 개인주의에 지쳐있다. 이 세상은 분열이라는 열병에 걸려 서서히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심한 분열이 있다. 이런 세상을 선교하려는 선교사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일치와 연합의 정신이다. 분열된 세상을 화합시키려 간다는 선교사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교사역은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협력선교는 선교의 장인 세상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다.

(2) 선교사들이 전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 복음 자체가 협력선교를 요청한다.

협력선교는 성서의 요청이며 기독교 진리의 요청이다. 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연합하고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셨으며,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같이 사역하셨고,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와 우주의 운행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고 있다.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과 사림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려는데 복음의 핵심이 있다. 이런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들은 먼저 그들 자신부터 하나 될 필요가 있다.

(3) 복음전파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사역이 필요하다.

센크와 스투츠만은 그들의 공저 *Creating Communities of the Kingdom*에서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면 혼자 개척할 경우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특히, 협력사역이 선교 활동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들 혹은 교단 간의 협력사역은 효과적인 면에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일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들이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이 일하다 보면, 혼자서 얻을 수 없는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협력사역에 있어서 서로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선교사역에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한 선교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선교 지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협소하지도 않다. 협력사역을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서로의 영적 은사를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복음전파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협력선교는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인터넷).

마지막 넷째로, 사역자의 자세는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의 상세한 이동 경로입니다(유상섭).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1절)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였습니다(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드로아에 가서 열심히

강론한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살린 후(12절)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앓소로 갔습니다(13절). 거기서 그는 그의 동행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 항구에 도착하여 거기서 기오 그리고 사모를 들러 각 항구에서 하루 씩 정박하였습니다(15 절). 그리고 그의 계획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급히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16절).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밀레도에 오기까지 경과된 날수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6절), 드로아에서 7일(6절),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오기까지 5일(14-15절)을 모두 합치면 대략17일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는데 걸리는 3-4일을 추가하면 20-21일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에게 남은 날짜는 대략 30일입니다. 그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은 이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유상섭).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급히 갔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 모했습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수18:8).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는 여호수아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어느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바울처럼 지체하지 않는 조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긴급성(sense of urgency)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

사역의 자세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자세는 걱정(결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며 또한 그 목적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의 자세는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사역자의 성품과 자세를 중요시하는,

제임스 김 목사

(존재에서 행함이 나와야 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

[사도행전 20장 17-27절]

레너드 스윗은 그의 책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에서 “내일 죽기 위해 오늘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삶의 실제’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실제’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죽음이 주는 위대한 선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여기서 “사명”이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란 “사(使)는 ‘심부름 사’자요 명(命)은 ‘목숨 명’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사명”이란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숨”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인터넷). 흥미로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7-27절 보면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인 바울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첫 부분인 18-21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를 떠나기까지 항상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18절). 그 행한 것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섬겼습니다’ 입니다(19절).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27절 말씀 중심으로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란 제목 아래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목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는 주님을 섬깁니다.

실제로 “사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말로써 이는 “섬김” 또는 ‘수종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명이란 궁극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섬겼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27절; 참조:20절). 즉,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24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21절).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20절).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전파하였습니다(25절). 그러면 과연 바울은 에베소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겹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겹손을 첫째로 힘썼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끊는 표현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할 때 바울에게 결코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접한 시련은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복음과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바울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사역 동안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 말씀한 후 오늘 본문 22-23절에서 자기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면한 환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22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경영하였을 때 동일한 성령님께서 각성에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결심이 확고부동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심령의 태도는 확정 불변하였습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함에 있어서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라면 바울처럼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행5:41).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처럼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낙을 누리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은 것은 은혜임을 명심하십시오(빌1:29).

마지막 셋째로,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는 사명 완수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마치려 함에는”란 말씀은 “완수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 완수가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사명에 불타는 사역자는 분명하고 확고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사명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욱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깊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사역자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받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역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찬양하면서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러한 분명하고 확고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생명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우리의 생 명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받쳐서 완수하고자 바울처럼 오늘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십시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과연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위기에 빠진 주일학교 교육”란 제목 아래 써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교회의 무관심, 교육철학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교회교육이 일반사회의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감 회복 등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학교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교회 교육에 대해서는 신자들의 부모들마저 이에 무관심한 것이 교회교육의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수업 외에도 각종 학원에 보내며, 학원 출석여부를 점검하지만 주일학교의 출결 여부는 등한시하는 것이 요즘 신자들의 자녀 신앙 관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 부분이다”(인터넷). 저와 여러분의 사명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감이 다시 회복되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diakonian)으로 번역된 말은 ‘수종든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증거를 완수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를 안 했는데 그의 사역을 한 6가지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1)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계사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점이나 빛을 검토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승리의 기쁨 안에서 경주를 마치는 달리기 선수로 보았습니다.

24절에서 나오는 세 문구 - “나의 생명,” “나의 달려갈 길,” “사명”-가 열쇠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안에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목표에 동기 부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경주를 기쁨으로 마치고자 최선을 다해 경주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3)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청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사역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한 가지 목표는 그의 상전을 섬기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는 때가 되면 그의 사역에 대한 회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날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4)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진지하게 증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지와 사역의 심각성을 깨우쳐줍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신실한 증인이었고 또한 선포한 메시지도 신실했었습니다.

(5)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왕의) 사자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여기서 “전파”(preaching)이란 말은 ‘왕의 사자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하지만 (왕의) 사자는 왕이 그에게 선포하라고 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왕이신 주님께서 부르시사 메시지를 들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절대로 그 메시지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왕이 보낸 사자이기에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와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조심해야 합니다.

(6)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파수꾼으로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이 얼마나 심각한 부르심입니까. 그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위험이 다가올 때 나팔을 부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안전이 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파수꾼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나아갔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습니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심령, 즉 성령에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23절). 그는 성령님에게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 결박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 결박되었다는 말은 성령님의 내적 힘과 운동을 뜻합니다(갈3: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증 받은 바울은 자기의 뜻까지도 성령님의 방향과 본능에 겸손히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회심하기 전에 바울(사울)은 신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성령님에게 결박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22절).

둘째로, 바울은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그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확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그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었으니 만큼, 그가 실제로 선교 도상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놀랄 것 없었겠고, 또한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잘 견디게 되었을 것입니다(박윤선).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섯 살짜리 아들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한지 7년이 지난 후에 첫 회심자를 만들어 냈으며, 수년 동안 애써 번역한 것을 화재로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40년 동안 꾸준히 사역했습니다. 미국의 제1호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은 1814년에 미얀마로 갔습니다. 그는 여섯 살 된 아들을 잃었고, 1년 반 동안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그의 아내는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쇠약으로 고생했고, 첫 회심자를 만나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으로 파송된 첫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첫회심 자를 위해 7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단 없이 사역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성령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 따라)

모본을 보이는 장로

[사도행전 20장 28-38절]

“장로교회 대의정치, 장로가 바로잡자: '잘 다스리는 장로'는 통치자가 아니라 돌보며 앞장서는 자”라는 뉴스엔조이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인터넷).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란 말씀에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이스테미”로써 “앞에”를 뜻하는 “프로”와 '서다'를 뜻하는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린다'(프로이스테미)는 말은 '앞에서다' 곧 앞장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프로이스테미)는 말의 뜻은 '앞에 두다(제출), 앞서 가다(인도), 뛰어나다, 돌보다, 다스리다'를 뜻합니다. 곧 인도하고 돌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존경할 자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존경”은 대가, 평가, 존중, 영예, 인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대가를 치른 상태입니다. “존경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 하는 것은 존경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장로는 성도들에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만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3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모본을 보였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에 앞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본받아 모본을 보이는 장로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모본을 보이는 장로”란 제목 아래 모본을 보이는 장로는 어떠한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본을 보이는 장로는 삼가 조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도록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자기 자신들과 또한 온 양떼,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 조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삶이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들과 온 양떼를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유상섭). 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9-30절에 나와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는 장차 에베소를 떠난 후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30절), 즉 “참과 거짓을 섞어 말”하여(박운선)을 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짓된 교리와 자기 자신들을 좇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삼가 조심하라고 경계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목회하던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장로들 앞에서 하는 바울, 그는 자기가 떠난 후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미혹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전에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다 와서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것을 알고 있는 모세,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단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두 방향으로 출현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1) 첫째 방향은 교회 밖에서 에베소 교회 안으로 이단자들이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은 예상하였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2) 둘째 방향은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예상하였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짓 스승들(이단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터인데 너희 중에도 그런 거짓 스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가롯 유대와 같은 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장로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삼가 조심하라’고

경계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즉,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된 삶이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들과 온 양떼를 보살피라”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장로인 우리 교역자(목사님)들이나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감독하라고 장로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양떼들이 흉악한 이리의 밥이 되지 않도록 양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은 흉악한 이리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장로들은 교리적으로 확고한 지식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거짓된 가르침이나 또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목회 서진에서 감독자의 자격은 가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분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확고한 지식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유상섭).

둘째로, 모본을 보이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한 위험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삼가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지를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보여준 목회 생활을 본받으라(“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31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범된 목회 생활의 3가지 면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1) 바울의 사역은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 깨우는 삶에 부지런했으면 그러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는 자신이나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바울의 모범된 목회 생활은 바로 영적 파수함이었습니다.

(2) 바울의 삶은 근면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는 깨어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에베소 목회를 감당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감독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범된 목회 생활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본받아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에베소 장로들이 감독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32절). 비록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만 주님과 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첫째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둘째로,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업(안식)이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1)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안식(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3절을 보십시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유익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성도들보다 오히려 교회 장로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유상섭).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 중에 거짓된 가르침에 치우쳐 이단적인 교리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30 절).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나 장로님은 디모테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역자들이 또한 장로님이 돼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에 흔들림이 없기 견고히 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본을 보이는 장로는 약한 자들을 돕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장차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나 또한 밖에서부터 침투할 거짓된 선생들인 흉악한 이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들은 양떼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자기는 그 거짓 선생들과 달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참된 목자로서 그들에게 모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35절).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였습니까?

(1) 그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분명히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거짓 선생들은(29절) 자기의 사심과 사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유상섭). 그러나 참된 목자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2) 바울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아마도 사리사욕에 빠진 거짓 선생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들과 가정을 아끼는 가운데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기보다 바쁜척하면서 놀고먹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말입니다(살후3:11).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10절).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습니다(8절). 그러므로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모든이들에게

본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본받게 하려 하였습니다(9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3년간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의 필요까지도 자기 손으로 해결하였습니다(유상섭).

(3) 바울은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오늘 본문 사도 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간 있으면서 약한 자들에게 특히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히 땀 흘려 일하여 번 돈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베푸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무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강하고 힘 있는 자들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사도 바울처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경계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필요까지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돕는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36절). 그러자 에베소 장로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베에까지 바울을 전송했습니다(37-38절).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하는 목자(사역자)인 바울, 이제 헤어지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바울을 배까지 배웅하며 이별을 고했습니다(유상섭). 자기들을 사랑하여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며 삶의 본을 보여준 사랑하는 바울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헤어짐 속에서 슬퍼하는 에베소 장로들, 이제 그들에게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그가 권면한 말씀들을 순종해야 할 책임이 남았습니다. 바울의 권면 말씀처럼 삼가 조심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있어야 하며, 바울처럼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된 선생이나 거짓된 교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 등등에 미혹되어 흔들리며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길 기원하면서)

범사에 모범을 보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아지스 페르난도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역"에서 바라보기, 닮아 가기, 보여 주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무렵, 나는 나이든 복음 전도자 새뮤얼 멘디스와 함께 스리랑카의 몇몇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한번은 학교 교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우리는 두세 개의 나무 의자를 붙여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떠 보니, 그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나도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다. 또한 부모도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인터넛).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어느 누구의 어떠한 모범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혹은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하면서 자기의 모범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바울의 모범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장로가 범할 수 있는 5가지 죄가 있습니다:

(1) 첫째 죄는 무관심(carelessness)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목회 모범은 일깨는 것은 양 떼를 해롭게 할 무엇이 생기지 않는가 하여 파수함입니다. 그의 목회 모범은 밤낮 쉬지 않음은 참 목자의 근면입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함은 참 목자로서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박윤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관심의 죄를 범치 않도록 깨어서 자기를 본받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약한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관심을 갖고 깨어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바울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장로들로서의 영적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2) 둘째 죄는 “얕음”(shallowness)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부탁하였습니다(32절). 그러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움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깊지 못하고 얕으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3) 셋 번째 죄는 “탐심”(covetousness)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탐심이란 탐진하고 싶은 욕망으로 지배를 받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며 또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원하는 욕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에베소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고(30절) 또한 그들이 은, 금, 의복 같은 것을 탐할 줄 알았기에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본을 본받기를 권면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길 때에 다른 9개 계명도 범하는 것이 됩니다. 탐심하는 자는 흠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며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까지도 탐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엡5:5; 골3:5)

(4) 네 번째 죄는 “게으름”(laziness)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천막 만드는 자로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동역자들의 필요를 자기 손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만큼 부지런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5) 마지막 다섯째 장로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이기주의”(selfishness)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바울은 장로들로서 교회 안에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망각하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범은 약한 자들을 돕는데 수고한 것입니다. 그는 장로들이 범할 수 있는 5가지 죄를 짓지 않았음을 3“너희 아는 바”라고 말하였습니다(34절). 즉,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모든 면으로 본을 보인 것을 친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다시 번역한다면 “나의 필요한 것들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이 손들이 섬겼다는 것을 너희들은 친히 안다”입니다(유상섭). 즉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고 말씀에 견고히 서서 형제들을 돌봄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도 채워주는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 또한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바울의 모범은 관심의 눈물을 보였으며(31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견고히 세웠으며(32절), 탐심을 버렸으며 (33절), 부지런하였으며(34절), 그리고 이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35 절).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1) 첫째 위험은, “흉악한 이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첫 번째 위험은 교회 밖에서 다가온 위험이었습니다. 여기서 “흉악한 이리”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해 두고 하는 말인지 바울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교회를 해하는 불신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상섭). 그는 자기가 “떠난 후”, 즉 자기가 죽은 후에 교회 밖에서 “흉악한 이리”들이 양의 옷을 입고(양 같이 유순한 태도로) 교회 안으로 침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바울의 예언임). 그는 이들에게는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샅꾼들로서 양 떼들에게 무관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기독 신자들을 끝까지 대적하며 해칠 것임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 둘째 위험은, 양 떼들 가운데서 일어날 거짓 스승들 혹은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너희 중”이란 말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가르침을 가르칠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유상섭). 이러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운 장로들 가운데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장로들은 가운데서 일어날 이단자들은 어그러진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제시하여 자기들을 추종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말은 바울이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친 믿음의 도(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들을 떠나게 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장로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30절). 그 이단자들의 목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a)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므로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대책은 지난 3년간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친 교훈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야기될 때

하나님의 양 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b)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혹은 그의 은혜를 내용으로 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충분히 세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받은 성도 들과 함께 종말론적인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간다면 믿음의 정도를 떠나 그릇된 길로 이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가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들어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말씀 좀해 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간디는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해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이상했으나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간디에게 갔습니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또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아이 어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으나 참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또 갔습니다. "애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예, 절대로 사탕을 안 먹을래요." 소년의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한 마디 하시는데 왜 두 달씩이나 걸려야 했나요?"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사탕을 끊는데 두 달이 걸렸답니다." 희생의 모범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란 끝없이 지속되는 희생의 과정입니다(인터넷).

약한 사람을 돕는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길 기원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사도행전 20장 36-38절).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라고 고 김자옥 권사님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이별 준비를 해야겠다.’ 제가 그리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자를 불러 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항상 이별 준비를 조금씩 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이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6-38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란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17절) 고별 설교(18-35절)를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소리 내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록된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7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항상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현대인의 성경)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3년(31절)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이 항상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18절). 과연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즉,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3년 기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18절)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항상”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 정도로 바울은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항상”,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또는 신실하게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언제 이별할지 모르겠지만 그 날 그 순간까지 바울처럼 신실하길 원합니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저 같은 불성실한 죄인에게도 행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그 은혜의 힘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되 제가 죽고 나서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저를 생각할 때에 ‘내 남편/우리 아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오셨어’라고 저의 삶의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식구가 저의 불성실함을 제일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 남편/우리 아빠가 그나마 일관되게 살아왔는지를 조금이나마 볼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식구에게 일관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 마음에 저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나타난 주님의 신실함 모습을 그들이 기억할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현대인의 성경)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 가운데 3년 동안 거하면서 항상 신실하게 행하였던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19절). 그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18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였습니다(19절). 겸손히 섬겼을 때 괴로운 일이 많았을 텐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31절). 그의 “눈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여 신실하게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섬겨준 바울의 그 귀한 눈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그의 가르침과 훈계는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흘린 그 눈물은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므로 주님을 섬겼던(19절) 바울을 생각할 때 작별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37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 크게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1987년도 5월 저희 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흘렸던 세 종류의 눈물인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더욱 더 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식구도 그 눈물을 보고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 따라 눈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더욱더 결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이별할 때 주님 안에서 이러한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별을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내 남편/우리 아빠는 평생 주님만을 섬겼어요. 주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괴로운 일이 많으셨을텐데도 오래 참고 견디시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도 내 남편/우리 아빠처럼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고 싶어요’라고 결심을 할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요 유익한 죽음입니까.

셋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유익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21절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되 “모든 겹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습니다(19절). 특히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는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20절). 그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21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24절).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27절). 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했을까요? 왜 그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어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느 남편/아버지가 가족 식구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부양하고자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양은 저는 남편/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세 자녀를 “양육”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에베소서 5장 29절과 6장 4절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어떻게 저의 가족 식구를 양육해야 할까요? 저는 제 아내와 세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저는 가정의 영적 교사로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마28:19).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녀를 “말씀으로 깨끗하게”해야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이전에 제 자신이 매일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겠지요). 그리할 때 저희 부부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벧전1:22). 또한 저는 제 세 자녀들의 영적 교사로서 그들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하되 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엡6:1).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2절) 다른 어른들도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요삼1:2). 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아내와 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명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22절). 그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자기)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23절).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지 않았습다(24절). 즉, 그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완성) 함에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1987년도 저희 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저로 하여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와 같이 남자만 오 천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제 인생을 항복하고 주님께 받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가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받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2003년도에 한국 교회개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때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I will build my church)란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찬양할 때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피 흘려 주님이 사신 사랑하는 승리장로교회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 11월 말에 한국에서 섬기던 서현교회를 사임하고 12월 3일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12월 21일에 승리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므로(요6:1-15)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마16:18).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가정에서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세워야 하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이 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우리 아빠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 겸손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그가 그리워하던 주 님의 품 안에 앉았어요.’

다섯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28절). 그가 그들에게 이리말한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외부적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9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부적으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았습니다(30절). 그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31절). 그런 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님과 및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겼습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그가 그리한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32절). 상상이 됩니까? 교회 장로들(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 양 떼(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적으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믿음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려는 극심한 유혹 가운데서 온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하게 된 이유는 한국 서현교회에서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가 미국 승리장로교회로 다시 돌아와 노인 사역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관점을 더욱더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고 싶은지를 더욱더 생각하게 될 때에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 사랑하는 가족 식구입니다. 과연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할 텐데 등등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사랑하는 제 가족 식구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5:7)고 말씀하고 있듯이 저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제 가족 식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족 식구를 맡기되 특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32절)에 맡기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의 책임은 제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24절)을 전하고 가르치므로 제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의 가족 식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세움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여섯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탐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현대인의 성경)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33-34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하였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탐심을 자극하는 물질의 유혹이 많아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한 은장색 데메드리오(19:23)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돈으로 유혹을 할까봐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그것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시험”(20:19)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러한 시험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있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자기처럼 그러한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골3:5)고 충분히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신들의 장로들의 탐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탐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울처럼 열심히 일해서 손수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니었을까요(행20:34).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이웃인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의 십계명에 명하고 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20:17)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여 손을 돈을 벌어서 썼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돈에 탐심이 없이 깨끗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모범된 신앙생활입니까?

약 19년 전 아버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저의 고민을 나눴을 때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물질을 초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결혼 예물인 가구들을 사려고 보러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만딸인 아내의 결혼을 약 10년 동안 기다리시고 결혼시키려고 준비하셔서 저희 부부에게 결혼 예물로 가구를 좀 비싼 것으로 사주시길 원하셨는데 제 아내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저렴한 가구를 사고 싶다고 하여 두 모녀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두 자매님 사이에 제가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제 아버님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장모님이 이기셔서(?) 저희 부부에게 과분한 가구를 사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되서 아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갈비를 먹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한 것입니다 ㅎㅎ. 아마도 아내 입장에서는 전도사가 비싼 갈비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갈비를 먹었습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 물질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를 누리는 마음, 탐심이 아닌 주님 한 분 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빌4:11-12).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주님 한 분 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 가는 모습을 제 가족 식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내 남편/우리 아빠는 탐심(욕심)이 없이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잠드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탐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 예수님의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35절). 그랬기에 바울은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자신과 자신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34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35절). 이러한 모본을 보였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도 자신의 모본을 본받아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35절).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지 사랑하는 저의 세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빠의 뒷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진리의 모본”(롬2:20)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눈을 감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의 눈을 뜨고 저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벧전2:21). 특히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므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마음의 새겨진 저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TV 뉴스에서 마음을 몽클하게 하는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9/11 사건으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한 미국 여자(Josephine Smith)가 아버지가 죽은 13년이 지나서야 자기의 아버지의 발자국(her father's footsteps)을 따라서 시험과 고된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뉴욕시 소방관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두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Smith라는 소방관이 소방관 모자와 옷을 입고 어느 빌딩 사닥다리 위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그 여자의 죽은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47살 때 9/11 사건으로 봉사하다가 죽었으니까 그 때 Smith라는 그의 딸은 고등학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때 사춘기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도 소방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본받아 소방관이 되어 뉴욕시를 섬기는 Josephine Smith란 여인을 생각할 때 저 또한 제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더욱더 본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습관화하므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탐심을 계속해서 버리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이끌려 겸손히, 신실하게 오래참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뒷모습을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므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좇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그들의 심비에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인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에게 본이 되시는 양가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기원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 21장 1-14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들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진리를 통해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저 고려해 보겠노라 말하는 사람에게는 뜻을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즉 당신이 “뭐,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보여 주실 순 없을까요, 주님?”이란 태도로나올 때는 결코 보여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그 전에 먼저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는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 아래 주님의 뜻에 관하여 한 3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경영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2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므로 바울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22절)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비록 동일한 성령님께서 “각성에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23절) 그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였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달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 주님의 뜻인지 그것이 내 뜻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구약의 노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 한 시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을 탄식케 하여 근심케 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창6:56).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할 때 부패한 마음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꾸준히 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간적 동정심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 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두로라는 지역의 제자들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알게 되어 바울과 함께하는 7일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계속 만류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유상섭). 이러한 간청을 뿌리쳐야 하는 사도 바울,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두로라는 지역에서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두로 지역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 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4절)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로 지역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간청하고 권면하였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한 일을 당할 줄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동일한 성령님께서 두로 지역의 제자들에게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닙니다(박윤선). 그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은 그들 자신의 인간적 동정심 이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동정심은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유다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전에도 흉년을 예언한바 있는(행 11:28)]가 내려와서 예언하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10-11절)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은 가이사랴 지방에 성도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울면서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12절). 이 때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탄식하였습니다(13절).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마음을 깨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박윤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각성에서 자기에게 증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들도 그것을 알고 인간의 동정심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랑한답시고 계속 권면하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는가…… 마음이 연약해 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또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랑하는 가족식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자 경영함에 있어서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때 그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그 길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으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일 울면서 권면(간청)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서 가르치”셨을 때(마16:21)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2절)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인간의 동정심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원치 않으므로 “이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기보다 사람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인간의 동정심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을 각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인간의 동정심 속에서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그의 일행과 가이사라의 제자들의 간청 가운데서도 비록 마음이 상하였지만 그는 그럴수록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자기의 사명 완수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따라 움직였던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자기의 운명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고 능욕 받는 것을 기뻐한 것같이(5:41), 바울 역시 이들에 뒤지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박윤선).

언젠가 읽었던 “영광의 문”이란 책을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이 책은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아우카 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한 5명의 복미 선교사님들 중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의 부인 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이 책 끝 부분에서 그 5명 순교자 중 한 사람의 부인인 바바라 유데리안의 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대위가 우리에게 강가에서 네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은 로저 밖에 없었다 … 이틀 전 하나님은 내게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주셨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로저의 죽음소식을 접하면서 내 마음은 찬송이 충만했다. 그는 본향에 가기에 합당한 자였다. 주님, 제가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다 잘하게 도와주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엡 6:4)를 알게 하소서 … 오늘밤 베스가 천국에 가신 아빠를 위해 기도하며 내게 물었다. 아빠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아빠가 천국에서 내려와 편지를 받아갈 수 없느냐고. 내가 ‘그럴 수는 없단다. 아빠는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 했더니 베스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빠가 내려오도록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빠가 미끄러지지 않게 아빠 손을 붙잡아주실 거예요’했다.” 이러한 자녀의 말을 들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바라 유데리안은 선교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 자기가 누리는 평화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것은 생명을 갇아먹는 사탄의 도구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히바로족 사역을 맡은 로저가 어찌자고 이 일에 가담했다 말인가?’ 이유는 로저가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이다. 주님은 비애와 광분에 우리 마음을 단으시고 당신의 완전한 평화로 채우셨다”(엘리엇).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길 기원하면서)

죽을 각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사도행전 21장 13절).

싸울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싸우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섭게 달려들면 그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님이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에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20:23)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각 성 중에서 바울은 가이사라(Caesarea)에 도착하였습니다(8절). 그리고 거기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바울)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로마인)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11절). 그리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의 일행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습니다(12절). 그 때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말하면서(13절) 자기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13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관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저는 시편 63편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불타올랐던 바울, 예루살렘에서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던 자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지이다”(The Lord’s will be done)하고 권면을 그쳤습니다(21:14). 그리고 바울은 그의 일행과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15절). 웬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사53:7)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갈보리 산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던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영생)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예수님,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빌2:8).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주님께 받은 사명의 중요성과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다시금 도전 받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복음 전도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어진 남은 인생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와 위로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의 철, 팔십 인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르니”

[사도행전 21장 15-26절]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만일 좋아하신다면 여행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한 후 날짜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시간 계획표도 세워야 할 것이고 차로 갈 것인지 비행기로 갈 것인지 등등 이런 저런 생각 및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담이라기 보다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즐겁게 여행 준비를 한 후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도 즐거울 것입니다.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고 싶은 것들,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생각하며 목적지에 도달하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지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집과 일터 등 다 떠나 여행 목적지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 기쁘고 또한 이런 저런 집과 일터 등에서 있었던 긴장감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행을 간다고 생각 하기보다 사역을 하러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상상해 볼 때에 저는 한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의 뜻인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룰수 있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2)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장차 자기가 접해야 할 결박과 핍박과 환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사명 완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하였기에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기대감 반 걱정 반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니"란 제목 아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15절). 그 때 가이사랴의 일부 제자들도 바울 일행과 합류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16절). 이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안내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목계 될 구브로 출신의 초기 제자 나손의 집이었습니다(유상섭). 이 나손이란 주님의 신실한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바울과 또 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자들을 기꺼이 영접하며 환영했습니다(유상섭).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1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하면서 얼마나 대환영(?)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환영하며 영접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하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 경제적 번영 그리고 사회적 공의를 가져다주실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 1장 11-1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자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롬4:25)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공의를 베풀어주시는 한 나의 왕(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그를 영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하리라”(요14:2-3).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기꺼이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가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인 천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예루살렘 형제들인 야고보와 장로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 바울이 그의 일행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18절). 마침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18절).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문안한 후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섬김)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을 때(19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20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듣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15장 5-6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형제, 자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접하심 같이 나도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면서(롬15:7)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참된 주님 안에서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영접(환영)하면서 우리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길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20절). 그 대화의 방향의 핵심은 바울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했듯이 성령님께서 바울 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알려준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열심있는 자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20절하) 그들은 바울에 대해 크고 깊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깊은 오해는 바울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무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에 열심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범을 지키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다고 들은 것입니다(21절, 유상섭). 이들이 들은 내용을 두 가지입니다:

- (1)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모세로부터 배도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모세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분노를 사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로부터 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 (2) 바울이 심각한 배도를 가르친 구체적인 증거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유상섭).

그러나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에 불구한 오해였습니다. 결코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 속에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의 배도를 이방 지역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자신의 행동으로 잠재워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약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삭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는 것”이었습니다(23-24절). 바울이 이렇게 하면 율법에 열심있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관한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뿐 아니라 몸소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유상섭). 그러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해결 방안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바울이 그들의 권면대로 행하면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마디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의 열심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서원한 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로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유상섭). 나실인의 서약은 자발적인 헌신과 경건의 서약으로서, 이 서약을 한 사람은 최소한 30일간은 포도주를 삼가고, 죽은 시체를 멀리하며, 머리를 깎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민6:4-8)(유상섭). 이 서약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때는 모세의 율법에 지정된 대로 삭발을 하고 각종 희생 제사를 머리카락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민6:10-18). 그러나 가나안 나실인들의 입장에서 희생 재물을 마련하는데 드는 경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1인당 숫양 두 마리와 암 양 한 마리와 소제물과 전제물을 위한 비용”]. 결국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난한 나실인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는 극히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유상섭). 바울은 결국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26절). 그래서 다음날, 나실인 서약을 한 네 사람을 데리고 몸소 결례를 행한 후 성전으로 들어가, 그의 결례가 끝나는 날과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짜를 성전 당국에 통고했습니다(26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기기 때문에(고전9:19) 그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고전9:20). 물론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한 유대인 형제에게라도 걸림돌(stumbling block)이 되지 않으려(고전8:9)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받습니다. 잠언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권고를 듣지 않고

멸시하지만(잠1:7)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성경에 많은 권면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향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면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 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했습니다. 물론 첫째로는 모세의 율법에 열심 있는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자 했던 것도 있었지만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던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 들이던 양쪽 다에게 거치는 자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책(our ministry)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습니다(고후6:3).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징검다리”(stepping stones)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울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 대로 행하므로 말미암아 교회(공동체)의 평화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경영, 곧 주님의 뜻인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접을 받았으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 형제들의 오해를 잠재우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1)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또한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2) 우리는 참된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그의 봉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나눴을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3)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고 형제(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징검다리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중심된 공동체를 꿈꾸면서)

오해

[사도행전 21장 20b-24절]

여러분은 오해를 사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잘못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오해하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0절 하반 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오해는 왜 생기는가 2가지 원인을 생각해본 후 오해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해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십시오: “...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일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확신하고 꼭 지켜 나아가는 것을 그 사람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날 영화를 보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은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어서 주일날 영화도 안 보고 돈도 안 쓰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였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는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바울은 율법에 열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십계명 중 4계 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바울은 왜 안 지키는가 하면서 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없는 자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나의 장점이 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장점인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 좋죠. 그러나 이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 순종이 아닌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순종하는 열심히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문제는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1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범을 지키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21절). 그러나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습(customs)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유상섭). 오히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분명하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바울이 아직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1) 2차 선교 사역 중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성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사건이고(16:2-3), (2) 2차 선교 사역 말기에 자신의 나실인 서약에 따라 삭발을 한 사건이며(18:18), (3) 바울이 여전이 무교절(유월절)을 준수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도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20:6, 16).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바울이 아직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관습을 준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들은 소문인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의 배도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는 오해임을 명백하게 합니다(유상섭).

얼마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는 일이 흔합니까? “내 이름은 소문”이란 제목 아래 애틀랜타 저널(1995년 5월) 나온 글입니다: “난 '소문'이야. 진실을 무척이나 싫어하지.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가슴을 찢어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지. 교활하고 악한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이 강해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수록 듣는 이들은 나를 더욱 믿게 되니까. 나한테 걸린 희생자는 절망적이야. 이름도 얼굴도 없는 내가 한번 찍은 사람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거든. 나를 추적한 다구? 어렵없는 일이지. 나는 추적을 당할수록 더 교묘해지거든. 나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니야. 내 임무는 그저 누군가에 대해 흠집을

내는 것뿐. 일단 내게 걸려든 사람은 전과 같을 수 없지. 난 정부도 무너뜨리고 행복 했던 결혼 생활도 파괴시키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과 신뢰도 한 번에 헛된 것으로 만들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지. 골치가 아프고 소화도 안될 거야. 착한 사람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게 만드는 게 바로 나라니까! 나는 큰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소곤소곤 귓속말로 퍼져 나가지. 그래서 내 이름은 소문이야”(애틀랜타 저널).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3-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오해를 푸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터무니없는 소문을 바울 자신의 행동으로 잠재워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유상섭). 구체적인 제안은 서약한 네 사람의 나실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삭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는 것입니다(23-24절). 사실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난한 나실 인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는 극히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이 방법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긴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은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30절).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다기보다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는 오해를 풀지는 못했지만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행22장). 이 말은 우리가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함에도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는데도 그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 때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 바른 행위뿐이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간혹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실이 꼬이듯이 더 오해가 깊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 저 가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인터넷).

오해가 아닌 이해를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부정적인 생각과 헛된 소문을 경계하면서)

사단의 전략

[사도행전 21장 27-36절]

조엘 박 목사님의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단우월주의, 헌금, 교회건축문제, 그리고 잘못된 설교와 기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둘 또는 수백 개로 나눠놓고 있으며, 교회와 교단의 막힌 담은 옛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장벽보다 높고 견고하다"면서 "화평과 화목을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헐었지만 한국교회는 바벨탑보다 더 견고하게 담을 쌓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책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대형교회를 다니던 교인 3천 200여명이 지역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출판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책 제목인 “한국 교회를 향해 통곡하시는 예수”와 같은 '한통 예'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역교회 복귀운동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세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 개신교 목사가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잘못과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해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반대세력인 안티들조차 언급하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실정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이러한 교회 비판의 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건설적인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비 건설적인 비판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건설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비판을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제 개인적인 비판 중 하나는 바로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militant church)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딤후4:7). 우리는 승리의 확신(assurance of victory)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적인 사탄과 그의 전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3절을 보면 우리는 결국 성령님의 예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가 결박당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며 복음을 대적하는 박해자들인 아시아로부터 온 불신 유대인들(27절)이 어떻게 바울을 결박하게까지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 4가지로 목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종들의 전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패턴을 알아 갈 때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알아 그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의 전략은 “충동”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나실 인을 서약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각종 희생 제물을 비용을 치러주고 그들의 희생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경건한 유대인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날이 눈앞에 있을 때 오순절 절기를 위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유상섭). 그러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모든 무리를 어떻게 충동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서슴없이 폈습니다. 그 거짓된 주장은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유상섭):

(1)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여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이 주장은 충분히 유대인들을 충동시킬 수 있을만한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과 성전(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근본 요소였기 때문에 바울을 가리켜 율법과 성전(예루살렘 성전)을 대적하여 가르치는 자라고 주장한 것은 충분히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시켜 격노케 할 만한 주장 이었습니다.

(2) 바울은 심지어 헬라인들까지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후반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 당시 성전에는 레위인의 딸, 이스라엘 남자의 딸, 여인의 딸 그리고 이방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이방인의 딸을 넘어서 여인의 딸을 지나 이스라엘 남자의 딸까지 경계의 벽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이들의 주장은 바울이 큰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경계의 벽에는 경고문이 있었는데 그 경고문에는 이방인들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여인의 딸로 들어오는 것도 즉석에서 사형에 처해질 심각한 죄가 되는데, 이를 넘어서 이스라엘 남자의 딸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유상섭).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바울의 대적 자들인 유대인들이 억측해서 주장을 편 것입니다(29절)(유상섭).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 말을 해야 하는데 그저 추측 속에서 성전 안 이스라엘 남자의 딸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충동시켜 바울을 붙잡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이고니온에서도 겪었습니다(행14). 그는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에 가서 항상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도 경험하였지만(1절) 그 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므로(2절) 두사도를 능욕하고 돌리 치려고 달려드는(5절) 이러한 고난과 핍박도 겪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악감을 품게 하였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 NIV을 보면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라고 적혀있습니다(2절). 즉,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을 넣어 형제들을 대적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거짓된 주장을 펴서 교인들을 충동시키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그저 추측 가운데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장을 피므로 결국 주위 사람들을 충동하여 자기편을 만들어 그룹을 형성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말쟁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자꾸만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충동시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충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을 부각시키며 충돌질하여 다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꾸 악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충돌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뱀이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소리를 자꾸만 들려주면서 아담을 충돌질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를 행사하도록 자꾸 충돌질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며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며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자기의 힘과 꾀와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복을 쟁취해 나가도록 자꾸 충돌질”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이 사탄의 충돌질로 말미암아 그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주장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피면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의 충돌질이 아닌 학개 1장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stirredup)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의 전략은 “소동”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 속에서 바울을 붙잡고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피므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충돌질하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거쳐 이방인의 뜰로 끌려 나와 죽음을 당하려는 찰나에 있게 되었습니다(31절). 백성들은 군대의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오기 전까지 바울을 쳐 죽일 작정으로 구타하고 있었습니다(32절)(유상섭).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돌질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며 요란하게 되었습니다(31절).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충돌질을 하여 교회 전체를 요란하게 만드는 일들은 지금도 여기 저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질을 하여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은 자기들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억측을 부리면서 교회의 평화를 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평화를 깨고 요란하게 한 장본인은 자기가 아닌 상대방이라고 비난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18절) 귀신을 나오게 하였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19절) 가서 하는 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한다(21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돈 문제로 인하여 (수입이 없어졌으므로)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끌고 가서 이들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고 자기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주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인하여 충돌질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인 소동 또는 요란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14:33).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탄의 전략은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총동하여 예루살렘 성에 소동을 일으켜 결국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보고가)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에게까지 들리므로 말미암아(31절)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가서(32절)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셨습니다(33절). 그런 후 천부장은 모인 백성들에게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33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었습니다(34절). 결국 천부 장은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셨습니다(34절).

과연 소문 퍼지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이러한 흥미로운 글이 있어 나눕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수학적 계산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사람이 3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문을 가지고 아침 8시에 나타났다고 하자. 그는 단 세 사람에게 이 소문을 전한다. 이 소문을 전달하는 데 대략 15분이 걸린다고 하자. 그러면 아침 8시 15분에 이 소문은 이 도시에서 네 사람이 알게 된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세 명의 사람은 각각 그 이야기를 다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15분이 걸린다.

8시 30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4 + (3 \times 3) = 13$

4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13 + (3 \times 9) = 40$

9시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40 + (3 \times 27) = 121$

9시 1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121 + (3 \times 81) = 364$

9시 30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343 + (3 \times 243) = 1,093$

9시 4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1,093 + (3 \times 729) = 3,280$

10시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3,280 + (3 \times 2,187) = 9,841$

10시 15분까지 소문을 아는 사람의 수 : $9,841 + (3 \times 6,561) = 29,524$ 명

결국 소도시 사람들이 이 소문을 알게 되는 것은 2시간 30분 이전이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퍼지는 속도는 아마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아마 2시간이면 몇 백만 명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소문의 속도는 대단하다. 말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인터넷).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미국 이민 한인 교회 당회에서 2007년12월9일 날짜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 정립을 위하여, 소위 ‘퀵사모’라고 자칭하는 불법 집단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글”라는 제목 아래 글이 나와 있어 좀 보았습니다. 그 글 내용중 보니까 “자칭 ‘퀵사모’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배경”이란 소주제 아래 이런 글이 있어 나눕니다: “본 교회 당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자칭 ‘퀵 사모’라는 일부 극소수 그룹이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불온 문서를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결과 단 한 사람도 ‘퀵사모’ 멤버임을 자인하는 성도가 없었다. 이들은 교회에 악의 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특정 성도 또는 사역자를 근거 없이 모함해 왔지만 사랑의 권면과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그 소수그룹의 회개를 바라며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 결과, 이들의 언사와 행동은 성도라고 불려서도 안 될 정도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했다”(인터넷). 오히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돼야 합니다(행11:22).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21절). 또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탄의 전략은 “포행”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21장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소동과 요란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백성들에게 붙잡혀 매맞고 있었을 때(32절)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이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과 도착하여(32절) 무리들에게 바울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33절) 사건의 진상을 소동으로 인하여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우선 바울을 주둔군 진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하였습니다(34절). 이에 바울이 인술을 받아 느린 걸음으로 진영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가라 때 군인들은 무리들의 폭력전인 조짐을 포착하고 바울을 들고 갔습니다(35절)(유상섭). 군인들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조짐을 파악한 것은 백성의 무리가 그들을 뒤따르며 바울을 제거하라고 외쳐댔기 때문입니다[(36절) “우리가 그를 없이 하자”가 아니라, “너(천부장)는 그를 제거하라”임](유상섭). 이러한 외침은 천부 장에게 바울을 제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총독 빌라도에게 “너는 이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던 것(눅23:18)을 생각할 때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이 사탄의 유혹인 “포행”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과 그의 종들은 유혹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면서 폭력적일 수가 있습니까?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교회 안에서나 특히 교회 밖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서슴없이 욕하는 것을 들을 때 참 답답합니다. 어느 교회는 제직회 때도 장로님이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다투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떡살을 잡고 또한 교회 밖에서 혈기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폭력을 사용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 한국 야후 인터넷 판 뉴스를 보니까 술자리에서 목사 세 사람이 술 먹다가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지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먹냐고라고 말해서 폭행한 사건을 기사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인터넷). 참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포행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포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 외에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충동시켜 소동을 일으키며 교회를 요란케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악성 루머(소문)까지 퍼트리게 만들어서 교회의 평화를 깨고 질서를 무너트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는(제거하는) 일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전략인 충동(질), 소동(요란), 소문 및 포행을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 평화가 있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소문과 소동을 경계하면서)

바울의 간증

[사도행전 21장 37절 - 22장 21절]

여러분 혹시 이명박 장로 대통령의 간증을 들어 보셨습니까? “TV 간증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이명박 장로편”(인터넷): “저는 오늘 교회 장로의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신앙을 간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 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그의 간증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 나눕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새벽이면 새벽 4시가 되면 6형제 전부 앞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다시 새벽기도에 나가셨습니다. 돌아와서 행상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 나라를 안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그 다음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박 받는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단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바울을 결박 받게 하였는지 한 4가지로 묵상하였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다면 (1) 그들은 성전 안 남자의 뜰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울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하므로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2)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충동된 유대인 남자들과 함께 결국 예루살렘 성안에 “소동”을 일으키므로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3) 사단의 전략은 악성 루머(소문)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4) 무리들은 바울을 “포행”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천부장의 명령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서 로마 주둔군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 바울이 천부장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37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고(32절) 제거하려는(36절)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39절). 그 때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허락하므로 말미암아 그는 계단 위에서 백성들에게 손을 흔든 후 히브리 방언 곧 아람어로 연설을 하였습니다(40절). 그

바울은 연설은 바로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37-22장 29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간증**”이란 제목 아래 바울의 간증을 한 3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간증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간증 첫 부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Before Christ)입니다 (행 22:3-5).

바울의 간증의 첫 부분은 바울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4가지로 유대인 무리들에게 진술하였습니다.

(1)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이방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시민임을 밝혔습니다(3절).

그는 자신도 모인 무리들처럼 유대인임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소는 그 당시는 큰 도시요, 로마제국 시대에 다소는 길리기아·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수도였고, 희랍과 로마 시대에 다소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학문과 문화의 중심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2)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했다고 말하였습니다(3절). 비록 바울은 이방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줄곧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만큼 열심 있는 유대주의자(율 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은 중요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말하므로 말미암아 자기도 듣는 유대인 무리들처럼 예루살렘 중요시하는 사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바울은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방식에 따라서 철저히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말하였습니다(3절).

그 당시 가말리엘은 유대교의 두 최고 학파 중 하나인 힐렐 (Hillel) 학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유상섭).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은 바리새파 전통에 따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빌3:5).

(4) 바울은, 모인 모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행22:3).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바울(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기독교인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4절).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들여 형벌을 받게 하려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갔었던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빌3:6). 그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자기) 증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행22:5).

바울의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대한 고백은 한 마디로 자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인 모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전(과거)에는 그랬다는 말을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불붙는 열정도 자기도 전에는 있었고 그 열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4절) 했다는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는 그 말을 듣는 모인 분노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히 결코 올바른 열심히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모인 유대인들의 열심이 빼뺏어진 열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묘사)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불신앙 가운데서 또한 무지함 속에서 바울은 과거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간증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On Christ)입니다(행 22:6-16).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로 다메섹에 거의 다 와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21:6).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울(9:1), 불신앙과 무지 가운데서 예수님의 도를 좇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안 가리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2절)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취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냐”(22:6-7)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때 사울은 “주여 뉘시니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8절). 이 주님의 음성은 사울 외에는 동행하는 사람들 중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9절).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의 모든 신학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선포 자가 되는 대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에 의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지고 갈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유상섭). 다시 말하면, 사울의 중생(Conversion)과 부르심(사명)(Commission)이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중생)과 사명을 받은 바울은 그 후 주님의 명령대로 일행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가(9-11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12절)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듣는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신임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결국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 보이지 않던 눈이 즉시 열려 보게 되었고(9:18) 또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사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4절).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15절). 그런 후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자기 죄를 씻으라고 말하셨습니다(16절).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를 귀히 쓰시고자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복음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님을 좇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훼방자요 핍박자요포행 자이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사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 친척 모든 분들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의 간증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 만난 후”(After Christ)입니다(행22:17-21).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 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17절). 이 사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다릅니다. 즉,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 주장한 바울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결코 성전을 더럽히고 멸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21:28). 오히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 받아 성전을 찾아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22:17).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비몽사몽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내용은 간략하게 말한다면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 이방에 선교사로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18-21절)(박윤선).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18절)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사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셨습니다(21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19-20절을 보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과거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테반의 죽음까지도 곁에 서서 찬성하고 동참한 일들을 주님께 말하면서 어느 면으로 보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기에 자기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잘 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번이나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18, 21절).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지 아니할 것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18절).

어떤 때에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응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18절하). 바울은 주님의 이와 같은 계시를 따라서 이방의 사도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전도자는 그 입지를 택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잘 알고 친하니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들을 것이야’ 등. 만일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온다면 분명히 우리는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자궁하게 되며 교만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공로로 되었다는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리 우리의 생각 되로 복음 증거 및 열매가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리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대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정연희 전작 장편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이 책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6.25. 전쟁 때 죽은 한 신앙의 선배 “맹의순” 형제님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 비극인 육이오 시대를 살면서 고난을 통해 아름답게 피어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 대한 책인 것이다. 시대적으로 고난과 비극의 시대인 일제시대 말기에 태어나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1952년까지 겨우 26년 8개월을 살았던 한 젊은이의 고난”을 다룬 책입니다. “일제시대에 평양의 비교적 부유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맹의순은 민족의 식민 상황이라는 아픔 외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나는 한 젊은 청년이었다. 중학교 졸업할 무렵 그렇게도 사랑했던 누님의 죽음, 그리고 채 석 달이 되지 않아서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형님의 전사 소식, 그리고 해방이후 이북에 세워지는 공산정권으로 인해서 남하하던 나머지 가족은 모든 재산을 사기당하고 빈털터리로 목숨만 건져 이남으로 내려오게 된다. 연이어 곧 뇌졸중으로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유 없이 죽어버린 여동생,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그의 어이없는 삶의 여정, 육이오 전쟁 속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던 중, 공산군 첩자로 오해를받아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비극의 삶으로 점철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몇몇 친 구들의 수고 끝에 석방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곳을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사역지로 생각하고, 포로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중공군 포로 병동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살신성인의 분을 좇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무리해서 사역하던 중, 시편 23편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암송하면서 쓰러져 20대 후반의 꽃 같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정연희).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의 이름이 높아지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중생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았음을 망각하지 않길 원하면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사도행전 22장 22-29절]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국민학교(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극장에서 본 “사랑의 원자탄”이란 영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강대진 감독의 '사랑의 원자탄'(1977년)은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영화화한 것인데 그 당시 그 영화를 본 후 저뿐만 아니라 극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영 울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의 삶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 반대와 옥살이하는 고난당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울었던 것 같지만 특히 저는 해방공간의 좌우의 대결 상황에서 아들들을 잃고도 오히려 자식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은 손 목사님의 삶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식들을 죽인 “원수”(?)인 공산당 재선이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손 목사님의 삶을 영화로나마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손 목사님처럼 나의 삶과 죽음 이 과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 예수님의 향기를 들어내는 삶과 죽음을 말입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이야 말고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witness)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의 간증”(행21:37-22:21)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대하여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22장 22-29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 (witness)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간증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2-23절을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의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소리 질러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소리 질렀던 내용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였습니다. 한 마디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동등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도 메시아의 구원 축복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 자기들이 선민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방인 발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메시아(그리스도)의 구원 축복을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그 축복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말에 분노하며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려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무모한 유대인들의 행동을 생각할 때 왜 이들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을까 생각해볼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대답을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가 사랑하사 택하신 백성들(그들이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좇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지함이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기울어 들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교회 안에서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무모한 행동을 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단의 전략대로 이들은 교인들을 충동(질)하여 교회 안에 소동을 일으키고(요란케 함) 악성 루머까지 퍼트려 결국 목회자를 제거하는 (쫓아내는) 일까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암8:11)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고 있습니다(딤후4:3-4). 우리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 주는 그러한 헛된 교훈에 귀를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사욕을 충족시키고자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에서 돌이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속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바울을 간증을

듣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마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보고 순종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바울의 간증을 듣는 로마 군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소리 지르면서 걸옷을 집어 던지는 등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로마 군대 천부 장은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우선 바울은 진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하였습니다(24절). 그런 후 천부 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며 심문하여 왜 이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항하여 외치는지를 밝혀내라고 지시했습니다(24절). 그래서 백부장 이하 군인들은 바울을 가죽 끈으로 동여매고 채찍질하면서 바울을 심문하려 했습니다(25절). 그 때 바울은 곁에 서 있었던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25절). 그 당시 종이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을 심문할 때는 고문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유상섭). 그러나 로마 시민에게 재판 이전에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보고했을 때(26 절) 천부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바울에게 와서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고 물었습니다(27절). 그 때 “그러하다”라는 바울의 답변을 듣고(27절) 천부 장은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28절). 그 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임을 알려주었습니다(28절). 그 때 바울을 심문하려던 로마 군인들이 즉시 떠났습니다(29절). 그리고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줄 알고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29절). 그 이유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공식적인 재판 없이 결박하고 심문하므로 로마 당국의 엄중한 문책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이 로마 군인들의 반응을 생각해 볼 때 이들 또한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며 심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왜 소리지르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었겠지만 바울이 로마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를 가죽 끈으로 결박하고 심문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결박하고 채찍질하면서 심문하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의 간증을 들을 때 그 형제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을 하는 형제의 삶을 통하여 그 간증은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형제가 간증을 은혜스럽게 하고 난 후 교회 안에서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간증과 다른 메시지를 다른 성도님들에게 준다면 그의 간증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간증을 나눠야 하며 또한 그 간증의 진실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어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간증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므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라기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모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는 지체들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기원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사도행전 22장 30절 - 23장5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르고 곧은길로 가지 않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부러진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인(거부)하고 거짓을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도 빼뚫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빼뚫어져 있기에 말과 행동 다 빼뚫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빌2:15).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 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저회 앞에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22:30). 그 때 바울이 공회를 힘 있게 쳐다보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23:1).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변론 중 사도행전 23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과연 바른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모범된 바른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생활은 범사에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 앞에서 모인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고 진실 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의 모범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연 나는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이일을 게을리하든 지 중단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양심이 세상 것들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진정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실한 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거짓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은 거짓으로 포장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마음의 진실함이 거짓으로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고후4:2). 그리고 우리는 궤활 가운데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추천)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딤후1:19)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숨기는 부끄러움의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심의 책망을 받은 죄는 즉시 자백해야 하며 보혈에 의해 씻음을 받아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둘째로, 바른 신앙생활은 위선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을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말은 바울이 모인 공회원들에게 자기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을 때(1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여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말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회칠한 담”이란 표현은 “겉은 아름답지만(회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흙)으로 가득찬다는 말”입니다(유상섭). 한 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당신은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회칠한 겉모습은 율법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 석에 앉아 있는 것이고, 더러운 속 모습은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는 명령에 있습니다(유상섭). 이 바울의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들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 4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마23:27). 이 말씀은 회칠한 담이든, 회칠한 무덤이든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예식을 철저히 감당하는 겉모습은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위선의 상징’으로 ‘바리새인’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신앙적 과시욕 또한 대단해서 외식, 허식, 가식의 전형으로 비쳐졌습니다. 거짓으로 꾸미고 자기-의(self-righteous)를 과시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배우들이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과 모든 인간 생활에서 본래의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려는 모든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배우라고 말했습니다(인터넷).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마12:1). 우리는 너무 겉으로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23:28). 오히려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26절).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벧전 1:22).

마지막 셋째로,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공회원들에게 범사에 양심을 따라(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입을 치라고 명한 사람에게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위선을 꾸짖었을 때 바울의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을 하느냐”고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4절). 그 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였는데 칼빈은 바울의 이 말은 하나의 풍자라고 하였습니다(칼빈). 곧, 바울이 아나니아의 폭력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꾸짖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박윤선).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공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을 것이므로 바울이 아무리 시력이 나쁘다 할지라도 명령하는 자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유상섭). 오히려 바울의 말은 그가 대제사장답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유상섭). 그러기에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인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위선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었기에 그 타락한 제사장을 꾸짖은 것은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 모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박윤선). 범사에 양심을 따라(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의 꾸짖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양심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공회 의장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 같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눅11:39).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37절) 물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에 찔림이 필요합니다. 왜 마음에 찔림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양심의 악을 깨달아(히10:22)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양심의 악이 있습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딤후1:15)는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16절). 이러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16절).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위선과 가식과 외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구부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범사에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을 경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신앙생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위선을 경멸하며 진실 된 삶을 추구하면서)

담대하라!

[사도행전 23장 6-35절]

우리는 이미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상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행22:30-23:5). 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는데 첫째로, 우리는 범사에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배웠고, 둘째로,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선 우리는 위선을 경멸해야 하며, 셋째로, 바른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림을 받는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빌2:15).

과연 우리가 어둡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 살면서 빛들로 나타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7가지 필요한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Calling(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sense of calling이 있어야 합니다.
2. **Conviction(확신)**: 구원의 확신인 기본이요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한 부르심에 확신도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3. **Commitment(헌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쳐 헌신해야 합니다.
4. **Confidence(자신감)**: 내 안에 뭔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5. **Courage(용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6. **Consistency(일관성)**: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일관성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7. **Completion(완성):**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님이 좋은 주님의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7가지 필요한 요소 중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3장 6-35절 말씀 중심으로 다섯 번째 요소인 “Courage(용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 곁에 서서 주신 말씀 “담대하라!”(Take courage!)란 말씀 중심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접한 담대할 수 없었던 상황과 둘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바울이 접했던 첫 번째 상황은 공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큰 분쟁”이었습니다(6-10절).

이 두 그룹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던 원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바울이 전파하였던 복음의 핵심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은 공회에서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인하여 심문을 받는다고 외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습니다(7절). 나뉘는 이유는 공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믿었던 죽은 자의 부활(사후 세계)이나 또한 영적인 존재(천사나 영)을 핵심적인 교리로 인정하였지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8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9절). 교리 차이로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 사이에 다툼(dissension)이 일어났고 다툼이 번져 “크게 환화”(great uproar)가 일어났고(9절) 또한 “큰 분쟁”(great dissension)이 생겼습니다(10절). 결국 교리 차이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은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였습니다(10절).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을 박해함에 있어서 교리가 다른 이 두 그룹이 단합하여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였었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교리로 논쟁을 벌이더니 결국 큰 분쟁으로 번져 바울까지 위태로워진 사실이 말입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담대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바울이 접했던 두 번째 상황은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동맹한 사십여명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12-24절).

어느 정도로 바울을 미워하였으면 이 40명도 더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 결사대까지 조직하였을까 생각해 볼 때 바울에게는 웬지 점진적으로 더 큰 환난과 위협이 닦쳤던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담대하라”(11절)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받은 후 더 큰 위협, 즉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환난을 겪는 것인지 참으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40명이 넘는 금식 결사대원들은 “단순한 감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극단적인 경건의 표현이기 때문에 심각하였습니다(유상섭). 이락을 보십시오. 여자들까지 폭탄을 몸에 지니고 자살하면서까지 미국 군인들을 죽이려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저 미국 군인(사람)들이 싫어서 그러는 감정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경건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살인 병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바울 죽이기 금식 결사대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협조를 청하였습니다(14-15절).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하고 맹세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공회가 바울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으니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 그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단숨에 그(바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통지”했습니다(유상섭).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도움까지도 받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과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은 담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병원에 검사하러 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MRI같은 것 찍는다고 하면 혹시 내가 암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하여 한번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적어도 한번쯤은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 즉,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바울에게 임하셔서 담대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약속이 바울로 하여금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 번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도 바울이 접했던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두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고 계셨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고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으며 또한 위험해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첫 번째 상황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의 다른 점으로 인하여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위태해진 바울을 빼앗아 군영으로 바울을 옮겨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를 보호해 주셨고 또한 건져 주셨습니다(박윤선). 두 번째 상황인 40명이 넘는 바울 죽이기 금식 결사대원들의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린 조카를 통하여(16-17절) 그들의 음모를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그 음모를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호송하고자 결심하고 큰 규모의 군대를 긴급 준비시켰고(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23절) 그리고 바울이 친히 타고 갈 말까지 준비하도록 명하였습니다(24절). 그리고 그는 유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보낼 공문을 작성하도록 하여(26-30절) 두 백부장의 지휘하에 로마 군인 470명과 함께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바울을 호송하였습니다(유상섭). 이때에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에 전력하였는데(17-19, 22),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 간섭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박윤선). 보시다시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때 그 때 마다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너무나 많은 때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 왜 더 전보다 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접하게 되는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 나아가십시오.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길 기원하면서)

고소당하는 바울

[사도행전 24장 1-9절]

요즘 “고소”(sue)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 수 없이 듣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사건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소하는 소식을 접할 때 저는 가끔 고린도전서 6장 5-6절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주님의 몸 된 교회 한 지체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형제 간에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야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비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고소하게도 하지만 또한 믿는 성도를 유혹하여 교회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사탄은 교회를 갈라놓게 하기도 하고 또한 무너트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1-9절을 보면 사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을 사용하여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고소당하는 바울”이란 제목 아래 한 2가지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그리고 더들로라는 변사(변호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절을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협한 상황에서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하여 또한 바울의 어린 조카를 통하여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하도록 명하였고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한 바울은 5일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일부 장로들이 법정 대변인이 더들로라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려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벨릭스 앞에 정식으로 바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을 때 총독은 이를 수락하여 바울을 소환했습니다(2절)(박윤선). 그 때 변호사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3절). 그러나 이것은 아침에 불구한 말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총독 벨릭스의 유대 통치는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기는 커녕 오히려 많은 정치적인 불안과 소요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유대 땅에 유래 없는 최악의 혼란이 여러 방면에서 일어났습니다(유상섭). 총독 벨릭스의 집정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박윤선).

거짓말로 아침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유익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보려는 변호사 더들로를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사람의 세치 혀는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2편 2-4절에서 간사한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셀라)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간사한 혀, 그 혀로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하는 이러한 죄악 된 일들이 요즘 법정에서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살전2:5).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입은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이지만 간사하게 사용하여 아침이나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5-6절을 보면 더들로란 변호사는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한 4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박윤선):

(1) 바울이 “염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 여기서 “염병”이란 “마치 온역이나 염병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무고한 생명을 죽이 듯이 순진한 백성의 평안을 해치는 극히 해악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유상섭). 더들로의 고소는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선정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태평을 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이 있는 한, 이 땅에 평안과 안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유상섭).

(2) 바울은 “소요케 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 여기서 ‘소요케 하다’ 또는 ‘선동하다’라는 헬라어 “스타시스”는 “폭도나 과격한 무리들이 일으킨 소요를 자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더둘로는 바울을 이러한 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유상섭).

(3)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 이 말은 바울이 나사렛 인들의 이단의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두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둘로는 그 집단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유상섭).

(4)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것은 유대인 들에게 있어서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결국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한 이 4가지 내용을 보면 바울의 죄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이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범죄로 바울은 심각한 범죄자이므로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유상섭).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더둘로의 고소는 거짓입니다. 그저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저의를 가지고 거짓된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거짓 고소를 한 후 총독 벨릭스에게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7-8)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일 옳다 주장하”였습니다(9절).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아니나아와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 외에도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들 편에 서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세치의 혀로 바울을 고소하였던 더둘로, 그는 바울을 “염병”이요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하는 자라고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하였습니다. 즉, 더둘로는 바울을 인신공격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바울 개인을 공격하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5절).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인신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면 특정 인물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무차별하게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별의 별 욕설을 퍼붓는 글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들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말을 막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객관적인 논쟁을 한다고 말하기보다 감정의 복받쳐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학성, 합리성, 정확성, 엄밀성”이 좀 약하고 “감정적, 정서적, 심리적, 대중적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하였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더불로처럼 인신공격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 물증도 없이 그저 감정 속에서 상대방의 인격 등을 비방하며 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오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종교적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으셨고(눅 22:66-71) 또한 빌라도 앞에서는 바로 동일한 공회(公會)가 정치적인 죄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눅23:1-5, 13-16)(유상섭). 그 예수님처럼 바울도 종교적인 죄목과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길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거짓과 아첨을 미워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실 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나아가십시오)

바울의 변론

[사도행전 24장 10-23절]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고소당하는 바울”이란 제목 아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4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한 사실을 목상했습니다. 그 4가지 죄목이란 (1) 바울은 “염병”이라는 것(태평을 헤치는 자), (2) 바울은 “소요케 하는 자”라는 것(선동하는 자), (3)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 (4)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0-23절 말씀 중심으로 더들로 변호사에게 4가지 죄목으로 고소당한 바울이 총독 벨릭스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한 3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목상하는 가운데 과연 참된 신앙, 믿음 생활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변론은 ‘나는 염병과 소동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들로와 달리 총독에게 아침의 말을 하지 않고 유대 민족의 재판장인 총독에게 자기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였습니다(10절). 그 첫 번째 변명의 내용은 변사 더들로가 고소한 첫째 죄목과 둘째 죄목에 대한 변론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기는 염병도 아니고 소동케 하는 자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11-13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하다가 유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11절) 온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일 동안에 어떻게대 소란을 일으켜 유대의 태평을 해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유상섭).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기를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더들로나 그가 옳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또한 성중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우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총독 벨릭스에게 진술하였습니다(12절). 즉, 그는 자기를 고소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사 더들로 그리고 그들의 고소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총독 벨릭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총독에게 진술하였습니다(13절). 사실상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대변인인 더들로는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물증이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유상섭).

바울은 염병처럼 태평을 해지며 유대 성전이나 회당이나 도시(성중)를 소동케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Contagious Christian)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은 “화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16절) 우리 사람들을 서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17절).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 받아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은 사도로서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염시키는 자들이야 말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변론은 ‘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론은 변사 더들로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세 번째 죄목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그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14-15절). 여기서 바울은 유대 종교 자들과 더들로가 말하는 “이단”은 실상 이단이 아니라 “도”(the Way), 즉,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기독교임을 말하면서 자기는 그 예수님을 좇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도를 좇아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자기도 가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인의 부활의 소망, 생명의 부활을 바울은 소망하였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총독 벨릭스에게 고백하였습니다(16절).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이 이단입니다. 바울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그에게서 참된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바울의 참된 신앙생활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2) 바울의 참된 신앙생활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의 변론은 ‘나는 성전을 더럽게 하지 않았습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7-20절을 보면 바울은 변사 더들로의 네 번째 죄목인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는 주장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구제할 것과 희생 재물을 드리기 위해 올라왔다고 총독 벨릭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결코 변사 더들로가 주장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태평을 헤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유상섭). 그 증거로 바울은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유대인들이)가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18절).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변사 더들로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태평을 헤치고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면 벨릭스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송사했어야 하는데 오지 않은 것만 보아도 그들의 주장은 신비성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19절).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목상했었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었을 때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들어 갈 수 없는 성전 뜰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총독 벨릭스에게 와서 바울을 송사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참 지혜롭게 변사 더들로의 거짓된 주장을 잘 반박하여 자기 자신을 잘 변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만일 자기가 진정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증거를 진술하도록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기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 가운데 자신 있게 총독 벨릭스 앞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시다. 그는 성령님의 전인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시다.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깨끗한 삶을 살았습시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변론을 통하여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염시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특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지혜롭게 변론할 줄 알아야 함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

[사도행전 24장 24-27절]

저는 “내 아이 도덕지수 높이는 법: IQ만 좋아서는 안 된다 MQ(도덕지수)높은 아이가 성공한다”란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버트 콜스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IQ(Intelligent Quotient: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보다는 MQ(Moral Quotient: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가 성공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생 교육과 자기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10년 뒤에는 웬만한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키워준다면 영어니 악기니 운동이니 열심히 시켜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꽤 많다. 이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자신이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헌신과 참여를 끌어내는 도덕지능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지능이 높은 사람이 남을 섬길 줄알며 함께 성공하는 법을 압니다. 도덕이란 다름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세상을 바로 보는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간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학교 성적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유머가 풍부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사람 등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 눈에 띄는 위기는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옳은 일은 해야 한다는 의지의 실천입니다. 설령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나마 도덕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해치워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경우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딤후4:2).

윤리신학자 R. 니이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 삶의 도덕성일 수밖에 없다”(인터넷).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수준을 낮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4-27절을 보면 바울은 총독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24절) 복음을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할 도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이란 “의와 절제”(righteousness and self-control)입니다(25절). 여기서 “의”(righteousness)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의를 말하기보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유상섭). 도덕적인 행위란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벨릭스는 로마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모든 것을 공정하고 옳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총독 벨릭스의 양심에는 찔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벨릭스는 이와 거리가 먼 부정한 통치를 일관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로서 도덕적인 행위가 바르고 정직해야 합니다. 결코 부정과 부패를 가까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채널 7에서 이락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 뉴스 내용은 이락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는 병원을 취재한 것인데 의사를 인터뷰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의료도구나 약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병원이 이러한 것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부정, 부패라고 합니다. 즉, 이락의 그 많은 석유를 하루에 어느 정도 뽑아내서 매일 그 석유로 버는 돈이 참 크지만 정치인들 중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락 바그다드 그 유명한 병원에도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부정, 부패에는 부패한 정치 자금, 즉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두 번째로 “절제”(self-control)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절제”란 각종 욕망의 통제와 억제를 가리킵니다(유상섭).

벤자민 플랭크린, 그는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학교라고는 1년 밖에 다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교육과 마아트 목사님의 청교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철학회 창시자가 되었고, 피뢰침의 발명가가 되었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는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평생 지켰습니다. 그 덕목의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고전10:23). 성경에서는 덕의 최우선 지침을 ‘절제’로 보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 것이며, 덕을 세우는 자는 절제하는 자이며, 그는 시험에 빠지지도 않으며, 시험 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덕은 헬라 말로,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성은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는 멸망해도 덕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이 절제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총독 벨릭스는 물질에 대한 욕심(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바울을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26절). 아마도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벨릭스는 그 돈을 노리고 바울에게 접근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도덕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딤후6:10).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에 돈을 사모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버리고 돈에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돈에 관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절제에 대해서 권면한 또 다른 이유는 벨릭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에 의하면 부정, 부패한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당시 유부녀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24절)의 빼어난 미모에 홀딱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마술사 아트모스를 통해 그녀를 설득하여 남편을 버리고 자기와 결혼하게 했다고 합니다(그녀는 벨릭스에 세번째 아내라고 함). 다시 말하면, 총독 벨릭스는 성적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절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욕망도 절제해야 하며 또한 성적 욕망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관하여서도 깨끗해야 하고 또한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성적 정결함을 도모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이 성적 욕망에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스캔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이런 저런 뉴스를 접하여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웬지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서 우리 사람들의 절제력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점점 절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죄를 자기도 범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총독 벨릭스처럼 절제력을 상실하여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하였던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25절). 아마도 그는 장차있을 심판을 언급할 때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을 것입니다(17:30-31)(유상섭). 그때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25절). 왜 그는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들춰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며 또한 물질이 욕심과 성적인 욕망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충분히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했습니다(25절).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24절) 또한 복음의 합당한 생활인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과 절제 있는 삶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복음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받고 난 후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면 그는 변화 받기를 거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26절). 또한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27절).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부패한 정치가는 자기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문제지 하지 않습니다(박운선).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르게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절제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를 해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이던 성욕이던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지수(MQ)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해야 합니다.

도덕생활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모든 종류의 욕망을 절제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5장 1-22절]

우리 한국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만큼 털면 먼지가 안 나는 흠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먼지를 악착같이 털어내려는 사람 앞에서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행동을 한문으로 “취모먹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취모먹자”[吹 : 불 취, 毛 : 털 모, 覓 : 찾을 먹, 疵 : 흠 자], 즉 먼지도 일부러 털어가며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의 약점을 악착같이 찾아내려는 야박하고 가혹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취모먹자한 사람에게는 약점을 잡힐만한 것이 없다면 그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22절을 보면 참으로 청렴 결백한 사람인 바울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서 목상했듯이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바울의 허물을 들춰내고자 그를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하되(1절) 바울을 가리켜 “염병”이요, 유대인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5-6절)라고 주장하였지만 바울은 결백하였습니다. 즉, 그는 취모먹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에 관하여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증인이나 물증도 없이 그저 바울을 제거하려고 거짓된 주장을 폈으므로 결국 재판은 미뤄졌고 오히려 부정 부패하였던 총독 벨릭스는 결백한 바울을 풀어주기보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27절) 바울을 가이사랴 어느 감옥에 약 2년 동안 구류했습니다(27절). 부정 부패했던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과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도덕 생활에 대하여 권면하였던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돼 있었습니다(24:27).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2년 후 총독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란 인물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아마 장로들)에게 (25:2) 바울은 또 고소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바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그에게서 흠을 찾고자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고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끝없이 바울에게서 흠을 악착같이 찾아내서 고소하여 결국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3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목상한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약 40여명이 바울 죽이기 금식 결사 대원들도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에서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참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끈기있는 노력과 그들의 살기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을 죽이려는 대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바울을 송사하려면 하라고 말하였습니다(5절). 결국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7절).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를 했지만 그 고소들은 입증되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유상섭). 그 때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8, 10절). 바울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한 거기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 베스도도 자기가 유대 인들에게 아무 불의(잘못)를 행한 일이 없는 줄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결백은 총독 베스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을 때(13절) 총독 베스도는 아그립바 왕에게 말한 자기의 짐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 뿐이라”(18-19절). 총독 베스도도 바울이 악행의 사건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메시지로 인하여 바울을 송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송사를 당한 바울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라(11절)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결백을 담대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자기의 결백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며 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흠 잡힐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털어서 먼지를 찾아내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먼지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결백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귀에는 불가능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진공 청소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지를 흡수하여 제거해 주는 진공청소기를 생각하면서 제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제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먼지가 많은 사람이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처럼 제 자신의 결백을 담대히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진공청소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적 진공청소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치 진공청소기 안에 있는 필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먼지를 다 잘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진공청소기에 최고의 필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내 안에 죄악 된 먼지들이 다 없애 주고(사해주시고) 새롭게 해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흠이 없고 순전한 투명하고 정직하고 결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이 있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길 기원하면서)

“살려 두지 못할 사람”

[사도행전 25장 23-27절]

만일 여러분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면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 금요일(2008년7월25일) CNN.com Front page에 “‘Last lecture’ professor taught others how to live” (‘마지막 강의’ 교수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 흥미를 갖고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인 47살인 Randy Pausch라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 교수가 췌장암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약 한 달 후 2007년 9월 Carnegie Mellon 대학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강의 내용과 더불어 그의 죽음 소식을 알리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가 궁금해서 YouTube.com에 들어가서 요약한 강의 내용을 들어 보았습니다. “Really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s”(당신의 어릴 때의 꿈들을 진정으로 이루는)란 제목 아래 강의를 하었는데 그는 강의를 ‘만일 여러분이 마지막 강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 마음에 다가왔던 부분은 그가 어릴 때 갔었던 디즈니랜드를 생각하면서 그 디즈니 회사에 직장을 잡으려고 이력서를 썼는데 거절당한 후 끈기에 대한 중요성(importance of persistence)에 대한 말입니다: “The brick walls are there for a reason ... to show us how badly we want something, ... because the brick walls are there to stop the people who don't want it badly enough. They're there to stop the other people”[벽돌 담(큰 장벽)이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장벽을 넘어 무엇인가를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그 큰 장벽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 무엇인가를 그리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고자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장벽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Pausch 교수님은 어릴 때 꿈을 이루고자 디즈니회사에서 직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암이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더 유명해져서 그의 인터뷰와 특히 마지막 강의(3.2 millions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YouTube에 강의가 올려진 후 그 접속하였다고 함)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지난 주 금요일 결국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아, 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어야 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Randy Pausch 교수님처럼 ‘아 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어야 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듣게 만드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살려두서는 아니 될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다 보면 토막살인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뉴스를 읽다 보면 경찰은 죽은사람의 잘려진 시신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찾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저렇게 죽일까 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진짜 살려 두서는 아니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생사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저리도 비참하게 죽이는 뉴스를 접할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23-27절을 보면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하였지만 바울은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던 사람입니다(11절). 그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8 절). 그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 모든 무리에게 살려 두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 하자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사형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형당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자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또한 2년 후 벨릭스에 후임자인 총독 베스도에게 그를 고소하였고 또한 암살 결사대까지 조직하여 재판 절차 없이도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유상섭).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점과 달리 총독 벨릭스나 그의 후임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사형당할 정도로 범죄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24:22, 25:25). 특히 총독 베스도는 유대 왕인 아그립바에게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라고까지 증언하였습니다(25절). 총독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므로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심문한 결과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함으로써 그에게 보내기 앞서 로마법에 상소할 죄목이 없이 바울을 가이사 황제에게 보낼 수 없기에 총독 베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 왕인 아그립바와 가이사라 지방 고위 관료들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25-27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바울을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쳐 되고 또 다른 한쪽인 총독 베스도는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느쪽이 맞습니까? 물론 총독 베스도 쪽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사형당할만한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살려 두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전 수원지법이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 우예슬 양과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39살)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또 다시 사형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21명을 토막살인한 유영철의 인권을 따져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인권이 없는 나라”라며 “조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논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현재 한국은 약60명 사형수들이 있다고 함). 2008년 3월21일 SBS '김어준의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2.2%에 그쳤고 '존속되어야 한다' 57.0%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안양 초등학생들 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사형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나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 중 2006년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에 보낸 기고문을 보면 이러한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의 경우 집행되고 나면 그 잘못을 시정할 길이 없다. ... 우리는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인혁당 사건 등 과거 한국에서 자행된 ‘사법살인’을 예로 들어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재자들이 민주주의 주창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몰아내는 수단으로 사형제를 잘못 사용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 한국에서는 인혁당의 감담자들이 잘못 기소된 뒤 사형됐고, 나조차도 사형 언도를 받고 거의 사형에 처할 뻔했다”(인터넷).

저는 여기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을 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23-27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쳐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다니고 있었던 바울은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그는 사형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까? 사형수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낙인 찍힌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도 고소를 당하셨을 때 빌라도는 온 유대 무리들이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눅23:14). 그는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라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18-19절)라고 외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21, 23절)라고 재촉하였을 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22절) 빌라도는 유대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민란과 살인을 한 바라 바가 사형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서는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만에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saving faith)으로만 가능합니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영원히 살려두지 못할 죄인,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증거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23절]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본 웨퍼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일생 동안 투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이러한 설교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결국 본 웨퍼는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 환상 중에 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 히틀러는 그 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히틀러가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라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본 웨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인터넷).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동의하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이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니까 “전도란 목말라 허덕이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고 필연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글의 저자는 “전도는 영혼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소중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23절을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아그립바 2세와 그 여동생 버니게와 고위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22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고 낮은 사람에서 증거한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23절). 즉,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왕 아그립바 2세와 그 여동생 버니게와 고위 관리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그들 앞에서 서서 심문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고(6절)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유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인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인하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유상섭).

여러분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고전15:12). 즉,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 중 특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어떠한 결론이 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13절). 그리고 바울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말하였는데 그 결론은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14절), 우리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며(15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죽은 자)도 망하였고(18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자라는 것입니다(19절).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신 후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그의 증거를 듣고 있었던 아르립바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고위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우리(유대인의)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5절)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9-12절). 실제로 사울(바울)은 초대 교인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신성한 사명으로 간주했었습니다(9절).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투옥시키고(10절),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11절)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도록

과격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10절)(유상섭). 그러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 바울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유상섭). 거기서 바울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중생) 주님께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13-18절).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16절).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사(17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18절).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사환과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였습니다(20절).

오늘 본문 말씀 중 흥미로운 말씀은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입니다. 이 말씀 중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는 말씀은 로마인과 헬라인에게 잘 알려진 속담입니다. 이는 신들이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일깨워 주는 경구입니다. 짐승들이 가시채를 뒷발로 차면 상처만 남듯이 신들이 정해진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깨우쳐 주는 표현입니다(유상섭).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바울)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사울(바울)은 주님이 정해주신 뜻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치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신적 사명으로 여겼었는데(9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잘못된 신적 사명을 가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적 사명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1:8). 예수님의 증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신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

[사도행전 26장 24-32절]

여러분은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시기 전 거울을 보셨습니까? 독일의 어느 백화점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고객들의 불평 때문에 최신형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 청소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아주 크고 좋은 거울을 설치하면 불평이 없어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백화점은 곧바로 커다란 거울을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했다. 놀랍게도 고객들의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는 동안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사실을 잊게 된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지 그렇게 살기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즉, 신속히 흘러가는 세월, 우리는 한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가수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가 생각납니다. 왜 민들레에 일편단심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색 깔보다 뿌리 때문이라 합니다. 즉, 뿌리가 곧게 내리 뻗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뻗은 실뿌리는 아주 빈약해 있으나마나 하지만 중심뿌리 하나는 굵고 곧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에만 절개를 지킨다는 의미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잡초처럼 자라 꽃을 피우는 민들레지만 일편단심 정절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우리네 인간보다 훨씬 나은 모습은 아닐까?”(인터넷). 적어도 정절을 지킨다는 일편단심 민들레,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에만 절개를 지킨다는 민들레, 그러나 웬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가지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32절 중 특히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변명”(24절)을 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원하였던 것은 바로 “결박한 것 외에는” 다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들은 베스도 총독과 그의 여동생 베니게, 그리고 아그립바 왕과 고위 관리들 모두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이유는 바울의 간증을 이미 들었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립바 왕 등 다 바울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독 베스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24절).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바울이 변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신앙)가 미친 사상이라고 외쳤습니다(박윤선). 베스도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로마인과 헬라인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하여이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간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했다는 것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이 뻔합니다(유상섭). 이 때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25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 즉 “진리와 신중함의 말들을 하나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자기의 변명을 배척하지 말고 신중한 생각으로 받아 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유상섭).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시선을 돌려 담대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을 왕도 알고 있음을 승인할 것은 권면하였습니다(26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서 아그립바 왕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27절). 그 이유는 아그립바 왕의 조부인 대 헤롯 왕 때부터 큰 화제 거리가 되어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기에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하나이다”(27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 아그립바 왕의 반응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였습니다(28절). 베스도 총독처럼 아그립바 왕 또한 바울의 복음 증거에 냉담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아그립바 왕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박윤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도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행 11:26)이라는 별명을 붙여 조롱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존귀한 명칭이라기보다 조롱이 섞힌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그리스도인”이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명칭인데 요즘은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개독교”이라고 불리며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보고서인 “나쁜 그리스도인”(원제: Unchristian)이란 책이 습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 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 조사'라는 논쟁적 연구 보고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본 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극존칭을 한 것인데 이제는 이러한 극존칭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원인에 대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 살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에 암초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암초를 만든 사람들은 신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미지근한 회색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안일하며 전도라는 목적에만 열을 올리고, 동성애자를 지나치게 혐오하고 정치적이며 타인을 판단만 하는 자기 살핌이 없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란 존칭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사람이 아니라 목표물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본다. … (또한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태도나 관점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인터넷). 교회의 외적 성장과 늘어난 성도수가 외적인 영향력을 가졌지만 이미지가 내려가 내적인 영향력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이미지가 신뢰, 호감, 감동 보다는 위선자, 판단자, 말쟁이로만 비쳐지는 사태가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영광스러운 명칭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모든 사람이 다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원함이 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조차도 극복하면서 담대 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순종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사도행전 27장 1-26절]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은 자신의 감옥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본 어게인(Born Again)’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죄수들 사이에 세 가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종류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치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역시 가망이 없는 죄수들로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셋째 종류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령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관주의 자들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한 고로(26:32) 사슬에 매인채 이탈리아 로마로 배 타고 행선하던 중(27:1) 큰 풍랑을 만나(14, 20절) 타고 있던 배가 파선의 위기에 놓여있었을 때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37절) 중 딱 한 사람 바울 외에 나머지 275명은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보고 삶을 포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때 다 소망 없이 삶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와중에 바울은 구원의 소망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외에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22-26절).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바울 외에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275명은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 외에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이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보고 삶을 포기한 이유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크신 창조주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큰 풍랑”(20절)을 바라보았기에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고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위를 걸었던 사도 베드로로 예수님보다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을 때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마14:29-31). 왜 이러한 “큰 풍랑”을 바울과 나머지 275명은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일에 총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1절)이 항해를 만류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11, 21절). 바울의 권면은 배가 미항이란 곳에 도착하여 거기서 뵈닉스에 있는 항구로 향함에 있어서 행선하기가 위태하므로(9절) 백부장 율리오에게 권하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10절)하였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11절). 상식적으로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배의 주인인 선주의 말을 들겠습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입니까? 이 때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보다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눅5:4) 비록 고기잡이 전문가들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순종하였을 때(5절)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뵈닉스 항구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13절). 그 이유는 그 순한 남풍은 항해를 도와 순적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유상섭). 그러나 그들이 많이 못 가서이 남풍은 모든 바람 중 가장 두려운 살인적인 북동풍 (“유라굴로”)으로 바뀌었습니다(유상섭). 그 결과 배는 폭풍이 밀고 가는대로 이리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15절). 결국 바울의 말에 불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큰 위협을 받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와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심히 애썼습니다(18절).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기도 하였고(18절) 나중엔 배의 기구까지도 내어 버렸습니다(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그래도 있으매”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20절). 이렇게 큰 풍랑 앞에서 사람의 노력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연의 큰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 다 내려 놓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그들이 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알고 그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찬송가 462장 2절과 3절이 생각납니다: (2절)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 저어 향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녘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후렴) “나 두렵없네 두렵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가 “이 흥흥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끊이지 않아 보이는 큰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부딪칠 때 그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큰 풍랑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뉴스에 연예인 안 모씨가 40억 빚 독촉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큰 풍랑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며 자살까지 하는 것일까요? 삶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닥 붙잡을 만한 소망도 없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사람들은 소망 없이는 못 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었는가?’입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24절을 보십시오: “나의 속한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이 없이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275명 중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울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그의 뜻이기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해있는 바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나머지 275명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절망 속에 있었던 나머지 275명에게 “이제는 안심하라”(22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25절)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25절). 큰 위기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절망 중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위기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죽음의 문 앞에서 바울만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였던 남은 275명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요나와 대조적입니까? 불순종한 요나는 그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위험에 빠진 반면 순종하는 바울은 불순종한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선주로 인하여 위험에 빠진 275명을 건지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의 3절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후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그 날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성취하고 계시고 또한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무리 소망없어 보여도, 절망 적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란 “고통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곧 죄에 대해 고통하고 죄에 대해 죽은 그 자리를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통과 아픔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비록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면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25절]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위기를 접할 때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위기가 온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원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위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위기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낙망과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위기의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25절 문맥을 보면 우리는 위기를 만난 바울과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275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온 원인은 바로 바울을 이달리야로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1절) 바울의 말보다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11절). 여기서 바울의 말은 “간신히”(7, 8절) 배가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르러(8절) 행선하기가 위태하므로(9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10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행선하였습니다(12절). 그리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과 선주나 선장은 처음엔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자신들이 득의한 줄 알았습니다(13절). 즉,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 선장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해서(14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 가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15절). 이 위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17절) 나중에 가서는 구원의 소망도 다 없어졌습니다(20절). 그 와중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고 권하였습니다(22절).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24절). 즉,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전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제 자신의 음성이나 상황에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기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 고통당하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가 접한 상황으로 하여금 제 마음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의사를 통하여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아니면 빨리 죽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첫째 아기 주영이의 55일의 삶보다 나으므로 저나 아내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저희 부부는 그 날 아침 병원으로 가서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형 부부와 여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아기에게 연결된 모든 기계들을 다 끊은 후 아기는 제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후 아기를 화장한 후 아기의 뼈 가루를 호수에 뿌리고 나서 육지로 돌아오면서 “My Savior’s Love”(나의 구원자의 사랑)를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린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위기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접할 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55일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주영이에게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저에게 하루는 아내가 우리가 너무 “self-absorbed”(자기 몰두)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해 줘서 알았습니다. 그 때 저희 넷째 삼촌과 막내 삼촌이 하시던 봉채 공장 사업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저는 제 첫째 아기에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명은 회사가 부도날 상황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요 미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접한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타고 있던 배가 파선되어 자기와 더불어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37절)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함께 하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분도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22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25절)고 권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25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24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는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안심하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용기를 분도다 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웃 사랑 계명에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마지막 셋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34절). 그리고 그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gave thanks to God)하고 떡을 떼어먹기를 시작했을 때(35절) 다른 사람들도 다 안 심하고 떡을 받아먹었습니다(36절).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현실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즉,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용기를 분도다 줘야합니다. 특히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조차도 사용하시사 함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뤄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분명히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인생의 위기를 만나 사랑하는 사춘 동생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위하는 것”

[사도행전 27장 27-44절 말씀 묵상]

이번 주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에 굶직굶직한 회사들인 리먼 브라더스, 델타 에어라인, 텍사코, 월드컴 등 약 15개 회사들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직원 6만6,000명인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의 파산 가능 설이 나돌더니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구제금융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 생존 방안(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방법)을 모색하는 투자은행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한 한국 일보 “이철”씨의 칼럼을 읽으면서 “투자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문제 원인은 투자은행들이 “간 덩어리가 커져 겁도 없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투자까지 손댔다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이 일어나자 이 모양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철씨는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경영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수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중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온 글이 있어 나눕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추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윤을 극대화시키다 보면 욕심에 눈이 멀어 리스크 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이 작동하지 않는다”(한국일보). 욕심에 눈이 멀다 보면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에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면 그만큼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결국 욕심이란 것이 눈을 멀게 하므로 수준 높게 잘 작동해야 할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파산 보호 신청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합병 등 생존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는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경제가 힘든 이 때 어떻게 사업을 계속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지속 생존 경영의 키워드 8가지”란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100년 후에도 꾸준히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핵심 키워드를 한 8가지로 요약하였는데 그중에 한 4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1) “한 우물 경영”:

강소기업이 되려면 그 업계에서 ‘으뜸’이라 일컬을 만한 ‘기술 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술력을 축적하려면 부단히 한 우물을 파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 “집중 경영”:

위기의 강한 기업들은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경영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야”란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장잘할 수 있는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신뢰 경영”:

미래학자 존 나이스 빗은 한국 경제에게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가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생산자를 알려주는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믿음과 감성을 줄 수 있는 트러스트 마크(trust mark)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4) “본질 경영”: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원칙부재로 인한 갈등과혼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경제의 뿌리인 기본에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원리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34절을 보면 성경은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풍랑”(20절)으로 인하여 타고 있었던 배가 파선될 위기에 놓였을 때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아무리 해도 구원의 소망이 안보이던 275 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생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생존 비결(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목상하면서 그 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충분히 살아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살아남기 위해선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살아남는 방법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33-34절을 보면 바울은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두 번이나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34절)고 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배가 파선당하여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선 음식을 먹으라는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한 이유는 그 모든 275명의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 구원의 여망, 즉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졌기에 그 후로는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20-21절). 오늘 본문 27절에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들은 태풍이 시작한 날부터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유상섭). 결국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소망이 없어진 가운데 14일 동안이나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33절). 결코 배 안에 음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배가 큰 풍랑을 만나 파선될 위험에 놓여있었기에 짐도 버리고(18절) 배의 기구도 바다에 내어 버렸지만(19절) 결코 식량까지 바다에 내어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남은 275명의 사람들도 떡을먹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주일 오후 성경공부 시간에 제1 남. 여전도회 반에서는 성경공부 후 건강에 대해서 종종 대화를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은 어찌면 제2 남. 여전도회원 성도님들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 여기 저기 아프고 쭈신 데가 많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관하여 더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계신 분들이기에 건강관리에 그 만큼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엔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관하여서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고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에 관하여 이러한 청지기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 안하고 너무나 해이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므로 결국은 이런 저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로병사”란 말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가므로 몸이 쇠약 해져서 병이 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비록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청지기 정신으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쓰임 받기 위하여 잘 관리해야 지'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관리의 삼박자'라고 부릅니다. 즉,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는 것)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은이 세 가지 책임을 청지기 정신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혹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나 운동이나 피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몸을 무리하도록 사용하여 과로나 피곤에 쌓여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위하여 청지기로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첫 번째 생존 비결입니다.

둘째로, 살아남기 위해선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살아남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약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므로(35절) 자기들도 다 안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떡을 떼어먹는 모습을 봅니다(유상섭).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음이 불안했으면 14일 기간 동안 살수 있다는 소망조차도 없이 식사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밥을 앞에도 놓고도 식욕을 잃어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식욕을 되찾기 위해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에 평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외에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등등도 식욕을 잃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더욱더 식욕을 잃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과연 바울은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소망이 없이 식욕도 전폐하고 있었던 나머지 275명을 “안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23-25절).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며 또한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안심하라고 위로하며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과연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찬송 가 470장 1절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큰 풍량이 몰아치는 삶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평안을 누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큰 풍랑 가운데 잔잔하며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분주한 생활 속에서 특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되 우리 모두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셋째로, 살아남기 위해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했듯이 바울과 다른 죄인들을 이달리아로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므로 결국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잘 듣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27절) 암초에 걸릴까 봐 두려워 도망하려던 사공들을 보면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31절)고 하였을 때 군사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즉 시작은 배에 연결된 줄을 끊어 버렸습니다(32절)(유상섭). 이것은 군사들에게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배에 연결된 줄을 끊어 버렸다 것은 사공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려던 사공들, 그들을 바울의 말대로 배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배에 연결된 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함께 살던지 함께 죽자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함께 살것이라고 확신있게 말씀해 주었기에 이 로마 군사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유상섭). 여러분 보십시오. 불순종하던 백부장 율리오가 큰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파선될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고난과 삶의 위기를 통하여 불순종하던 백부장 율리오가 순종하는 자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구원하려고) 군사들로 하여금 배에 타고 있었던 죄수 들을 죽이지 못하게까지 합니다(43절). 결국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고(구원해주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육지로 헤엄쳐 가게하고(43절)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 육지가 나아가게 하였습니다(44절). 그 결과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이 다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44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있던 모든 사람들(백부장 율리오, 군인들, 선장과 선주, 누가와 아리스다고 및 모든 죄수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24절, 44절).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생존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삶을 충분히 살아가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육 간에 건강과 마음의 평안 및 순종의 삶을 추구하면서)

피난처

[사도행전 28장 1-10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1-2절을 보면 “아들람 굴”이란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람'이란 '피난처', '보호처'란 뜻입니다. 이 아들람 굴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여 가드란 곳으로 피신 갔다가 가드 왕 아기스도 심히 두려워하여 피신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들람 굴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부친과 형제와 모든 집안 사람들도 그 곳으로 내려갔습니다(1절). 이는 한 사람이 반역에 걸리면 모든 식구들이 처형을받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난 당한사람들과 빛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으며,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2절). 최근에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탐사하던 중에 아들람 성의 한 산 중턱에서 약 400명 정도가 살기에 적합한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Conder, Robinson). '환난 당한 자'는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며, "빛진 자"는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정이나 채주의 강압적인 고리대금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며,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울 왕국의 비도덕적이고, 불경한 행동을 인해 심적,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 중에는 많은 용사들과 선지자, 그리고 지사들이 있었습니다(5, 대상 12:1-18).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타락하고 쇠퇴해가던 사울 왕국에서 침묵하고 안주하기보다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자로 부름 받은 다윗과 더불어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여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아들람 굴에 모여든 빛지고 원통하고 한 많은 다윗의 400 용사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 영혼이 치유되어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이들과 83년 UBF 유학생 선교사로 독일 땅을 밟은 한 선교사님 권영선 씨(레베카 권)는 한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개혁의 꿈을 꾸면서 “아들람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글

내용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개혁은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아닌 항상 현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조직의 형태를 바꾼다고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식, 무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인터넷). 우리 각자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할 것이고 교회가 변해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10절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점검해 보면서 비성경적인 생각이 있다면 버리고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을 보면 태풍으로 인하여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과 나머지 275명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인해 배에 승선했던 276명 전원이 살아남아서 “멜리테”(몰타)란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멜리테”(몰타)란 섬은시실리(Sicilia) 섬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서 “멜리테”란 섬 이름은 “피난처”란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박운선). 여기서 바울과 나머지 275명은 섬 원주민들로부터 지극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모든 276명의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극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및 배에 타고 있던 275명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멜리테 섬에서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과연 피난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피난처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피난처에는 열린 마음의 영접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이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후(1절) 도착한 멜리테란 섬에서 토인들, 즉 헬라어가 아닌 그들만의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영접을 받았습니다(유상섭).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절을 보십시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멜리테 섬의 토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든 로마 군인들이던 또한 부자였을 선장과 선주이던 또한 나머지 죄수들 이던 “다 영접”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피난처의 모습입니까? 구분과 차별을 하면서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 안하고가 아니라 모두 다 영접하는 이 토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원망하였습니다(눅15:2).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인들을 차별화하였고 비판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악 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화하고 비판하고 등등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이들을

낮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영적 우월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를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를 비판하여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므로 “멜리데” 섬과 같은 피난처가 돼야 합니다. 히스패닉 사역의 사람들이던 영어사역에 사람들이던 한국어 사역의 사람들이던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여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우리 공동체, 남자던 여자든,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들이던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며 노력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피난처에는 특별한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멜리데 섬에 사는 토인들뿐만 아니라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되 3일간 친절하게 접대하였습니다. 멜리데 섬에 제일 높은 보블리오란 사람은 3일 동안이나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여 친절히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276명 다 보블리오 집에 유숙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라 함은 적어도 바울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분명히 보블리오 집에 거했지만 그 외에 또 누가 그의 집에 유숙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 문을 열고 모르는 사람들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3일이나 유숙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영접하되 자기 집까지 들여 3일 동안 유숙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는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친절을 온유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사랑은 온유하고”(고전 13:4)].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온유 곧 친절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친절에 대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 헤치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인터넷). 이러한 친절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비난을 없애며 얽힌 것을 풀어 헤치며 서로의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드는 친절, 암담한 것조차 즐거움으로 바꾸는 친절이 우리 교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피난처가 돼야 합니다. 차별 없는 영접과 더불어 친절한 대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딤후1:8). 특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모르는 분들을 마음 문을 열고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절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 분들로 하여금 환영 받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운 피난처-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피난처에는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이적과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한 가지 이적이란 벨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3절) 죽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5절). 벨리데 섬의 토인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처음엔 살인한 자로 여겼었지만 (4절) 나중에 바울이 독사를 그냥 불에 떨어 버리면서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신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지난 14일 동안 태풍 가운데서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유상섭).

여기서 한 가지 피난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란 피난처에는 아무 상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5절).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요즘 교회 안에서 상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등 온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보다 욕심 가운데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처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의 부친을 치유하였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었는데 바울이 안수 기도하여 치유하였습니다(8절). 그 결과 그 사실을 알고 온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다 치유하였습니다(9절).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피난처가 돼야 하는지 그 교훈을 호세아 6장 1절에 받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피난처인 교회 안에서는 낫게 하는 사역, 싸매어 주는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남의 과거나 상처를 파헤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싸땀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벌리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치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 찢겨진 마음

등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58장 1절과 후렴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에 우리 맘이 평안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 십자가의 벌리신 팔에 안기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접, 친절, 치유가 있는 우리 공동체를 꿈꾸면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관계

[사도행전 28장 11-15절]

지난 주 수요일(10월1일), 고국 한국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국민 탤런트라는 최진실씨의 자살 소식을 듣고 다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톱 탤런트로서 정상을 지켰다는 고인의 죽음 소식은 그녀를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인하여 한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충격 속에 잠긴 것 같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염려되었던 모방 자살이 3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 최진실을 모방해 압박봉대로 목을 맨 자살 사건이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었던 박모(55, 여)씨와 강원 강릉시에서 살고 있었던 이모(30, 여)씨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한나랑 당 한 의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가 국민의 자살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살 예방법안 뿐만 아니라 ‘최진실법’ 도입을 거론하며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법은 고 최진실씨가 인터넷 악플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근거 없는 모욕과 악플을 처벌하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이러한 고국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게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살”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과 요즘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악플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할때 오래 전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와서 자신의 사촌 형이 자살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가요, 아니면 지옥가요?’라는 식이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 노회한 어르신 목사님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교회 안에 자살한 성도가 있으면 목회를 실패한 것이라고 한두 번 정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9월 노회 때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때 그 형제에게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앗아 가는 행동은 죄’라는 것입니다. 생사 회복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자살” 외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악플”이란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 된 일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고 최진실씨가 죽었어도 인터넷 상에는 입에 담지 못할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글들을 올리고 있는지 저는 아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한 연예인의 자살에는 이러한 악플들의 책임도 있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3가지 “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플, 악성루머, 악한 마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어서 소문을 내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악한 소문(악성루머)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인터넷에다가 악플을 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악성 루머를 악플로 인해 수많은사람들에 순식간에 전하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한 마음 또한 악한 의도로 악성 루머(소문)를 퍼트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싸우는 교회, 그래서 법정까지 가는 교회들을 보면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하여 교회가 뒤숭숭하다가 결국은 이런 저런 일들로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하던 것이 부풀어져서 별의 별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악성루머에 시달리다가 사모님까지 병이 들고 그러다가 결국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는 경우도 기독교 뉴스에서 접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하기가 부교역자들도 자기들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근래에 보고 참으로 이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하기가 이렇게 힘들 정도로 되어버렸는가 하는 회의도 듭니다.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상처를 준다면 과연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1-15절을 묵상하다가 과연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난처’란 뜻을 가진 멜리테란 섬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3개월을 지낸 후 알렉산드리아란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로마를 향하는 중 “보디올”이란 곳에 이르러 바울이

한 7일 동안 그곳 형제들과 교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 압비오 저자와 삼관이란 곳에서 기독교신자들을 만나 교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를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은 교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므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교역자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교역자들의 말씀 순종하기,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어떻게 위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교역자들을 진심으로 환영(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4절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는 이탈리아 남부의 주요 항구인 보디올이란 곳에 배가 한 7일간 머물러 있었을 때 그곳에 거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유숙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 했습니다(유상섭). 이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를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안식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보디올이란 곳에 사는 기독교 신자들이 마음과 집을 열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를 초청하여 집에 유숙하게 하고 이 모양저 모양으로 대접했을 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교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게리 채프먼(Gary Chapman) 박사가 쓴 “사랑의 언어 5가지”(The Five Love Language)란 책을 보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채워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인정에 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인 접촉, 봉사. 사랑의 언어가 틀릴 경우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흠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보디올이란 곳에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랑의 영접과 대접을 받은 후 보디올(로마에서 약 122마일)에서 한 80마일 떨어진 “압비오”란 곳(로마에서 한 40마일)과 “압비오”를 지나서 여행자들을 접대하는 여관이 많은 지방인 “삼관”(박윤선)에 도착했습니다(15절). 그 때에 바울은 로마에서부터 자기를 만나러 온 기독교신자들로 인하여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약 40마일이나 먼 곳까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를

만나 러 왔습니다. 이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15절).

그러면 교역자들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어때야 합니까? 2 가지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 (1) 교역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누가(“우리”)는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온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사례”, 즉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떡을 떤 바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행선하였던 로마 백부장 율리오로 인하여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275명의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을 때도 바울은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떤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떡을 받아먹었습니다(27:35-36).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교역자들은 불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위로하던 안하던 교역자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므로(받으므로)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모님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역자 부부들은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의 만남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 (2) 교역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역자들은 자신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며 위로해 주는 성도님들을 만남으로 담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박윤선). 만일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보다 그 성도님들로 인하여 교역자들이 힘 빠지며 낙심하게 된다면 이러한 만남은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약 3년 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편지)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1-12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의 반가운 만남

가운데 서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고 편지를 썼었던 사도 바울은 약 40마일이 되는 먼 거리까지 바울을 만나러 온 로마 기독교 신자들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힘과 용기를 성도님들에게 얻기 위해선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성도님들에게 묵상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서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보디올과 로마의 기독교신자들과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교역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과 용기(담대함)를 얻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므로 말미암아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위로와 담대함을 얻으면서)

죽일 죄목이 없는 죄수

[사도행전 28:16-22]

1990년, 미식축구 선수이자 영화배우이며 국민 영웅이었던 O. J. 심슨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당시 그의 죄목은 ‘전처와 그 애인 살해’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현장에서 채취한 DNA로서 심슨의 것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DNA가 일치할 확률은 1만분의 1이기에 검사는 심슨이 99.99퍼센트 살인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인구 300만 명 중에 300명이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심슨이 살인자라는 결론은 99.7퍼센트 오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때 심슨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3년 만에 O. J. 심슨은 무장 강도와 납치를 포함한 12가지 죄목으로 배심원들로부터 종신형 평결을 받았습니다. 심슨은 지난해 9월 총기로 무장한 동료 5명과 함께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방에 무단침입, 스포츠기념품 거래상 2명을 위협한 뒤 수천 달러 상당의 기념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최소 1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아 심슨은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의 전처인 니콜 브라운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공의가 행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최악 된 세상의 공의가 얼마나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의심이 듭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거짓을 진리인 듯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강간과 살인, 방화 등 악질 범으로 유죄로 인정돼 철창에 기대어 하루하루 인생을 보내는 죄수들에게 과학적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 프로젝트(Innocent Project)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992년 뉴욕시의 여쉬바대(Yeshiva University) 법학과를 중심으로 공익 법률 시민단체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뿌리 깊은 인종 차별,

목적담에 의존한 기소, 검증 없이 채택한 위증, 허위 자백, 부실한 감식법 등에 의해 자유를 강탈당한 미국 시민이 1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석방된 210명에 이어 끊임없이 '무고한 기결수'들이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15명의 사형수를 포함한 이들 210명은 평균 12년, 총 2569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6-22절을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사슬에 매인 소이 말하는 '죽일 죄목이 없는 죄수'인 바울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것처럼 바울은 압비오 저자와 삼관에서 형제들(기독교 신자들)에게 영접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28:14-15). 그런 후 바울은 드디어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합니다(16절). 오늘 본문 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지 3일 후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것에 관하여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7-18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죄수로 내어 준 바 되었”습니다(17절), “(나에겐) 죽일 죄목이 없”습니다(18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준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유다)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슬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유상섭).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한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21:21). 즉,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였고 또한 그것을 이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성전에서 보고 그를 붙잡고 무리들을 충동하되 이렇게 외쳤습니다: “...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성전)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21:28).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악성루머(31절)로 사람들을 충동하여 결국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30절).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36절). 결국 바울은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바 되어 심문을 받았습니다(28:18).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은 로마 군대 천부장의 지시에 따라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면서까지 심문을 받았습니다(22:24). 그 때 천부 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23:26) 바울을 심문한 결과를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결과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23:29). 나중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송사에 대해서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25:19) 고 말하면서 자기가 살펴본 결과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25절)고 말 하였습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 들도 “이 사람(바울) 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26:31). 한 마디로 말한다면, 아그립바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나 다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어나 다 바울이 무죄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바울을 놓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결국 바울은 마지못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28:19).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6-2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바울은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17절) 그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죽일 죄목이 없는 자인 바울을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내어 준 것입니까? 그 원인을 바울은 오늘 본문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이란 이미 유대 법정과 총독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제시했던 내용처럼(23:6, 24:15, 26:6-7)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소망인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바 된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죄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실현된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영생(천국)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하므로죄사슬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박윤선).

과연 바울처럼 최고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일 죄목이 됩니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죽일 죄목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므로 영원한 생명(천국)을 얻는다는 최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왜 죽일 죄목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일 죄목이 없는 죄수인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죽일 죄목이 없으신 분이신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유대인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 14-20절을보면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고(14절) 결코 “저희 행한 것이 죽일 일”이 하나도 없으므로(15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16, 20절) 유대인 무리들은 오히려 바라바라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19절)를 놓아 달라고 요청하고 아무 죽일 죄목이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21절)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죽일 죄목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영생)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일 죄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히려 죽일 죄목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6:23).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일 죄목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영원히 죽일 죄목이 있는 죄수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도행전 16 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로 우리 집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죄목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

[사도행전 28장 23-31절]

2008년 4월 3일, 한국선교연구원(원장 문상철 박사, 이하 KRIM)이 선교강좌 모임인 오로라 클럽에서 ‘최근 자료로 보는 세계 기독교와 선교현황’을 주제로 50가지 세계 선교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매일 1만6천5백여 명의 개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4천3백40개 선교 단체 45만3천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문인 선교사는 21만 명, 1년 이하의 단기 선교사역자들은 41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인터넷). 한국선교연구원은 이날 세계선교의 흐름 가운데 아주 좋은 현상을 이 천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800년대 2억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 인구가 2000년 20억 명으로 확산되면서 미전도 종족의 비율이 감소(1800년대 76.4%→2000년 28.3%)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증가(1900년대 7천만→2000년 2억2천만)하고 있는 것 등을 좋은 상황으로 꼽았다”(인터넷). 세계종교인구에 대해서는 IBMR(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자료를 인용해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를 포함한 세계 4대 종교 신도가 1900년에는 세계인구의 67%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현재 73% 가량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2050년에는 세계인구의 80%, 2200년에는 87%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의 선교가 없이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나 교회는 최선을 다해 선교에 모든 힘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도록 땅 끝까지의 복음 전파가 필요한 적극적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선교에 모든 힘을 바쳐

헌신하였던 바울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죄목이 없는 죄수인 사도 바울, 로마에 끌려와서 2년 동안 자유스럽게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30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때 바울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31절). 이 말씀은 바울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였다는 말입니다(23절). 항상 그리했듯이 그는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즉, 바울의 전도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었습니다(박운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청중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바울 앞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25절, 유상섭).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 오늘 본문 26-27절 말씀에서 이사야 6장 9-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설명)하였습니다: “...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 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26-27절).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다? 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불신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해진 마음과 둔해진 귀와 감겨진 눈 때문입니다(유상섭).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둔해지며 눈이 감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14:2)의 마음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그 복음을 거부(거절)하며 더 나아가서 그 복음과 복음 전파자를 대적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28절). 이 이방인들은 불순종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유대인들 청중에게 말하였습니다(28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전파 될 것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즉, 복음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첫 장에서 목상한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인 1장 8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과 온 유대는 베드로, 사마리아는 빌립, 땅 끝까지는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확산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확산 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은 오늘 본문으로 종결되지만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복음의 지속적인 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계속 복음을 확산케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유상섭). 이 복음의 확산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비록 불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였었지만 결코 성령님의 복음의 확산 역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악성루머를 퍼트려 사람들을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복음의 확산 역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충만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 확산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결론

복음의 확산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의 확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 끝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관대 능히 주님을 막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흥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믿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관계가 주님 중심적인 관계가 돼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여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사역과 더불어 위로 사역이 병행돼야 합니다.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